

국립국어원 2023-01-12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28-000945-01

# 2022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 책임자 | 김창영



국립국어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 '2022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22년 8월 ~ 2023년 3월

2023년 3월 28일

연구 책임자: 김창영((주)케이스탯리서치)

연구 기관: (주)케이스탯리서치

연구 책임자: 김창영 전무

연구원: 이은빈 수석연구원

노혜정 책임연구원

이희정 연구원

공동 연구원: 조태린(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우봉(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성건(성신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김수영(한신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신유리(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보조 연구원: 주영환(연세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과정)





## 2022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

‘2022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는 세대, 성별, 지역, 계층 등 사회적 변인에 따른 국어 사용 양상을 조사할 목적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69세 이하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조사 방법을 활용해 수행하였다.

본 조사는 설문 및 표본설계, 예비조사 진행, 실사준비 및 진행, 자료처리 및 분석, 보고서 작성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은 어휘, 문법, 담화, 음운 총 8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의 국어 사용 실태를 살펴보고 국어의 변화 방향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적절한 국어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2022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의 주요 시사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 ◎ 시사점

#### <표준형의 확산>

- ◆ 기존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표준어화가 상당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응답자의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지역어형의 사용이 감소하고 표준어의 사용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사회적 변인의 영향력 증가>

- ◆ 지역적 변인에 의한 언어 변이(지역 방언)는 표준형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사회적 변인에 의한 언어 변이(사회 방언)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임.

#### <익숙해진 외래어의 정착>

- ◆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어 익숙해진 외래어는 기존의 고유어나 한자어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 일부 외래어는 전체 응답에서는 고유어나 한자어보다 적게 사용되지만, 20~30대 젊은 층에서는 고유어나 한자어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향후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 <줄임말의 사용 양상>

- ◆ 줄임말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지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응답 표현의 세대 차이>

- ◆ 타인의 칭찬에 대한 응답 표현으로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감사 유형’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 유형’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감사 유형’의 응답 표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 제언

#### <응답자 표본 설계의 재검토>

- ◆ 현재의 표본수(2,000명)은 지역별 사회적 변인에 의한 통계적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임. 따라서 현재 표본 수가 적은 모든 지역을 돌아가며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여 해당 지역의 응답자 표본 수를 축적하거나 다음 조사부터 전체 응답자 표본 수를 5,000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조사 항목 선정 기준의 보완 및 재고>

- ◆ 이미 표준어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역은 다른 어휘들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역에 따라 어휘 조사 항목을 일부 다르게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언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 조사자가 수행하고 대규모 양적 접근을 취하는 실태 조사에서는 녹취 관련 음운 항목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함.
- ◆ 음운 항목 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응답 후보로 예상되는 발음에 대한 별도의 식별 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조사 항목별 질문 상황의 구체화 및 명료화>

- ◆ 질문 상황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응답자의 이해나 선택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응답자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질문과 타인이 하는 말에 대한 질문을 혼동하지 않도록 질문 내용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음.

## 2022 Survey on the Actual Usage of Korean Language

The '2022 Survey on the Actual Usage of Korean Language' was conducted using home-visit method with a sample of 2,000 Korean people between 20 and 69 years old as respon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atterns of Korean language use according to social variables such as generation, gender, region, and class.

The survey involved questionnaire and sample design, conducting preliminary and main survey, data analysis, and report writing.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a total of 80 items covering vocabulary, grammar, discourse, and phonetics.

The purpose of the survey is to examine the actual usage of the Korean language among the citizens and anticipate the direction of changes in the language, in order to establish appropriate language policies in line with the trends of the times.

The main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2022 Survey on the Actual Usage of Korean Language' are as follows.

### ◎ Implications

#### <Diffusion of Standard Language>

- ♦ As previously observed in other studies, it has been confirmed that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is progressing at a significant pace. Particularly, as age decreases and education level increases, there is a tendency for a decrease in the use of regional dialects and an increase in the use of standard language.

#### <Increasing Influence of Social Variables>

- ♦ While language variation by regional factors, such as dialects, is showing an overall decrease due to the rapid diffusion of standard language, language variation by social factors, such as sociolects, is relatively increasing and diversifying.

#### <The Establishment of Loanword>

- ♦ It can be seen that loanwords that have become familiar because they are used a lot in everyday life are used more than native words or Chinese words.
- ♦ Some loanwords are used less than native words or Chinese words in the overall responses, but they are used more often among the 20s and 30s. This suggests that these loanwords have the potential to be the most frequently used words across all age groups in the future.

#### <Trends in the Use of Abbreviations>

- ◆ Abbreviations are relatively more used by younger people with higher education levels, which indicates the continued increase in the future.

#### <Generational Differences in Response Expressions>

- ◆ In response to compliments, younger respondents tend to use expressions of 'gratitude' more often, while older respondents tend to use expressions of 'denial' more. Therefo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use of 'gratitude' expressions will continue to increase in the future, considering this generational difference.

### ◎ Recommendations

#### <Reconsideration of Respondent Sample Design>

- ◆ The current sample size (2,000 people) is insufficient to confirm statistical differences caused by regional social variabl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sample size by taking method surveying all regions that has small samples, or expand the total sample size to 5,000 from next.

#### <Reconsideration and Improvement of Survey Item Selection Criteria>

- ◆ In regions where language standardization has already progressed significantly, it may be necessary to select vocabulary survey items differently to include additional words. In addition, in large-scale quantitative surveys performed by non-linguistic experts, it is appropriate to minimize the number of phonetic items related to recordings.
- ◆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results of phonetic items, separate identification training must be conducted for pronunciations expected to be response candidates.

#### <Specification and Clarification of Questioning Situations>

- ◆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question situations to prevent potential differences in responses based on the respondent's understanding or interpretation.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clarify the question to avoid confusion between questions about the respondent's own speech and questions about the speech of others.

## 이용자를 위하여

1. 이 보고서는 「2022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수록한 것임.
2. 통계표에 수록된 모든 자료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항목 간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3. 기타 응답이 제외된 경우 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4.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2022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2022) OO 쪽에서 인용하였다고 표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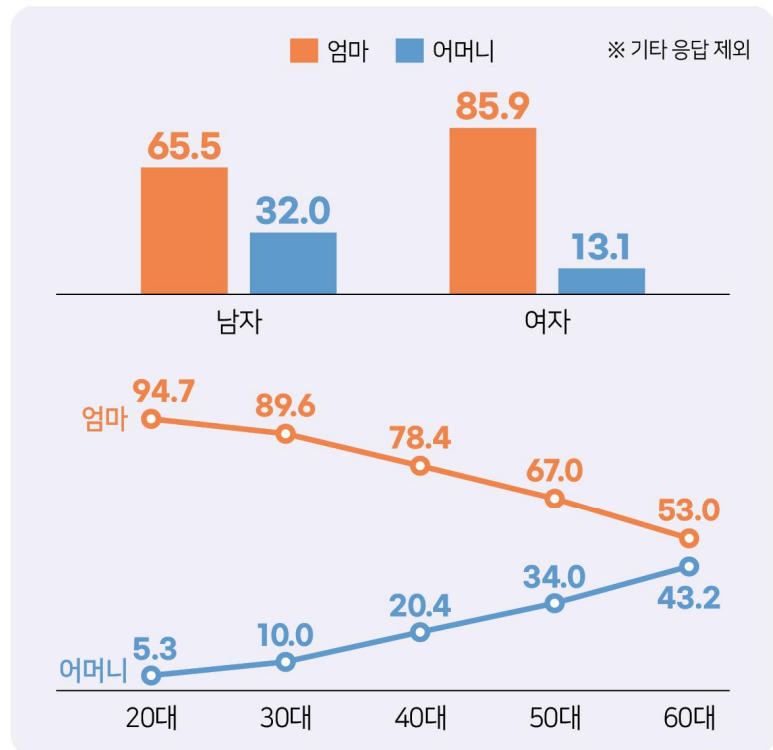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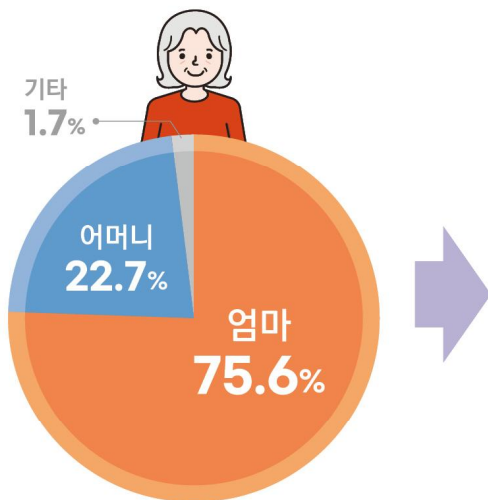
# 1 어휘

## 1. 부모에 대한 호칭

☎ 29, 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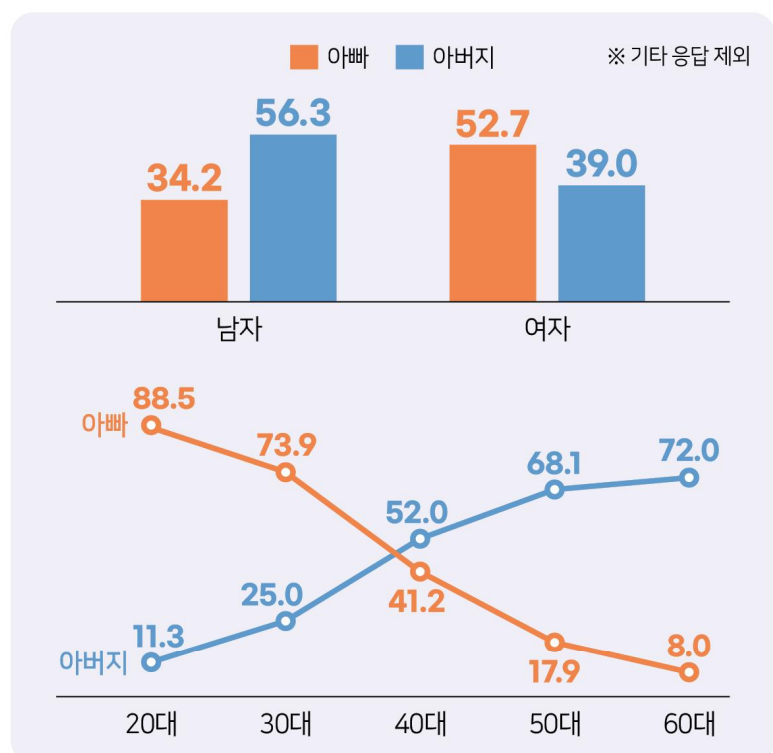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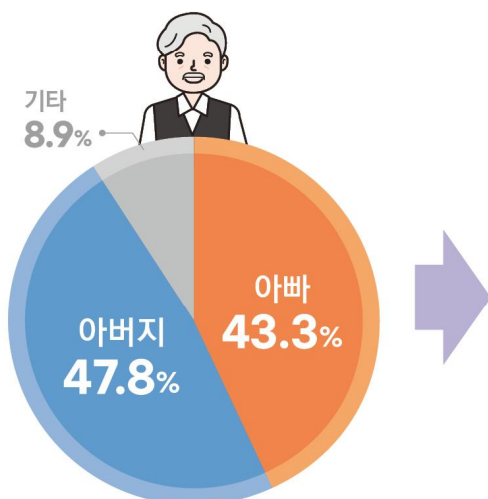
자신을 낳아준 여성을 직접 부르는 말

(단위: %)



자신을 낳아준 남성을 직접 부르는 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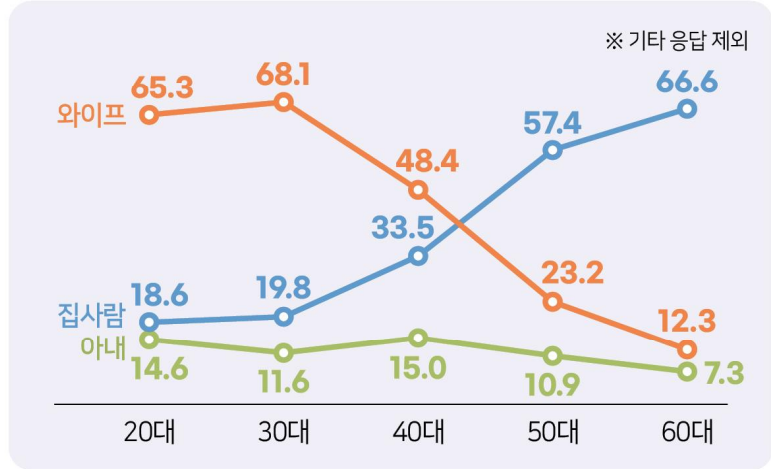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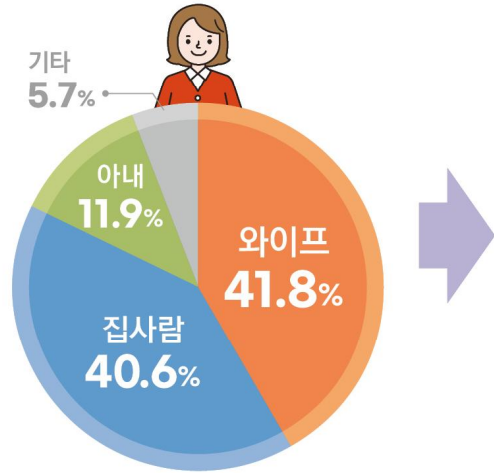


## 2. 배우자에 대한 지칭

33, 8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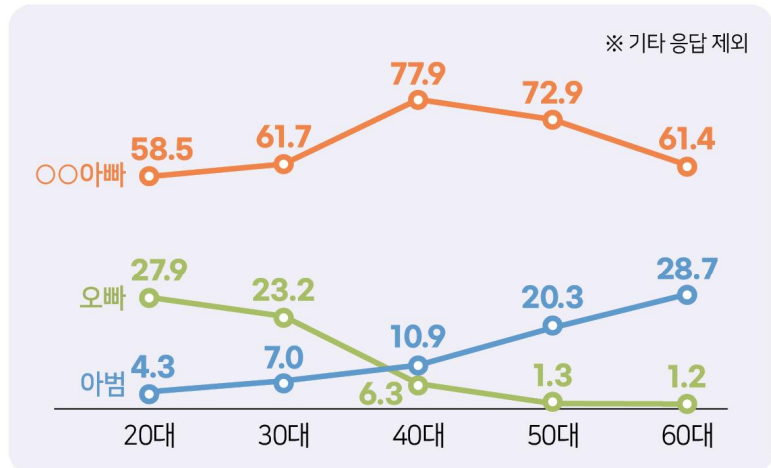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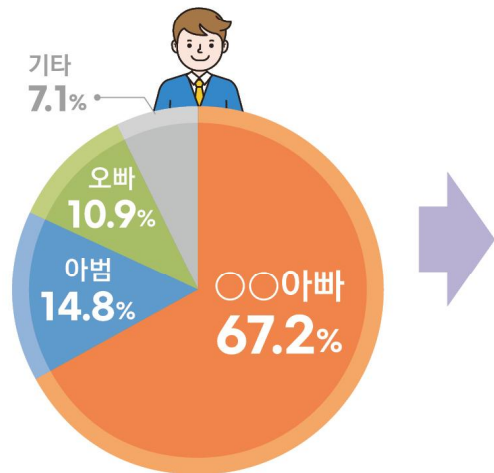
결혼한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인을 소개하며 가리키는 말

(단위 : %)



자녀를 둔 며느리가 시부모나 친정 부모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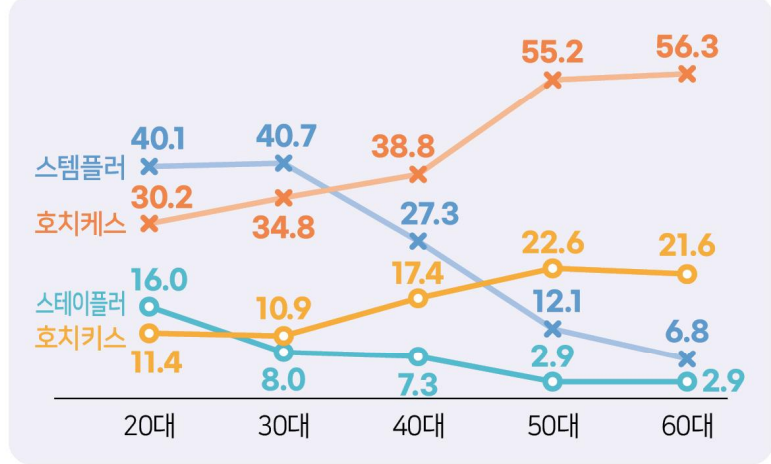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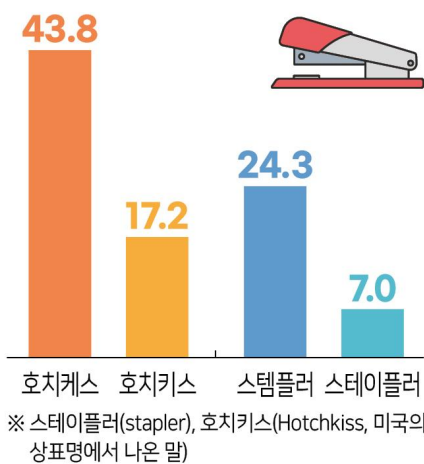
(단위 : %)



## 3. 외래어

‘ㄷ’자 모양으로 생긴 철사 침을 사용하여 서류를 찰하는 도구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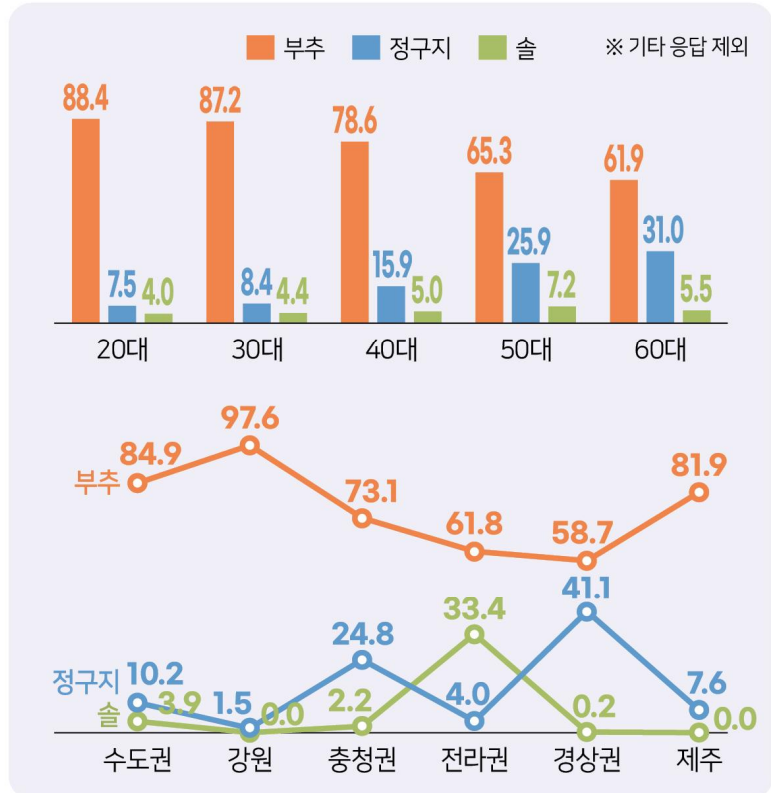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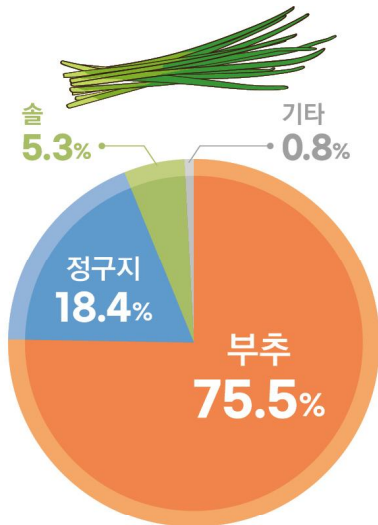




#### 4. 표준어와 지역어 119, 1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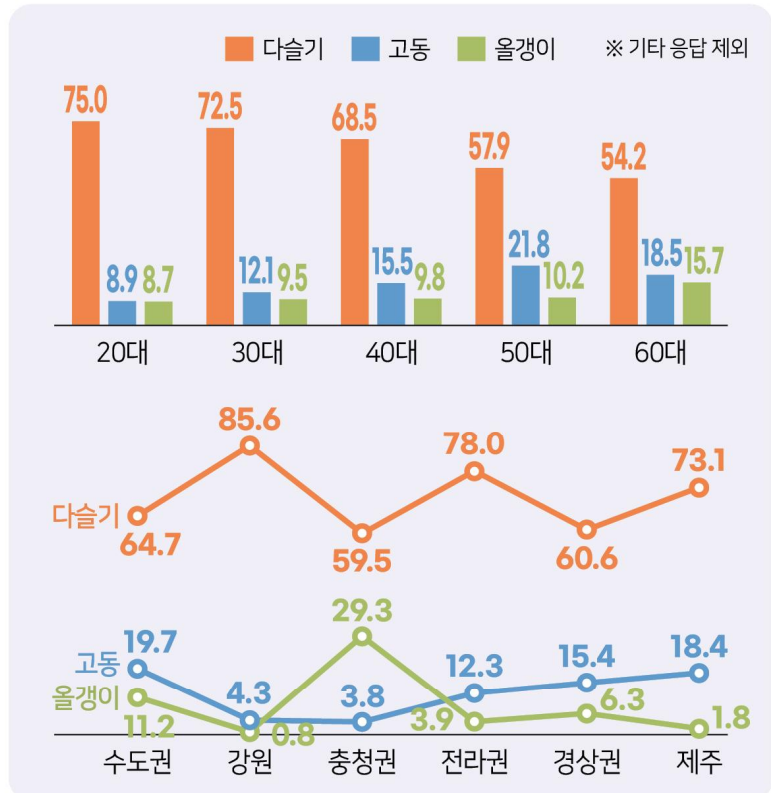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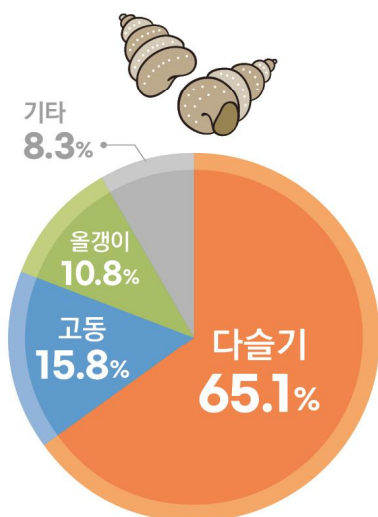
가는 파같이 생기고 잎은 좀 납작한 채소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넷물에 살고, 검은 갈색이나 누런 갈색의 나사 모양 딱딱한 껍질에 흰 얼룩무늬가 있는 동물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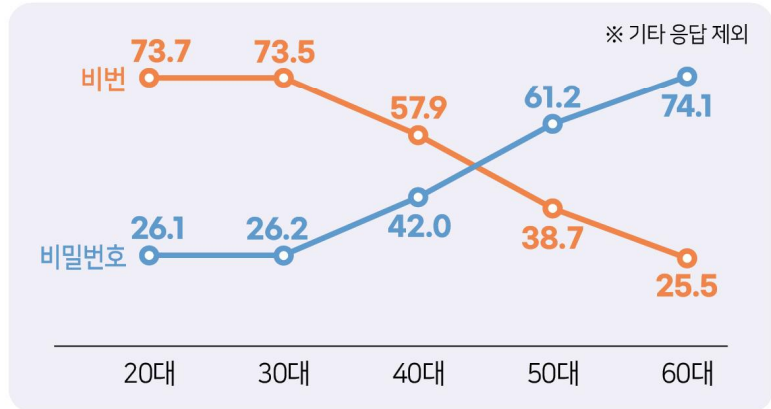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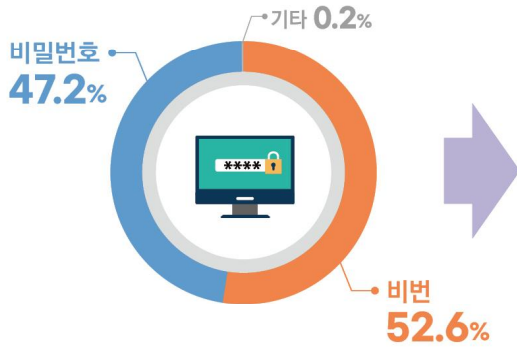


## 5. 줄임말

40, 145쪽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 고유의 숫자와 문자열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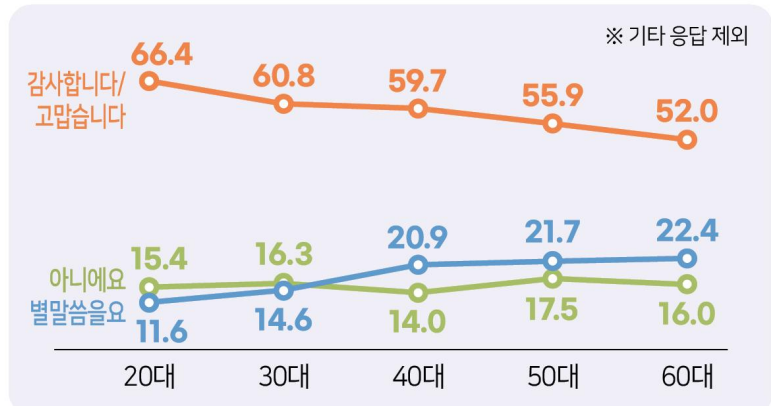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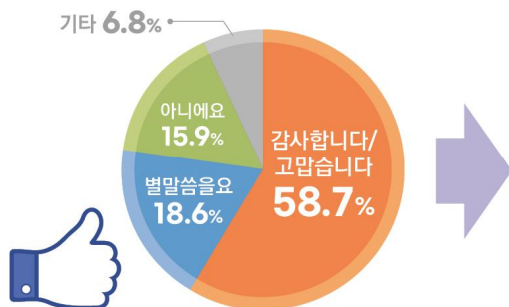
## 2

## 답화

: 감사에 대한 응답 표현 48, 181쪽

서로 알고는 지내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내 성격을 칭찬할 때 응답하는 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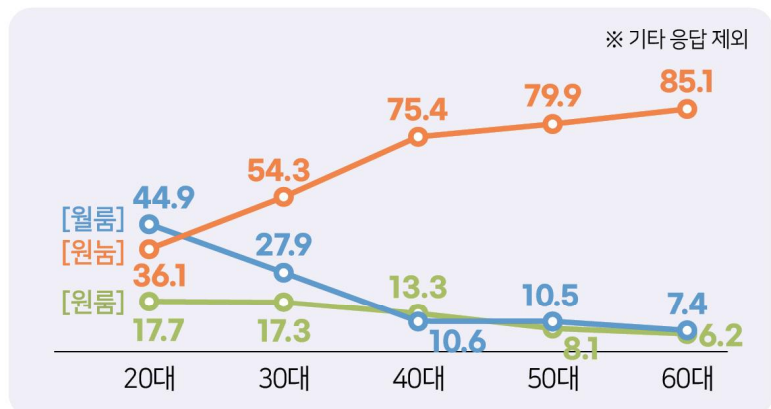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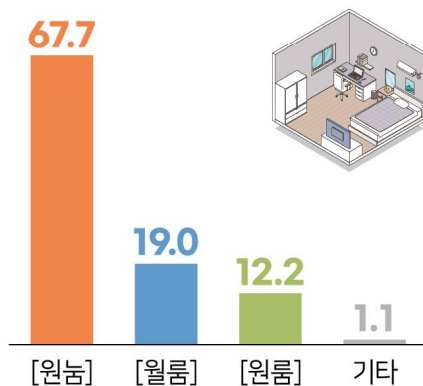
## 3

## 발음

: 자음동화 58, 219쪽

‘원룸’에서의 자음동화

(단위 : %)



## 제1장. 조사 개요

I. 조사 배경 및 목적 .....	3
II. 조사 설계 .....	3
III. 조사 수행 절차 .....	3
IV. 설문 설계 .....	4
1. 설문항목 선정 .....	4
2. 설문문항 작성 .....	4
3. 설문지 작성 .....	5
4.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	5
5. 예비 조사 실시 .....	8
6. 예비 조사 결과 .....	17
7. 본 조사 항목 확정 .....	17
V. 조사 내용 .....	17
VI. 표본 설계 .....	18
1. 모집단 정의 .....	18
2. 표본 추출 및 표본 배분 .....	19
3. 가중치 .....	21
VII. 응답자 특성 .....	24

## 제2장. 주요 조사 결과

I. 어휘 .....	29
1. 부모에 대한 호칭 .....	29
2.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호칭 .....	31
3. 가게에서 젊어 보이는 여자 직원을 부르는 말 .....	32

# CONTENTS

4. 배우자에 대한 지칭 .....	33
5. 선택 표현 .....	34
6. 셈 표현 .....	37
7. 외래어 .....	38
8. 줄임말 .....	40
 II. 문법 .....	 41
1. 경어법 - 격식체와 비격식체 사용 .....	41
2. 경어법 - 새로운 방식 .....	42
3. 부정문 -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 사용 .....	43
 III. 담화 .....	 44
1. 인사 표현 .....	44
2.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과 요청을 거절하는 방식 .....	47
3. 칭찬/감사/사과에 대한 응답 표현 .....	48
4. 가정에서의 압존법 사용 .....	50
5. 비확정적 표현 .....	50
 IV. 음운 .....	 51
1. 자음군단순화 .....	51
2. 사잇소리 .....	53
3. 체언 어간 말음의 재구조화 .....	55
4. 모음 재구조화 .....	56
5. 자음동화 .....	58

## 제3장. 조사 결과 분석

I. 어휘 .....	61
1. 자신을 낳아준 여성을 부르는 말(호칭) .....	61
2. 자신을 낳아준 남성을 부르는 말(호칭) .....	63
3. 아내가 남편의 아버지를 직접 부르는 말(호칭) .....	65
4. 남편이 아내의 아버지를 직접 부르는 말(호칭) .....	67
5. 아내가 남편의 어머니를 직접 부르는 말(호칭) .....	69
6. 남편이 아내의 어머니를 직접 부르는 말(호칭) .....	71
7. 상점 주인이 당신을 높여 부르는 말(호칭) .....	73
8. 가게에서 짧어 보이는 여자 직원을 부르는 말(호칭) .....	75
9. 주차 시비가 생겼을 때 잘못을 한 동년배 남자를 부르는 말(호칭) .....	77
10. 나의 잘못으로 차량 접촉 사고 발생 시 동년배 남자인 상대를 부르는 말(호칭) .....	79
11. 결혼한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인을 소개하며 가리키는 말(지칭) .....	81
12. 자녀를 둔 며느리가 시부모나 친정 부모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지칭) .....	83
13. 배변 행위를 가리키는 말 .....	85
14. 장에 가서 쌀을 구입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	87
15.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하며 가리키는 말 .....	89
16. 상대방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 .....	91
17. 익히지 않은 고기를 가리키는 말 .....	93
18. 눈 속에 있는 흰 부분을 가리키는 말 .....	95
19. 귓구멍 속에 낀 누런 색깔의 때를 가리키는 말 .....	97
20. 한쪽 다리를 오그리고 다른 쪽 다리를 그 위에 포개어 앉는 자세를 가리키는 말 .....	99
21. 이랬다저랬다 하거나 아무 일이나 끼어들어 실없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 .....	101
22. 음식을 잘못 삼키어 갑자기 재채기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	103

# CONTENTS

23. 하품할 때 두 팔을 쭉 펴면서 몸을 뒤로 젖히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 .....	105
24. 특별히 더 좋은 상태를 강조하여 꾸미는 말 .....	107
25. 세 번의 낮과 밤이 지나가는 동안을 가리키는 말 .....	109
26. 회초리를 맞는 횟수가 삼 회인 경우를 가리키는 말 .....	111
27. 숟가락과 젓가락을 합쳐서 세는 단위 .....	113
28. 볼펜을 세는 단위 .....	115
29. 귀밑에서 턱까지 난 수염을 가리키는 말 .....	117
30. 냇물에 살고, 검은 갈색이나 누런 갈색의 나사 모양 딱딱한 껍질에 흰 얼룩무늬가 있는 동물을 가리키는 말 .....	119
31. 닭이나 꿩 따위의 머리에 세로로 붙은 톱니 모양의 붉은 살 조각을 가리키는 말 .....	121
32. 가는 파같이 생기고 얇은 좀 납작하며, 파나 마늘 대신 양념으로 쓰거나 오이소박이에 넣기도 하는 채소를 가리키는 말 .....	123
33. 논에다 모를 심어서 키운 식물을 가리키는 말 .....	125
34. 무청을 엮어 말린 것을 가리키는 말 .....	127
35. 제사상에 올려놓는 밥을 가리키는 말 .....	129
36. 여닫게 되어 있는 물건을 잠그는 장치를 가리키는 말 .....	131
37. 부엌 천장이나 벽이 연기에 까맣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 .....	133
38. 뭉친 흰밥 위에 날생선 살을 얹어 만든 음식을 가리키는 말 .....	135
39. ‘ㄷ’자 모양 철사 침을 사용하여 서류를 철하는 도구를 가리키는 말 .....	137
40. 드라마, 가요, 뉴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전자제품을 가리키는 말 .....	139
41. 문이나 자물쇠를 잠그고 여는 데 사용하는 물건을 가리키는 말 .....	141
42. 물건을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	143
43. 보안을 위해 미리 설정하여 쓰는 개인 고유의 숫자와 문자열을 가리키는 말 .....	145
44. 대형 마트보다 작은 규모의 소매점을 가리키는 말 .....	147
45.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먹는 시원한 면 요리를 가리키는 말 .....	149

# CONTENTS

II. 문법 .....	151
1.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인사할 때 하는 말 .....	151
2. 백화점에서 손님이 삼심만 원짜리 물건값을 물어봤을 때 점원이 하는 말 .....	153
3. 간호사가 환자에게 진료실로 들어가라고 할 때 하는 말 .....	155
4. 나를 도와준 유일한 친구에게 하는 말 .....	157
5. 잘 아는 초등학생을 만나 학교에 가는 것인지 궁금할 때 하는 말 .....	159
6. 매우 바빠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할 때, '지금은' 다음에 하는 말 .....	161
7. 방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 .....	163
8. 다 먹어서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을 표현하는 보조동사 .....	165
III. 담화 .....	167
1. 친구를 만났을 때 처음 인사로 하는 말 .....	167
2. 일을 마친 뒤 먼저 가면서 회사 동료에게 하는 말 .....	169
3.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배달해 준 물건을 받으면서 하는 말 .....	171
4. 손윗사람과 전화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을 때 하는 말 .....	173
5. 주말 이사를 위해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식 .....	175
6. 이사하는 친구의 도움 요청을 다른 일이 있어서 거절하는 방식 .....	177
7. 친한 동료나 친구의 도움 요청을 승낙할 때 하는 말 .....	179
8. 서로 알고 지내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내 성격을 칭찬할 때 하는 말 .....	181
9. 나의 작은 배려에 대해 상대방이 감사하다고 말할 때 하는 말 .....	183
10.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어 사과할 때 하는 말 .....	185
11. 아버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한 말을 할아버지한테 전할 때의 경어법 .....	187
12.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을 부르는 말(호출) .....	189
13. 친하지 않고 좀 어려운 선배의 질문에 시간이 없다고 대답하는 방식 .....	191



# CONTENTS

IV. 음운 .....	193
1. ‘읽고’에서의 자음군단순화 .....	193
2. ‘짧다’에서의 자음군단순화 .....	195
3. ‘값이’에서의 자음군단순화 .....	197
4. ‘못 잇는다’에서의 ‘ㄴ’ 첨가 .....	199
5. ‘인사말’에서의 사잇소리 .....	201
6. ‘장맛비’에서의 사잇소리 .....	203
7. ‘신기다’에서의 유기음화/경음화 .....	205
8. ‘밭이’에서의 어간 말음 재구조화 .....	207
9. ‘부엌에’에서의 어간 말음 재구조화 .....	209
10. ‘베개’에서의 모음 재구조화 .....	211
11. ‘퍼다’에서의 모음 재구조화 .....	213
12. ‘바라’에서의 모음 재구조화 .....	215
13. ‘잡아라’에서의 모음조화 .....	217
14. ‘월룸’에서의 자음동화 .....	219

## 제4장. 조사 결과 심층 분석 및 정책 제언

I. 변인별 주요 변이 및 변화 양상 분석 .....	223
1. 지역적 변인 관련 주요 변이 및 변화 .....	223
2. 사회적 변인 관련 주요 변이 및 변화 .....	230
II.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244
1. 시사점 .....	244
2. 제언 .....	247

## 부록. 설문지



# CONTENTS

## [표 목차]

[ 표 3-1 ] 자신을 낳아준 여성을 부르는 말(호칭) .....	62
[ 표 3-2 ] 자신을 낳아준 남성을 부르는 말(호칭) .....	64
[ 표 3-3 ] 아내가 남편의 아버지를 직접 부르는 말(호칭) .....	66
[ 표 3-4 ] 남편이 아내의 아버지를 직접 부르는 말(호칭) .....	68
[ 표 3-5 ] 아내가 남편의 어머니를 직접 부르는 말(호칭) .....	70
[ 표 3-6 ] 남편이 아내의 어머니를 직접 부르는 말(호칭) .....	72
[ 표 3-7 ] 상점 주인이 당신을 높여 부르는 말(호칭) .....	74
[ 표 3-8 ] 가게에서 젊어 보이는 여자 직원을 부르는 말(호칭) .....	76
[ 표 3-9 ] 주차 시비가 생겼을 때 잘못을 한 동년배 남자를 부르는 말(호칭) .....	78
[ 표 3-10 ] 나의 잘못으로 차량 접촉 사고 발생 시 동년배 남자인 상대를 부르는 말(호칭) .....	80
[ 표 3-11 ] 결혼한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인을 소개하며 가리키는 말(지칭) .....	82
[ 표 3-12 ] 자녀를 둔 며느리가 시부모나 친정 부모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지칭) .....	84
[ 표 3-13 ] 배변 행위를 가리키는 말 .....	86
[ 표 3-14 ] 장에 가서 쌀을 구입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	88
[ 표 3-15 ]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하며 가리키는 말 .....	90
[ 표 3-16 ] 상대방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 .....	92
[ 표 3-17 ] 익히지 않은 고기를 가리키는 말 .....	94
[ 표 3-18 ] 눈 속에 있는 흰 부분을 가리키는 말 .....	96
[ 표 3-19 ] 귓구멍 속에 낀 누런 색깔의 때를 가리키는 말 .....	98
[ 표 3-20 ] 한쪽 다리를 오그리고 다른 한쪽 다리를 그 위에 포개어 앉는 자세를 가리키는 말 .....	100
[ 표 3-21 ] 이랬다저랬다 하거나 아무 일이나 끼어들어 실없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 .....	102
[ 표 3-22 ] 음식을 잘못 삼키어 갑자기 재채기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	104
[ 표 3-23 ] 하품할 때 두 팔을 쭉 펴면서 몸을 뒤로 젖히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 .....	106
[ 표 3-24 ] 특별히 더 좋은 상태를 강조하여 꾸미는 말 .....	108

# CONTENTS

[ 표 3-25 ] 세 번의 낮과 밤이 지나가는 동안을 가리키는 말 .....	110
[ 표 3-26 ] 회초리를 맞는 횟수가 삼 회인 경우를 가리키는 말 .....	112
[ 표 3-27 ] 숟가락과 젓가락을 합쳐서 세는 단위 .....	114
[ 표 3-28 ] 볼펜을 세는 단위 .....	116
[ 표 3-29 ] 귀밑에서 턱까지 난 수염을 가리키는 말 .....	118
[ 표 3-30 ] 냇물에 살고, 검은 갈색이나 누런 갈색의 나사 모양 딱딱한 껍질에 흰 얼룩무늬가 있는 동물 .....	120
[ 표 3-31 ] 닭이나 꿩 따위의 머리에 세로로 붙은 톱니 모양의 붉은 살 조각을 가리키는 말 .....	122
[ 표 3-32 ] 가는 파같이 생기고 잎은 좀 납작한 채소를 가리키는 말 .....	124
[ 표 3-33 ] 논에다 모를 심어서 키운 식물을 가리키는 말 .....	126
[ 표 3-34 ] 무청을 엮어 말린 것을 가리키는 말 .....	128
[ 표 3-35 ] 제사상에 올려놓는 밥을 가리키는 말 .....	130
[ 표 3-36 ] 여닫게 되어 있는 물건을 잠그는 장치를 가리키는 말 .....	132
[ 표 3-37 ] 부엌 천장이나 벽이 연기에 까맣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 .....	134
[ 표 3-38 ] 뭉친 흰밥 위에 날생선 살을 얹어 만든 음식을 가리키는 말 .....	136
[ 표 3-39 ] ‘ㄷ’자 모양 철사 침을 사용하여 서류를 철하는 도구를 가리키는 말 .....	138
[ 표 3-40 ] 드라마, 가요, 뉴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전자제품을 가리키는 말 .....	140
[ 표 3-41 ] 문이나 자물쇠를 잠그고 여는 데 사용하는 물건을 가리키는 말 .....	142
[ 표 3-42 ] 물건을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	144
[ 표 3-43 ] 보안을 위해 미리 설정하여 쓰는 개인 고유의 숫자와 문자열을 가리키는 말 .....	146
[ 표 3-44 ] 대형 마트보다 작은 규모의 소매점을 가리키는 말 .....	148
[ 표 3-45 ]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먹는 시원한 면 요리를 가리키는 말 .....	150
[ 표 3-46 ]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인사할 때 하는 말 .....	152
[ 표 3-47 ] 백화점에서 손님이 삼십만 원짜리 물건값을 물어봤을 때 점원이 하는 말 .....	154

# CONTENTS

[ 표 3-48 ] 간호사가 환자에게 진료실로 들어가라고 할 때 하는 말 .....	156
[ 표 3-49 ] 나를 도와준 유일한 친구에게 하는 말 .....	158
[ 표 3-50 ] 잘 아는 초등학생을 만나 학교에 가는 것인지 궁금할 때 하는 말 .....	160
[ 표 3-51 ] 매우 바빠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할 때, ‘지금은’ 다음에 하는 말 .....	162
[ 표 3-52 ] 방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 .....	164
[ 표 3-53 ] 다 먹어서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을 표현하는 보조동사 .....	166
[ 표 3-54 ] 친구를 만났을 때 처음 인사로 하는 말 .....	168
[ 표 3-55 ] 일을 마친 뒤 먼저 가면서 회사 동료에게 하는 말 .....	170
[ 표 3-56 ]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배달해 준 물건을 받으면서 하는 말 .....	172
[ 표 3-57 ] 손윗사람과 전화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을 때 하는 말 .....	174
[ 표 3-58 ] 주말 이사를 위해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식 .....	176
[ 표 3-59 ] 이사하는 친구의 도움 요청을 다른 일이 있어서 거절하는 방식 .....	178
[ 표 3-60 ] 친한 동료나 친구가 도움 요청을 승낙할 때 하는 말 .....	180
[ 표 3-61 ] 서로 알고 지내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내 성격을 칭찬할 때 하는 말 .....	182
[ 표 3-62 ] 나의 작은 배려에 대해 상대방이 감사하다고 말할 때 하는 말 .....	184
[ 표 3-63 ]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어 사과할 때 하는 말 .....	186
[ 표 3-64 ] 아버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한 말을 할아버지한테 전할 때의 경어법 .....	188
[ 표 3-65 ]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을 부르는 말 .....	190
[ 표 3-66 ] 친하지 않고 좀 어려운 선배의 질문에 시간이 없다고 대답하는 방식 .....	192
[ 표 3-67 ] ‘읽고’에서의 자음군단순화 .....	194
[ 표 3-68 ] ‘짧다’에서의 자음군단순화 .....	196
[ 표 3-69 ] ‘값이’에서의 자음군단순화 .....	198
[ 표 3-70 ] ‘못 잇는다’에서의 ‘ㄴ’ 첨가 .....	200
[ 표 3-71 ] ‘인사말’에서의 사잇소리 .....	202

# CONTENTS

[ 표 3-72 ] ‘장맛비’에서의 사잇소리 .....	204
[ 표 3-73 ] ‘신기다’에서의 유기음화/경음화 .....	206
[ 표 3-74 ] ‘밭이’에서의 어간 말음 재구조화 .....	208
[ 표 3-75 ] ‘부엌에’에서의 어간 말음 재구조화 .....	210
[ 표 3-76 ] ‘베개’에서의 모음 재구조화 .....	212
[ 표 3-77 ] ‘펼다’에서의 모음 재구조화 .....	214
[ 표 3-78 ] ‘바라’에서의 모음 재구조화 .....	216
[ 표 3-79 ] ‘잡아라’에서의 모음조화 .....	218
[ 표 3-80 ] ‘월룸’에서의 자음동화 .....	220

# CONTENTS

## [그림 목차]

[ 그림 2-1 ] 자신을 낳아준 여성/남성을 직접 부르는 말 .....	29
[ 그림 2-2 ] 자신을 낳아준 여성/남성을 직접 부르는 말 -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 ..	30
[ 그림 2-3 ] 아내/남편이 배우자의 아버지를 직접 부르는 말 .....	31
[ 그림 2-4 ] 아내/남편이 배우자의 어머니를 직접 부르는 말 .....	31
[ 그림 2-5 ] 가게에서 젊어 보이는 여자 직원에 대한 호칭 -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 .....	32
[ 그림 2-6 ] 결혼한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인을 소개하며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	33
[ 그림 2-7 ] 자녀를 둔 며느리가 시부모나 친정 부모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	33
[ 그림 2-8 ] 장에 가서 쌀을 구입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거주 지역 따른 차이 ....	34
[ 그림 2-9 ] 눈 속에 있는 흰 부분을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거주 지역 따른 차이 .....	35
[ 그림 2-10 ] 컷구멍 속에 낀 누런 색깔의 때를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거주 지역 따른 차이 ...	35
[ 그림 2-11 ] 가는 파같이 생기고 잎은 좀 납작한 채소를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 및 거주 지역 따른 차이 .....	36
[ 그림 2-12 ] 모를 심어서 키운 식물을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 및 거주 지역 따른 차이 ...	36
[ 그림 2-13 ] 세 번의 낮과 밤이 지나가는 동안을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	37
[ 그림 2-14 ] 회초리 맞는 횟수가 삼 회인 경우를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	37
[ 그림 2-15 ] 흰밥을 뭉친 뒤에 그 위에 날생선의 살을 얹어 만든 음식을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	38
[ 그림 2-16 ] 숟가락과 젓가락을 합쳐서 세는 단위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	38
[ 그림 2-17 ] 물건을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	39
[ 그림 2-18 ] 드라마, 가요, 뉴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전자제품을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	39
[ 그림 2-19 ]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 고유의 숫자와 문자열을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	40

# CONTENTS

[ 그림 2-20 ]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많이 먹는 시원한 면 요리를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	40
[ 그림 2-21 ]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인사할 때 사용하는 말 -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 ....	41
[ 그림 2-22 ] 백화점에서 손님이 삼십만 원짜리 물건값을 물어봤을 때 점원이 하는 말 .....	42
[ 그림 2-23 ] 간호사가 환자에게 진료실로 들어가라고 할 때 하는 말 .....	42
[ 그림 2-24 ] 방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 .....	43
[ 그림 2-25 ] 방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 ....	43
[ 그림 2-26 ] 친구를 만났을 때 처음 인사로 하는 말 - 응답자의 성별, 연령,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 ...	44
[ 그림 2-27 ] 일을 마친 뒤 먼저 가면서 회사 동료들에게 하는 말 .....	45
[ 그림 2-28 ]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배달해 준 물건을 받으면서 하는 말 .....	45
[ 그림 2-29 ] 손윗사람과 전화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을 때 하는 말 .....	46
[ 그림 2-30 ] 주말 이사를 위해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식 .....	47
[ 그림 2-31 ] 이사하는 친구의 도움 요청을 다른 일이 있어서 거절하는 방식 .....	47
[ 그림 2-32 ] 서로 알고는 지내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내 성격을 칭찬할 때 하는 말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	48
[ 그림 2-33 ] 나의 작은 배려에 대해 상대방이 감사하다고 말할 때 하는 말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	49
[ 그림 2-34 ]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어 사과할 때 하는 말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	49
[ 그림 2-35 ] 아버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한 말을 할아버지한테 전할 때의 압존법 .....	50
[ 그림 2-36 ] 친하지 않고 좀 대하기 어려운 이가 시간이 있냐고 묻는데, 시간이 안 될 때 하는 말 ..	50
[ 그림 2-37 ] 자음군단순화 .....	51
[ 그림 2-38 ] ‘읽고’의 자음군단순화 -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 .....	51
[ 그림 2-39 ] ‘짧다’의 자음군단순화 -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 .....	52
[ 그림 2-40 ] ‘값이’의 자음군단순화 -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 .....	52

# CONTENTS

[ 그림 2-41 ] 사잇소리 .....	53
[ 그림 2-42 ] ‘인사말’의 사잇소리 - 응답자의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 .....	54
[ 그림 2-43 ] ‘장맛비’의 사잇소리 - 응답자의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 .....	54
[ 그림 2-44 ] ‘밭이’에서의 어간 말음 재구조화 -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 .....	55
[ 그림 2-45 ] ‘부엌’에서의 어간 말음 재구조화 .....	55
[ 그림 2-46 ] ‘베개’에서의 모음 재구조화 -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 .....	56
[ 그림 2-47 ] ‘퍼다’에서의 모음 재구조화 -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 .....	56
[ 그림 2-48 ] ‘바라’에서의 모음 재구조화 .....	57
[ 그림 2-49 ] ‘원룸’에서의 자음동화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	58
[ 그림 3-1 ] 자신을 낳아준 여성을 부르는 말(호칭) .....	61
[ 그림 3-2 ] 자신을 낳아준 남성을 부르는 말(호칭) .....	63
[ 그림 3-3 ] 아내가 남편의 아버지를 직접 부르는 말(호칭) .....	65
[ 그림 3-4 ] 남편이 아내의 아버지를 직접 부르는 말(호칭) .....	67
[ 그림 3-5 ] 아내가 남편의 어머니를 직접 부르는 말(호칭) .....	69
[ 그림 3-6 ] 남편이 아내의 어머니를 직접 부르는 말(호칭) .....	71
[ 그림 3-7 ] 상점 주인이 당신을 높여 부르는 말(호칭) .....	73
[ 그림 3-8 ] 가게에서 젊어 보이는 여자 직원을 부르는 말(호칭) .....	75
[ 그림 3-9 ] 주차 시비가 생겼을 때 잘못을 한 동년배 남자를 부르는 말(호칭) .....	77
[ 그림 3-10 ] 나의 잘못으로 차량 접촉 사고 발생 시 동년배 남자인 상대를 부르는 말(호칭) .....	79
[ 그림 3-11 ] 결혼한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인을 소개하며 가리키는 말(지칭) .....	81
[ 그림 3-12 ] 자녀를 둔 며느리가 시부모나 친정 부모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지칭) .....	83
[ 그림 3-13 ] 배변 행위를 가리키는 말 .....	85
[ 그림 3-14 ] 장에 가서 쌀을 구입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	87
[ 그림 3-15 ]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하며 가리키는 말 .....	89

# CONTENTS

[ 그림 3-16 ] 상대방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 .....	91
[ 그림 3-17 ] 익히지 않은 고기를 가리키는 말 .....	93
[ 그림 3-18 ] 눈 속에 있는 흰 부분을 가리키는 말 .....	95
[ 그림 3-19 ] 콧구멍 속에 낀 누런 색깔의 때를 가리키는 말 .....	97
[ 그림 3-20 ] 한쪽 다리를 오그리고 다른 한쪽 다리를 그 위에 포개어 앉는 자세를 가리키는 말 ....	99
[ 그림 3-21 ] 이랬다저랬다 하거나 아무 일이나 끼어들어 실없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 .....	101
[ 그림 3-22 ] 음식을 잘못 삼키어 갑자기 재채기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	103
[ 그림 3-23 ] 하품할 때 두 팔을 쭉 펴면서 몸을 뒤로 젖히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 .....	105
[ 그림 3-24 ] 특별히 더 좋은 상태를 강조하여 꾸미는 말 .....	107
[ 그림 3-25 ] 세 번의 낮과 밤이 지나가는 동안을 가리키는 말 .....	109
[ 그림 3-26 ] 회초리를 맞는 횃수가 삼 회인 경우를 가리키는 말 .....	111
[ 그림 3-27 ] 손가락과 젓가락을 합쳐서 세는 단위 .....	113
[ 그림 3-28 ] 볼펜을 세는 단위 .....	115
[ 그림 3-29 ] 귀밑에서 턱까지 난 수염을 가리키는 말 .....	117
[ 그림 3-30 ] 넷물에 살고, 검은 갈색이나 누런 갈색의 나사 모양 딱딱한 껍질에 흰 얼룩무늬가 있는 동물 .....	119
[ 그림 3-31 ] 닭이나 꿩 따위의 머리에 세로로 붙은 톱니 모양의 붉은 살 조각을 가리키는 말 ...	121
[ 그림 3-32 ] 가는 파같이 생기고 앞은 좀 납작한 채소를 가리키는 말 .....	123
[ 그림 3-33 ] 논에다 모를 심어서 키운 식물을 가리키는 말 .....	125
[ 그림 3-34 ] 무청을 엮어 말린 것을 가리키는 말 .....	127
[ 그림 3-35 ] 제사상에 올려놓는 밥을 가리키는 말 .....	129
[ 그림 3-36 ] 여닫게 되어 있는 물건을 잠그는 장치를 가리키는 말 .....	131
[ 그림 3-37 ] 부엌 천장이나 벽이 연기에 까맣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 .....	133
[ 그림 3-38 ] 뭉친 흰밥 위에 날생선 살을 얹어 만든 음식을 가리키는 말 .....	135



# CONTENTS

[ 그림 3-39 ] ‘ㄷ’자 모양 철사 침을 사용하여 서류를 철하는 도구를 가리키는 말 .....	137
[ 그림 3-40 ] 드라마, 가요, 뉴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전자제품을 가리키는 말 .....	139
[ 그림 3-41 ] 문이나 자물쇠를 잠그고 여는 데 사용하는 물건을 가리키는 말 .....	141
[ 그림 3-42 ] 물건을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	143
[ 그림 3-43 ] 보안을 위해 미리 설정하여 쓰는 개인 고유의 숫자와 문자열을 가리키는 말 .....	145
[ 그림 3-44 ] 대형 마트보다 작은 규모의 소매점을 가리키는 말 .....	147
[ 그림 3-45 ]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먹는 시원한 면 요리를 가리키는 말 .....	149
[ 그림 3-46 ]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인사할 때 하는 말 .....	151
[ 그림 3-47 ] 백화점에서 손님이 삼십만 원짜리 물건값을 물어봤을 때 점원이 하는 말 .....	153
[ 그림 3-48 ] 간호사가 환자에게 진료실로 들어가라고 할 때 하는 말 .....	155
[ 그림 3-49 ] 나를 도와준 유일한 친구에게 하는 말 .....	157
[ 그림 3-50 ] 잘 아는 초등학생을 만나 학교에 가는 것인지 궁금할 때 하는 말 .....	159
[ 그림 3-51 ] 매우 바빠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할 때, ‘지금은’ 다음에 하는 말 .....	161
[ 그림 3-52 ] 방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 .....	163
[ 그림 3-53 ] 다 먹어서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을 표현하는 보조동사 .....	165
[ 그림 3-54 ] 친구를 만났을 때 처음 인사로 하는 말 .....	167
[ 그림 3-55 ] 일을 마친 뒤 먼저 가면서 회사 동료에게 하는 말 .....	169
[ 그림 3-56 ]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배달해 준 물건을 받으면서 하는 말 .....	171
[ 그림 3-57 ] 손윗사람과 전화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을 때 하는 말 .....	173
[ 그림 3-58 ] 주말 이사를 위해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식 .....	175
[ 그림 3-59 ] 이사하는 친구의 도움 요청을 다른 일이 있어서 거절하는 방식 .....	177
[ 그림 3-60 ] 친한 동료나 친구가 도움 요청을 승낙할 때 하는 말 .....	179
[ 그림 3-61 ] 서로 알고 지내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내 성격을 칭찬할 때 하는 말 .....	181
[ 그림 3-62 ] 나의 작은 배려에 대해 상대방이 감사하다고 말할 때 하는 말 .....	183

# CONTENTS

[ 그림 3-63 ]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어 사과할 때 하는 말 .....	185
[ 그림 3-64 ] 아버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한 말을 할아버지한테 전할 때의 경어법 .....	187
[ 그림 3-65 ]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을 부르는 말 .....	189
[ 그림 3-66 ] 친하지 않고 좀 어려운 선배의 질문에 시간이 없다고 대답하는 방식 .....	191
[ 그림 3-67 ] ‘읽고’에서의 자음군단순화 .....	193
[ 그림 3-68 ] ‘짧다’에서의 자음군단순화 .....	195
[ 그림 3-69 ] ‘값이’에서의 자음군단순화 .....	197
[ 그림 3-70 ] ‘못 잇는다’에서의 ‘ㄴ’ 첨가 .....	199
[ 그림 3-71 ] ‘인사말’에서의 사잇소리 .....	201
[ 그림 3-72 ] ‘장맛비’에서의 사잇소리 .....	203
[ 그림 3-73 ] ‘신기다’에서의 유기음화/경음화 .....	205
[ 그림 3-74 ] ‘밭이’에서의 어간 말음 재구조화 .....	207
[ 그림 3-75 ] ‘부엌에’에서의 어간 말음 재구조화 .....	209
[ 그림 3-76 ] ‘베개’에서의 모음 재구조화 .....	211
[ 그림 3-77 ] ‘퍼다’에서의 모음 재구조화 .....	213
[ 그림 3-78 ] ‘바라’에서의 모음 재구조화 .....	215
[ 그림 3-79 ] ‘잡아라’에서의 모음조화 .....	217
[ 그림 3-80 ] ‘원룸’에서의 자음동화 .....	219

## 제1장

# 조사 개요







## I 조사 배경 및 목적

- ❖ 세대, 성별, 지역, 계층 등 사회적 변인에 따른 전국 규모의 국어 사용 양상 파악
- ❖ 전 국민 대상 집단 간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국어의 변화 방향을 미리 파악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적절한 국어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 II 조사 설계

- ❖ 전국 17개 시군 만 20세~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함.

구분	내용
1. 조사 대상	- 전국(17개 시군) 만 20세 ~ 69세 성인 남녀
2. 유효 표본	- 총 2,000 표본
3. 표본 설계	- 1차: 전국 17개 시도를 인구 구성비에 따라 제곱근 비례 배분 - 2차: 각 시도 내 세부 층별 표본 배분은 세부 층별 인구 수 기준으로 비례 배분
4. 조사 방법	- 가구 방문에 의한 1:1 개별 면접 조사
5. 조사 기간	- 2023년 1월 2일 ~ 2023년 2월 7일

## III 조사 수행 절차

- ❖ 2022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는 설문 및 표본설계, 예비조사 진행, 실사준비, 실사진행, 자료처리 및 분석 단계로 진행됨.

Step 01 설문 및 표본 설계	Step 02 예비조사	Step 03 실사 준비	Step 04 실사	Step 05 자료처리 및 분석
<b>설문 설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설문 방향에 대한 수요 파악</li><li>• 유사조사 설문안 검토</li><li>• 설문 초안 작성 피드백</li></ul> <b>표본 설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구조사 모집단 분석</li><li>• 표본설계</li></ul>	<b>예비조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조사 지역에 대한 사전 정보 파악</li><li>• 설문지 구성의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li><li>• 응답시간 점검</li><li>• 예측 가능한 문제 보완 및 대응책 강구</li></ul>	<b>실사시스템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TAPI 설문 구축</li><li>• 실사 관리 시스템 구축</li><li>• 조사도구 준비 (기프트, 조사원증, 공문 등)</li></ul> <b>실사 인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조사원 선발</li><li>• 조사원 교육</li></ul>	<b>본조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조사원 교육</li><li>• 실사 진행</li><li>• 응답자 불만 대응</li><li>• 진행상황 보고</li><li>• RawData 검증/분석</li></ul> <b>보완조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재조사 필요 시) 보완조사 진행</li></ul>	<b>자료처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응답 데이터 검증</li><li>• 녹취문항 검증</li><li>• 에디팅/코딩</li><li>• 가중치 적용</li></ul> <b>자료분석</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초 통계분석</li><li>• 응답자 특성별 분석</li></ul>

## IV 설문 설계

### 1. 설문항목 선정

#### 가. 관련 기존 조사의 설문항목 검토

- ❖ 검토 대상: 2015년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2016년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2021년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 2022년 지역어 변이 조사 등

#### 나. 공동연구원 추천 항목 조정

- ❖ 조정 방식: 다수의 공동연구원이 추천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후보 선정

#### 다. 조사 방식과 규모를 고려한 항목 조정

- ❖ 조사 방식과 규모  
: 전문가가 아닌 일반조사가원이 조사를 진행하며, 전국 2,000명 대상의 대규모 조사
- ❖ 조정 방식  
: 공동연구진에서 추천된 항목 수가 당초 과제에서 요구된 항목 수(80개 이상)를 크게 초과하여, 일반조사원 조사가 어렵거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항목들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총 98개 항목 선정

#### 라. 1차 선정 결과

- ❖ 음운 단위 16개 항목(녹취 항목 3개 포함)
- ❖ 어휘 단위 58개 항목
- ❖ 문법 단위 10개 항목
- ❖ 담화 단위 14개 항목  
⇒ 98개 항목 1차 선정

### 2. 설문문항 작성

#### 가. 설문문항 초안 작성

- ❖ 작성 방식: 공동연구원이 분담하여 작성 후 상호 검토 후 조정

#### 나. 설문문항 2차 초안 작성

- ❖ 작성 방식: 공동연구원 상호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 후 조정



## 다. 예비조사용 설문문항 작성

- ❖ 어휘 단위 60개 문항(기존 항목 중 2개를 4개 문항으로 분할하여 문항 수 2개 증가)
- ❖ 문법 단위 10개 문항
- ❖ 담화 단위 14개 문항
- ❖ 음운 단위 16개 문항(녹취 항목 3개 포함, 조사 편의를 위해 가장 뒤에 배치)  
⇒ 총 100개 문항 작성

## 3. 설문지 작성

### 가. 설문지 양식 반영

- ❖ 반영 방식: 예비조사용으로 최종 선정된 100개 설문문항을 케이스탯에서 제공하는 설문지 양식에 맞추어 반영

### 나. 설문지용 그림 선정

- ❖ 그림 선정 이유: 조사의 편의를 위해 일부 문항은 그림(사진)을 보여주며 질문 예정
- ❖ 그림 개수: 총 16개

### 다. 조사원 유의사항 추가

- ❖ 추가 방식: 조사원이 조사 목적이나 조사 방식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한 문항에 대해서는 각 질문 아래에 유의사항을 추가하여 설명

## 4.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 ❖ 진행일시 : 2022. 11. 08
- ❖ 회의 안건 : 2022년 국어 사용 실태조사 설문 문항 검토
- ❖ 주요 내용
  - 설문 목적 및 활용 방안
  - 각 단위별 문항 질문 및 예상 응답의 적절성
  -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조사원 교육과 조사 지침

### 가. 설문 전반

- ❖ 설문 목적
  - 설문 목적이 응답자의 현실 언어 파악인지, 언어 지식이나 당위 인식 파악인지 모호  
: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으면 조사자에 따라, ‘현실, 지식, 당위’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조사와 결과 수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우려됨.

- ❖ 조사 항목 선정 기준
  - 조사 항목의 명확한 선정 기준 제시 필요
    - : 현재 시점에서 지역 변인과 사회 변인을 막론하고 사용 빈도가 낮은 항목 재고 필요  
예) 쌀을 사다/팔다, 단무지/다꾸앙, 냉장/히야시 등
- ❖ 질문과 응답 방식
  - 응답자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말을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 존재
    - : 사용과 인지, 당위 등이 혼재되어 정확한 조사와 결과 처리에 어려움 예상
  - 충실한 조사원 교육과 조사 지침 필요

## 나. 어휘

- ❖ 호칭어(문1~문10)
  - 응답자의 평소 언어 사용과 인식에 따라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음.  
(피조사자의 조건에 따른 다양한 답이 나올 수 밖에 없음.)
  - 남편이나 아내의 ‘아버지’, ‘어머니’는 음운적인 변이는 있을 수 있으나, 큰 차이는 없어 보임.  
‘아저씨’, ‘아주머니’ 등의 호칭 적용 범위나 언어 예절과 관련된 ‘시누이’나 ‘시동생’에 대한 호칭이나 지칭, 남편의 형에 대한 호칭이나 지칭, 남편 누나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이나 지칭이 세대별,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음.
  - 문5(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보기>에 ‘엄마’도 넣으면 좋을 듯함.
  - 문8(언니/아가씨): 가게의 종류(음식점, 헤어샵, 옷가게 등)에 따라 호칭에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는 듯하므로 가게의 종류를 명시해야 할 듯함. 또 최근에는 연령대를 가늠하기 어려워 ‘젊어 보이는’이라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또 문9(여보)과 비교하여 볼 때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하나로 합쳐도 될 것 같음.
  - 문10(사장님/선생님): 피조사자의 속성에 따라 예상 답변이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 문12(집사람/와이프): ‘부인’ 또는 ‘색시’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음.
- ❖ 문16(쌀을 사다/팔다): 일반적 용법과 반대로 쓰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조사 필요성 의문
- ❖ 문20~문22
  - 문20(흰자위/흰자/흰창), 문21(귀지/귓밥), 문22(살갓/피부/살꺼풀): 의미 없는 항목을 나열한 느낌이 있어, 사전에 질문에 대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음.
  - 문22(살갓/피부/살꺼풀): ‘살갓’의 응답 예시는 어휘를 넘어 지나치게 음운 쪽에 초점이 있어 음운론적 정보를 기입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음.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원들의 교육이 필요함.
- ❖ 문38(쉬슬다): 더미 질문으로 추가했다고 하면 의문이 없지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음.
- ❖ 문39(부추) 문43(자물쇠/자물통), 문51(텔레비전/티비/테레비): 그림 자료 ‘부추’와 ‘자물쇠’는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텔레비전’은 아래의 그림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함.
- ❖ 문41(시래기): 시래기(무청)와 우거지(배춧잎)의 구별이 필요함.





- ❖ 문47(딱지치기): ‘딱지 치는 흥내를 내면서’를 제시하면 모두 ‘딱지치기’라 응답할 듯함.
- ❖ 문48(단무지), 문49(히야시/냉장)
  - 순화의 영향으로 외래어 응답이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음.
  - 문48의 경우 ‘노란색’이라는 표현으로 예상 답변이 단무지로 쏠릴 것 같고 문49의 경우 ‘맥주가 뭐가 잘 되었다고 합니까?’라는 질문이 질문의 의도를 잘 전달하지 못함.
  - 외래어 대 재래어 형태로 ‘초밥’이나 ‘스시’, 또는 ‘오마카세’와 같이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외래어가 포함되면 좋을 것 같음.
- \* 문41(시래기)과 문47(딱지치기)처럼 질문이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항으로는 문50(스테이크/호치키스), 문53(세일/할인), 문59(물냉면/물냉)이 지적됨.
- ❖ 문55(화이트/수정액): 외래어 사용 양상을 묻는 것이라면 질문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되는 단일층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외래어를 다시 선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단일층 질문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한 항목으로 문57(비밀번호/비번), 문58(슈퍼마켓/슈퍼), 문59(물냉면/물냉)가 제안됨.
- ❖ 문58(슈퍼마켓/슈퍼): ‘슈퍼’ 또는 ‘수퍼’ 등의 음운이나 표기 배리에이션(variation) 나올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센터’와 ‘센타’ 같이 모음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 문59(물냉면/물냉)
  - 제시되는 그림 자료가 부·울·경 지역의 밀면과 헛갈릴 수 있고 질문형식을 볼 때 줄임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음. 사진보다는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먹는 면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소면이나 국수 말고 물냉, 비냉’ 이런 식으로 질문해야 줄임말 출현이 보일 것 같음.
  - 보충 질문이 답변을 유도할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함.
- ❖ 문60(가성비): 최근에 ‘가심비’ 등의 신조어가 사용되므로 신조어 줄임말일 경우 고민할 필요가 있음.
  - \* 가심비: 가격 대비 심리 만족도.

## 다. 문법

- ❖ 문3(삼십만원이세요), 문4(들어가실게요): ‘삼십만 원이세요’와 ‘들어가실게요’는 응답자가 접한 점원 및 간호사에 따라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음.
- ❖ 문7(-으니/-으니까/응께), 문10(버리다/뿌다/불다): ‘-으니/-으니까/응께’와 ‘버리다’ 항목은 문법 항목이라기보다는 지역방언 항목으로 보이므로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어 보임.

## 라. 담화

- ❖ 문2(수고하세요): 응답이 상대방의 높낮이나 친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 친한 사람이면 ‘먼저 간다/가게/가겠습니다’, 덜 친한 윗사람이면 ‘수고하세요’
- ❖ 대부분 항목이 조사가 어렵고 다양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정량적인 처리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이러한 항목 조사가 꼭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함.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응답 결과 처리에 세밀한 기준이 필요해 보임. 조사자에 따라 질문의 깊이와 넓이가 다를 수 있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함.

- ❖ 다양한 답이 나오는 경우 정량적인 처리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항목 조사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함.

## 마. 음운

- ❖ 문1(읽고)
  - 질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책을 보고 있다’와 같은 뜻으로 ‘책을 어찌고 있다고 합니까?’  
→ ‘책을 소리내어 어찌고 있다고’
  - 어간말 자음군을 발음하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어 ‘읽꼬’라는 예상 응답 추가가 필요함.
  - ‘읽기[일끼]’나 ‘읽지[일찌]’, ‘읽는다[일른다]’ 등 받침 ‘ㄹㄱ’ 뒤에 ‘ㄱ’ 오는 환경 외에, 다양한 환경에서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문3(값이/갇이): 값이 경우 ‘가비’로 발음하는 경우가 최근에 있으나, 닭의 [달기], [다기]처럼 같은 ‘ㄹㄱ’을 활용하여 자음군 단순화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문5(인사말): ‘ㄴ 첨가’가 일어나는 ‘인사말’보다는 ‘된소리’가 나는 ‘장맛비’, ‘우유값’ 등이나 ‘ㄴㄴ’ 덧나는 경우도 추가하여 사잇소리 모두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녹취 항목: 굳이 녹취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의 방법상 어려울 듯함. 따라서, 녹취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 조사원이 발음을 듣고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 조사가 어려울 것 같음.

## 5. 예비 조사 실시

### 가. 조사 개요

- ❖ 조사일시 : 2022. 11. 19. ~ 11. 27. (9일간)
- ❖ 조사방법 : 조사원을 통한 대인 면접조사
- ❖ 조사규모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역 일반국민 180명

####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지역	서울	36	20.0
	부산	36	20.0
	대구	36	20.0
	광주	36	20.0
	대전	36	20.0
성별	남성	89	49.4
	여성	91	50.6
연령	20대	31	17.2
	30대	31	17.2
	40대	40	22.2
	50대	41	22.8
	60대	37	20.6
전체		180	100.0



## 나. 응답자 평가

1) 질문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 있음 18명

문항 번호	의견
어휘 문15 (1명)	<p>문15.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① 주라고</span> <span>② 달라고</span> <span>③ 기타 ( )</span> </div> <p>☞ 의견 : 질문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됨.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음</p>
어휘 문38 (15명)	<p>문38. 쉬파리가 된장이나 고추장에 알을 하얗게 낳는 것을 무엇한다고 합니까?</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① 깔리다</span> <span>② 시깔리다</span> <span>③ 쉬실다</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④ 쉬뜨리 싸다</span> <span>⑤ 쉬다</span> <span>⑥ 모름</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⑦ 기타 ( )</span> </div> <p>☞ 의견1 : 쉬파리가 뭔지 잘 몰라 이해하기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움</p> <p>☞ 의견2 : 질문이 무슨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 안됨</p> <p>☞ 의견3 : 내용의 의미는 알지만 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음</p>
어휘 문59 (2명)	<p>문59. 가격에 비해 물건이나 서비스의 품질이나 효율이 좋을 때, 무엇이 좋다고 말합니까?</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① 가성비</span> <span>② 모름</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③ 기타 ( )</span> </div> <p>☞ 의견1 : 질문이 넘 어렵고, 정답을 맞추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위축됨</p> <p>☞ 의견2 : 국어 사용에 대한 실태라기 보다는 상식을 묻는 질문인 것 같음</p>

2) 질문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 있음 15명

문항 번호	의견
어휘 문3 (2명)	<p>문3. 아내가 남편의 아버지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부릅니까?</p> <p>① 아버님                                      ② 아버지                                      ③ 시아버지</p> <p>④ <u>시아방</u>                                      ⑤ 기타 (                                      )</p> <p>☞ 의견 : 직접 호칭을 부를 때와 타인에게 말할 때의 호칭이 달라서 어떤 상황에서인지 정확한 구분이 필요</p>
어휘 문5 (1명)	<p>문5. 아내가 남편의 어머니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p> <p>① 어머님                                      ② 어머니                                      ③ 시어머니</p> <p>④ <u>시어머</u>                                      ⑤ 기타 (                                      )</p> <p>☞ 의견 : 직접 호칭을 부를 때와 타인에게 말할 때의 호칭이 달라서 어떤 상황에서인지 정확한 구분이 필요</p>
어휘 문25, 문26 (각 1명)	<p>문25.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그 사람 말투가 어떻다고 합니까?</p> <p>① 밥맛이다                                      ② 밥맛없다                                      ③ <u>재수없다</u></p> <p>④ 기타 (                                      )</p> <p>문26. 일정한 줏대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거나 아무 일이나 끼어들어 실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p> <p>① 주책이다                                      ② 주책없다                                      ③ 주책맞다</p> <p>④ <u>주책떨다</u>                                      ⑤ 주책바가지다                                      ⑥ 기타 (                                      )</p> <p>☞ 의견 : 질문이 어떠한 응답을 원하는지 구체적이지 못해서 선뜻 응답하기가 쉽지 않음</p>

문항 번호	의견
어휘 문38 (5명)	<p>문38. 쉬파리가 된장이나 고추장에 알을 하얗게 낳는 것을 무엇한다고 합니까?</p> <p>① 깔리다                      ② 시깔리다                      ③ 쉬실다</p> <p>④ 쉬 켜리 싸다                ⑤ 쉬다                          ⑥ 모름</p> <p>⑦ 기타 ( )</p> <p>☞ 의견 : 쉬파리가 뭇지 몰라서,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으면 좋겠음</p>
어휘 문41 (2명)	<p>문41. [그림]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청을 엮어 말린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p> <p>① 시래기                      ② 씨래기                      ③ 쓰래기</p> <p>④ 쓰라기                      ⑤ 실가리                      ⑥ 기타 ( )</p> <p>☞ 의견 : 시래기라는 것을 잘 모름. 주로 어르신들이 쓰는 말로 알고 있음</p>
어휘 문59 (1명)	<p>문59. 가격에 비해 물건이나 서비스의 품질이나 효율이 좋을 때, 무엇이 좋다고 말합니까?</p> <p>① 가성비                      ② 모름</p> <p>③ 기타 ( )</p> <p>☞ 의견 : 질문에 추가 설명이 있어야 이해가 될 것 같음. 너무 어려운 질문임</p>
담화 문4 (1명)	<p>문4. 손윗사람과 전화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을 때 인사말을 어떻게 합니까?</p> <p>① 들어가세요                ② 끝냈습니다                ③ 감사합니다</p> <p>④ 쉬세요                      ⑤ 기타 ( )</p> <p>☞ 의견 :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음</p>
담화 문11 (1명)	<p>문11. 아버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한 말을 할아버지한테 전하려면 할아버지께 어떻게 말합니까? (* 이 문항은 아버지를 높이는 ‘께서’와 ‘-시-’를 사용하는지에 주목한다.)</p> <p>① 높임 표현 사용 안 함                      ② 높임 표현 1군데 사용 (예: 아버지가 귀국한다고 했어요.)                      (예: 아버지가 귀국한다고 하셨어요.)</p> <p>③ 높임 표현 2군데 사용                      ④ 높임 표현 3군데 사용 (예: 아버지께서 귀국한다고 하셨어요.)                      (예: 아버지께서 귀국하신다고 하셨어요.)</p> <p>☞ 의견 :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예시가 필요함</p>

3) 질문에 쓰인 단어가 이해하기 힘들었다 : 있음 12명

문항 번호	의견
어휘 문13 (1명)	<p>문13. 아이가 있는(자녀를 둔) 며느리가 시부모나 친정 부모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가리켜 말할 때는 누구라고 합니까?</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① ○○아빠</span> <span>② 아비</span> <span>③ 아범</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④ 오빠</span> <span>⑤ ○○씨</span> <span>⑥ 기타 (                  )</span> </div> <p>👉 의견 : 처음 듣는 질문으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음</p>
어휘 문22 (1명)	<p>문22. 사람의 살의 겉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① 살갓</span> <span>② 피부</span> <span>③ 살가죽</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④ 기타 (                  )</span> </div> <p>👉 의견 : 살의 겉면이라는 표현이 생소했음</p>



문항 번호	의견
어휘 문38 (10명)	<p>문38. 쉬파리가 된장이나 고추장에 알을 하얗게 낳는 것을 무엇한다고 합니까?</p> <p>① 깔리다                                      ② 시깔리다                                      ③ 쉬실다          ④ 쉬뜨리 싸다                                      ⑤ 쉬다                                      ⑥ 모름          ⑦ 기타 (                                      )</p> <p>☞ 의견 : 쉬파리가 무엇인지 잘 모름. 쉬파리 단어가 너무 어려움</p>

#### 4) 질문이 평소 관심이 없는 내용으로 응답하기 어려웠다 : 있음 10명

문항 번호	의견
어휘 문41 (1명)	<p>문41. [그림]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청을 엮어 말린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p> <p>① 시래기                                      ② 씨래기                                      ③ 쓰래기          ④ 쓰라기                                      ⑤ 실가리                                      ⑥ 기타 (                                      )</p> <p>☞ 의견 : 평소 잘 못 보던 것이라서 생소했음</p>
어휘 문42 (1명)	<p>문42. 제사상에 올려놓는 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p> <p>① 메                                      ② 제삿밥                                      ③ 젓밥          ④ 맷밥                                      ⑤ 기타 (                                      )</p> <p>☞ 의견 : 제사에 관해 잘 몰라서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름</p>
어휘 문55 (5명)	<p>문55. 최근에 생긴 직업인데, 동영상 제작해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공유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p> <p>① 유튜버                                      ② 크리에이터                                      ③ 모름          ④ 기타 (                                      )</p> <p>☞ 의견 : 인터넷을 잘 활용하지 않아 어떤 단어를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음</p>
담화 문5, 문6, 문11, 문12, 문14 (2명)	<p>문5. 이번 주말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려면 어떻게 말합니까?          (* 구체적인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에 주목하여 기록한다.          말하기 방식을 바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일단 기타에 기록하고 다시 판단하여 기록한다.)</p> <p>① 직접 요청                                      ② 수락 가능성에 대한 준비 질문          (예: 주말에 이사하는 것 좀 도와줘)                                      (예: 주말에 바빠?/뭐해?)          ③ 상대방 의사에 대한 질문                                      ④ 도움이 필요한 상황 제시          (예: 주말에 이사하는 것 좀 도와줄래?)                                      (예: 나 주말에 이사하는데...)          ⑤ 자신의 희망 표현                                      ⑥ 기타 (                                      )          (예: 주말에 이사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p>

<계속>



문항 번호	의견
<p>담화 문5, 문6, 문11, 문12, 문14 (2명)</p>	<p>문6. 친구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다른 일이 있어서 거절하려면 어떻게 말합니까? (* 구체적인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에 주목하여 기록한다. 말하기 방식을 바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일단 기타에 기록하고 다시 판단하여 기록한다.)</p> <p>① 사과+거절 (예: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      ② 상황 제시 (예: 그날 다른 일이 있어)</p> <p>③ 고민+상황 제시 (예: 어떡하지? 그날 다른 일정이 있는데...)      ④ 상대 질책 (예: 진짜 말하지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p> <p>⑤ 아쉬움+상황 제시 (예: 내가 도와주면 좋을텐데 그날 다른 일이 있어)      ⑥ 기타 ( )</p>
	<p>문11. 아버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한 말을 할아버지한테 전하려면 할아버지께 어떻게 말합니까? (* 이 문항은 아버지를 높이는 '께서'와 '-시-'를 사용하는지에 주목한다.)</p> <p>① 높임 표현 사용 안 함 (예: 아버지가 귀국한다고 했어요.)      ② 높임 표현 1군데 사용 (예: 아버지가 귀국한다고 하셨어요.)</p> <p>③ 높임 표현 2군데 사용 (예: 아버지께서 귀국한다고 하셨어요.)      ④ 높임 표현 3군데 사용 (예: 아버지께서 귀국하신다고 하셨어요.)</p>
	<p>문12. 직장에서 직원이 사장한테, 과장이 내일 귀국한다고 한 말을 전하려면 어떻게 말합니까? (* 이 문항은 과장을 높이는 '께서'와 '-시-'를 사용하는지에 주목한다.)</p> <p>① 높임 표현 사용 안 함 (예: 과장님이 귀국한다고 했어요.)      ② 높임 표현 1군데 사용 (예: 과장님이 귀국한다고 하셨어요.)</p> <p>③ 높임 표현 2군데 사용 (예: 과장님께서 귀국한다고 하셨어요.)      ④ 높임 표현 3군데 사용 (예: 과장님께서 귀국하신다고 하셨어요.)</p>
	<p>문14. 친하지 않고 좀 대하기 어려운 선배(또는 나이 많은 이)가 금요일에 시간이 있냐고 묻는데, 그날 시간이 없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 어렵다/안 된다/없다 등 다양한 내용의 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어려워요/안 돼요/없어요 등과 같이 확정적으로 응답하는지, 어려울 것 같아요/안 될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등과 같이 비확정적으로 응답하는지에만 주목하여 기록한다.)</p> <p>① 확정적 표현 (예: 그날 시간이 어려워요/안 돼요/없어요),      ② 비확정적 표현 (예: 그날 시간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없을 것 같아요)</p> <p>③ 기타 ( )</p>
	<p>☞ 의견 1 : 상황에 따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음. 보기를 주고 선택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음</p> <p>☞ 의견 2 : 평소 높임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려웠음</p>
<p>음운 문3 (1명)</p>	<p>문3. 물가가 많이 올랐을 경우 물건의 뭐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까? '가격' 말고 한 글자 단어를 사용해 문장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값'에 '이'를 붙여서 어떻게 발음하는지에 주목한다. 단답형으로 말할 경우, 문장으로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한다.)</p> <p>① 값싸      ② 가비      ③ 기타 ( )</p> <p>☞ 의견 :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이어서 언뜻 이해하고 대답하기 어려웠음</p>



5)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하기 힘들었다 : 있음 6명

문항 번호	의견
어휘 문33 (1명)	<p>문33. 손가락과 젓가락을 합쳐서 셀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수저 한 ○.</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① 벌</span> <span>② 세트</span> <span>③ 기타 ( )</span> </div> <p>☞ 의견 :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여서 틀린 답변을 할까봐 두려웠음</p>
어휘 문36 (1명)	<p>문36. [그림] 이 동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p> <p>[보충] 냇물에 살고, 나사 모양의 딱딱한 껍질은 검은 갈색이나 누런 갈색인데 흰 얼룩무늬가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p> <div style="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3, 1fr); gap: 5px;"> <div>① 다슬기</div> <div>② <u>다슬비</u></div> <div>③ <u>올갱이</u></div> <div>④ 고동</div> <div>⑤ 달팽이</div> <div>⑥ <u>웜보말</u></div> <div>⑦ 기타 ( )</div> </div> <p>☞ 의견 : 여러가지 단어가 생각나서 딱 한가지 단어를 말하기 힘들</p>
어휘 문41 (1명)	<p>문41. [그림]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청을 엮어 말린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① 시래기</span> <span>② <u>씨래기</u></span> <span>③ <u>쓰래기</u></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④ 쓰라기</span> <span>⑤ <u>실가리</u></span> <span>⑥ 기타 ( )</span> </div> <p>☞ 의견 : 시골에서 자란 탓에 실가리라는 단어가 익숙하나 그렇게 말하면 틀린 답을 말하는 것 같음</p>
담화 문11, 문12, 문14 (3명)	<p>문11. 아버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한 말을 할아버지한테 전하려면 할아버지께 어떻게 말합니까? (* 이 문항은 아버지를 높이는 ‘께서’와 ‘-시-’를 사용하는지에 주목한다.)</p> <div style="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5px;"> <div>① 높임 표현 사용 안 함 (예: 아버지가 귀국한다고 했어요.)</div> <div>② 높임 표현 1군데 사용 (예: 아버지가 귀국한다고 하셨어요.)</div> <div>③ 높임 표현 2군데 사용 (예: 아버지께서 귀국한다고 하셨어요.)</div> <div>④ 높임 표현 3군데 사용 (예: 아버지께서 귀국하신다고 하셨어요.)</div> </div> <p>문12. 직장에서 직원이 사장한테, 과장이 내일 귀국한다고 한 말을 전하려면 어떻게 말합니까? (* 이 문항은 과장을 높이는 ‘께서’와 ‘-시-’를 사용하는지에 주목한다.)</p> <div style="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5px;"> <div>① 높임 표현 사용 안 함 (예: 과장님이 귀국한다고 했어요.)</div> <div>② 높임 표현 1군데 사용 (예: 과장님이 귀국한다고 하셨어요.)</div> <div>③ 높임 표현 2군데 사용 (예: 과장님께서 귀국한다고 하셨어요.)</div> <div>④ 높임 표현 3군데 사용 (예: 과장님께서 귀국하신다고 하셨어요.)</div> </div> <p>문14. 친하지 않고 좀 대하기 어려운 선배(또는 나이 많은 이)가 금요일에 시간이 있냐고 묻는데, 그날 시간이 없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 어렵다/안 된다/없다 등 다양한 내용의 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어려워요/안 돼요/없어요 등과 같이 확정적으로 응답하는지, 어려울 것 같아요/안 될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등과 같이 비확정적으로 응답하는지에만 주목하여 기록한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8%;"> <p>① 확정적 표현 (예: 그날 시간이 어려워요/안 돼요/없어요),</p> <p>③ 기타 ( )</p> </div> <div style="width: 48%;"> <p>② 비확정적 표현 (예: 그날 시간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없을 것 같아요)</p> </div> </div> <p>☞ 의견 : 높임 표현이 헛갈려서 내가 알고 있는지 정답인지에 대한 확답이 없어서 대답하기 힘들</p>

6) 기타 의견 : 있음 7명

문항 번호	의견
음운 문17 (3명)	<p>문17. 고향에 대한 마음을 담은 노래로 '나나 나나 고향은(가급적 음정과 함께)'으로 시작되는 노래가 있지요? 이때 '나나 나나'는 무엇입니까? (* 이 문항은 녹취를 위한 것이지만, '나의 살던', '나에 살던', '나으 살던', '나이 살던' 등 중에 조사원이 들리 는 대로 기록할 수 있다.) ( )</p> <p>☞ 의견 : 조사원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어색하고, 이 노래를 잘 모름</p>
음운 전체 (4명)	<p>☞ 의견 : 평소 쓰지 않은 발음들이 많아 설문 응답이 어려웠음</p>

<설문에 대한 전반적 평가>

내용	사례 수(명)	비율(%)
조사 내용이 재밌음	14	7.8
정답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 응답이 어려움	11	6.1
설문 항목이 너무 많음	11	6.1
국어의 다양성을 알게 됨	9	5.0
우리 말이 어렵다는 걸 느낌	7	3.9
설문 문장 이해가 어려움	5	2.8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한 질문으로 대답이 어려움	3	1.7
국어의 소중함을 느낌	1	0.6
녹취를 한다는 것에 부담이 있음	1	0.6
발음의 정확성을 느끼게 함	1	0.6
비슷한 문장이 많아 설문이 지루함	1	0.6
의견 없음	116	64.4
전체	180	100.0





## 다. 조사원 평가

구분	문항 번호	의견
질문 이해도	어휘 문14	☞ 의견 : 질문하고 나니 응답자분이 멍하니 쳐다 봄. 무슨 말을 해야 할 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음. 똥은 쓴다고 하고 오줌은 눈다고 표현하고 전체적으로 본다고 이야기함. 똥과 오줌의 표현을 달리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질문을 분리해야 할 것 같음
	어휘 문38	☞ 의견 : 20대는 잘 알지 못하는 문제이며, 많은 사람들이 본 문항에 쉽게 답하지 못함
	어휘 문55	☞ 의견 : 나이 드신 분들이나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문장에 대한 답변을 어려워함
	문법 문10	☞ 의견 : 문제를 그대로 물었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응답자가 어려워하는 질문임
	담화 문5, 6, 11, 12, 14	☞ 의견 : 상황에 따른 높임 표현에 대해 응답자들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전체 문장으로 말하기 힘들어함
추가 설명 필요	어휘 문13	☞ 의견 : 젊은 사람들은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잘 모름
	어휘 문24	☞ 의견 : 다양한 응답이 가능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한 질문임
	어휘 문25	☞ 의견 :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질문으로 구체적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어휘 문26	☞ 의견 : 응답자들이 답변하기 힘들어함.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의 질문이 필요함
	어휘 문36	☞ 의견 : 응답자들 중 그림을 보고 이것이 뭐냐고 되묻기도 함
	어휘 문38	☞ 의견 : 쉬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설명 필요
	문법 문10	☞ 의견 : 문제를 그대로 읽어주었을 때 응답이 바로 나오지가 않음.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음
	음운 문4	☞ 의견 : 설명 부족으로 응답자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름
관심없는 내용	어휘 문54	☞ 의견 : 평소 접하지 않는 물건으로 응답에 어려워 함
	어휘 문54	☞ 의견 : TV, 인터넷 사용이 없는 사람, 특히 나이드신 분들이 이 질문을 어려워함
	담화 문5, 6, 11, 12, 14	☞ 의견 : 응답자들이 전체 문장으로 상황에 대해 답변하는 경험이 적어서인지, 응답을 매우 어려워함
솔직한 응답 어려움	어휘 문43	☞ 의견 : 정답이 없다고 가이드를 주지만, 본인이 말하는 단어에 대해 정답이 아닐까봐 걱정함
	어휘 문59	☞ 의견 : 정답을 맞춰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는 문항임. 대답에 시간이 많이 걸림

구분	문항 번호	의견
기타	어휘 문20	☞ 의견 : 평소에는 분명 아는 단어였는데, 설문 진행시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보기를 작성해서 응답자에게 가이드를 주면서 설문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음
	어휘 문25	☞ 의견 : 사람마다 다양한 답변이 나옴
	어휘 문29	☞ 의견 : 평상시 가까운 사람들과 실제로 사용하는 말과 조심스럽게 사용할 때 다른 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약간 거친 말투로 말할 때와 그렇지 않은 말투를 사용할 때의 상황이 다른 경우도 있음
	담화 문9, 10	☞ 의견 : 아니에요. 별말씀을요 등과 같이 여러 문장을 한번에 말하는 경우가 있음
	음운 문1	☞ 의견 : 일꼬인지, 읽고인지. 응답자가 말하는 것만 듣고 판단하기 어려움
	음운 문15, 16, 17	☞ 의견 1 : 음성을 녹음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들이 꺼려함 ☞ 의견 2 : 녹취 시 응답자가 소리를 작게 말해 어려움이 있음 ☞ 의견 3 : 녹취 시 응답자가 명확하게 발음하지 않아 재녹음 진행하는 경우 있음 ☞ 의견 4 : 음성 녹음에 대한 동의 얻기가 힘들 ☞ 의견 5 : 음성을 녹음해야 하는 것이 설문 진행과 병행해서 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설문에 대한 전반적 평가>

내용
응답 시간이 기존 설문보다 오래 걸림(기존 설문은 약 20분~30분, 본 설문은 50분~60분)
비슷한 질문이 많아 지루해 하며, 중도 거절하기도 함
응답자가 정답을 답해야 한다는 생각에 응답 값을 수정하려 하고, 정답이 뭔지 계속 물음
정답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 응답을 어려워 함
조사 지역에 따라 사투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기타 응답으로 기재하는 분량이 늘어날 것 같음
녹취에 대해 일부 거부감을 나타냄
고연령인 경우 일부 설문(신조어)에서 응답이 어려운 경우 있음
녹취시 응답자가 또렷하게 발음하지 않아 어려움
저연령인 경우 일부 설문(쉬파리)에서 응답이 어려운 경우 있음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한 질문으로 대답이 어려움



## 6. 예비 조사 결과

- ❖ 예비 조사에서 나온 설문에 대한 응답자, 조사원 평가를 공동연구원이 검토하여 설문에 대한 수정, 보완 진행함.
  - 1)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을 수정
  - 2) 예상 응답 추가
  - 3) 조사원 질문지에 부연설명 추가
  - 4) 응답에 어려움이 있는 질문 삭제

## 7. 본 조사 항목 확정

- ❖ 최종 확정 설문항목은 4개 영역(어휘, 문법, 담화, 음운)이며, 어휘 45개 문항, 문법 8개 문항, 담화 13개 문항, 음운 14개 문항 총 80문항으로 구성

### V 조사 내용

- ❖ 조사 부문은 4개 영역으로 구성됨. (응답자 인적 사항 및 자료 분류용 질문 제외)
  - 설문은 어휘, 문법, 담화, 음운 총 80문항으로 구성

구분	문항
어휘(45)	- 호칭, 선택 표현, 외래어, 줄임말, 단위, 동식물, 샘, 소유 표현, 지칭 등
문법(8)	- 경어법, 조사/어미, 부정문, 보조동사
담화(13)	- 인사 표현, 요청/부탁(거절) 표현, 승낙 표현, 칭찬(감사, 사과) 표현에 대한 응답, 가정에서의 압존법 표현, 호출 표현, 비확정적 표현
음운(14)	- 자음군단순화, ㄴ 첨가, 사잇소리, 유기음화/경음화, 마찰음화에 의한 재구조화, 용언 어간 변화, 모음조화 등

## VI 표본 설계

### 1. 모집단 정의

- ❖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 시점 기준 전국 만 20세 ~ 69세 국민이며, 모집단 자료는 표본 설계 시점인 2022년 11월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였음.
- ❖ 전체 조사 대상 인구는 36,807,939명이며 20대 6,406,056명, 30대 6,570,333명, 40대 8,001,197명, 50대 8,516,048명, 60대 7,314,305명임.

[ 표 1-1 ] 시도별 조사 대상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 ~ 69세
전체	36,807,939	6,406,056	6,570,333	8,001,197	8,516,048	7,314,305
서울특별시	7,003,991	1,390,068	1,418,356	1,439,055	1,474,782	1,281,730
부산광역시	2,377,540	396,501	395,836	492,450	540,308	552,445
대구광역시	1,699,210	295,472	279,066	362,807	412,702	349,163
인천광역시	2,179,646	376,992	402,863	478,632	505,499	415,660
광주광역시	1,021,388	199,224	177,151	232,169	236,633	176,211
대전광역시	1,050,876	204,179	187,253	226,119	237,548	195,777
울산광역시	816,586	129,763	139,794	180,974	203,817	162,238
세종특별자치시	262,323	38,363	61,031	76,159	51,238	35,532
경기도	9,853,802	1,733,034	1,868,226	2,262,347	2,265,267	1,724,928
강원도	1,065,259	169,293	159,219	214,264	258,801	263,682
충청북도	1,128,062	188,723	186,966	235,620	266,928	249,825
충청남도	1,458,950	231,007	252,807	325,631	338,738	310,767
전라북도	1,199,936	198,639	176,279	253,156	296,553	275,309
전라남도	1,131,261	173,066	156,110	225,604	293,454	283,027
경상북도	1,783,736	261,658	267,679	367,996	445,792	440,611
경상남도	2,303,429	342,143	362,343	517,780	571,729	509,434
제주특별자치도	471,944	77,931	79,354	110,434	116,259	87,966

\* 2022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 인구 현황(행정안전부)



## 2. 표본 추출 및 표본 배분

### 가. 표본 추출

- ❖ 본 조사에서 표본 추출은 층화 2단 추출법을 적용하였음. 1차 추출 단위는 통계청의 집계구이고, 2차 추출 단위는 가구이며, 최종 조사 대상은 가구 및 만 20세~69세 성인임.
- ❖ 표본으로 추출된 표본 집계구에서 각 10명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 가구 내 응답자는 성별 및 연령대별 사전 할당에 따라 가구당 적격자 1인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단, 강한 거절이나 조사 대상자가 없는 가구를 제외하고는 시간대를 달리하여 최소 3회까지 재방문함으로써 면접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조사 대상자 선정을 최소화하였음.

### 나. 표본 배분

- ❖ 본 조사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2022년 11월 기준)』 자료를 이용하여 층화 및 표본 배분을 실시하였음.
- ❖ 표본 설계에서 각 시·도 구분과 도 지역 내의 동 및 읍·면 구분을 이용한 세부 층화를 통해서 전체 32개 지역층을 구성하였음. 각 시도 및 세부 층별 모집단 현황은 [표 1-2]와 같음.
- ❖ 각 시도별 표본 배분은 각 시도별 조사 대상 인구수 기준의 제곱근비례배분법에 따라 이루어졌음. 또한 각 시도 내 세부 층별 표본 배분은 세부 층별 인구수 기준으로 비례배분하였음.
- ❖ [표 1-3]은 이와 같은 표본 배분 원칙에 따라 배분된 세부 시도별 표본 크기와 할당된 집계구 수임.
- ❖ 본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하에서  $\pm 2.19\%$ p임.

[ 표 1-2 ] 시도 및 세부 층별 인구 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전체	36,807,939	6,406,056	6,570,333	8,001,197	8,516,048	7,314,305
서울특별시	7,003,991	1,390,068	1,418,356	1,439,055	1,474,782	1,281,730
도심권	359,720	71,633	76,635	68,359	77,287	65,806
동남권	1,492,941	263,384	305,465	348,375	314,296	261,421
동북권	2,135,894	424,126	398,910	423,255	472,727	416,876
서남권	2,172,207	459,221	465,157	425,228	432,430	390,171
서북권	843,229	171,704	172,189	173,838	178,042	147,456
부산광역시	2,377,540	396,501	395,836	492,450	540,308	552,445
대구광역시	1,699,210	295,472	279,066	362,807	412,702	349,163
인천광역시	2,179,646	376,992	402,863	478,632	505,499	415,660
광주광역시	1,021,388	199,224	177,151	232,169	236,633	176,211
대전광역시	1,050,876	204,179	187,253	226,119	237,548	195,777
울산광역시	816,586	129,763	139,794	180,974	203,817	162,238
세종특별자치시	262,323	38,363	61,031	76,159	51,238	35,532
경기도	9,853,802	1,733,034	1,868,226	2,262,347	2,265,267	1,724,928
북부 동부	2,851,840	520,487	541,009	648,536	663,752	478,056
북부 읍면부	552,575	89,968	78,420	112,232	141,263	130,692
남부 동부	5,537,805	983,297	1,094,154	1,298,239	1,245,428	916,687
남부 읍면부	911,582	139,282	154,643	203,340	214,824	199,493
강원도	1,065,259	169,293	159,219	214,264	258,801	263,682
강원 동부	653,074	112,668	104,332	140,953	156,630	138,491
강원 읍면부	412,185	56,625	54,887	73,311	102,171	125,191
충청북도	1,128,062	188,723	186,966	235,620	266,928	249,825
충북 동부	672,364	126,416	115,940	146,033	156,960	127,015
충북 읍면부	455,698	62,307	71,026	89,587	109,968	122,810
충청남도	1,458,950	231,007	252,807	325,631	338,738	310,767
충남 동부	719,270	134,184	144,685	173,173	157,236	109,992
충남 읍면부	739,680	96,823	108,122	152,458	181,502	200,775
전라북도	1,199,936	198,639	176,279	253,156	296,553	275,309
전북 동부	880,274	161,208	141,368	197,369	210,946	169,383
전북 읍면부	319,662	37,431	34,911	55,787	85,607	105,926
전라남도	1,131,261	173,066	156,110	225,604	293,454	283,027
전남 동부	550,635	98,141	89,553	121,356	135,875	105,710
전남 읍면부	580,626	74,925	66,557	104,248	157,579	177,317
경상북도	1,783,736	261,658	267,679	367,996	445,792	440,611
경북 동부	975,228	162,803	162,237	217,888	235,481	196,819
경북 읍면부	808,508	98,855	105,442	150,108	210,311	243,792
경상남도	2,303,429	342,143	362,343	517,780	571,729	509,434
경남 동부	1,517,989	246,786	249,812	351,637	373,934	295,820
경남 읍면부	785,440	95,357	112,531	166,143	197,795	213,614
제주특별자치도	471,944	77,931	79,354	110,434	116,259	87,966
동부	340,027	60,766	60,533	79,725	80,968	58,035
읍면부	131,917	17,165	18,821	30,709	35,291	29,931

※ 2022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 인구 현황(행정안전부)



[ 표 1-3 ] 시도별 및 세부 층별 표본 배분

(단위 : 명)

구분	전체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집계구 수(개)
전체	2,000	341	347	432	468	412	200
서울특별시	358	72	73	73	75	65	36
도심권	38	8	8	7	8	7	4
동남권	77	14	16	18	16	13	8
동북권	91	18	17	18	20	18	9
서남권	94	20	20	18	19	17	9
서북권	58	12	12	12	12	10	6
부산광역시	97	16	16	20	22	23	10
대구광역시	82	14	13	18	20	17	8
인천광역시	93	16	17	20	22	18	9
광주광역시	64	12	11	15	15	11	6
대전광역시	63	12	11	14	14	12	6
울산광역시	57	9	10	13	14	11	6
세종특별자치시	31	5	7	9	6	4	3
경기도	360	62	66	82	84	66	36
북부 동부	106	19	20	24	25	18	10
북부 읍면부	48	8	7	10	12	11	5
남부 동부	147	26	29	35	33	24	15
남부 읍면부	59	9	10	13	14	13	6
강원도	90	14	13	18	22	23	9
강원 동부	51	9	8	11	12	11	5
강원 읍면부	39	5	5	7	10	12	4
충청북도	94	16	16	19	22	21	9
충북 동부	52	10	9	11	12	10	5
충북 읍면부	42	6	7	8	10	11	4
충청남도	108	17	19	24	25	23	10
충남 동부	54	10	11	13	12	8	5
충남 읍면부	54	7	8	11	13	15	5
전라북도	94	15	13	19	24	23	10
전북 동부	58	11	9	13	14	11	6
전북 읍면부	36	4	4	6	10	12	4
전라남도	96	14	14	19	25	24	10
전남 동부	47	8	8	10	12	9	5
전남 읍면부	49	6	6	9	13	15	5
경상북도	119	17	17	25	30	30	12
경북 동부	62	10	10	14	15	13	6
경북 읍면부	57	7	7	11	15	17	6
경상남도	134	20	21	30	33	30	14
경남 동부	78	13	13	18	19	15	8
경남 읍면부	56	7	8	12	14	15	6
제주특별자치도	60	10	10	14	15	11	6
동부	38	7	7	9	9	6	4
읍면부	22	3	3	5	6	5	2

### 3. 가중치

- ❖ 통계 조사에서 가중치 부여는 표본추출에 따른 추출률의 차이와 응답률 및 모집단에 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맞춤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일반적으로 표본 조사의 가중치는 ① 설계 가중치 산정, ② 무응답에 대한 조정, ③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조정 등의 과정을 통해서 산정됨.

- ❖ 표본 설계에서는 각 시·도 구분과 도 지역 내의 동 및 읍·면 구분을 이용한 세부 층화를 통해서 전체 32개 지역층을 구성하였음. 표본 추출은 층화 2단 추출법을 적용하였는데, 1차 추출 단위는 통계청의 집계구이고, 2차 추출 단위는 가구이며, 최종 조사 대상은 가구 및 만 20세~69세 성인임.
- ❖ 본 조사에서 설계 가중치는 표본 추출 과정에서 층화 2단 확률비례계통 추출법을 적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집계구 내의 가구별 추출 확률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함.
- ❖ 가중치 산정 과정에서 사용한 기호는 다음과 같음.
  - $N_h$  : 층  $h$ 의 모집단 집계구 수
  - $n_h$  : 층  $h$ 의 표본 집계구 수
  - $S_{hi}$  : 층  $h$ 의  $i$ 번째 집계구에 대한 크기의 측도(해당 집계구 내 총 가구 수)
  - $S_h = \sum_{i=1}^{N_h} S_{hi}$  : 층  $h$ 에서 크기의 측도에 대한 총합
  - $m_{hi}$  : 층  $h$ 의  $i$ 번째 집계구 내 조사착수 가구 수(응답+거절)
  - $r_{hi}$  : 층  $h$ 의  $i$ 번째 표본 집계구 내 조사 완료 가구 수(응답)

## 가. 설계 가중치

- ❖ 본 조사의 설계 가중치는 각 표본 집계구에 대한 표본 추출률의 역수와 표본 집계구에서 가구 조사 착수율의 역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함.

$$\text{설계 가중치} = \frac{S_h}{n_h S_{hi}} \times \frac{S_{hi}}{m_{hi}}$$

- ❖ 본 조사에서는 각 표본 집계구에서 10가구씩을 표본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m_{hi}=10$ 이고, 각 층에서 설계 가중치는 해당 층 내에서 일정한 값이 되어 ‘설계 가중치= $S_h/(n_h \times 10)$ ’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음.
- ❖ 이때 각 지역 내 층에서 모든 표본 가구들은 동일한 설계 가중치를 갖게 됨.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표본추출률의 집계구 내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에 차이가 있어 각 층 내에서 설계 가중치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값을 갖게 됨.

## 나. 무응답 조정

- ❖ 해당 지역 내 세부 층에서 조사 가구에 대한 설계 가중치는 원칙적으로 같음. 본 조사에서 무응답 조정은 표본 집계구 단위로 진행되었음. 무응답 조정 계수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함.

$$\text{무응답 조정계수} = \frac{m_{hi}}{r_{hi}}$$

- 여기에서,  $r_{hi}$ 는 층  $h$ 의  $i$ 번째 표본 집계구 내 조사 완료 가구(응답자) 수임.





## 다. 사후층화 조정

- ❖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가중치 조정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유사하게 맞춤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중치 산정 단계에서 사용한 모집단에 대한 정보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2022년 11월 기준)』 자료임.
- ❖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가중치 조정단계에서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2년 11월 기준)』 자료 중 지역(17) × 연령대(5) × 성별(2) 구분에 대한 만 20세~69세 인구 현황을 사용하여 사후층화 조정하였음. <표 1-4>는 사후층화 단계에서 사용된 모집단 정보임. 마지막으로 최종 가중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되었음.

$$\text{최종 가중치} = \text{설계 가중치} \times \text{무응답 조정계수} \times \text{사후층화 조정계수}$$

[ 표 1-4 ] 시도 및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 현황(2022년 11월 기준)

[남자]

(단위 : 명)

구분	전체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전체	18,707,585	3,355,590	3,403,446	4,059,261	4,299,787	3,589,501
서울특별시	3,416,162	664,834	709,148	711,307	725,431	605,442
부산광역시	1,179,955	204,719	203,088	248,307	263,520	260,321
대구광역시	850,777	156,633	147,552	178,798	201,521	166,273
인천광역시	1,107,959	196,466	209,050	245,098	251,982	205,363
광주광역시	511,258	103,861	90,870	115,317	117,217	83,993
대전광역시	531,013	107,020	98,366	112,382	118,471	94,774
울산광역시	425,375	73,304	74,936	92,569	102,861	81,705
세종특별자치시	132,234	19,725	29,868	38,100	26,891	17,650
경기도	5,038,507	914,038	970,423	1,150,594	1,144,580	858,872
강원도	553,780	95,075	84,263	109,039	133,531	131,872
충청북도	591,327	104,930	101,250	121,729	137,411	126,007
충청남도	774,698	128,209	136,645	173,037	179,688	157,119
전라북도	619,831	107,779	91,309	129,588	154,265	136,890
전라남도	602,544	97,107	82,334	120,627	158,240	144,236
경상북도	936,083	148,869	143,859	190,938	231,291	221,126
경상남도	1,194,260	191,693	190,515	265,511	292,501	254,040
제주특별자치도	241,822	41,328	39,970	56,320	60,386	43,818

[여자]

(단위 : 명)

구분	전체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전체	18,100,354	3,050,466	3,166,887	3,941,936	4,216,261	3,724,804
서울특별시	3,587,829	725,234	709,208	727,748	749,351	676,288
부산광역시	1,197,585	191,782	192,748	244,143	276,788	292,124
대구광역시	848,433	138,839	131,514	184,009	211,181	182,890
인천광역시	1,071,687	180,526	193,813	233,534	253,517	210,297
광주광역시	510,130	95,363	86,281	116,852	119,416	92,218
대전광역시	519,863	97,159	88,887	113,737	119,077	101,003
울산광역시	391,211	56,459	64,858	88,405	100,956	80,533
세종특별자치시	130,089	18,638	31,163	38,059	24,347	17,882
경기도	4,815,295	818,996	897,803	1,111,753	1,120,687	866,056
강원도	511,479	74,218	74,956	105,225	125,270	131,810
충청북도	536,735	83,793	85,716	113,891	129,517	123,818
충청남도	684,252	102,798	116,162	152,594	159,050	153,648
전라북도	580,105	90,860	84,970	123,568	142,288	138,419
전라남도	528,717	75,959	73,776	104,977	135,214	138,791
경상북도	847,653	112,789	123,820	177,058	214,501	219,485
경상남도	1,109,169	150,450	171,828	252,269	279,228	255,394
제주특별자치도	230,122	36,603	39,384	54,114	55,873	44,148

## VII

## 응답자 특성

구분		표본 수(명)	비율(%)
전체		(2,000)	100.0
성별	남성	(1,016)	50.8
	여성	(984)	49.2
연령	20대	(352)	17.6
	30대	(353)	17.6
	40대	(435)	21.7
	50대	(463)	23.1
	60대	(397)	19.9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51.7
	강원권	(58)	2.9
	충청권	(212)	10.6
	전라권	(182)	9.1
	경상권	(488)	24.4
	제주	(26)	1.3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7.2
	2인 가구	(454)	22.7
	3인 가구	(659)	33.0
	4인 가구	(674)	33.7
	5인 가구 이상	(69)	3.5
가구원 구성	1세대 가구	(425)	21.3
	2세대 가구	(1411)	70.5
	3세대 가구	(17)	0.9
	4세대 이상 가구	(1)	0.1
	1인 가구	(144)	7.2
	기타	(1)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0.5
	중학교 졸업	(47)	2.4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38.6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재학)	(1144)	57.2
	대학원 재학 이상	(27)	1.3
직업	관리자	(31)	1.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2)	2.1
	사무 종사자	(601)	30.0
	서비스 종사자	(460)	23.0
	판매 종사자	(346)	17.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4)	1.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18)	5.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8)	2.4
	단순 노무 종사자	(41)	2.1
	기타	(291)	14.5



[남자]

(단위 : 명)

구분	전체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 ~ 69세
전체	1,016	182	185	221	234	195
서울특별시	186	36	39	39	39	33
부산광역시	64	11	11	13	14	14
대구광역시	46	9	8	10	11	9
인천광역시	60	11	11	13	14	11
광주광역시	28	6	5	6	6	5
대전광역시	29	6	5	6	6	5
울산광역시	23	4	4	5	6	4
세종특별자치시	7	1	2	2	1	1
경기도	274	50	53	63	62	47
강원도	30	5	5	6	7	7
충청북도	32	6	6	7	7	7
충청남도	42	7	7	9	10	9
전라북도	34	6	5	7	8	7
전라남도	33	5	4	7	9	8
경상북도	51	8	8	10	13	12
경상남도	65	10	10	14	16	14
제주특별자치도	13	2	2	3	3	2

[여자]

(단위 : 명)

구분	전체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 ~ 69세
전체	984	170	168	214	229	202
서울특별시	195	39	39	40	41	37
부산광역시	65	10	10	13	15	16
대구광역시	46	8	7	10	11	10
인천광역시	58	10	11	13	14	11
광주광역시	28	5	5	6	6	5
대전광역시	28	5	5	6	6	5
울산광역시	21	3	4	5	5	4
세종특별자치시	7	1	2	2	1	1
경기도	262	48	45	60	61	47
강원도	28	4	4	6	7	7
충청북도	29	5	5	6	7	7
충청남도	37	6	6	8	9	8
전라북도	32	5	5	7	8	8
전라남도	29	4	4	6	7	8
경상북도	46	6	7	10	12	12
경상남도	60	8	9	14	15	14
제주특별자치도	13	2	2	3	3	2



## 제2장

# 주요 조사 결과







#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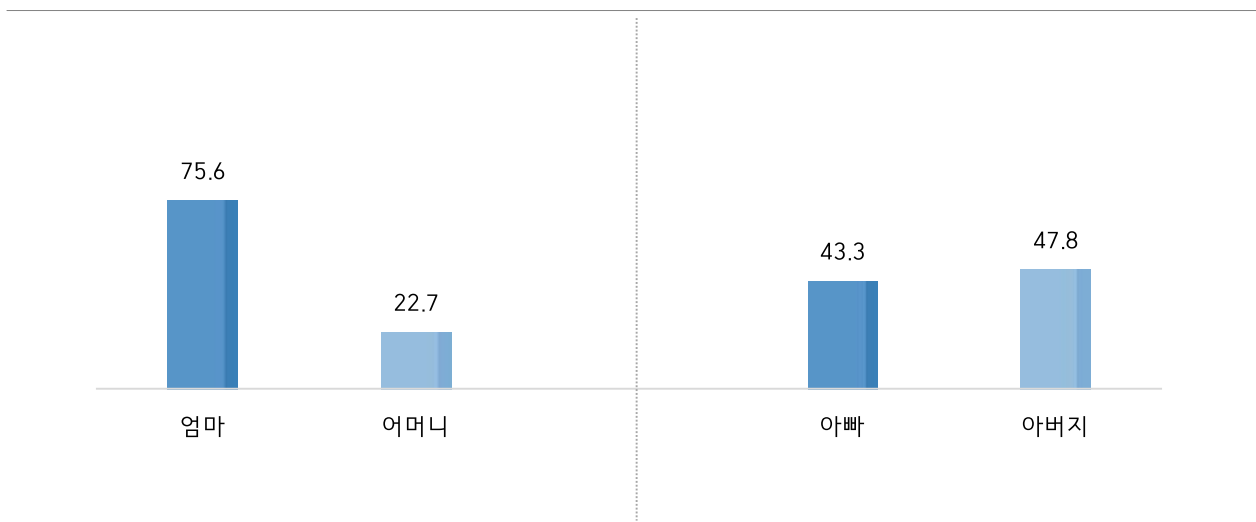
## 어휘

### 1. 부모에 대한 호칭

- ❖ 자신을 낳아준 여성(여자)을 직접 부르는 말로는 비격식형 ‘엄마’가 격식형 ‘어머니’에 비해 3배 이상 더 많이 사용되는 반면, 본인을 낳아준 남성(남자)을 직접 부르는 말로는 격식형 ‘아버지’가 비격식형 ‘아빠’보다 근소하게 더 많이 사용됨.
- ❖ 여성은 ‘엄마’를 ‘어머니’보다 6배 이상 많이 사용하는 반면, 남성은 ‘엄마’를 ‘어머니’보다 2배 정도만 더 많이 사용하며, 여성은 ‘아빠’를 ‘아버지’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남성은 ‘아버지’를 ‘아빠’보다 더 많이 사용함.
- ❖ 비격식형 ‘엄마’와 ‘아빠’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 적게 사용된다는 동일한 경향을 보이지만, ‘엄마’는 연령이 높아져도 세대별 감소의 폭이 작은 반면, ‘아빠’는 40대 이후부터 세대별 감소의 폭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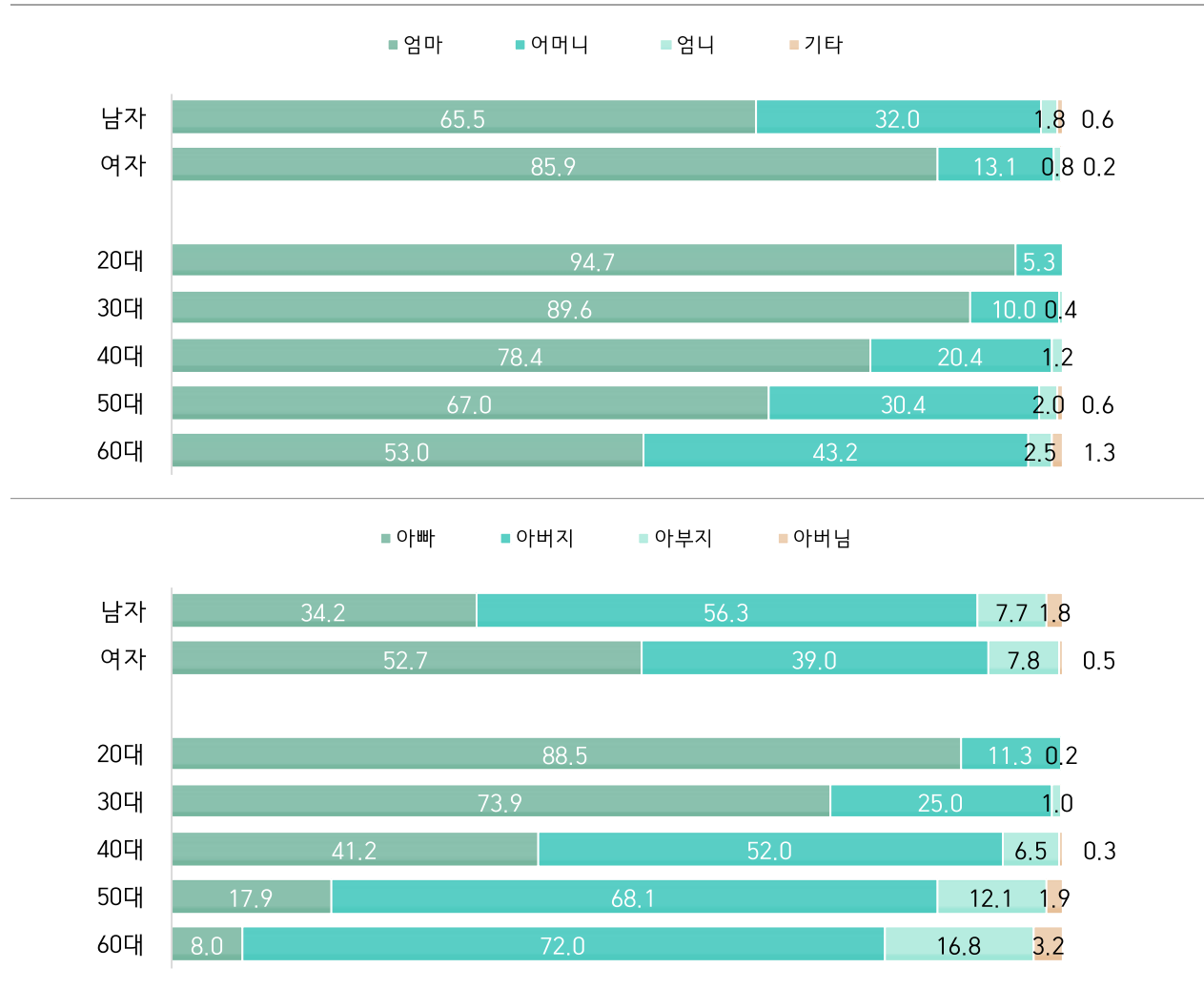
[ 그림 2-1 ] 자신을 낳아준 여성/남성을 직접 부르는 말

(단위 : %)



[ 그림 2-2 ] 자신을 낳아준 여성/남성을 직접 부르는 말 -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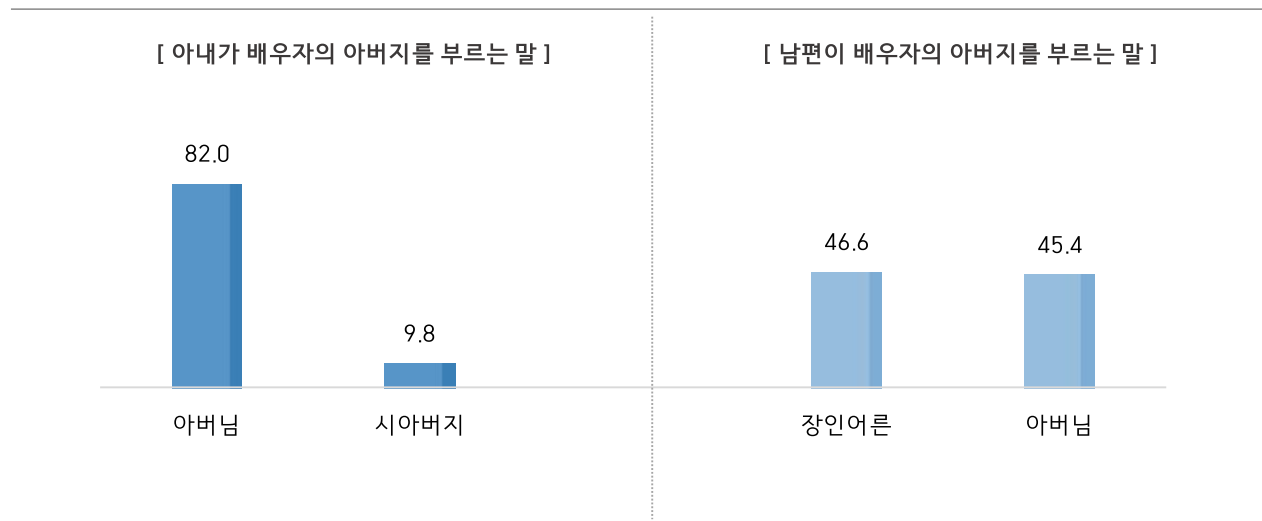


## 2.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호칭

- ❖ 아내가 남편의 아버지를 직접 부르는 말로는 ‘아버님’이 ‘시아버지’<sup>1)</sup>에 비해 8배 이상 더 많이 사용되는 반면, 남편이 아내의 아버지를 직접 부르는 말로는 ‘장인어른’이 ‘아버님’보다 근소하게 더 많이 사용됨.
- ❖ 아내가 남편의 어머니를 직접 부르는 말로는 ‘어머님’이 ‘어머니’에 비해 3배 이상 더 많이 사용되는 반면, 남편이 아내의 어머니를 직접 부르는 말로는 ‘장모님’이 ‘어머님’보다 더 많이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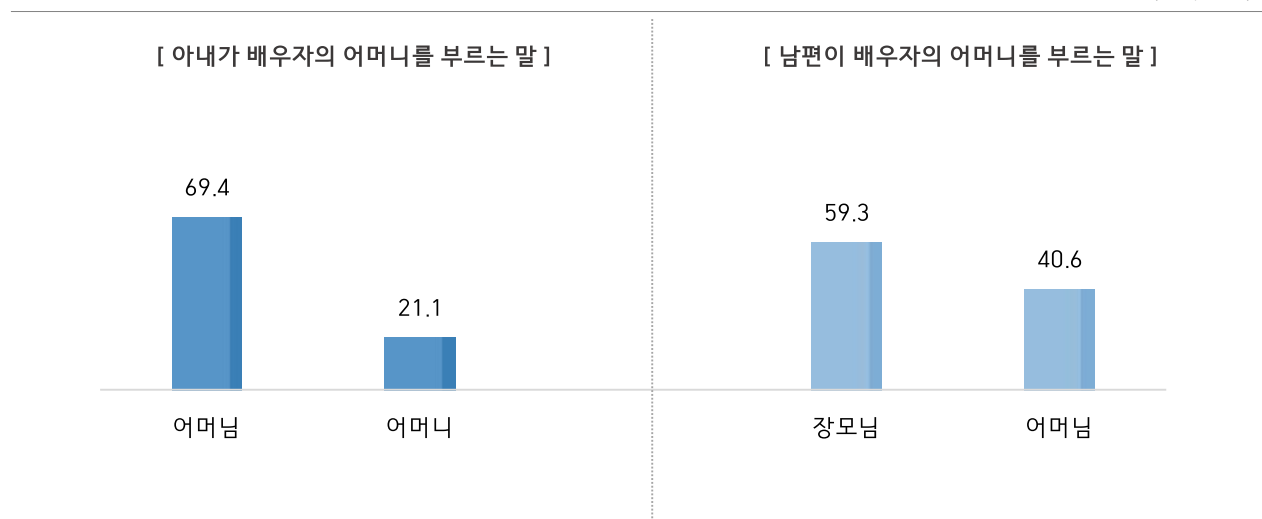
[ 그림 2-3 ] 아내/남편이 배우자의 아버지를 직접 부르는 말

(단위 : %)



[ 그림 2-4 ] 아내/남편이 배우자의 어머니를 직접 부르는 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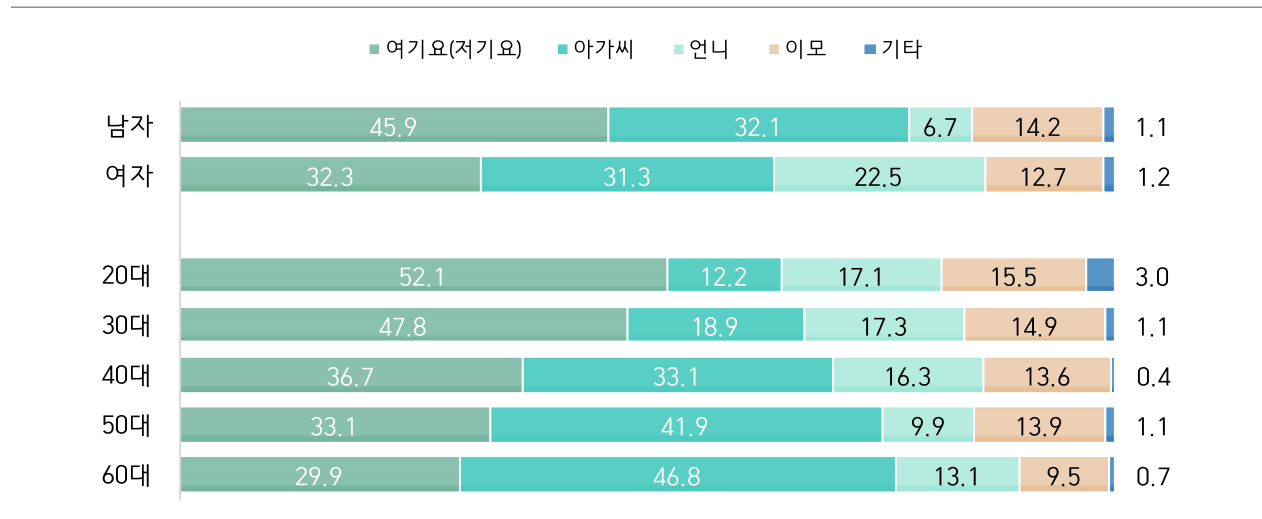
1) 현실적으로 아내가 남편의 아버지를 ‘시아버지’라고 직접 부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시아버지’라는 응답은 해당 문항을 호칭(부르는 말)이 아닌 지칭(가리키는 말)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임.

### 3. 가게에서 젊어 보이는 여자 직원을 부르는 말

- ❖ 가게에서 젊어 보이는 여자 직원을 부르는 말은 남성과 여성 모두 ‘여기요(저기요)’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아가씨’도 남성과 여성 모두 많이 사용함. ‘언니’는 남성이 ‘이모’의 절반 정도로 적게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이모’보다 2배 가까이 많이 사용함.
- ❖ 연령이 높을수록 ‘여기요(저기요)’는 감소하는 반면, ‘아가씨’는 증가함.

[ 그림 2-5 ] 가게에서 젊어 보이는 여자 직원에 대한 호칭 -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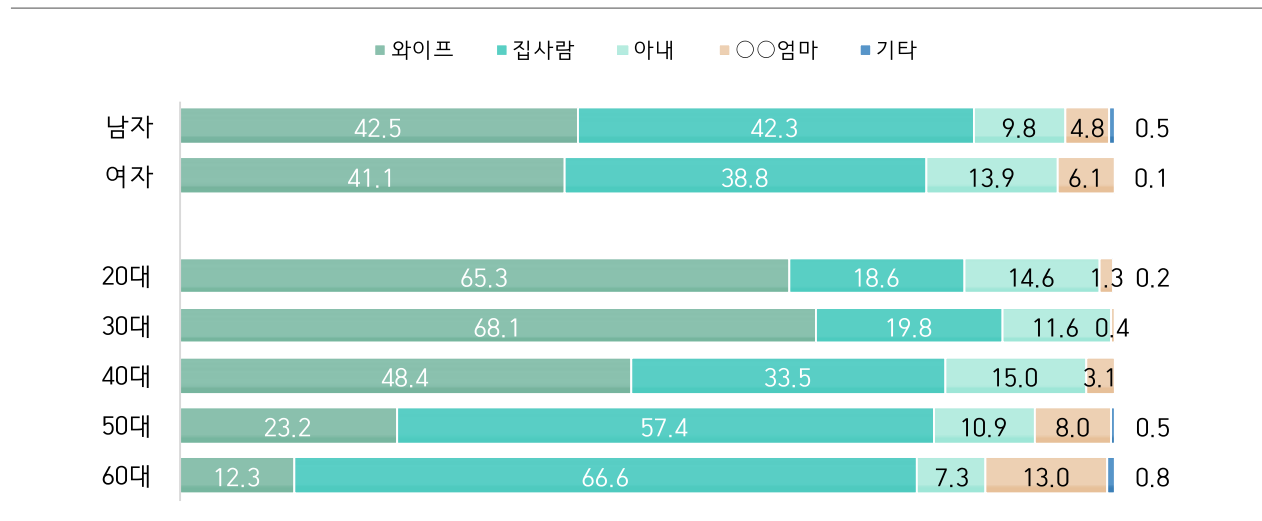


## 4. 배우자에 대한 지칭

- ❖ 결혼한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인을 소개하며 가리키는 말로 연령이 낮을수록 ‘와이프’를 많이 사용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집사람’을 많이 사용함.
- ❖ 자녀를 둔 며느리가 시부모나 친정 부모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로는 ‘○○아빠’가 모든 연령대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됨. ‘아범’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사용하며, ‘오빠’는 연령이 낮을수록 많이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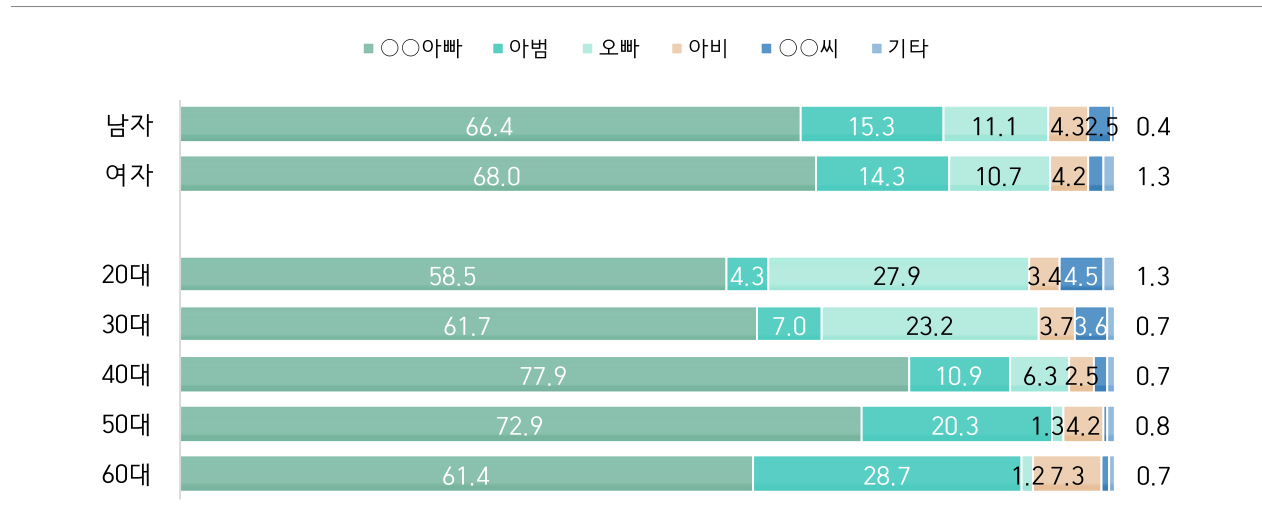
[ 그림 2-6 ] 결혼한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인을 소개하며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단위 : %)



[ 그림 2-7 ] 자녀를 둔 며느리가 시부모나 친정 부모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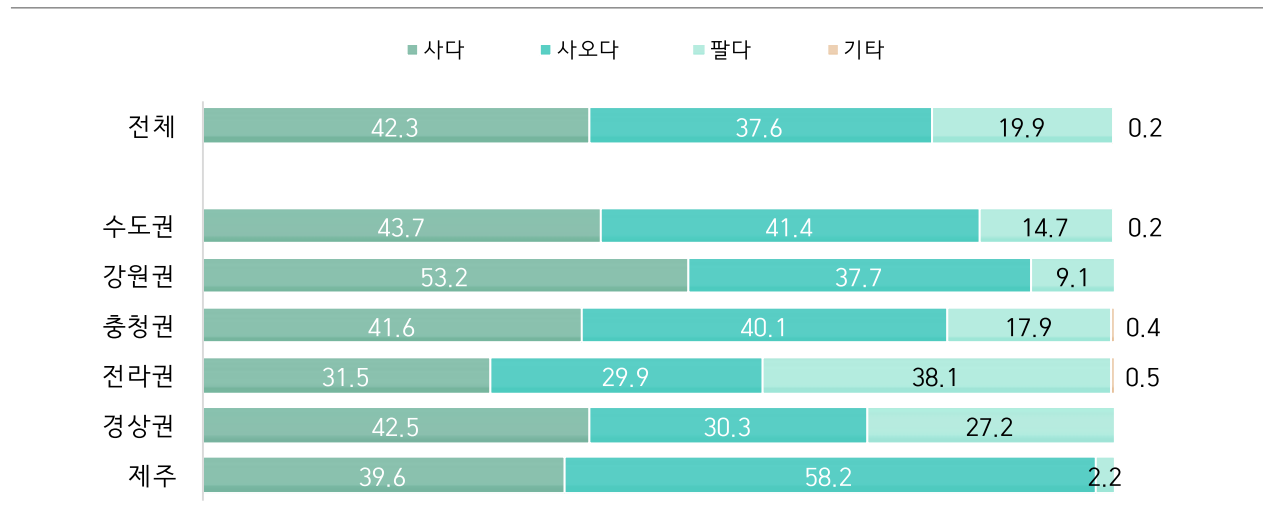


## 5. 선택 표현

- ❖ 쌀이 떨어졌을 때 장에 가서 쌀을 ‘구입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는 ‘사다’, ‘사오다’, ‘팔다’의 순으로 사용되는데, ‘팔다’는 전라권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됨.
- ❖ 눈 속에 있는 흰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흰자’, ‘흰자위’의 사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지역어형 ‘흰창’은 전라권과 경상권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됨.
- ❖ 컷구멍 속에 낀 누런 색깔의 때를 가리키는 말로 전체적으로는 표준형인 ‘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어서 ‘컷밥’, ‘귀창’, ‘귀청’ 등의 순으로 사용되지만, 충청권과 전라권에서는 ‘컷밥’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강원권에서는 ‘귀청’이 가장 많이 사용됨.
- ❖ 가는 파같이 생기고 잎은 좀 납작한 채소를 가리키는 말로 표준형인 ‘부추’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이어서 ‘정구지’, ‘솔’의 순으로 사용됨. ‘부추’는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며, ‘정구지’는 경상권과 충청권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솔’은 전라권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됨.
- ❖ 논에다 모를 심어서 키운 식물을 가리키는 말로 ‘벼’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이어서 ‘나락’이 사용되는데, ‘나락’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전라권과 경상권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됨.

[ 그림 2-8 ] 장에 가서 쌀을 구입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거주 지역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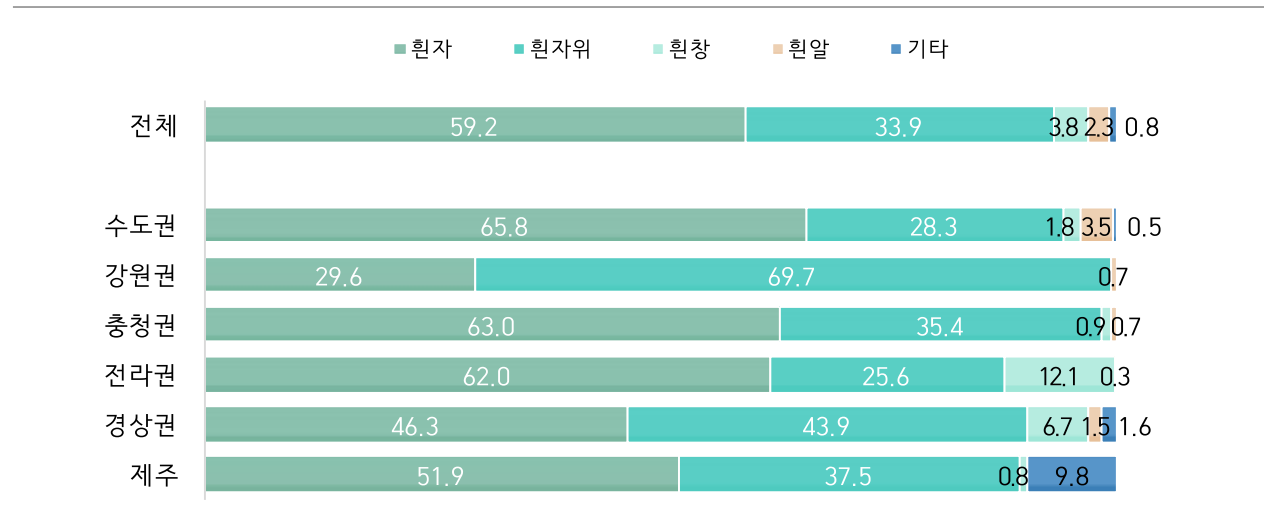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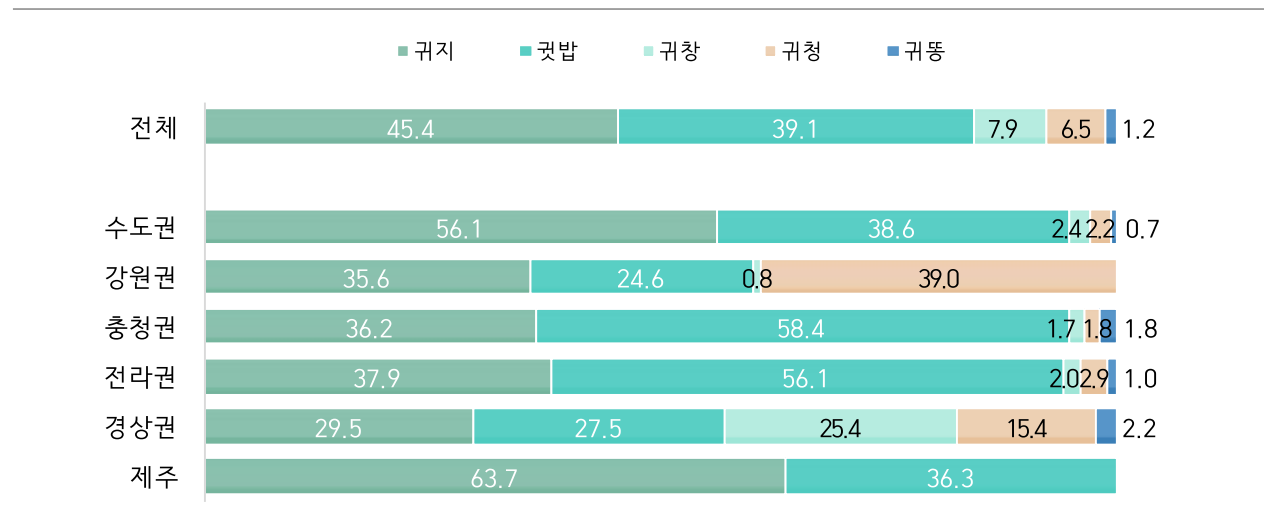
[ 그림 2-9 ] 눈 속에 있는 흰 부분을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거주 지역 따른 차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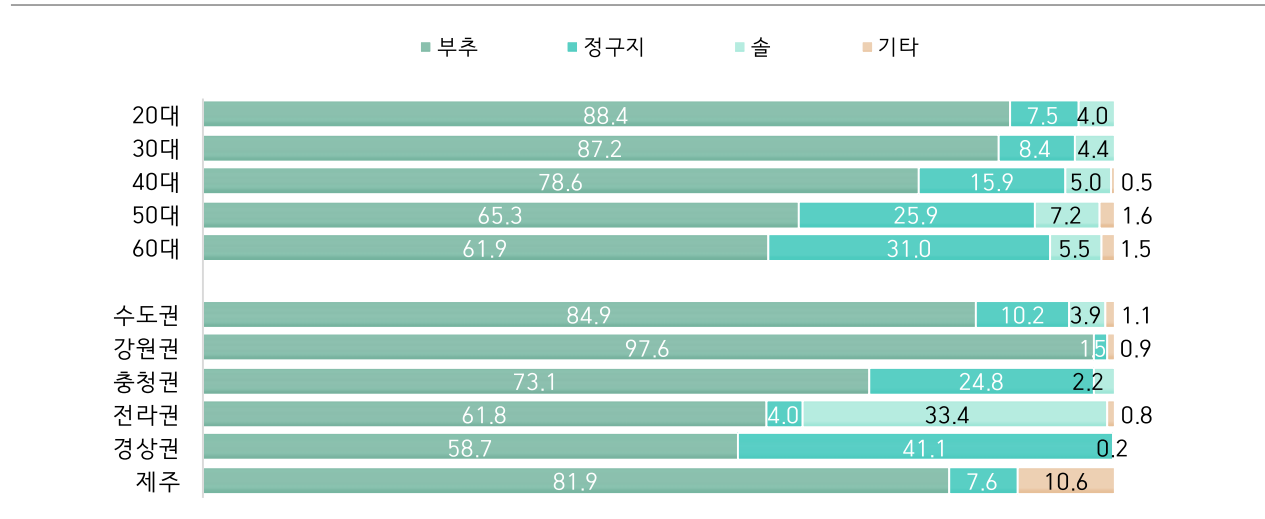


[ 그림 2-10 ] 꿇구멍 속에 낀 누런 색깔의 때를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거주 지역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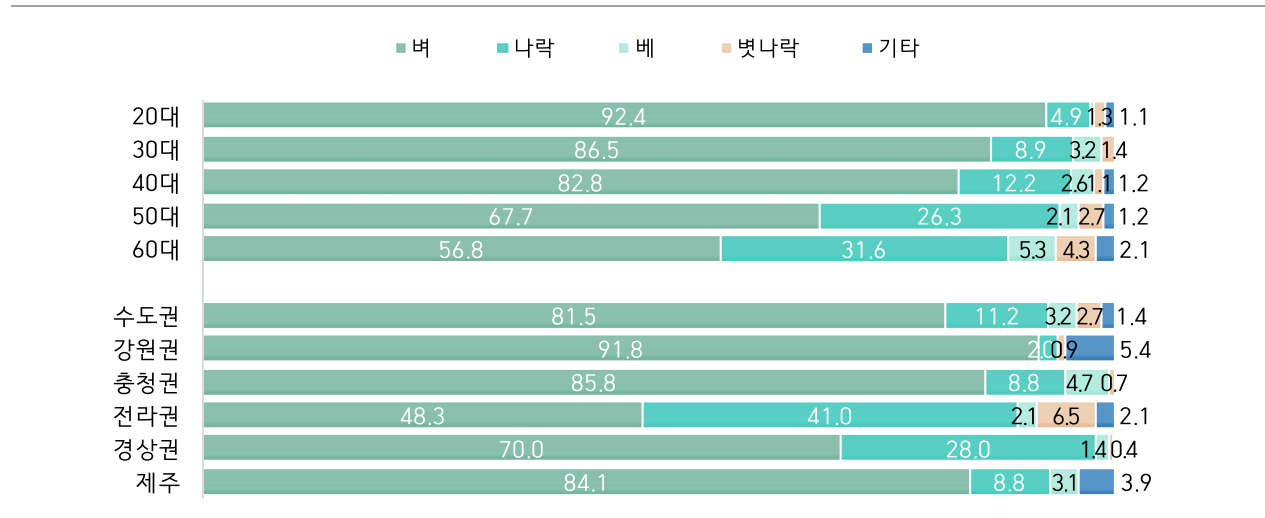
(단위 : %)



[ 그림 2-11 ] 가는 파같이 생기고 잎은 좀 납작한 채소를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 및 거주 지역 따른 차이  
(단위 : %)



[ 그림 2-12 ] 모를 심어서 키운 식물을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 및 거주 지역 따른 차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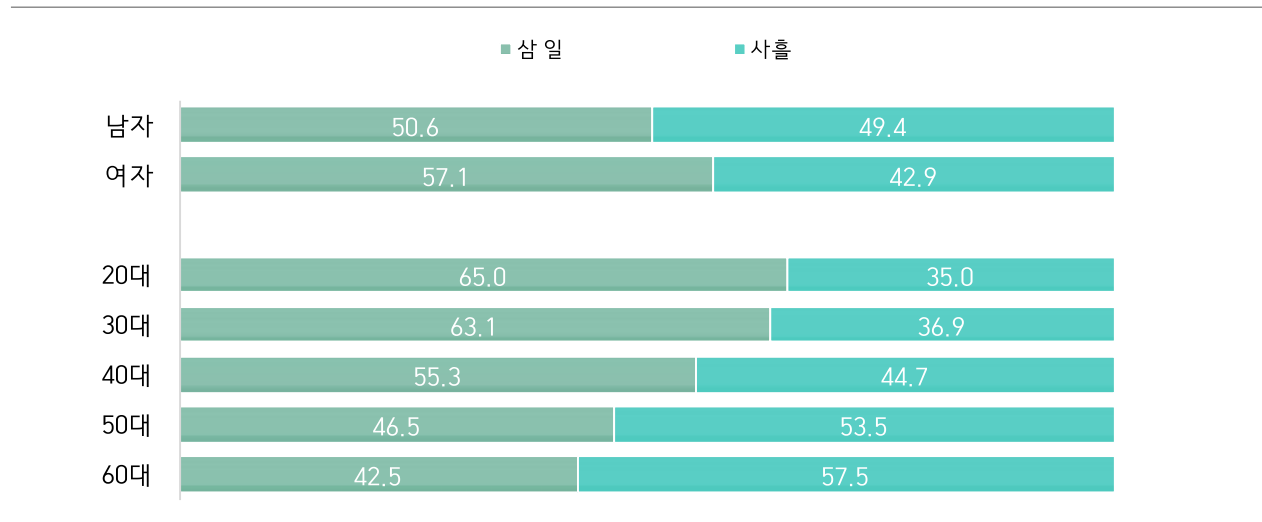


## 6. 셈 표현

- ❖ 세 번의 낮과 밤이 지나가는 동안을 가리키는 말로 ‘삼일’이 ‘사흘’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데, ‘삼일’은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반면, ‘사흘’은 연령이 낮을수록 감소함.
- ❖ 회초리 맞는 횟수가 ‘삼 회’일 때, ‘삼 회’를 가리키는 말로 모든 연령대에서 ‘세 대’가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세 대’는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반면, ‘석 대’는 연령이 낮을수록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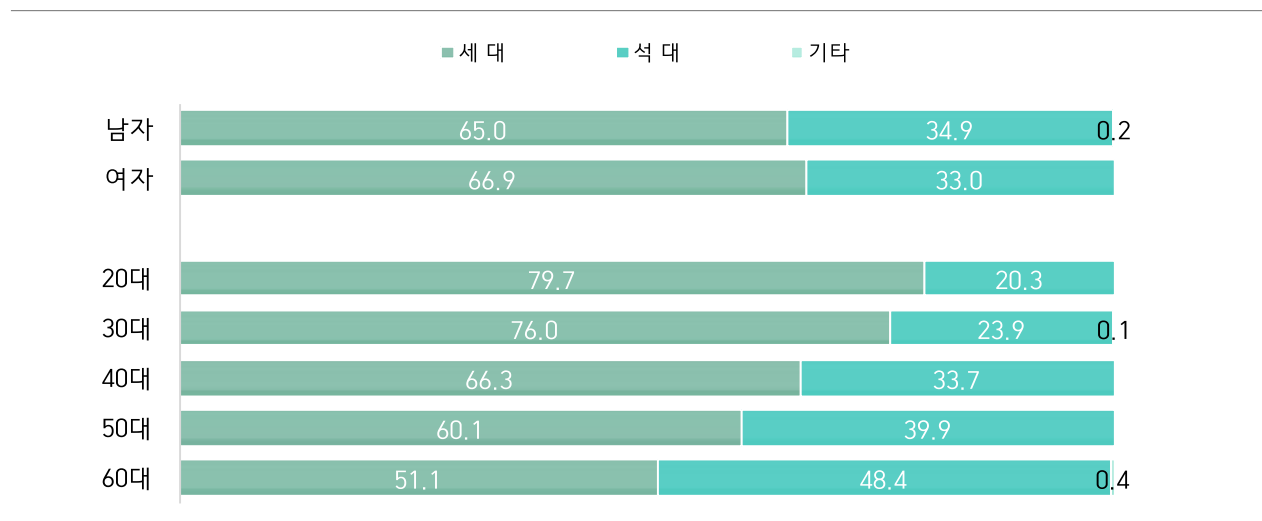
[ 그림 2-13 ] 세 번의 낮과 밤이 지나가는 동안을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단위 : %)



[ 그림 2-14 ] 회초리 맞는 횟수가 삼 회인 경우를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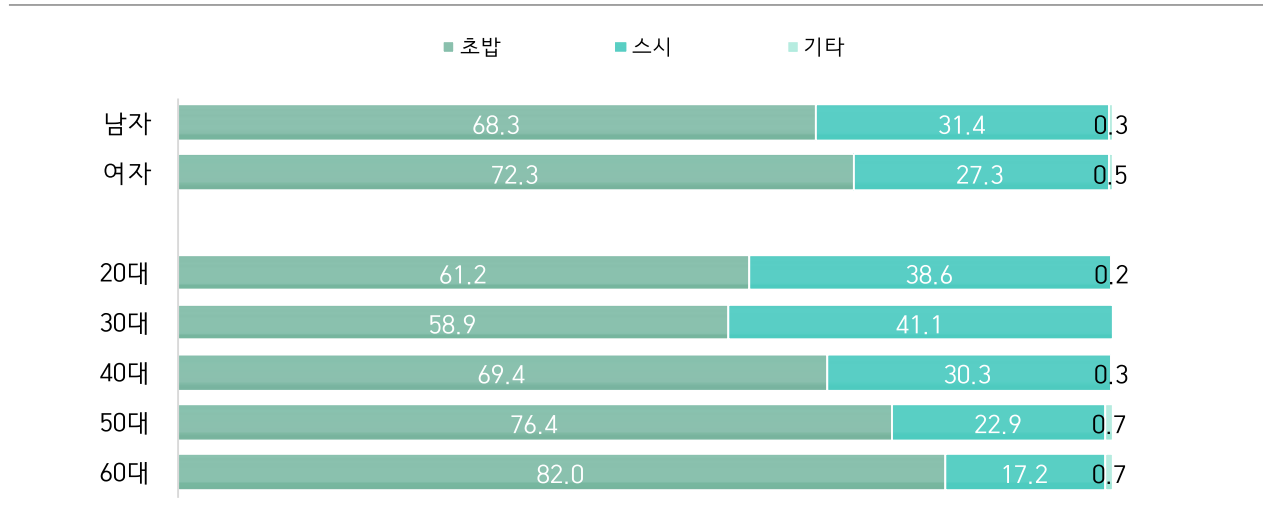
(단위 : %)



## 7. 외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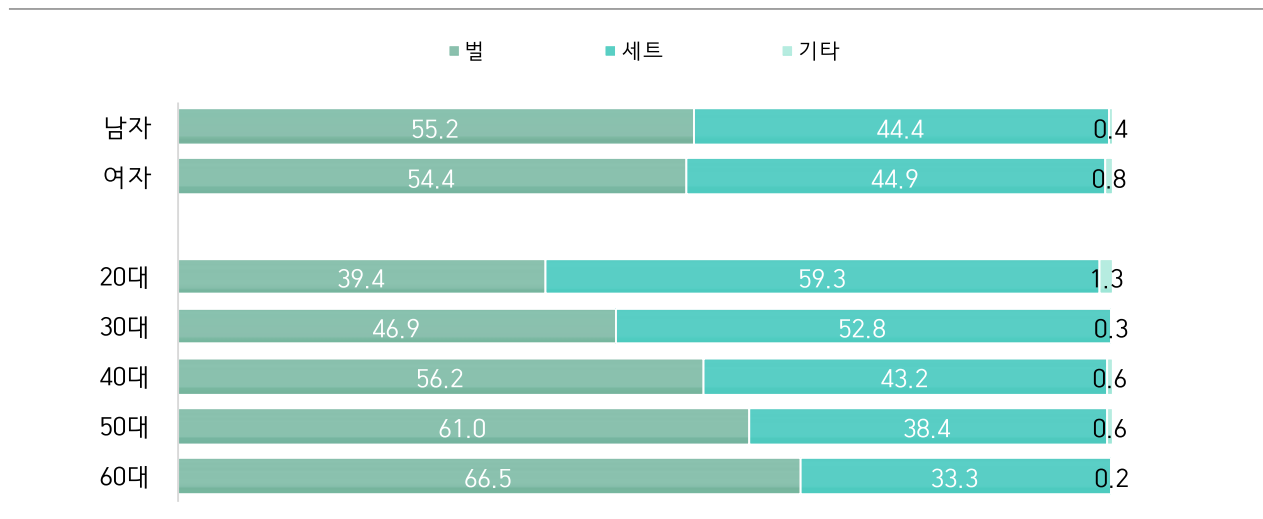
- ❖ 흰밥을 뭉친 뒤에 그 위에 날생선의 살을 얹어 만든 음식을 가리키는 말로 ‘초밥’이 ‘스시’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사용되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초밥’이 감소하고 외래어인 ‘스시’가 증가함.
- ❖ 숟가락과 젓가락을 합쳐서 세는 단위를 가리키는 말로 ‘벌’이 ‘세트’보다 더 많이 사용되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벌’이 감소하고 ‘세트’가 증가하여 30대 이하에서는 ‘세트’를 더 많이 사용함.
- ❖ 물건을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세일(세일)’이 ‘할인’보다 더 많이 사용됨. 그 외에도 ‘디씨’, ‘디스카운트’ 등의 외래어가 사용됨.
- ❖ 드라마, 가요, 뉴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전자제품을 가리키는 말로 ‘티비’, ‘텔레비전’, ‘티브이’, ‘테레비’ 등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두음자 약어인 ‘티비’와 ‘티브이’는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고 일본식 외래어인 ‘테레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함.

[ 그림 2-15 ] 흰밥을 뭉친 뒤에 그 위에 날생선의 살을 얹어 만든 음식을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단위 : %)



[ 그림 2-16 ] 숟가락과 젓가락을 합쳐서 세는 단위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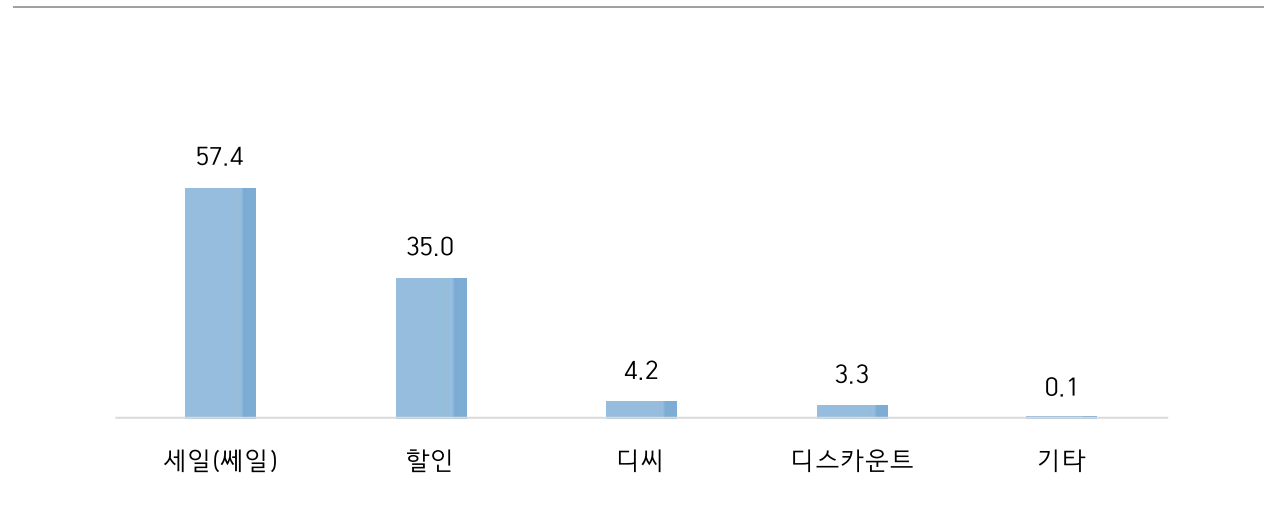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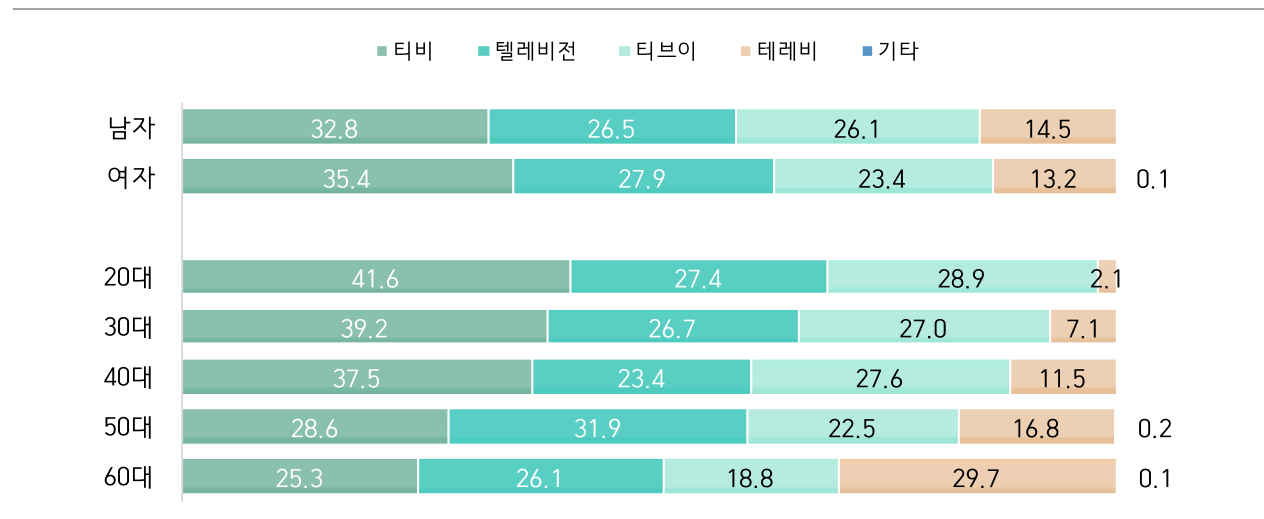
[ 그림 2-17 ] 물건을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 그림 2-18 ] 드라마, 가요, 뉴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전자제품을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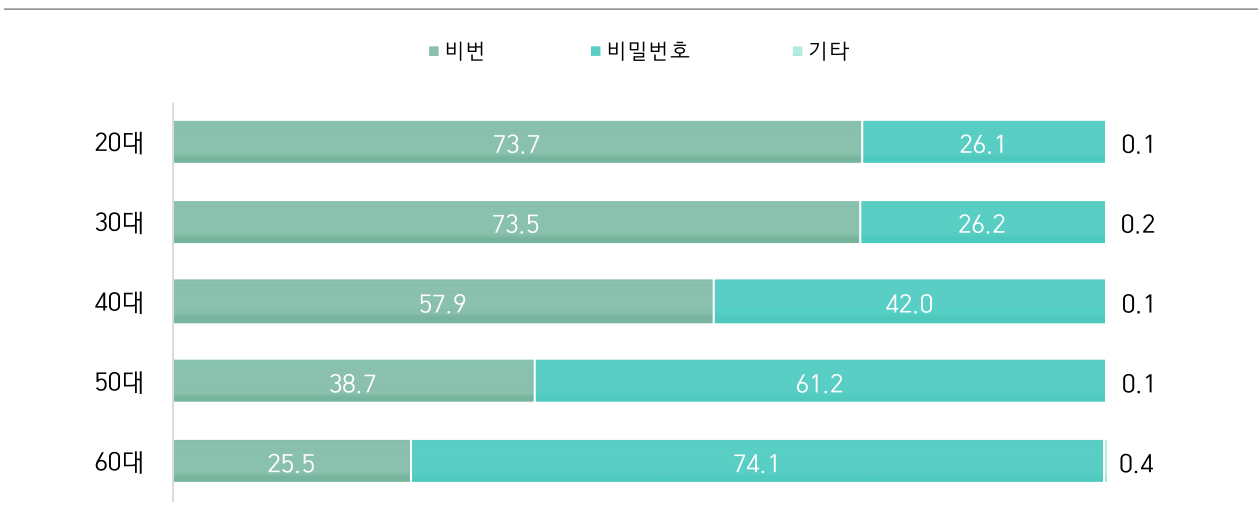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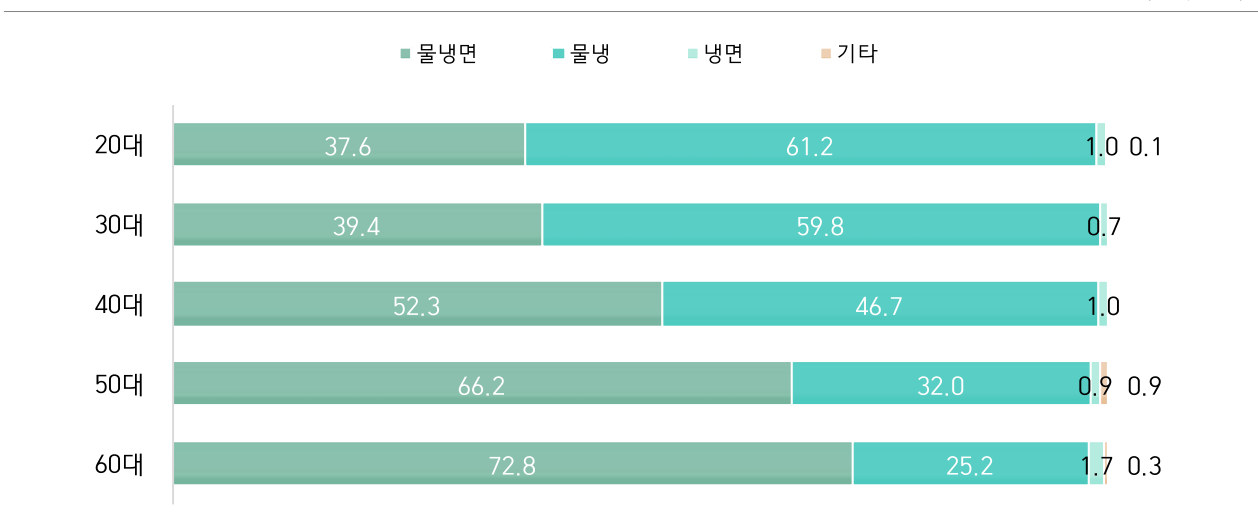
8. 줄임말

- ❖ 보안을 위하여 미리 설정하여 쓰는 개인 고유의 숫자와 문자열을 가리키는 말(패스워드 제외)로 줄임말인 ‘비번’이 ‘비밀번호’보다 더 많이 사용되지만, ‘비번’은 연령이 높을수록 급격하게 감소하여 50대 이상에서는 ‘비밀번호’를 더 많이 사용함.
- ❖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많이 먹는 시원한 면 요리를 가리키는 말로 ‘물냉면’이 줄임말인 ‘물냉’보다 더 많이 사용되지만, ‘물냉’은 연령이 낮을수록 증가하여 30대 이하에서는 ‘물냉’을 더 많이 사용함.

[ 그림 2-19 ]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 고유의 숫자와 문자열을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단위 : %)



[ 그림 2-20 ]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많이 먹는 시원한 면 요리를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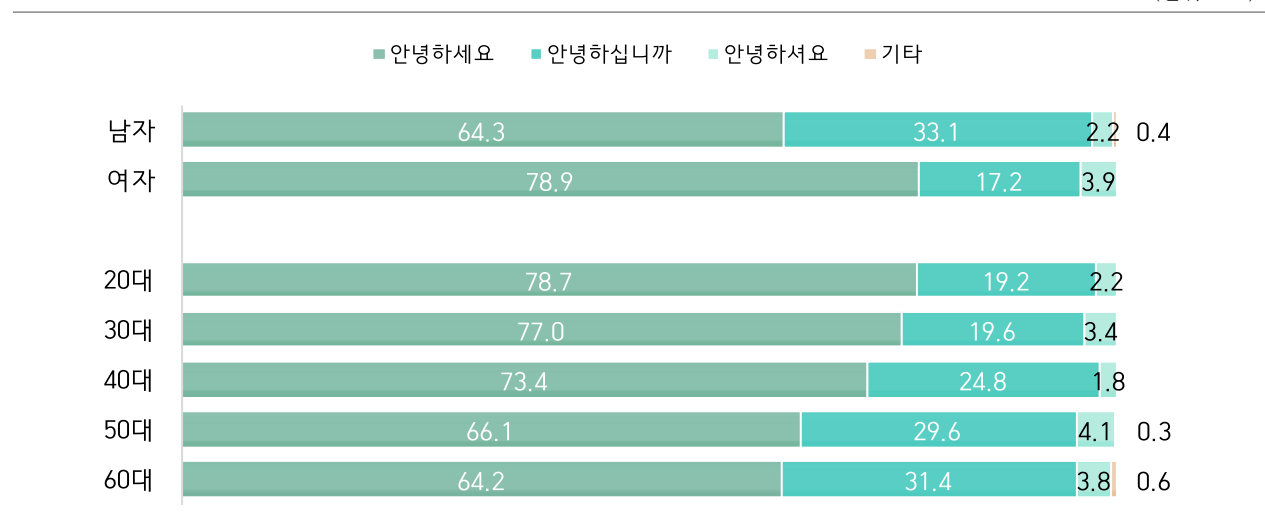
## Ⅱ 문법

### 1. 경어법 - 격식체와 비격식체 사용

- ❖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인사할 때 하는 말로 비격식체 ‘안녕하세요’가 격식체 ‘안녕하십니까’보다 3배 가까이 더 많이 사용되는데, ‘안녕하십니까’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이 사용하며,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이 사용함.

[ 그림 2-21 ]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인사할 때 사용하는 말 -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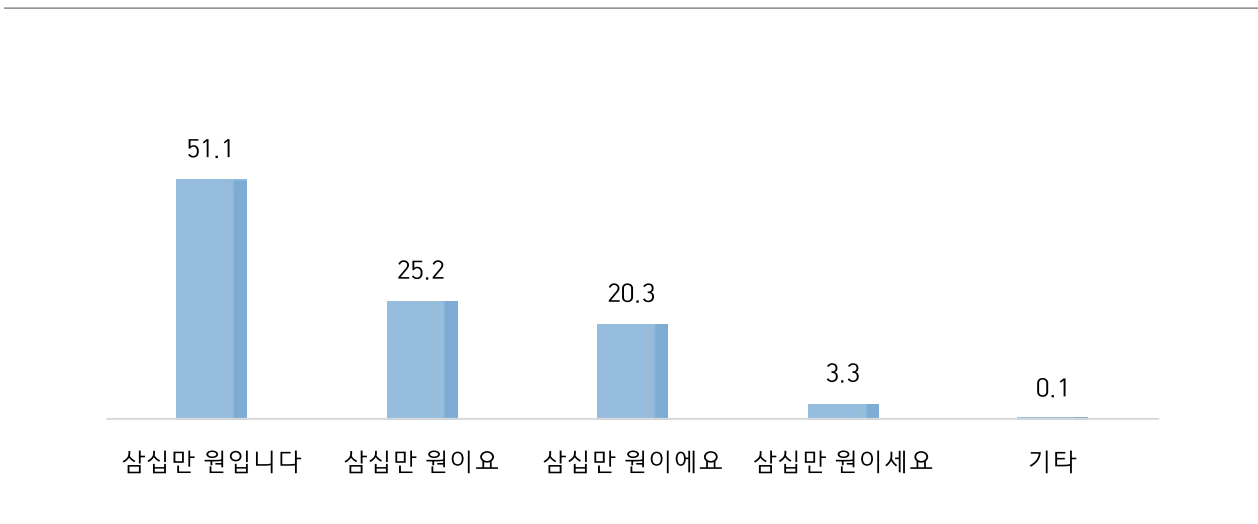


2. 경어법 - 새로운 방식

- ❖ 백화점에서 손님이 삼십만 원짜리 물건값을 물어봤을 때 점원이 하는 말로 격식체 ‘삼십만 원입니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어서 ‘삼십만 원이요’, ‘삼십만 원이에요’ 순으로 많이 사용되며, 최근에 나타난 ‘삼십만 원이세요’는 매우 적게 사용됨.
- ❖ 간호사가 환자에게 진료실로 들어가라고 할 때 비격식체 ‘들어가세요’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이어서 격식체 ‘들어가십시오’와 최근에 나타난 ‘들어가실게요’가 비슷하게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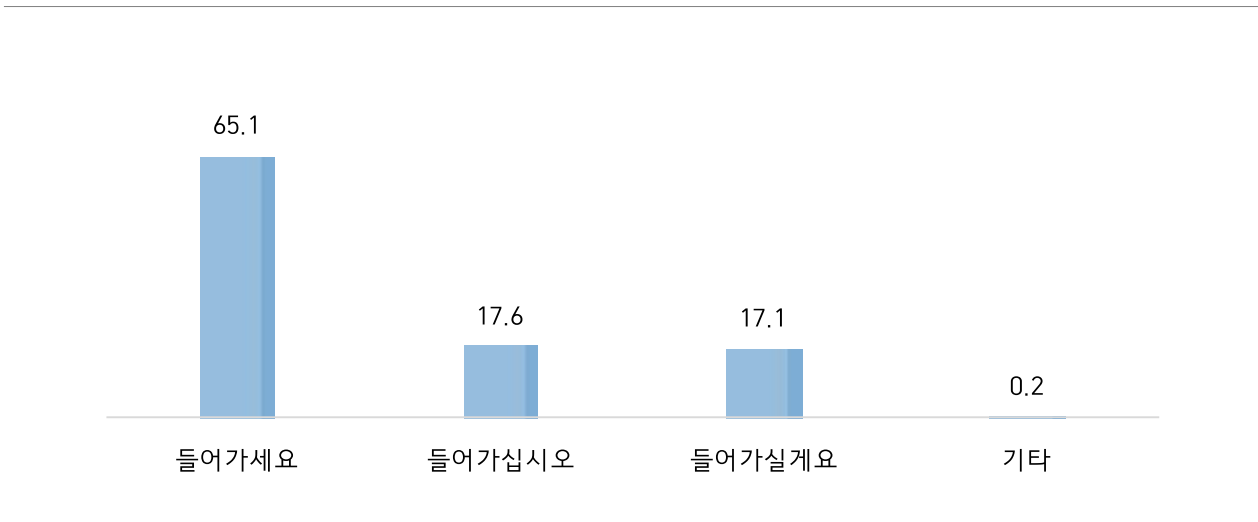
[ 그림 2-22 ] 백화점에서 손님이 삼십만 원짜리 물건값을 물어봤을 때 점원이 하는 말

(단위 : %)



[ 그림 2-23 ] 간호사가 환자에게 진료실로 들어가라고 할 때 하는 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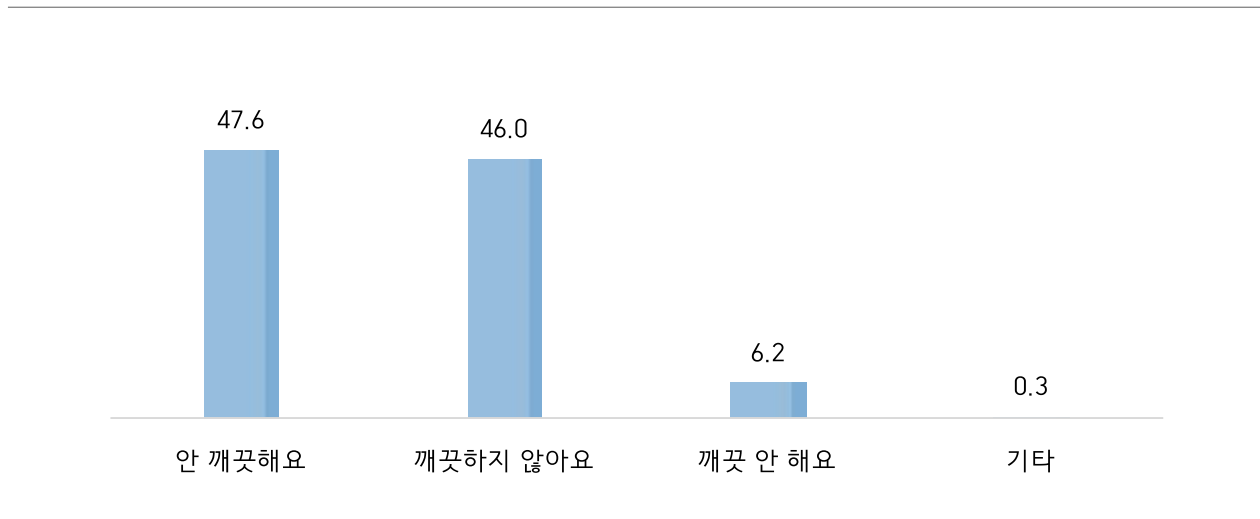


### 3. 부정문 -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 사용

- ❖ 방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짧은 부정문 ‘안 깨끗해요’가 긴 부정문 ‘깨끗하지 않아요’ 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되지만, 수도권, 강원권, 제주에서는 ‘깨끗하지 않아요’를 ‘안 깨끗해요’ 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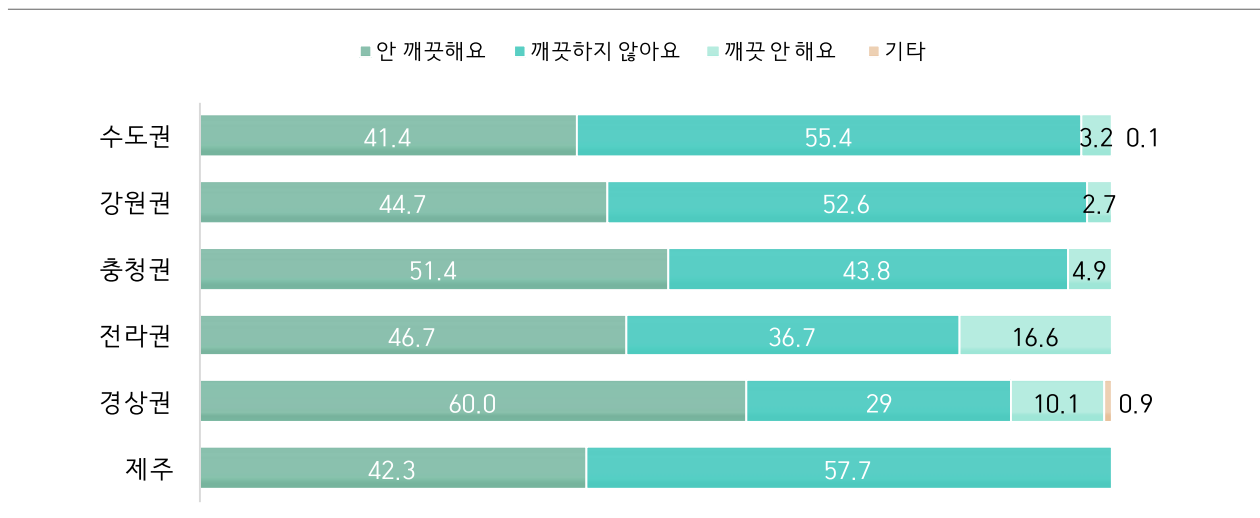
[ 그림 2-24 ] 방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 그림 2-25 ] 방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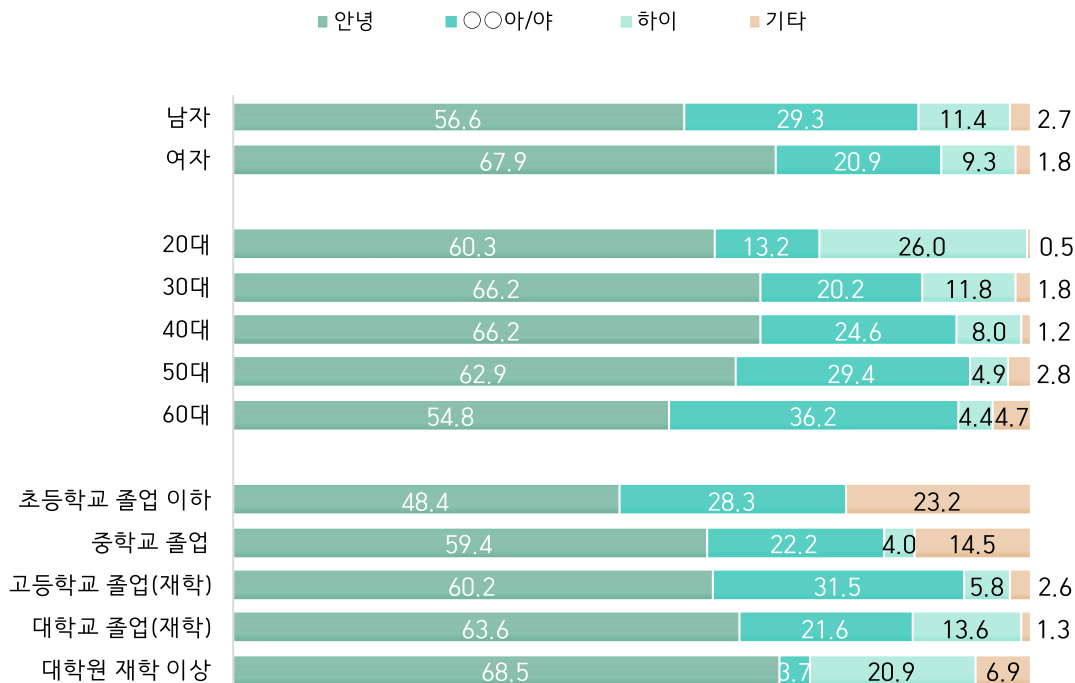
### Ⅲ 담화

#### 1. 인사 표현

- ❖ 친구를 만났을 때 처음 인사로 하는 말로 ‘안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어서 ‘○○아/야’, ‘하이’ 순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아/야’와 ‘하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며, ‘○○아/야’는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하이’는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함.
- ❖ 일을 마친 뒤 먼저 가면서 회사 동료들에게 하는 말로 ‘수고하세요’와 ‘들어갑니다/들어가 보겠습니다’가 비슷하게 많이 사용되고, 이어서 ‘고생하세요’가 사용됨.
- ❖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배달해 준 물건을 받으면서 하는 말로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어서 ‘수고하셨습니다’가 많이 사용됨.
- ❖ 손윗사람과 전화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을 때 하는 말로 ‘들어가요’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어서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세요’ 순으로 많이 사용됨.

[ 그림 2-26 ] 친구를 만났을 때 처음 인사로 하는 말 - 응답자의 성별, 연령,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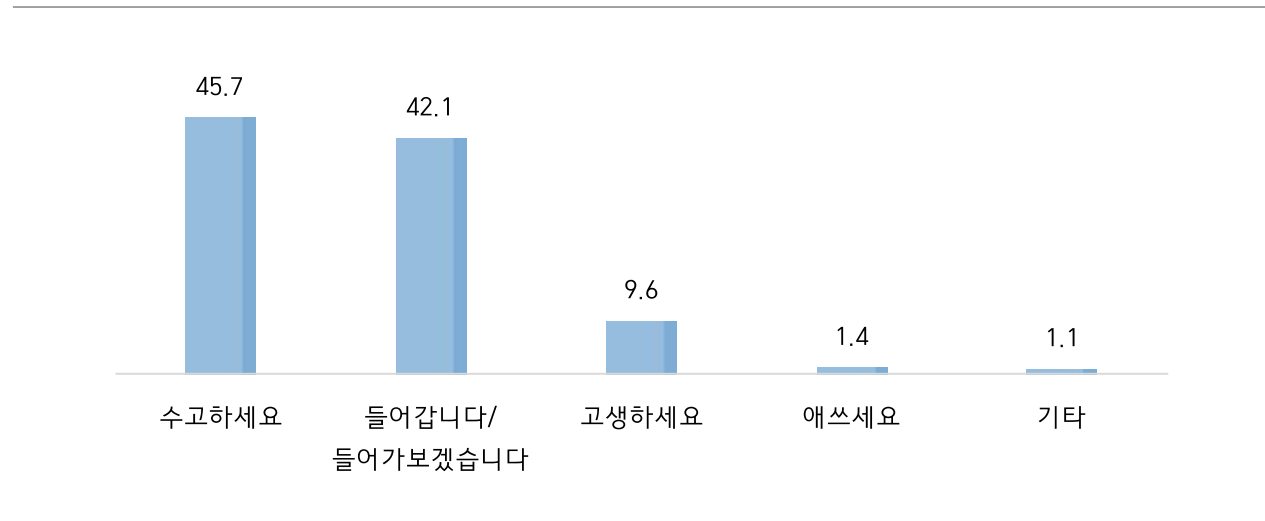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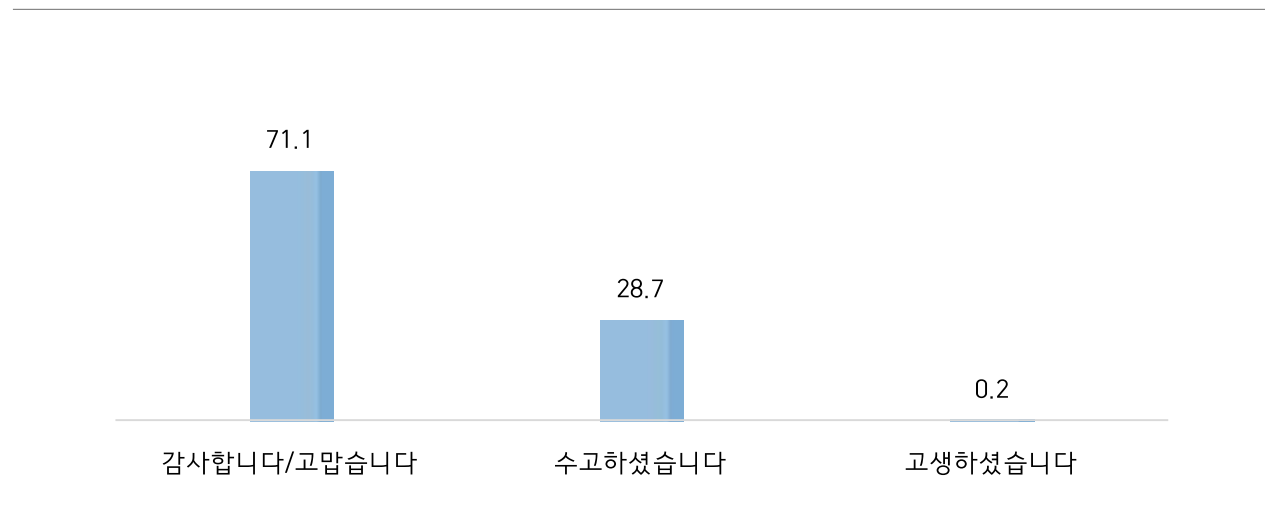
[ 그림 2-27 ] 일을 마친 뒤 먼저 가면서 회사 동료들에게 하는 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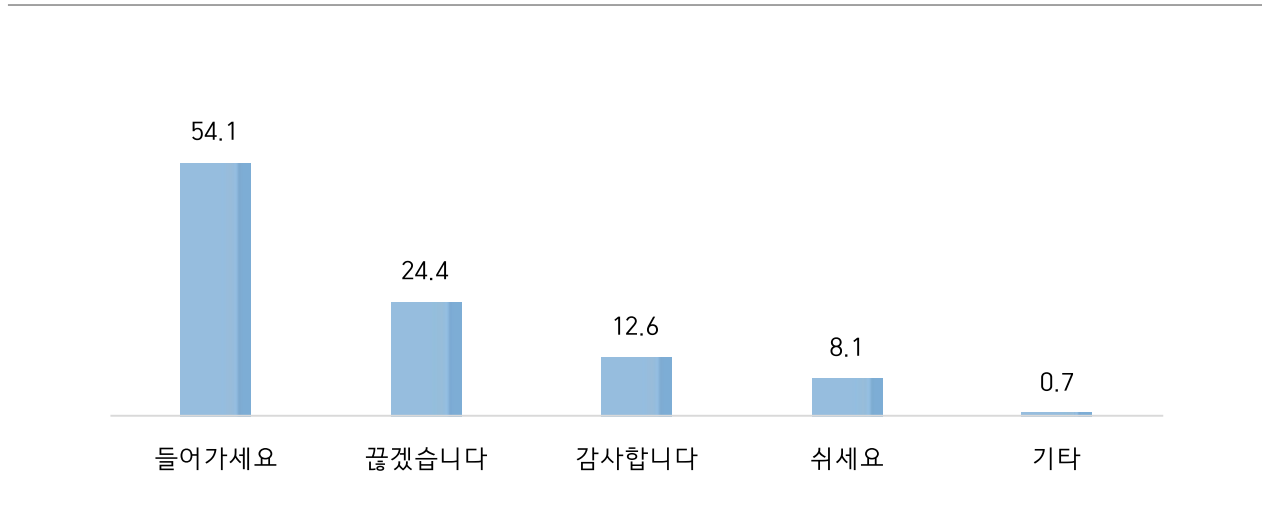
[ 그림 2-28 ]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배달해 준 물건을 받으면서 하는 말

(단위 : %)



[ 그림 2-29 ] 손윗사람과 전화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을 때 하는 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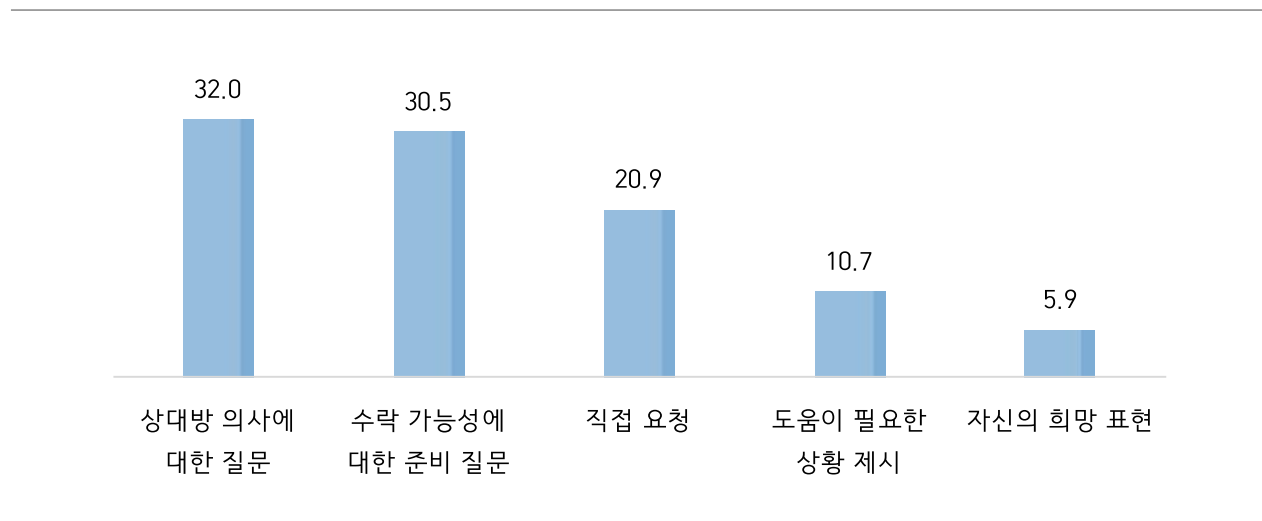


## 2.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과 요청을 거절하는 방식

- ❖ 주말 이사를 위해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식으로 ‘상대방 의사에 대한 질문(예: 주말에 이사하는 것 좀 도와줄래?)’(32.0%)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어서 ‘수락 가능성에 대한 준비 질문(예: 주말에 바빠?/뭐해?)’, ‘직접 요청(예: 주말에 이사하는 것 좀 도와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제시(예: 나 주말에 이사하는데...)’ 등의 순으로 많이 사용됨.
- ❖ 이사하는 친구의 도움 요청을 다른 일이 있어서 거절하는 방식으로 ‘고민+상황 제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어서 ‘상황 제시’, ‘사과+거절’, ‘상대 질책’, ‘아쉬움+상황 제시’ 등의 순으로 많이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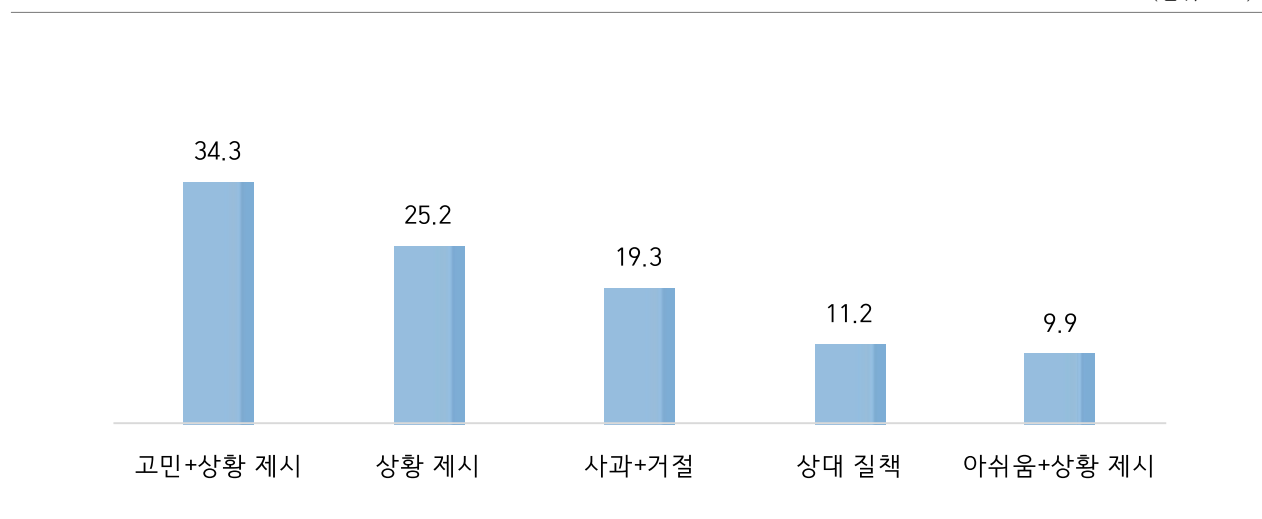
[ 그림 2-30 ] 주말 이사를 위해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식

(단위 : %)



[ 그림 2-31 ] 이사하는 친구의 도움 요청을 다른 일이 있어서 거절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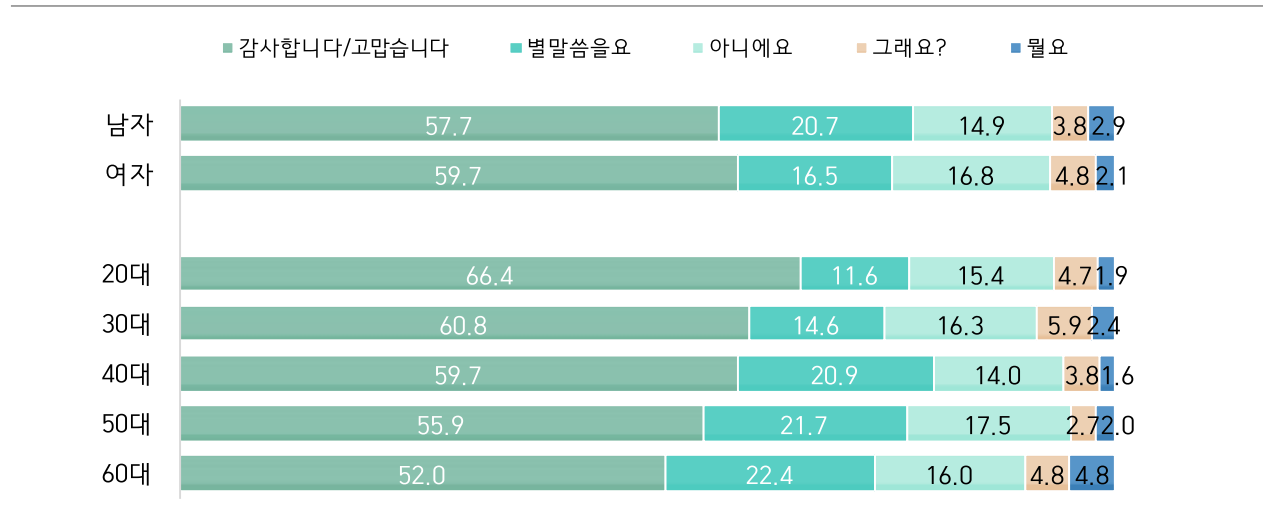
(단위 : %)



### 3. 칭찬/감사/사과에 대한 응답 표현

- ❖ 서로 알고는 지내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내 성격을 칭찬할 때 하는 말로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어서 ‘별말씀을요’, ‘아니에요’, ‘그래요?’ 등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감사 유형’의 사용이 증가하는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 유형’의 사용이 증가하는 편임.
- ❖ 나의 작은 배려에 대해 상대방이 감사하다고 말할 때 하는 말로 ‘아니에요’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어서 ‘별말씀을요’, ‘천만에요’, ‘뭘요’ 등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아니에요’의 사용이 감소하고, ‘별말씀을요’의 사용이 증가하는 편임.
- ❖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약속 시간에 조금 늦게 와서 사과할 때 하는 말로 ‘괜찮아요’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어서 ‘아니에요’, ‘별말씀을요’, ‘뭘요’ 등의 순으로 많이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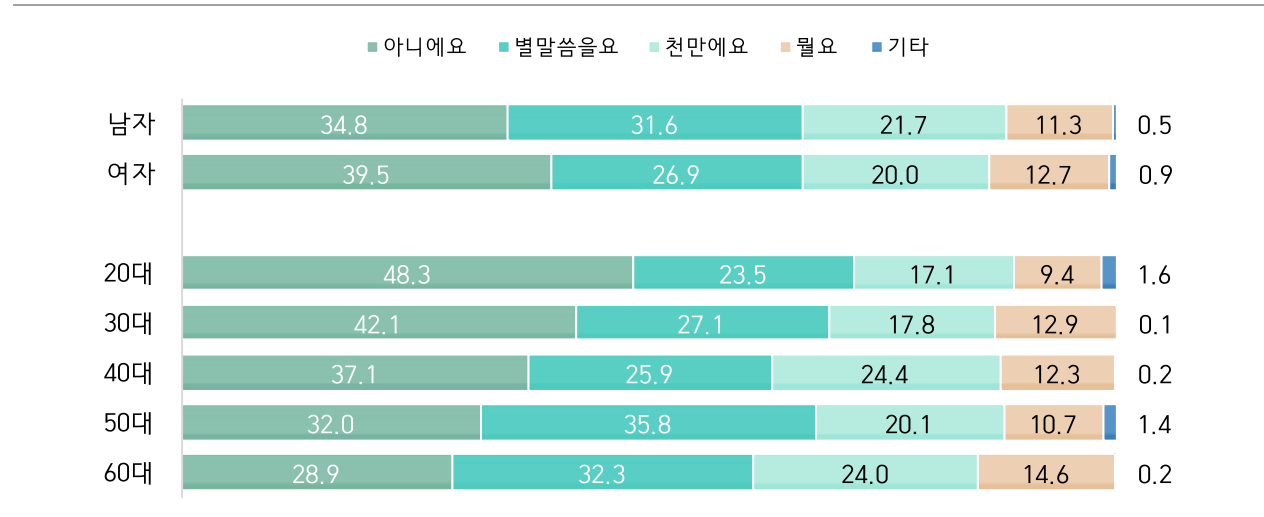
[ 그림 2-32 ] 서로 알고는 지내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내 성격을 칭찬할 때 하는 말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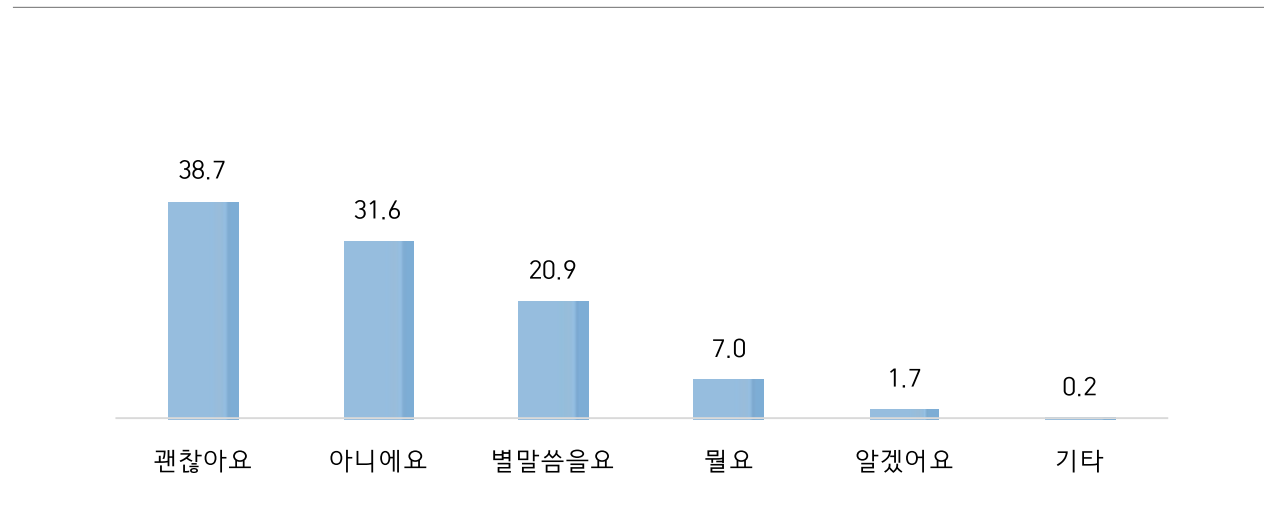
[ 그림 2-33 ] 나의 작은 배려에 대해 상대방이 감사하다고 말할 때 하는 말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단위 : %)



[ 그림 2-34 ]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어 사과할 때 하는 말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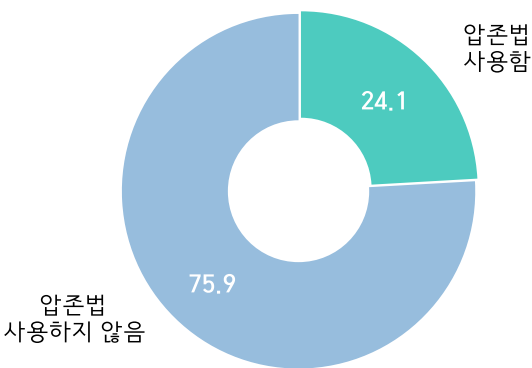


## 4. 가정에서의 압존법 사용

- ❖ 아버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한 말을 할아버지한테 전할 때 압존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압존법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3배 이상 많음.

[ 그림 2-35 ] 아버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한 말을 할아버지한테 전할 때의 압존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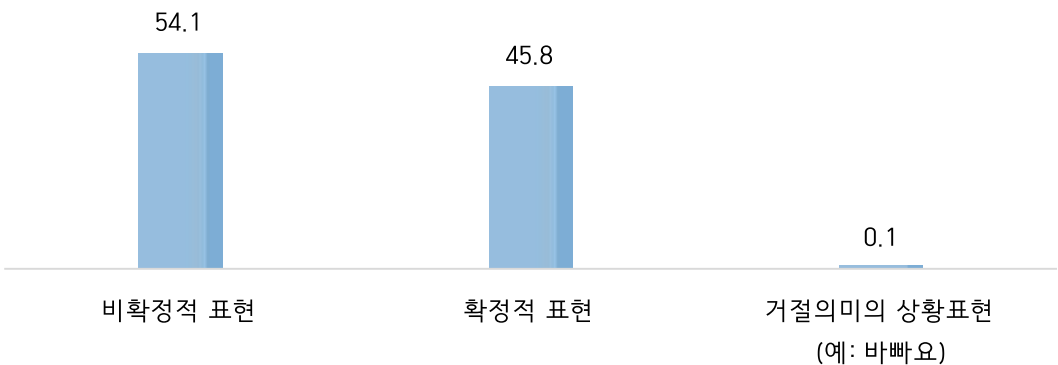


## 5. 비확정적 표현

- ❖ 친하지 않고 좀 대하기 어려운 이가 시간이 있냐고 묻는데, 시간이 안 될 때 하는 말로 ‘비확정적 표현(예: 그날 시간이 어려울 것 같아요/안 될 것 같아요/없을 것 같아요)’을 ‘확정적 표현(예: 그날 시간이 어려워요/안 돼요/없어요)’보다 더 많이 사용함.

[ 그림 2-36 ] 친하지 않고 좀 대하기 어려운 이가 시간이 있냐고 묻는데, 시간이 안 될 때 하는 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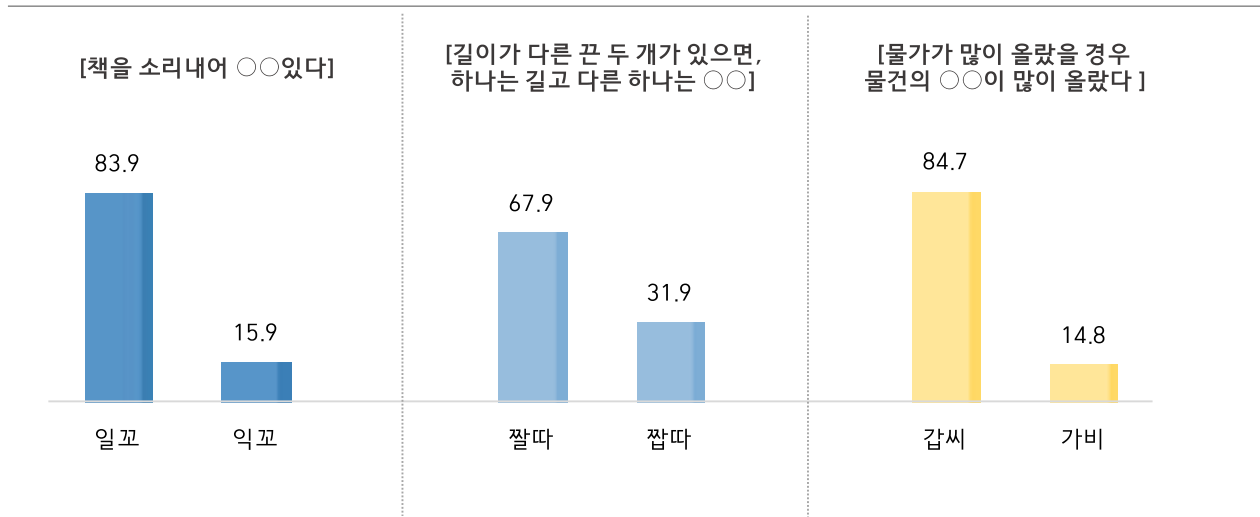
## IV 음운

### 1. 자음군단순화

- ❖ ‘읽고’의 발음은 ‘일꼬’가 ‘익꼬’보다 5배 이상 더 많았는데, 전라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익꼬’로 발음하는 비율이 높은 편임.
- ❖ ‘짹다’의 발음은 ‘짹따’가 ‘짹다’보다 2배 이상 더 많았는데, 전라권에서는 정반대로 ‘짹다’로 발음하는 비율이 더 높고, 제주에서도 상대적으로 ‘짹다’로 발음하는 비율이 높은 편임.
- ❖ ‘값이’의 발음은 ‘갑씨’가 ‘가비’보다 6배 가까이 더 많았는데, 전라권과 제주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비’로 발음하는 비율이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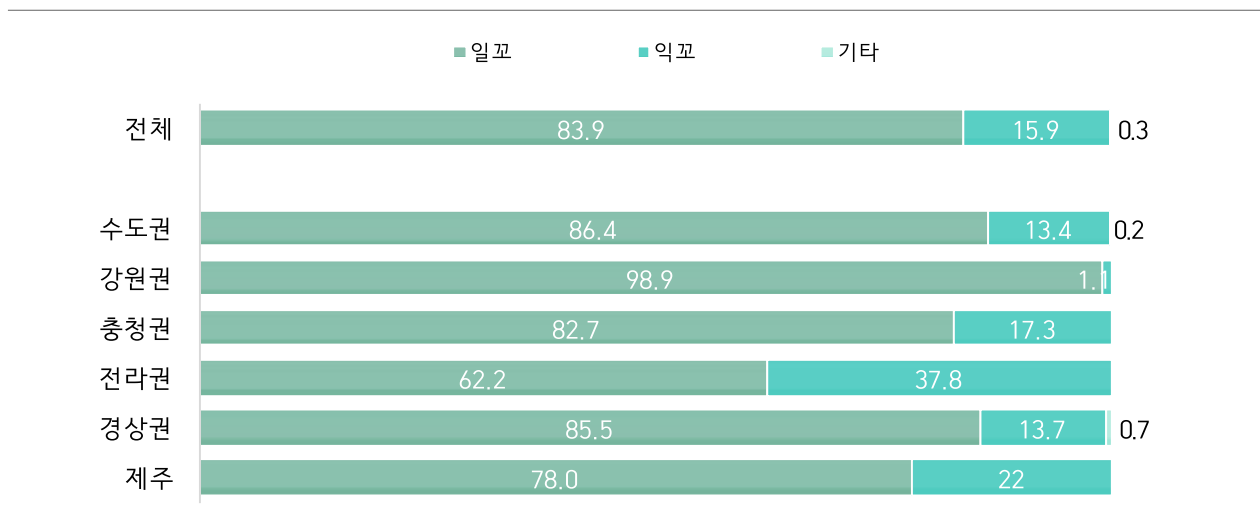
[ 그림 2-37 ] 자음군단순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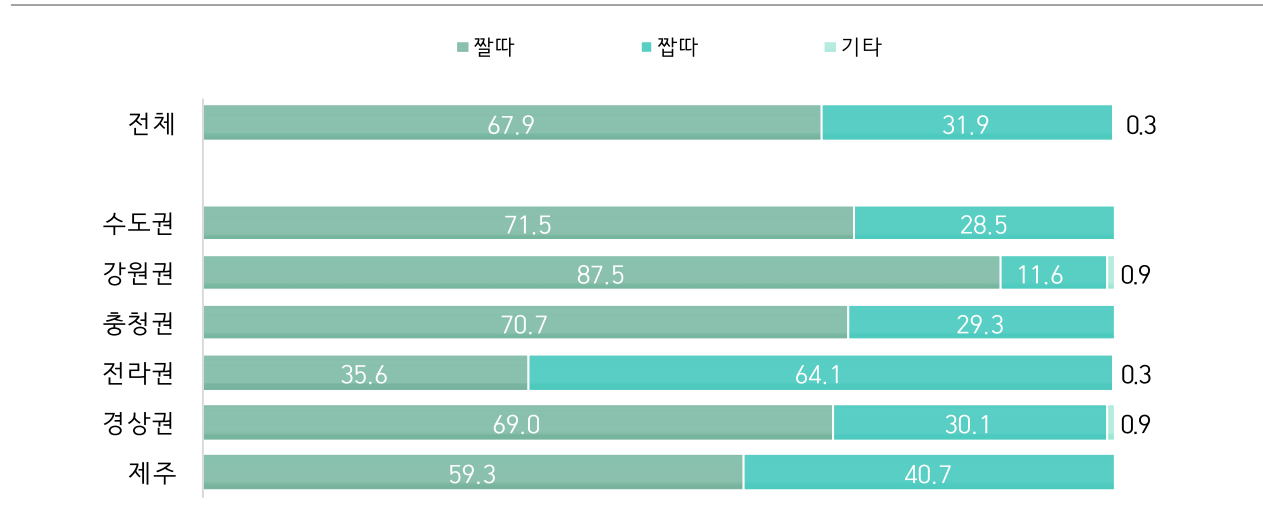
[ 그림 2-38 ] ‘읽고’의 자음군단순화 -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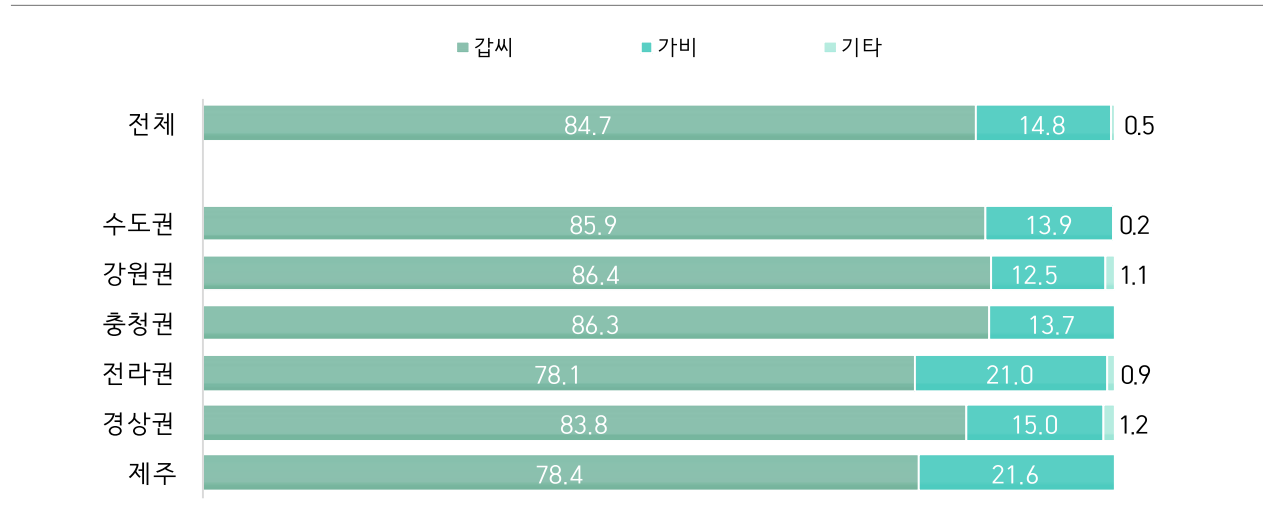
[ 그림 2-39 ] ‘짧다’의 자음군단순화 -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

(단위 : %)



[ 그림 2-40 ] ‘값이’의 자음군단순화 -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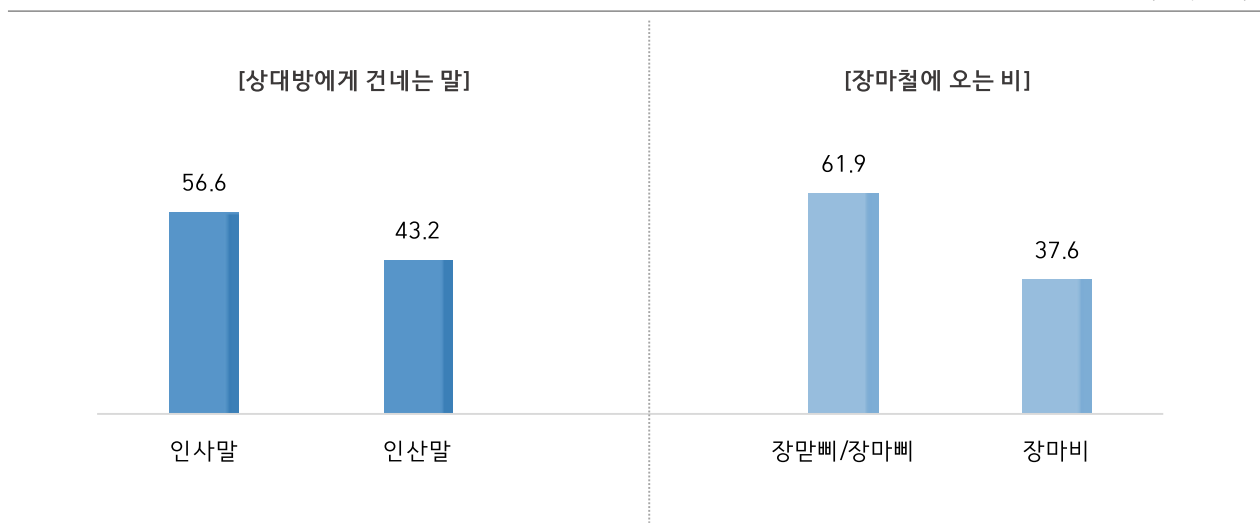


## 2. 사잇소리

- ❖ ‘인사말’의 발음은 사잇소리가 첨가되지 않는 발음(‘인사말’)이 사잇소리가 첨가되는 발음(‘인산말’)보다 더 많은데, 응답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잇소리가 첨가되지 않는 발음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임.
- ❖ ‘장맛비’의 발음은 사잇소리가 첨가되는 발음(‘장만뻘/장마뻘’)이 사잇소리가 첨가되지 않는 발음(‘장마비’)보다 더 많은데, 응답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잇소리가 첨가되지 않는 발음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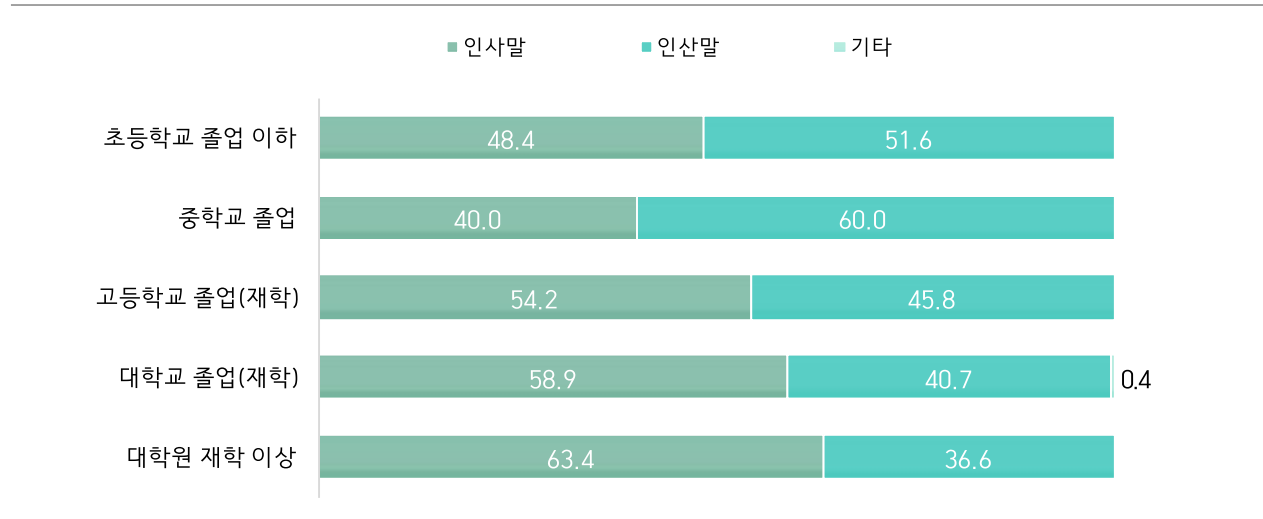
[ 그림 2-41 ] 사잇소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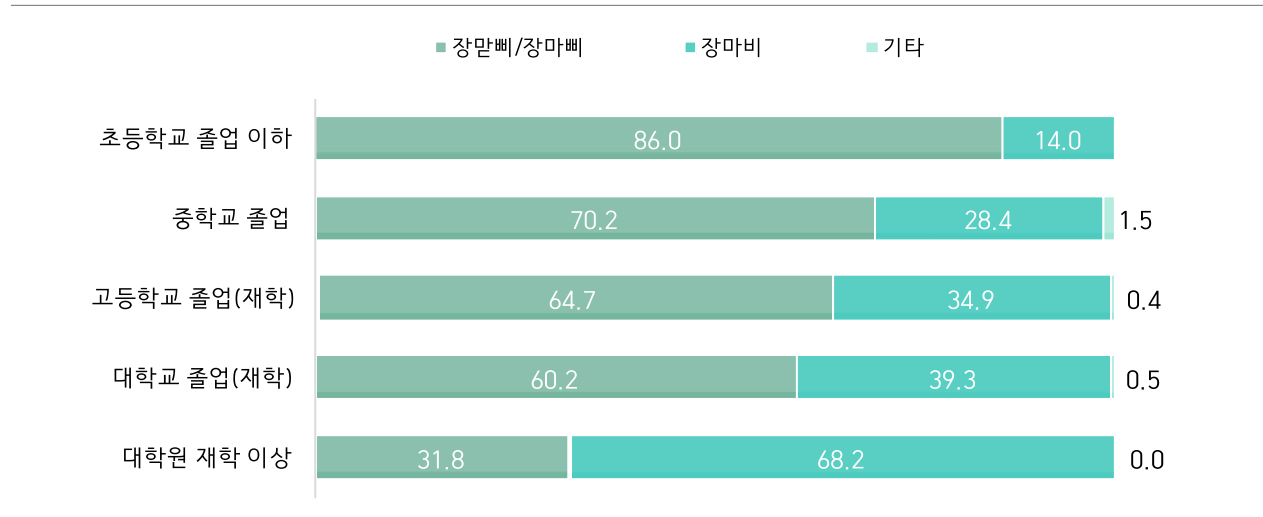
[ 그림 2-42 ] ‘인사말’의 사잇소리 - 응답자의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

(단위 : %)



[ 그림 2-43 ] ‘장맛비’의 사잇소리 - 응답자의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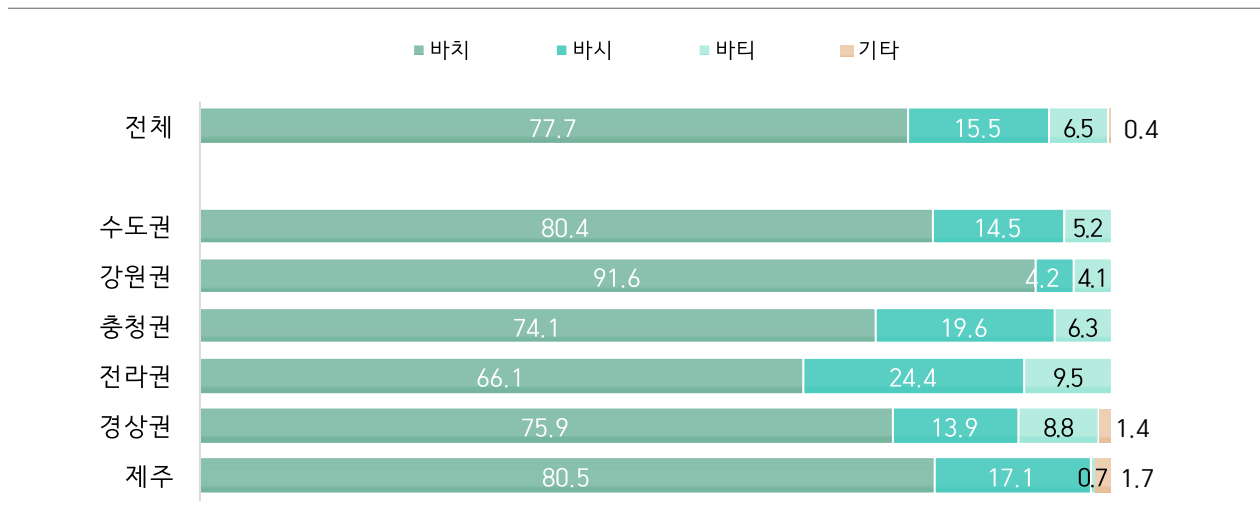


### 3. 체언 어간 말음의 재구조화

- ❖ ‘밭이’의 발음은 ‘바치’가 ‘바시’보다 5배 이상 더 많은데, 전라권, 충청권, 제주에서는 ‘바시’로 발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 ‘부억에’의 발음은 ‘부어케’가 ‘부어게’보다 2배에 조금 못 미치게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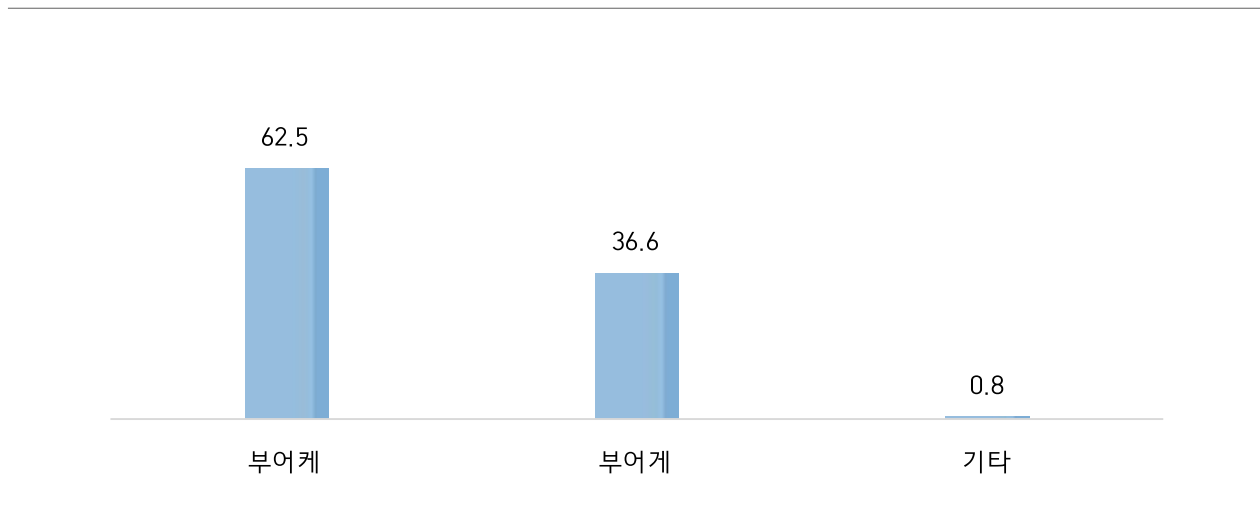
[ 그림 2-44 ] ‘밭이’에서의 어간 말음 재구조화 -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

(단위 : %)



[ 그림 2-45 ] ‘부억’에서의 어간 말음 재구조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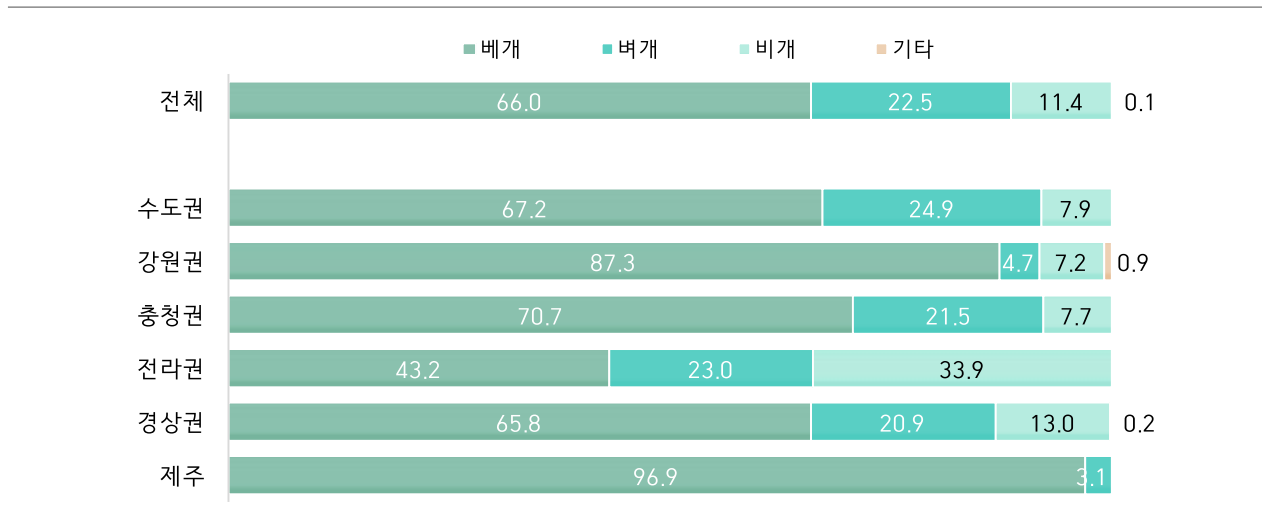


#### 4. 모음 재구조화

- ❖ ‘베개’의 발음은 표준 발음 ‘베개’가 가장 많고, 이어서 옛말인 ‘벼개’와 고모음화된 지역어인 ‘비개’ 순으로 많은데, 표준 발음의 비율은 전라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 ‘퍼다’의 발음은 표준 발음 ‘편다’가 가장 많고, 이어서 지역 방언인 ‘핀다’와 ‘펜다’ 순으로 많은데, 표준 발음의 비율은 전라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 “늘 건강하기를 바라”에서 ‘바라’의 발음은 비표준 발음 ‘바래’가 표준 발음 ‘바라’보다 2배 이상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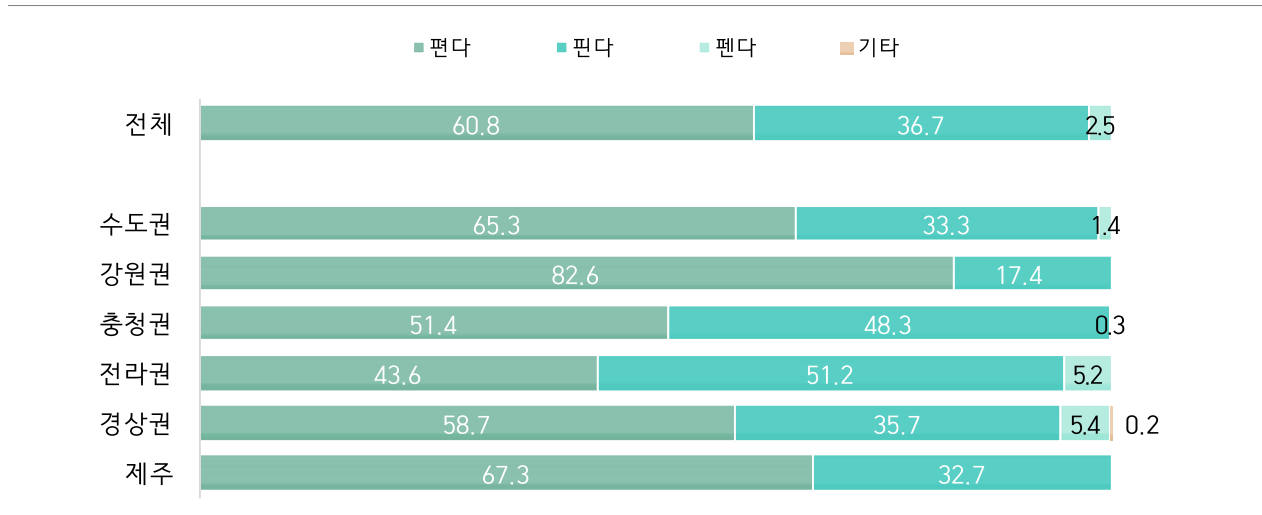
[ 그림 2-46 ] ‘베개’에서의 모음 재구조화 -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

(단위 : %)



[ 그림 2-47 ] ‘퍼다’에서의 모음 재구조화 -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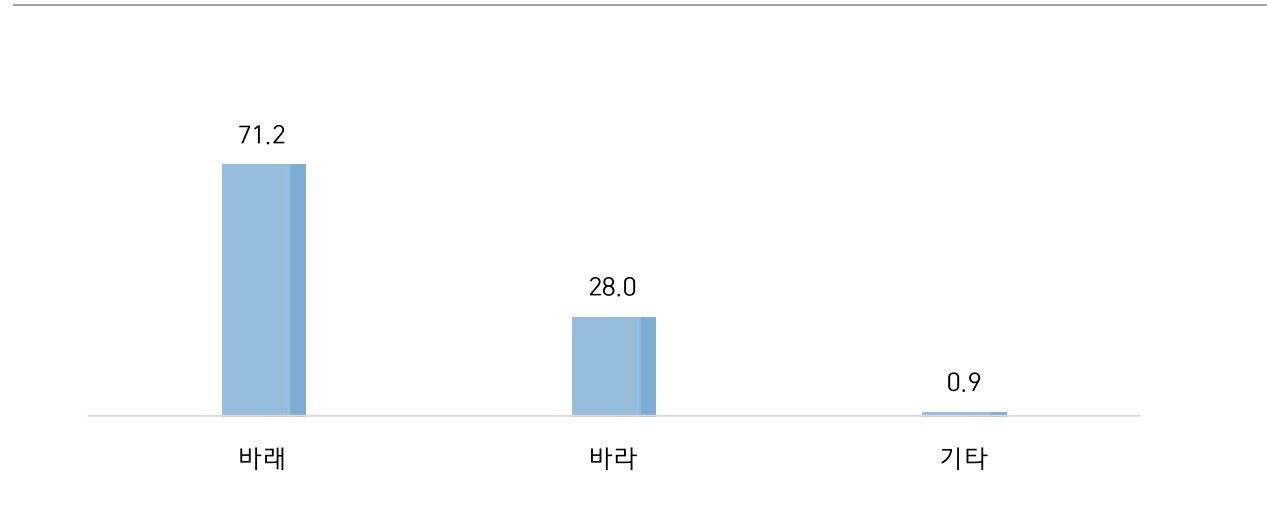
(단위 : %)





[ 그림 2-48 ] ‘바라’에서의 모임 재구조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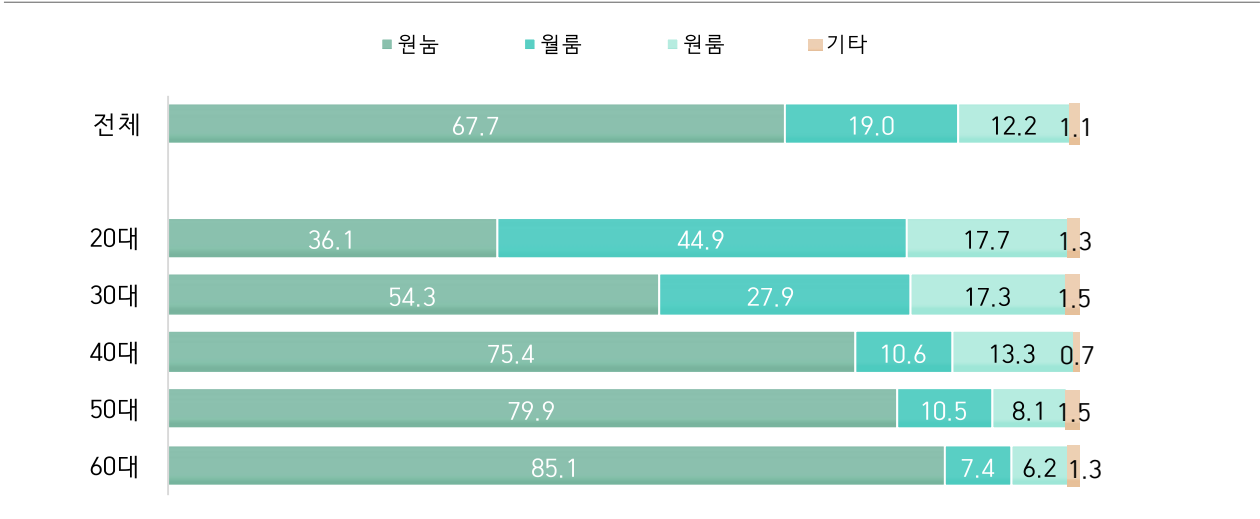


5. 자음동화

- ❖ ‘원룸’의 발음은 비음화되는 ‘원눔’이 가장 많고, 이어서 유음화되는 ‘월룸’과 자음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원룸’의 순으로 많은데, 유음화되는 ‘월룸’과 자음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원룸’은 연령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편임.

[ 그림 2-49 ] ‘원룸’에서의 자음동화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단위 : %)



## 제3장

# 조사 결과 분석







## I 어휘

### 1. 자신을 낳아준 여성을 부르는 말(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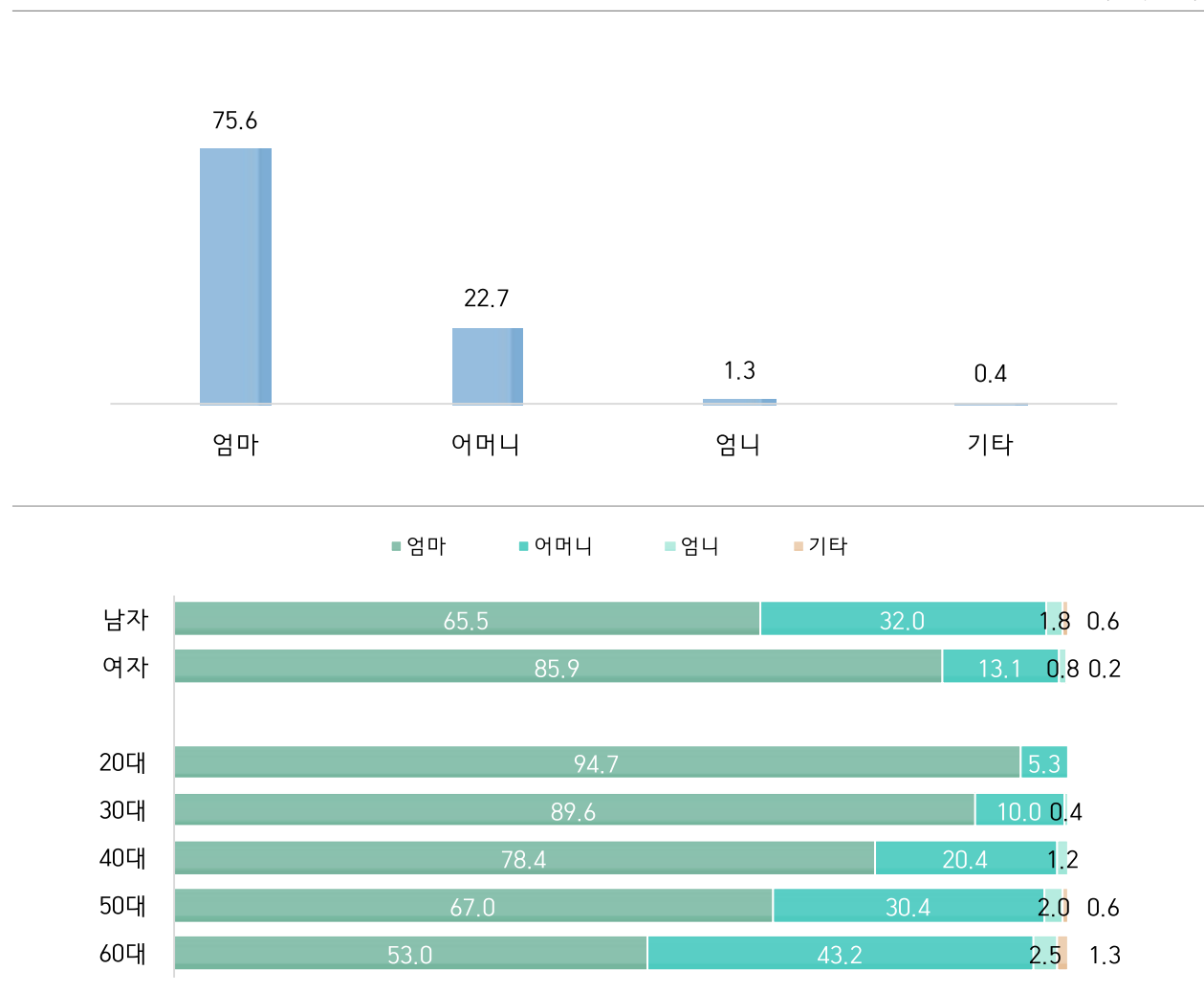
문1

귀하가 귀하를 낳아준 여성(여자)을 어떻게 부릅니까?

- ❖ 자신을 낳아준 여성(여자)을 주로 ‘엄마’(75.6%)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어머니’(22.7%), ‘엄니’(1.3%)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어무이’, ‘어매’ 등이 있음.

[ 그림 3-1 ] 자신을 낳아준 여성을 부르는 말(호칭)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자신을 낳아준 여성(여자)을 ‘엄마’라고 부르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85.9%),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81.0%),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81.4%),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재학)(80.7%)에서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표 3-1 ] 자신을 낳아준 여성을 부르는 말(호칭)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엄마	어머니	엄니	기타
전 체		(2,000)	75.6	22.7	1.3	0.4
성별	남성	(1,016)	65.5	32.0	1.8	0.6
	여성	(984)	85.9	13.1	0.8	0.2
연령	20대	(352)	94.7	5.3	0.0	0.0
	30대	(353)	89.6	10.0	0.4	0.0
	40대	(435)	78.4	20.4	1.2	0.0
	50대	(463)	67.0	30.4	2.0	0.6
	60대	(397)	53.0	43.2	2.5	1.3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81.0	17.9	0.9	0.2
	강원권	(58)	72.7	27.3	0.0	0.0
	충청권	(212)	70.9	26.8	2.3	0.0
	전라권	(182)	59.4	36.2	4.3	0.0
	경상권	(488)	73.0	25.0	0.8	1.1
	제주	(26)	65.0	35.0	0.0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80.2	17.2	2.6	0.0
	2인 가구	(454)	62.0	34.9	2.3	0.7
	3인 가구	(659)	78.6	20.0	0.9	0.5
	4인 가구	(674)	80.1	19.1	0.6	0.2
	5인 가구 이상	(69)	81.4	16.3	2.3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54.0	46.0	0.0	0.0
	중학교 졸업	(47)	46.1	49.4	4.5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70.2	27.6	1.3	0.9
	대학교 졸업(재학)	(1,144)	80.7	18.0	1.2	0.1
	대학원 재학 이상	(27)	72.2	27.8	0.0	0.0





## 2. 자신을 낳아준 남성을 부르는 말(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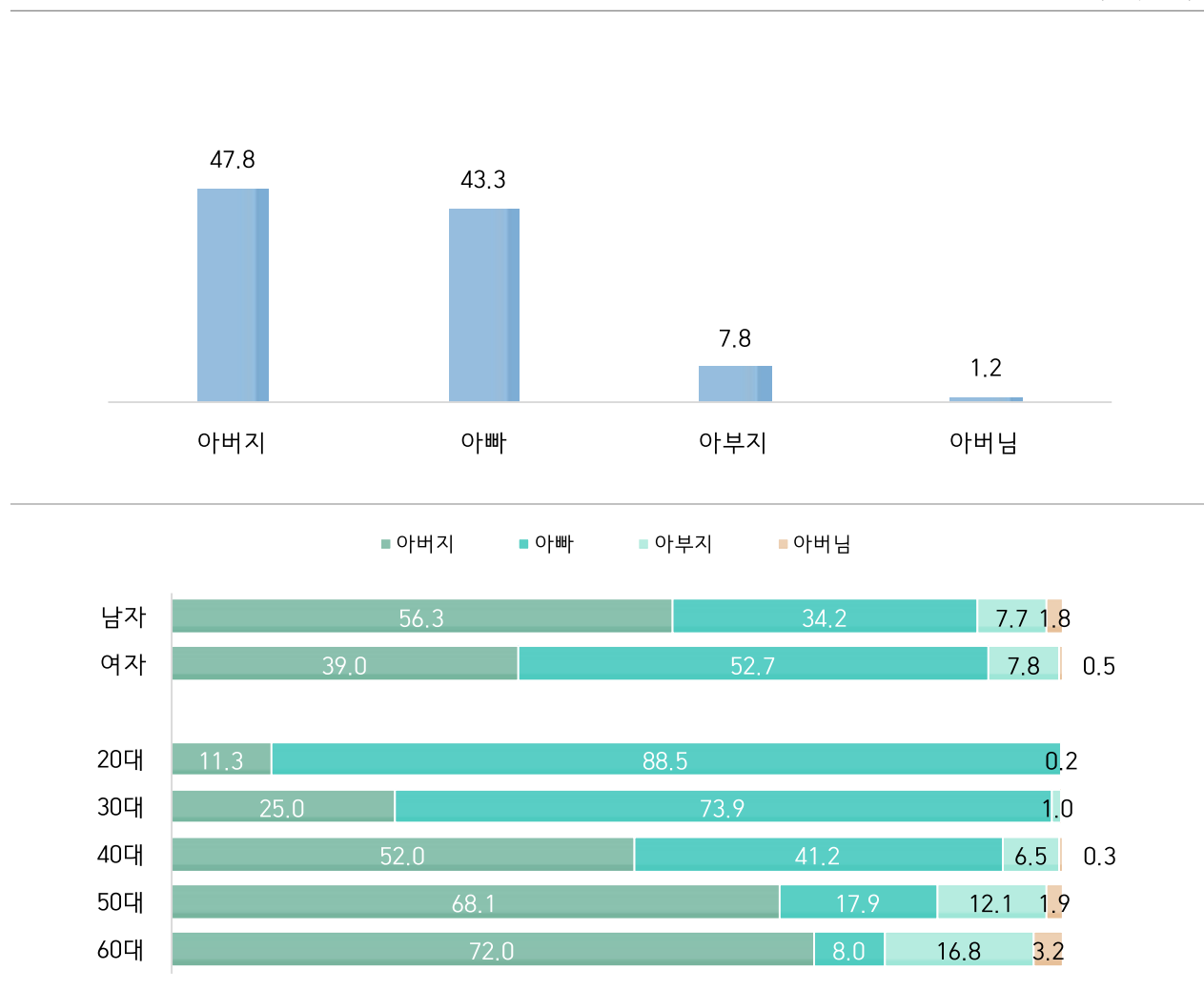
문2

귀하가 귀하를 낳아준 남성(남자)을 어떻게 부릅니까?

- ❖ 자신을 낳아준 남성(남자)을 주로 ‘아버지’(47.8%)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아빠’(43.3%), ‘아부지’(7.8%), ‘아버님’(1.2%) 순임.

[ 그림 3-2 ] 자신을 낳아준 남성을 부르는 말(호칭)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자신을 낳아준 남성(남자)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56.3%),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권(66.1%), 가구원 수별로는 2인 가구(62.9%), 최종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71.1%)에서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표 3-2 ] 자신을 낳아준 남성을 부르는 말(호칭)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님
전 체		(2,000)	47.8	43.3	7.8	1.2
성별	남성	(1,016)	56.3	34.2	7.7	1.8
	여성	(984)	39.0	52.7	7.8	0.5
연령	20대	(352)	11.3	88.5	0.2	0.0
	30대	(353)	25.0	73.9	1.0	0.1
	40대	(435)	52.0	41.2	6.5	0.3
	50대	(463)	68.1	17.9	12.1	1.9
	60대	(397)	72.0	8.0	16.8	3.2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45.5	47.6	6.4	0.5
	강원권	(58)	66.1	33.9	0.0	0.0
	충청권	(212)	44.5	46.9	7.7	0.8
	전라권	(182)	44.4	42.3	10.2	3.1
	경상권	(488)	52.8	33.8	11.1	2.3
	제주	(26)	51.3	48.7	0.0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43.0	48.8	7.5	0.6
	2인 가구	(454)	62.9	21.9	12.9	2.3
	3인 가구	(659)	44.0	49.2	6.0	0.8
	4인 가구	(674)	42.8	50.4	5.7	1.0
	5인 가구 이상	(69)	42.6	46.9	10.5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71.1	0.0	20.1	8.8
	중학교 졸업	(47)	64.1	8.4	22.7	4.8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61.2	26.4	10.6	1.7
	대학교 졸업(재학)	(1,144)	38.2	56.3	4.9	0.6
	대학원 재학 이상	(27)	31.7	54.9	13.4	0.0



### 3. 아내가 남편의 아버지를 직접 부르는 말(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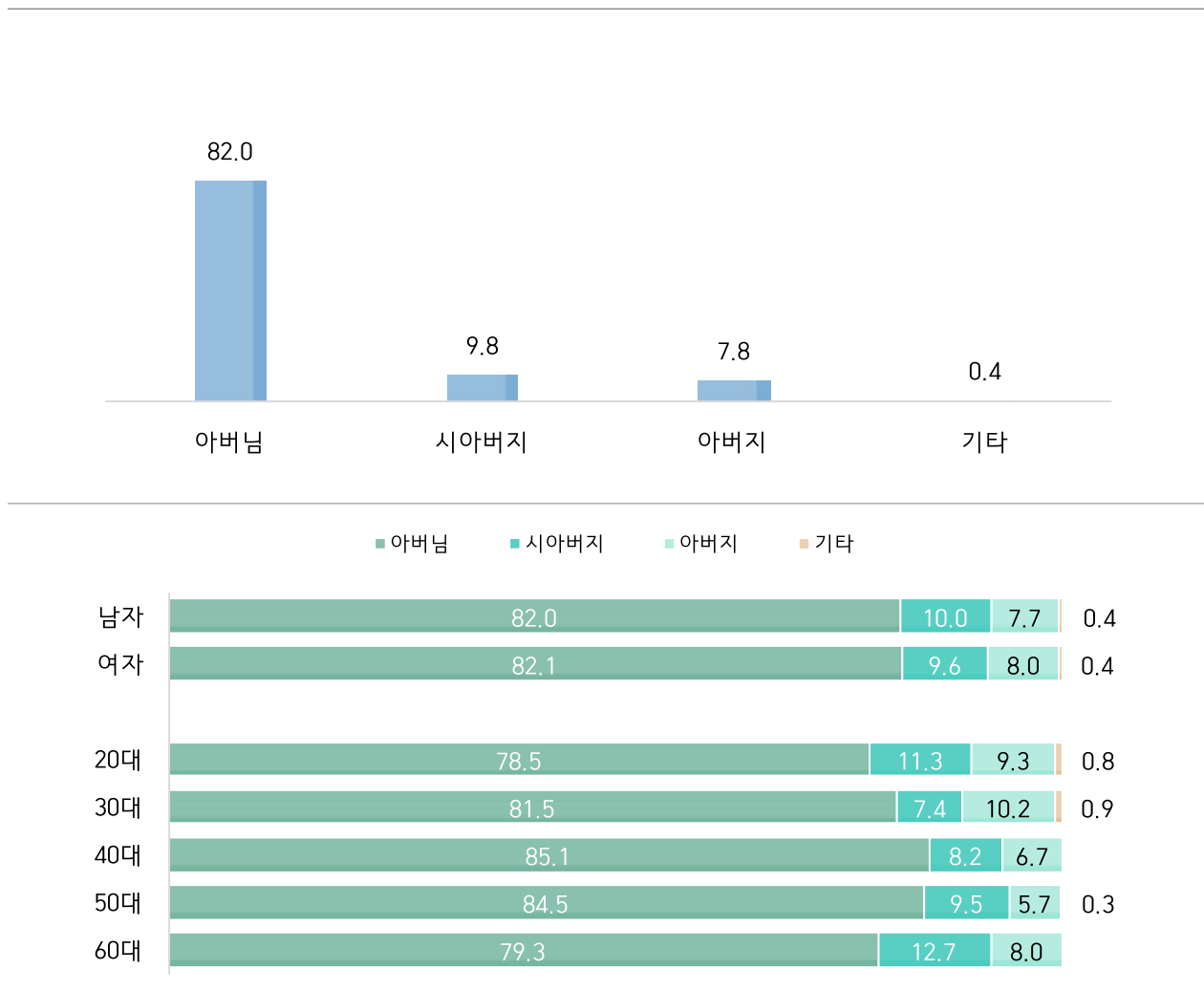
문3

아내가 남편의 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 ❖ 아내가 남편의 아버지를 직접 부르는 말로는 ‘아버님’(82.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아버지’(9.8%), ‘아버지’(7.8%)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아빠’, ‘시아버님’, ‘시아방’이 있음.

[ 그림 3-3 ] 아내가 남편의 아버지를 직접 부르는 말(호칭)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아내가 남편의 아버지를 직접 부르는 방법으로 ‘아버님’을 선택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연령별로는 40대(85.1%),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90.7%), 가구원 수별로는 3인 가구(83.7%), 최종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83.3%)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3 ] 아내가 남편의 아버지를 직접 부르는 말(호칭)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아버님	시아버지	아버지	기타
전 체		(2,000)	82.0	9.8	7.8	0.4
성별	남성	(1,016)	82.0	10.0	7.7	0.4
	여성	(984)	82.1	9.6	8.0	0.4
연령	20대	(352)	78.5	11.3	9.3	0.8
	30대	(353)	81.5	7.4	10.2	0.9
	40대	(435)	85.1	8.2	6.7	0.0
	50대	(463)	84.5	9.5	5.7	0.3
	60대	(397)	79.3	12.7	8.0	0.0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90.7	4.9	4.2	0.2
	강원권	(58)	69.9	16.1	11.3	2.8
	충청권	(212)	79.8	15.2	5.0	0.0
	전라권	(182)	66.4	3.8	28.8	1.0
	경상권	(488)	72.8	19.8	6.9	0.4
	제주	(26)	63.5	0.0	35.8	0.7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80.8	10.2	8.9	0.0
	2인 가구	(454)	79.1	11.1	9.6	0.2
	3인 가구	(659)	83.7	7.7	8.0	0.6
	4인 가구	(674)	82.8	10.8	6.1	0.3
	5인 가구 이상	(69)	79.9	10.5	9.0	0.6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83.3	8.8	7.9	0.0
	중학교 졸업	(47)	75.1	12.4	12.5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82.6	10.2	7.0	0.3
	대학교 졸업(재학)	(1,144)	81.9	9.2	8.4	0.5
	대학원 재학 이상	(27)	79.9	20.1	0.0	0.0



#### 4. 남편이 아내의 아버지를 직접 부르는 말(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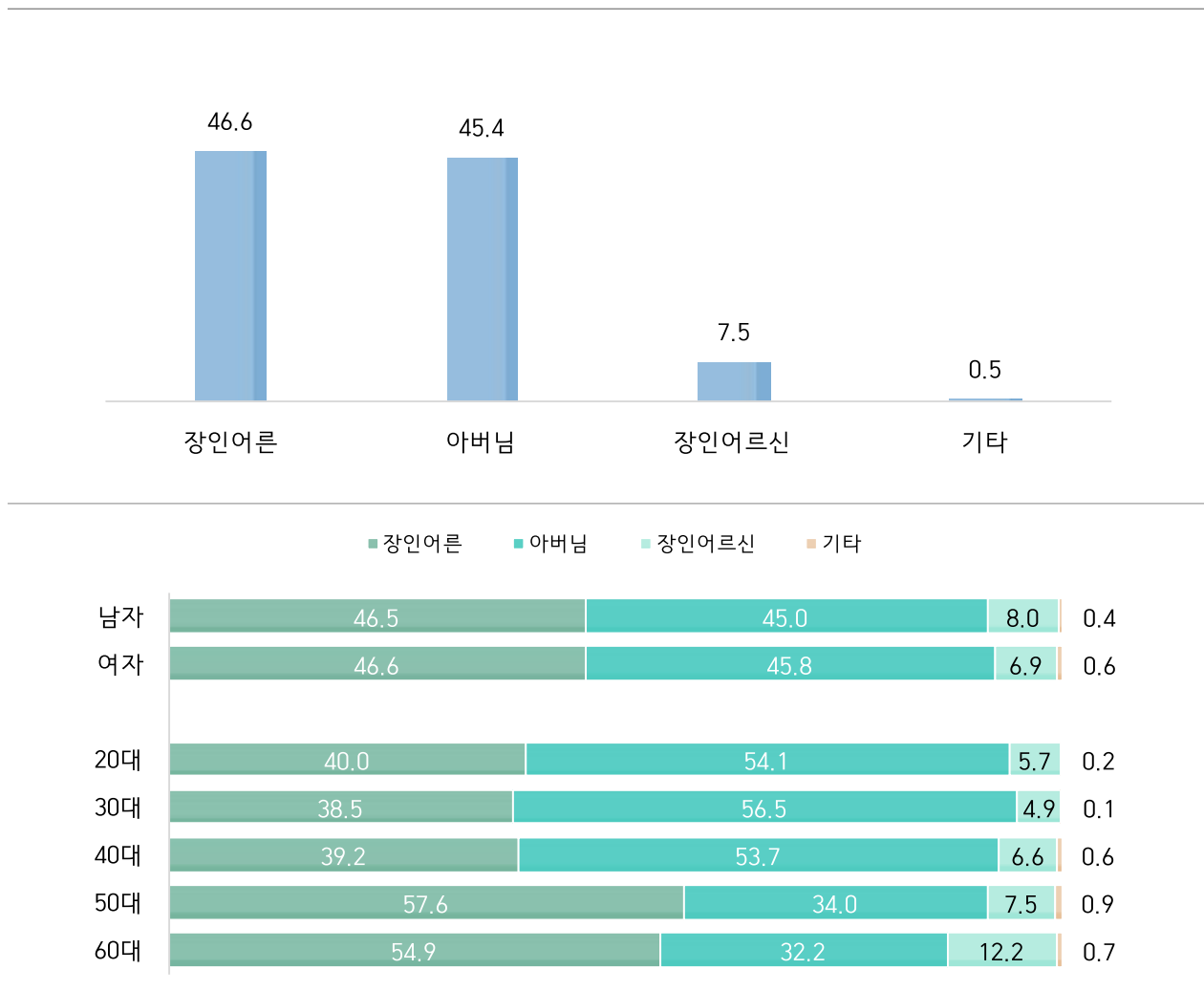
문4

남편이 아내의 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 ❖ 남편이 아내의 아버지를 직접 부르는 말로는 ‘장인어른’(46.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아버님’(45.4%), ‘장인어르신’(7.5%)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재인어른’, ‘아버지’ 등이 있음.

[ 그림 3-4 ] 남편이 아내의 아버지를 직접 부르는 말(호칭)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남편이 아내의 아버지를 직접 부르는 방법으로 ‘장인어른’을 선택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연령별로는 50대(57.6%),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권(63.6%),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66.0%), 최종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72.7%)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4 ] 남편이 아내의 아버지를 직접 부르는 말(호칭)

(단위 : %)

구 분		사 례 수	장인어른	아버님	장인어르신	기타
전 체		(2,000)	46.6	45.4	7.5	0.5
성별	남성	(1,016)	46.5	45.0	8.0	0.4
	여성	(984)	46.6	45.8	6.9	0.6
연령	20대	(352)	40.0	54.1	5.7	0.2
	30대	(353)	38.5	56.5	4.9	0.1
	40대	(435)	39.2	53.7	6.6	0.6
	50대	(463)	57.6	34.0	7.5	0.9
	60대	(397)	54.9	32.2	12.2	0.7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41.3	55.0	3.7	0.0
	강원권	(58)	63.6	29.0	5.8	1.6
	충청권	(212)	50.7	34.9	14.4	0.0
	전라권	(182)	39.0	51.0	9.1	0.9
	경상권	(488)	56.3	30.0	12.5	1.2
	제주	(26)	56.7	35.0	0.0	8.3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51.9	43.9	4.1	0.0
	2인 가구	(454)	50.3	37.3	11.8	0.7
	3인 가구	(659)	41.8	51.7	6.1	0.4
	4인 가구	(674)	45.7	46.3	7.4	0.6
	5인 가구 이상	(69)	66.0	32.7	0.0	1.3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72.7	11.6	15.7	0.0
	중학교 졸업	(47)	56.0	26.4	15.2	2.4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54.2	36.5	8.9	0.4
	대학교 졸업(재학)	(1,144)	40.9	52.3	6.2	0.6
	대학원 재학 이상	(27)	40.8	55.6	3.7	0.0



## 5. 아내가 남편의 어머니를 직접 부르는 말(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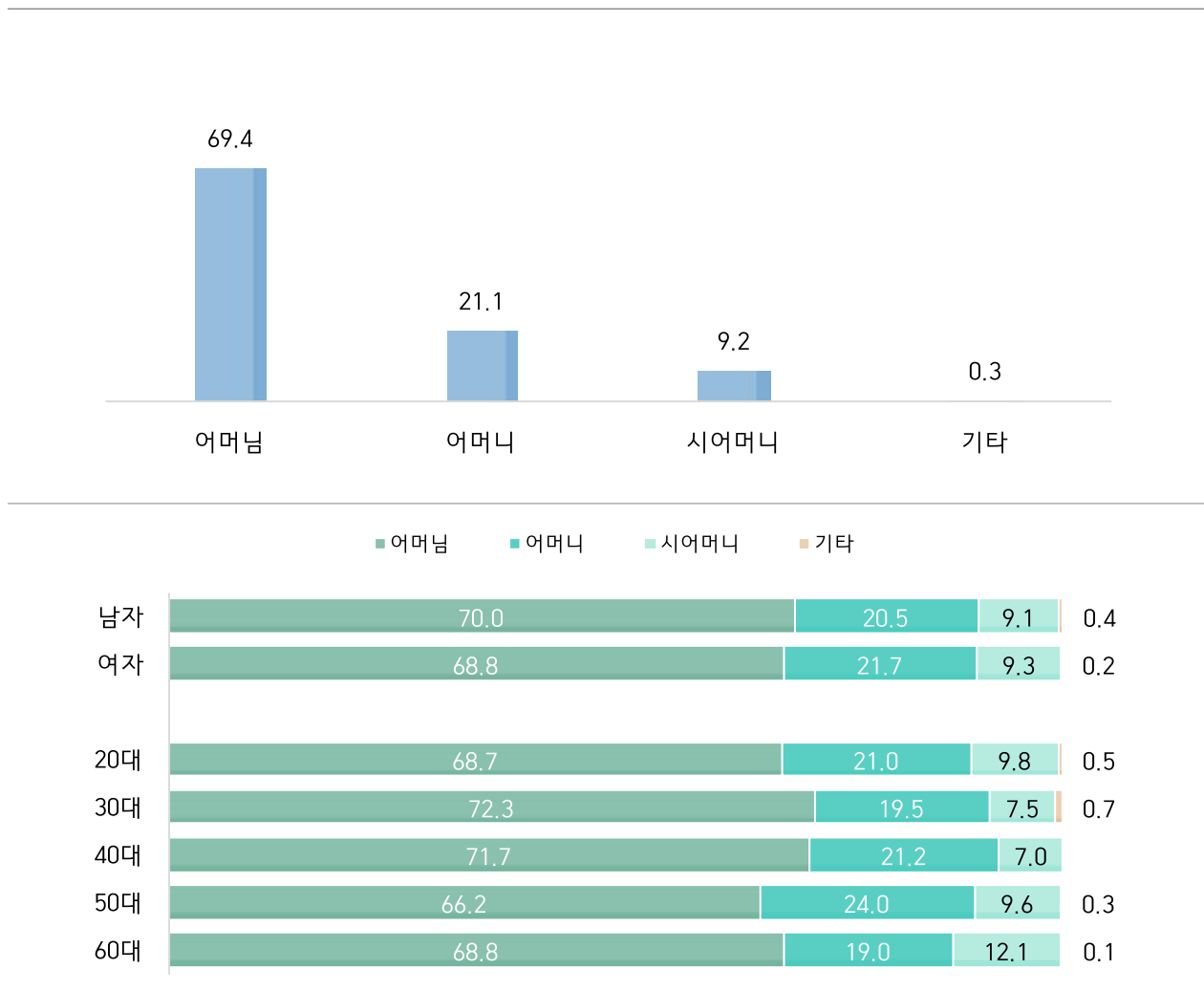
문5

아내가 남편의 어머니를 **직접**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 ❖ 아내가 남편의 어머니를 직접 부르는 말로는 ‘어머님’(69.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어머니’(21.1%), ‘시어머니’(9.2%)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엄마’, ‘시어머님’이 있음.

[ 그림 3-5 ] 아내가 남편의 어머니를 직접 부르는 말(호칭)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아내가 남편의 어머니를 직접 부르는 방법으로 ‘어머님’을 선택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70.0%), 연령별로는 30대(72.3%),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76.9%),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74.9%), 최종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76.2%)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5 ] 아내가 남편의 어머니를 직접 부르는 말(호칭)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어머님	어머니	시아머니	기타
전 체		(2,000)	69.4	21.1	9.2	0.3
성별	남성	(1,016)	70.0	20.5	9.1	0.4
	여성	(984)	68.8	21.7	9.3	0.2
연령	20대	(352)	68.7	21.0	9.8	0.5
	30대	(353)	72.3	19.5	7.5	0.7
	40대	(435)	71.7	21.2	7.0	0.0
	50대	(463)	66.2	24.0	9.6	0.3
	60대	(397)	68.8	19.0	12.1	0.1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76.9	18.9	4.1	0.2
	강원권	(58)	65.2	17.6	15.4	1.7
	충청권	(212)	63.7	21.0	15.3	0.0
	전라권	(182)	63.3	31.3	4.6	0.8
	경상권	(488)	60.1	20.8	18.8	0.2
	제주	(26)	47.0	52.4	0.0	0.7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71.7	20.6	7.5	0.3
	2인 가구	(454)	69.7	19.2	11.1	0.0
	3인 가구	(659)	71.3	20.1	8.1	0.5
	4인 가구	(674)	66.4	23.9	9.5	0.2
	5인 가구 이상	(69)	74.9	16.3	7.5	1.3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76.2	15.0	8.8	0.0
	중학교 졸업	(47)	66.4	22.4	10.2	1.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69.2	21.0	9.6	0.3
	대학교 졸업(재학)	(1,144)	69.8	21.2	8.8	0.3
	대학원 재학 이상	(27)	66.2	18.9	14.9	0.0





## 6. 남편이 아내의 어머니를 직접 부르는 말(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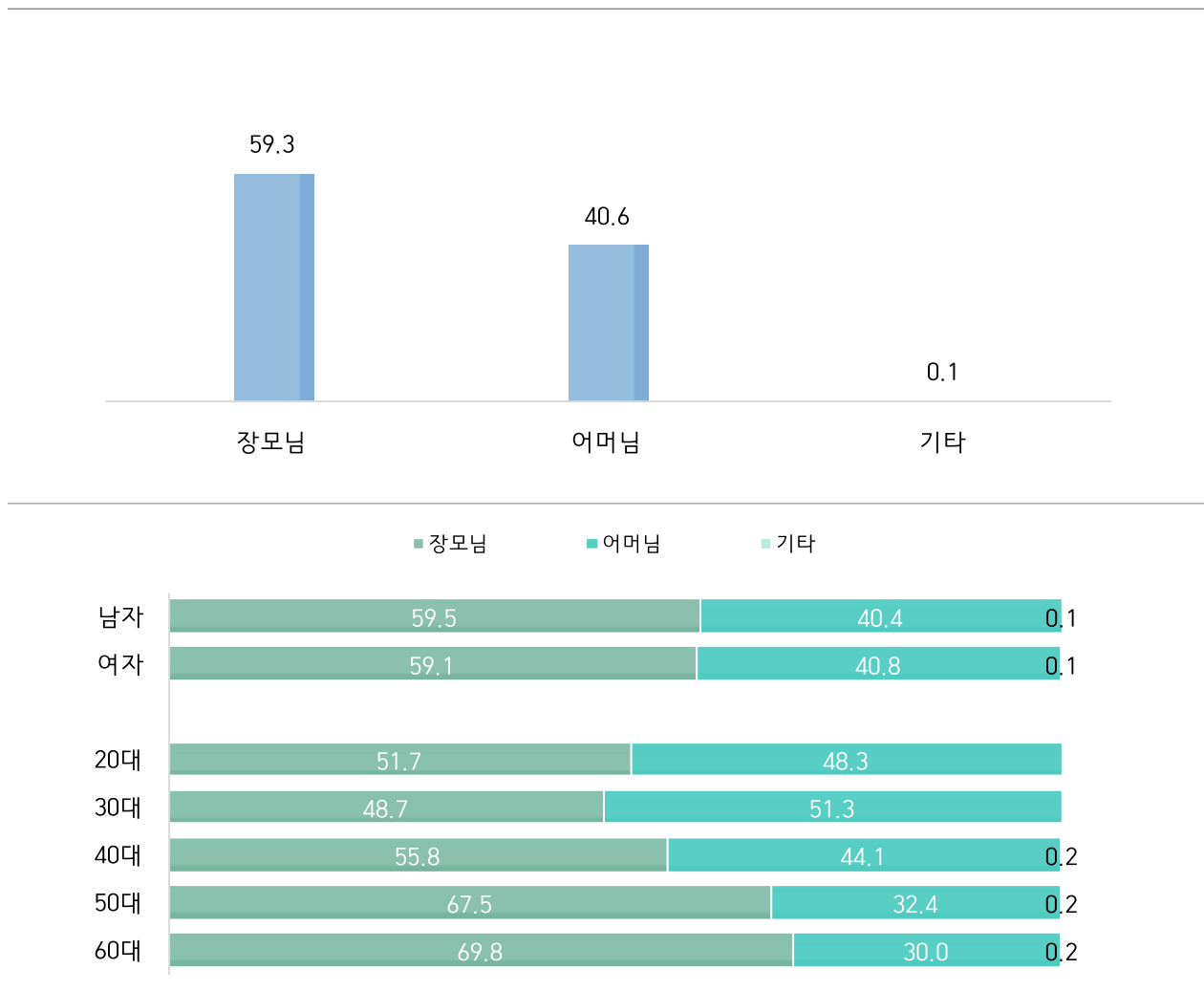
문6

남편이 아내의 어머니를 직접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 ❖ 남편이 아내의 어머니를 직접 부르는 말로는 ‘장모님’(59.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어머님’(40.6%)이 뒤를 이음.
- ❖ 기타 응답으로는 ‘어머니’가 있음.

[ 그림 3-6 ] 남편이 아내의 어머니를 직접 부르는 말(호칭)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남편이 아내의 어머니를 직접 부르는 방법으로 ‘장모님’을 선택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59.5%), 연령별로는 60대(69.8%),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권(76.8%), 가구원 수별로는 2인 가구(66.0%), 최종 학력별로는 중학교 졸업(85.3%)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6 ] 남편이 아내의 어머니를 직접 부르는 말(호칭)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장모님	어머님	기타
전 체		(2,000)	59.3	40.6	0.1
성별	남성	(1,016)	59.5	40.4	0.1
	여성	(984)	59.1	40.8	0.1
연령	20대	(352)	51.7	48.3	0.0
	30대	(353)	48.7	51.3	0.0
	40대	(435)	55.8	44.1	0.2
	50대	(463)	67.5	32.4	0.2
	60대	(397)	69.8	30.0	0.2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50.8	49.2	0.0
	강원권	(58)	76.8	22.4	0.8
	충청권	(212)	73.4	26.6	0.0
	전라권	(182)	48.2	51.8	0.0
	경상권	(488)	73.2	26.8	0.0
	제주	(26)	58.8	34.0	7.2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65.7	34.2	0.2
	2인 가구	(454)	66.0	33.8	0.3
	3인 가구	(659)	50.6	49.4	0.1
	4인 가구	(674)	61.8	38.2	0.0
	5인 가구 이상	(69)	60.6	38.8	0.6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69.2	30.8	0.0
	중학교 졸업	(47)	85.3	12.7	2.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66.2	33.7	0.1
	대학교 졸업(재학)	(1,144)	53.7	46.2	0.0
	대학원 재학 이상	(27)	48.8	51.2	0.0



## 7. 상점 주인이 당신을 높여 부르는 말(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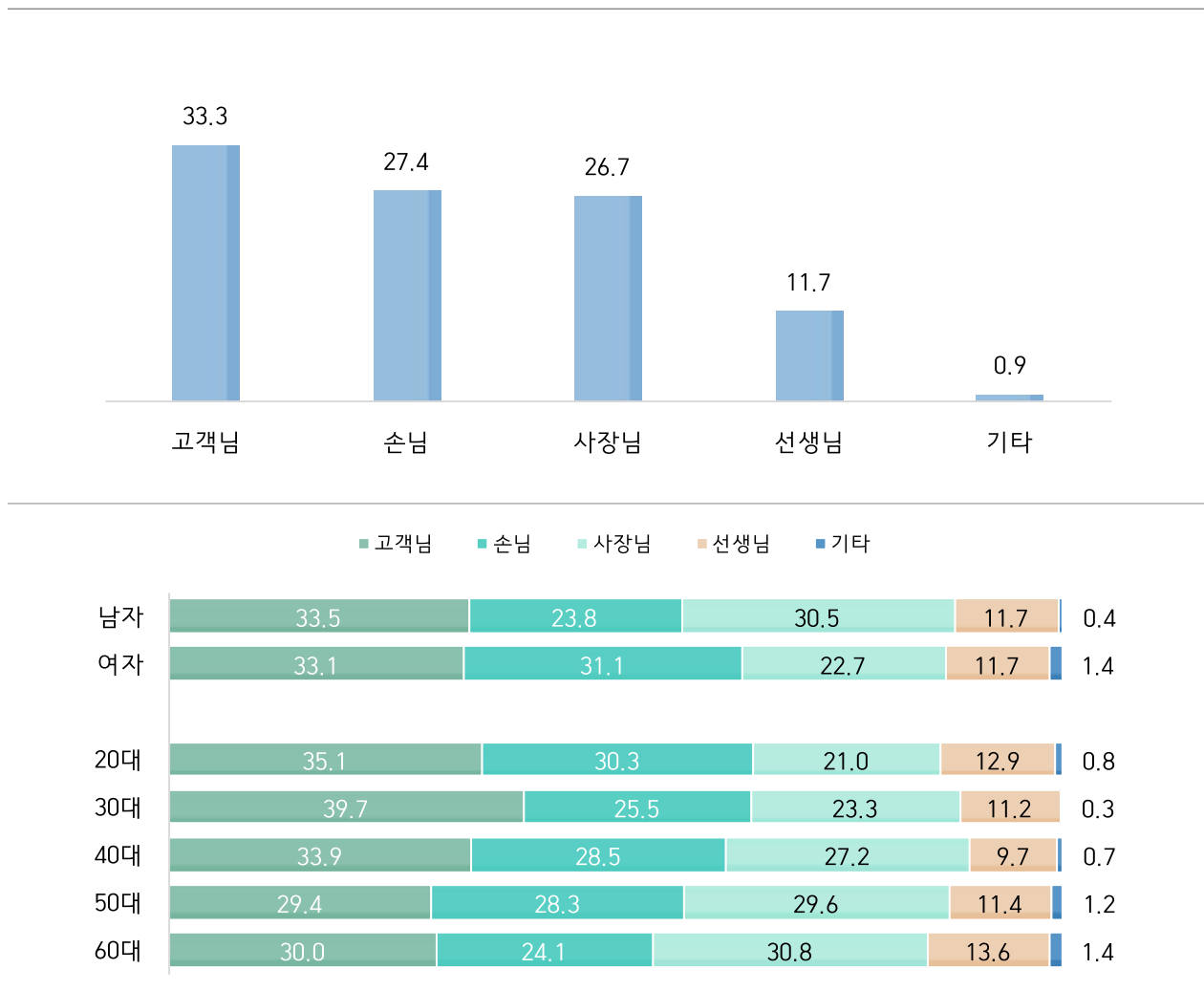
문7

물건을 사러 상점에 갔는데 상점 주인이 당신을 높여 어떻게 부릅니까?

- ❖ 상점 주인은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을 주로 ‘고객님’(33.3%)이라고 높여 부르며, 다음으로 ‘손님’(27.4%), ‘사장님’(26.7%), ‘선생님’(11.7%)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사모님’, ‘어머니’, ‘삼촌’ 등이 있음.

[ 그림 3-7 ] 상점 주인이 당신을 높여 부르는 말(호칭)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상점 주인이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을 높여 부르는 방법으로 ‘고객님’을 선택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33.5%), 연령별로는 30대(39.7%),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권(42.0%),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41.0%),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43.4%)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7 ] 상점 주인이 당신을 높여 부르는 말(호칭)

(단위 : %)

구 분		사례 수	고객님	손님	사장님	선생님	기타
전 체		(2,000)	33.3	27.4	26.7	11.7	0.9
성별	남성	(1,016)	33.5	23.8	30.5	11.7	0.4
	여성	(984)	33.1	31.1	22.7	11.7	1.4
연령	20대	(352)	35.1	30.3	21.0	12.9	0.8
	30대	(353)	39.7	25.5	23.3	11.2	0.3
	40대	(435)	33.9	28.5	27.2	9.7	0.7
	50대	(463)	29.4	28.3	29.6	11.4	1.2
	60대	(397)	30.0	24.1	30.8	13.6	1.4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33.7	28.6	30.4	6.8	0.5
	강원권	(58)	42.0	28.5	24.3	4.3	0.9
	충청권	(212)	35.3	20.7	27.7	15.1	1.3
	전라권	(182)	18.6	15.9	27.5	38.0	0.0
	경상권	(488)	35.9	32.5	18.7	11.0	1.9
	제주	(26)	36.0	16.6	21.8	23.8	1.8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41.0	29.3	20.4	8.7	0.6
	2인 가구	(454)	32.8	28.5	25.3	11.9	1.5
	3인 가구	(659)	37.1	22.3	27.6	12.9	0.2
	4인 가구	(674)	28.7	31.4	28.2	10.6	1.1
	5인 가구 이상	(69)	30.3	25.7	26.3	15.8	1.9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29.3	23.2	39.6	7.9	0.0
	중학교 졸업	(47)	17.2	25.4	32.9	21.1	3.4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32.1	28.9	27.2	10.8	1.0
	대학교 졸업(재학)	(1,144)	34.6	26.6	26.1	11.9	0.8
	대학원 재학 이상	(27)	43.4	21.9	23.7	11.0	0.0



## 8. 가게에서 젊어 보이는 여자 직원을 부르는 말(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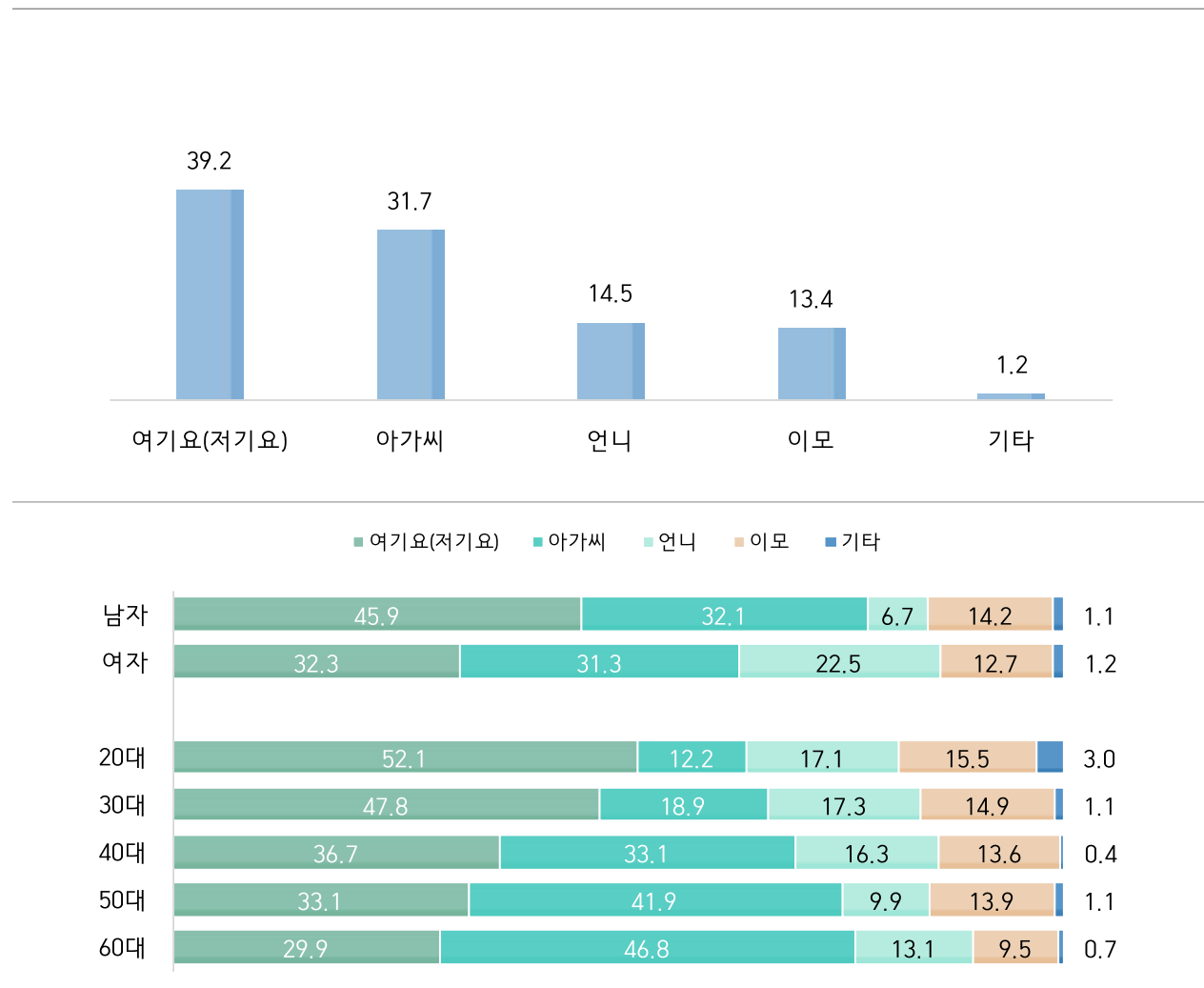
문8

가게에서 젊어 보이는 여자 직원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니까?

- ❖ 가게에서 젊어 보이는 여자 직원을 주로 '여기요(저기요)'(39.2%)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아가씨' (31.7%), '언니'(14.5%), '이모'(13.4%)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사장님', '선생님', '여보세요' 등이 있음.

[ 그림 3-8 ] 가게에서 젊어 보이는 여자 직원을 부르는 말(호칭)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가게에서 젊어보이는 여자 직원을 부르는 방법으로 ‘여기요(저기요)’를 선택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45.9%), 연령별로는 20대(52.1%),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52.8%),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45.4%),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표 3-8 ] 가게에서 젊어 보이는 여자 직원을 부르는 말(호칭)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여기요 (저기요)	아가씨	언니	이모	기타
전 체		(2,000)	39.2	31.7	14.5	13.4	1.2
성별	남성	(1,016)	45.9	32.1	6.7	14.2	1.1
	여성	(984)	32.3	31.3	22.5	12.7	1.2
연령	20대	(352)	52.1	12.2	17.1	15.5	3.0
	30대	(353)	47.8	18.9	17.3	14.9	1.1
	40대	(435)	36.7	33.1	16.3	13.6	0.4
	50대	(463)	33.1	41.9	9.9	13.9	1.1
	60대	(397)	29.9	46.8	13.1	9.5	0.7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39.9	30.5	19.2	9.5	0.9
	강원권	(58)	51.8	24.1	10.9	5.4	7.8
	충청권	(212)	39.2	21.8	14.0	23.4	1.5
	전라권	(182)	30.2	41.0	13.9	14.5	0.4
	경상권	(488)	38.9	36.9	5.5	17.9	0.8
	제주	(26)	52.8	13.2	14.4	14.1	5.6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44.4	28.3	12.1	14.2	0.9
	2인 가구	(454)	36.1	36.7	14.4	11.8	1.1
	3인 가구	(659)	39.6	29.8	14.2	15.2	1.2
	4인 가구	(674)	39.1	31.5	15.3	12.8	1.3
	5인 가구 이상	(69)	45.4	25.3	15.9	12.3	1.1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6.9	67.7	6.2	19.1	0.0
	중학교 졸업	(47)	22.6	48.9	11.7	16.8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34.8	37.8	13.1	13.3	1.0
	대학교 졸업(재학)	(1,144)	42.1	27.3	15.8	13.3	1.4
	대학원 재학 이상	(27)	81.6	0.0	6.5	11.9	0.0



## 9. 주차 시비가 생겼을 때 잘못을 한 동년배 남자를 부르는 말(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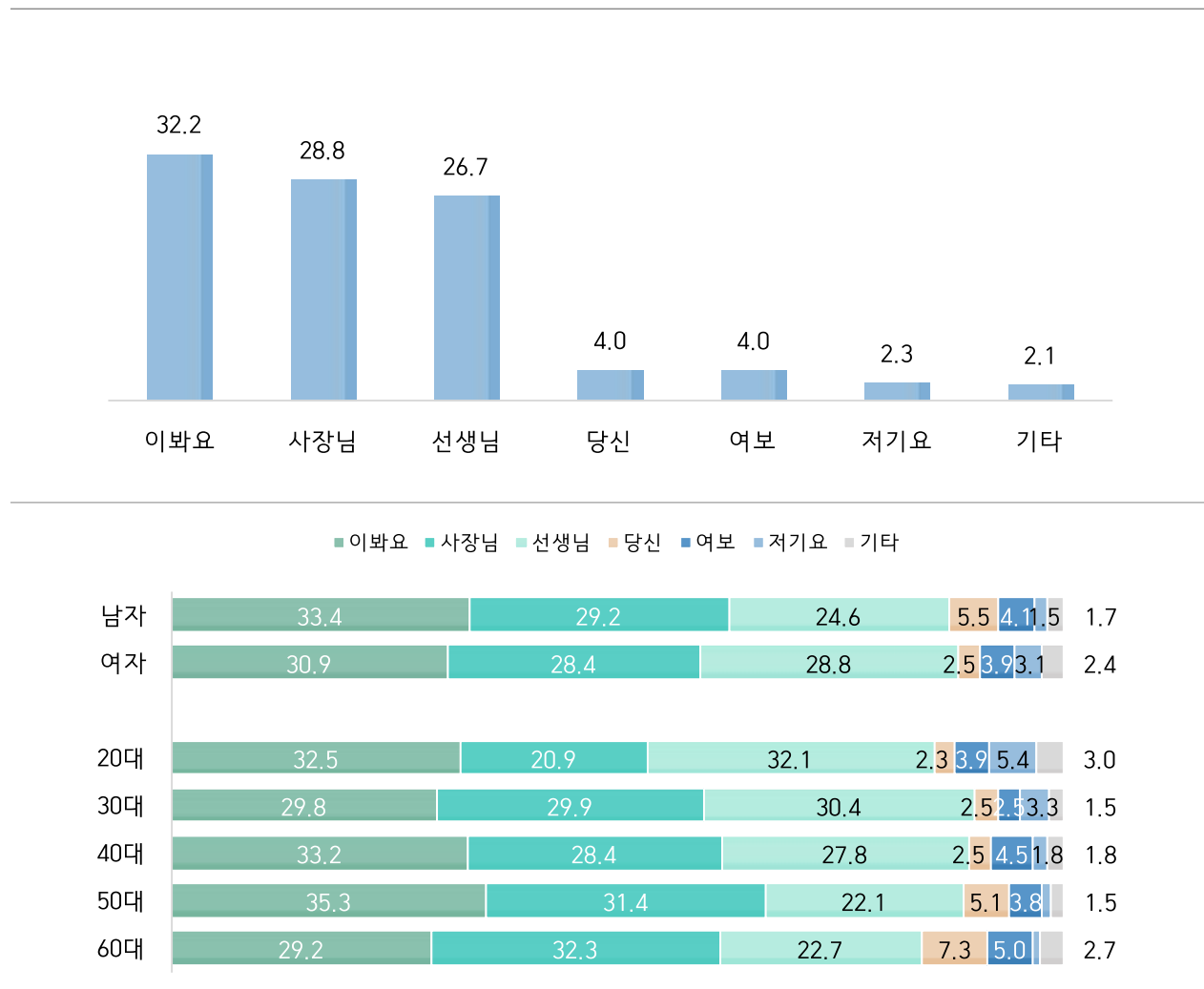
문9

주차 시비가 생겨 잘못을 한 상대방이 동년배 남자인 경우, 그 사람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 보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부르면서 말을 건넵니까?

- ❖ 주차 시비가 생긴 경우, 잘못된 동년배 남자인 상대방을 주로 ‘이봐요’(32.2%)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사장님’(28.8%), ‘선생님’(26.7%), ‘당신’(4.0%), ‘여보’(4.0%), ‘저기요’(2.3%)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아저씨’, ‘여기요’, ‘여보세요’ 등이 있음.

[ 그림 3-9 ] 주차 시비가 생겼을 때 잘못을 한 동년배 남자를 부르는 말(호칭)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주차 시비가 생긴 경우, 잘못된 동년배 남자인 상대방을 부르는 방법으로 ‘이박요’를 선택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33.4%), 연령별로는 50대(35.3%),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49.1%), 가구원 수별로는 3인 가구(33.9%), 최종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재학) (34.5%)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9 ] 주차 시비가 생겼을 때 잘못을 한 동년배 남자를 부르는 말(호칭)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이박요	사장님	선생님	당신	여보	저기요	기타
전 체		(2,000)	32.2	28.8	26.7	4.0	4.0	2.3	2.1
성별	남성	(1,016)	33.4	29.2	24.6	5.5	4.1	1.5	1.7
	여성	(984)	30.9	28.4	28.8	2.5	3.9	3.1	2.4
연령	20대	(352)	32.5	20.9	32.1	2.3	3.9	5.4	3.0
	30대	(353)	29.8	29.9	30.4	2.5	2.5	3.3	1.5
	40대	(435)	33.2	28.4	27.8	2.5	4.5	1.8	1.8
	50대	(463)	35.3	31.4	22.1	5.1	3.8	0.9	1.5
	60대	(397)	29.2	32.3	22.7	7.3	5.0	0.9	2.7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34.0	29.8	24.2	1.8	5.3	3.1	1.9
	강원권	(58)	46.8	30.3	15.7	3.3	0.0	2.8	1.1
	충청권	(212)	31.4	19.8	41.2	5.0	1.4	1.0	0.3
	전라권	(182)	19.2	45.1	30.1	1.3	4.2	0.0	0.0
	경상권	(488)	30.8	25.6	25.5	9.7	3.0	1.8	3.6
	제주	(26)	49.1	4.6	31.7	0.0	0.0	6.3	8.3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30.0	30.5	28.5	3.0	3.0	1.9	3.2
	2인 가구	(454)	32.7	31.3	22.1	6.1	4.5	1.3	2.1
	3인 가구	(659)	33.9	27.1	27.3	3.6	4.5	2.1	1.4
	4인 가구	(674)	31.0	28.5	27.8	3.5	3.8	3.3	2.1
	5인 가구 이상	(69)	27.6	28.1	36.9	2.0	0.0	0.9	4.6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25.4	35.9	38.8	0.0	0.0	0.0	0.0
	중학교 졸업	(47)	32.1	28.8	22.0	5.2	10.0	0.0	2.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34.5	29.0	23.1	5.3	4.4	2.1	1.6
	대학교 졸업(재학)	(1,144)	30.8	28.6	29.1	3.2	3.6	2.4	2.3
	대학원 재학 이상	(27)	25.0	26.6	30.2	3.7	0.0	8.8	5.7





## 10. 나의 잘못으로 차량 접촉 사고 발생 시 동년배 남자인 상대를 부르는 말(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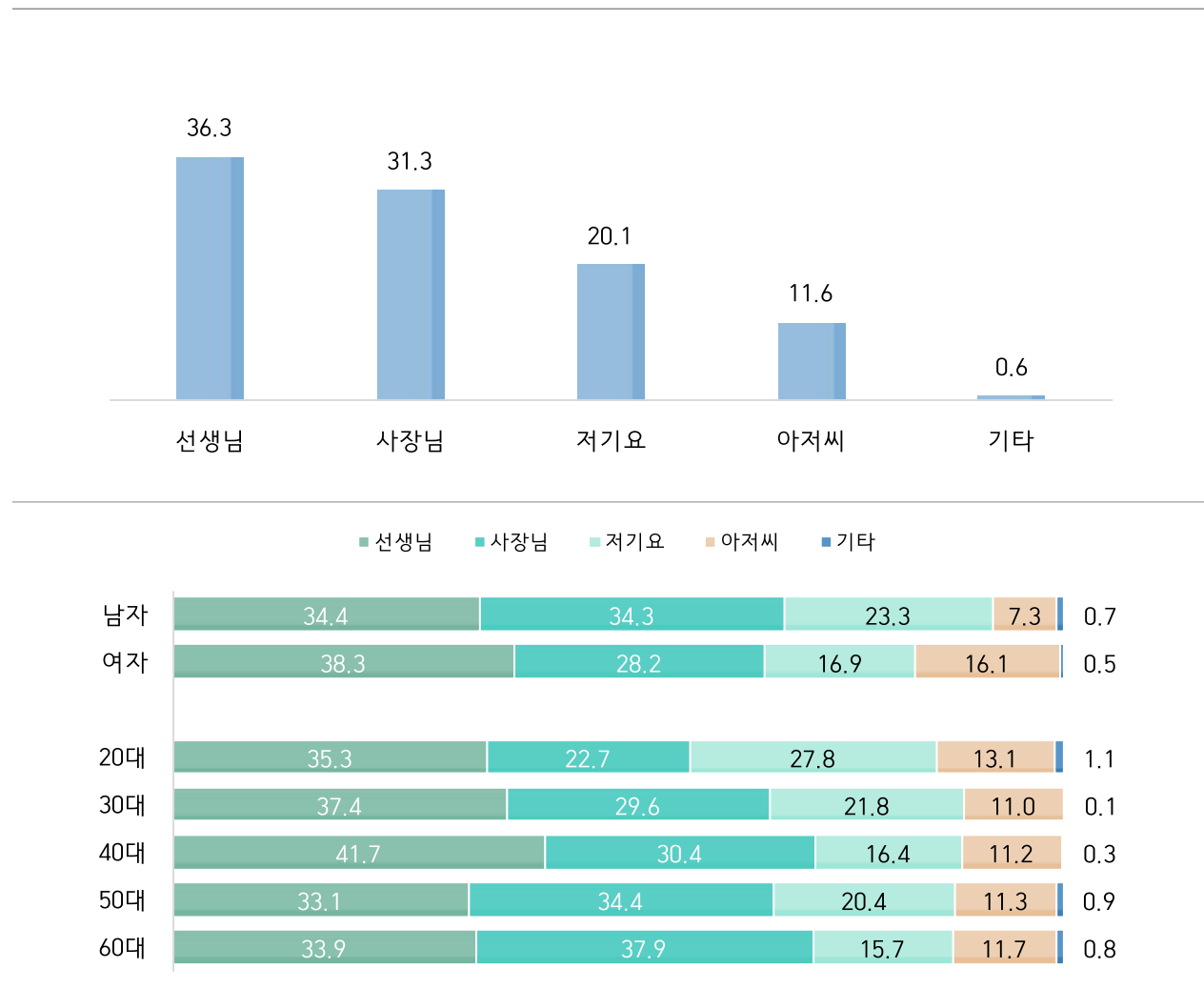
문10

내가 잘못해서 차량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동년배 남자인 상대 피해자를 뭐라고 부르면서 말을 건넵니까?

- ❖ 나의 잘못으로 차량 접촉 사고가 난 경우, 동년배 남자인 상대 피해자를 주로 ‘선생님’(36.3%)이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사장님’(31.3%), ‘저기요’(20.1%), ‘아저씨’(11.6%)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그쪽’, ‘당신’, ‘형씨’ 등이 있음.

[ 그림 3-10 ] 나의 잘못으로 차량 접촉 사고 발생 시 동년배 남자인 상대를 부르는 말(호칭)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나의 잘못으로 차량 접촉 사고가 난 경우, 동년배 남자인 상대 피해자를 부르는 방법으로 ‘선생님’을 선택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38.3%), 연령별로는 40대(41.7%), 거주 지역별로는 전라권(46.2%),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42.2%),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47.6%)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10 ] 나의 잘못으로 차량 접촉 사고 발생 시 동년배 남자인 상대를 부르는 말(호칭)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선생님	사장님	저기요	아저씨	기타
전 체		(2,000)	36.3	31.3	20.1	11.6	0.6
성별	남성	(1,016)	34.4	34.3	23.3	7.3	0.7
	여성	(984)	38.3	28.2	16.9	16.1	0.5
연령	20대	(352)	35.3	22.7	27.8	13.1	1.1
	30대	(353)	37.4	29.6	21.8	11.0	0.1
	40대	(435)	41.7	30.4	16.4	11.2	0.3
	50대	(463)	33.1	34.4	20.4	11.3	0.9
	60대	(397)	33.9	37.9	15.7	11.7	0.8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33.1	33.8	20.7	11.6	0.8
	강원권	(58)	15.3	37.9	41.5	3.4	2.0
	충청권	(212)	42.3	19.9	25.3	12.5	0.0
	전라권	(182)	46.2	33.9	10.7	9.2	0.0
	경상권	(488)	38.9	30.5	17.3	12.8	0.4
	제주	(26)	42.4	7.2	29.2	18.2	3.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37.7	31.6	18.8	11.0	0.9
	2인 가구	(454)	32.0	37.9	18.6	10.5	0.9
	3인 가구	(659)	38.2	28.2	20.8	12.7	0.0
	4인 가구	(674)	36.4	29.8	21.1	11.8	0.9
	5인 가구 이상	(69)	42.2	31.8	16.6	8.7	0.6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23.2	54.3	22.5	0.0	0.0
	중학교 졸업	(47)	36.2	37.6	16.2	9.9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35.1	31.8	22.0	10.2	0.8
	대학교 졸업(재학)	(1,144)	37.0	30.8	18.8	13.0	0.5
	대학원 재학 이상	(27)	47.6	19.8	29.6	2.9	0.0



## 11. 결혼한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인을 소개하며 가리키는 말(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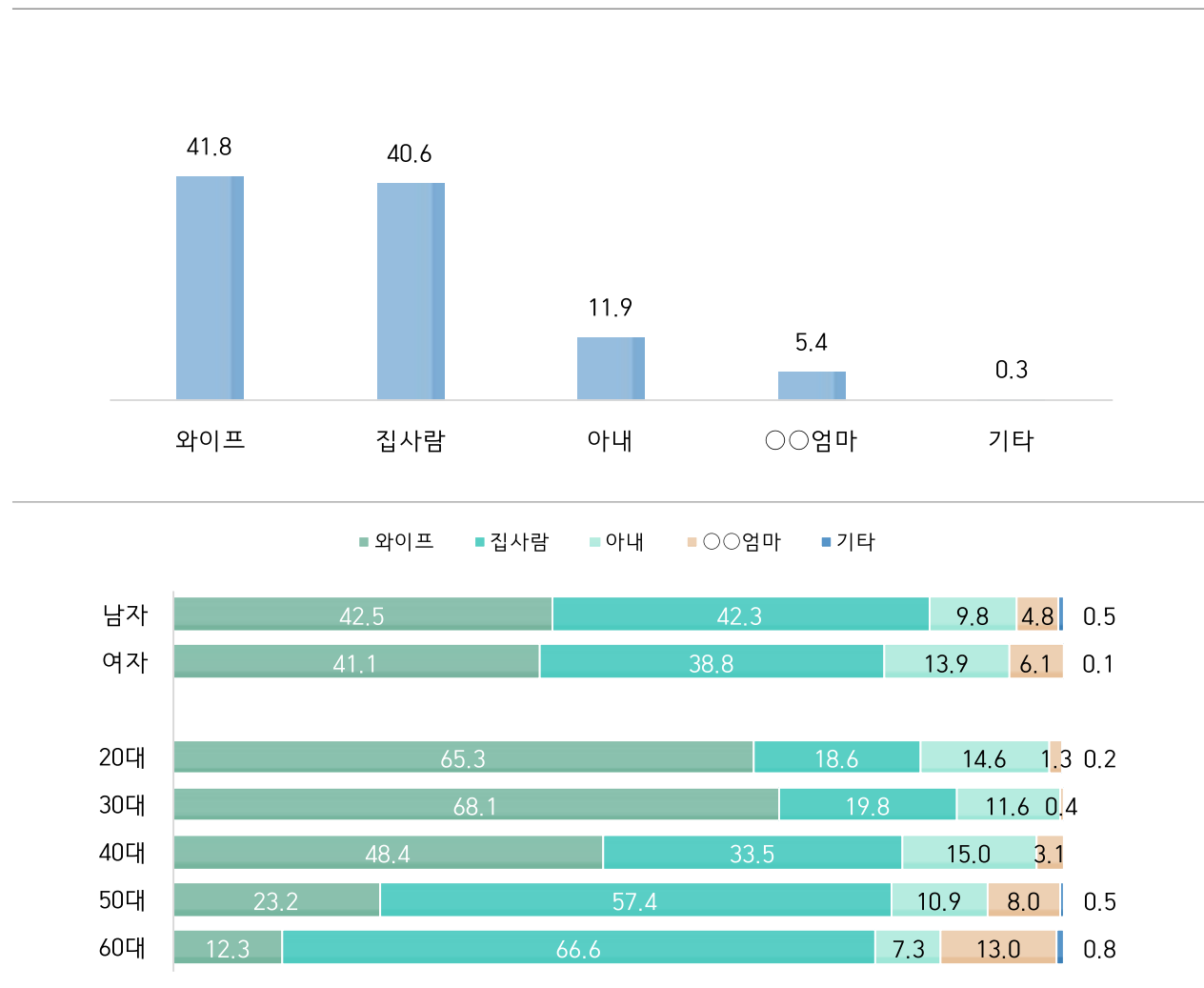
문11

결혼한 남자가 자신의 부인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자신의 부인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     ] 입니다.)

- ❖ 결혼한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인을 소개할 때 주로 '와이프'(41.8%)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집사람'(40.6%), '아내'(11.9%), '○○엄마'(5.4%)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마누라', '안사람' 등이 있음.

[ 그림 3-11 ] 결혼한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인을 소개하며 가리키는 말(지칭)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결혼한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인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와이프’를 선택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42.5%), 연령별로는 30대(68.1%),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44.7%), 가구원 수별로는 3인 가구(47.7%),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57.8%)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11 ] 결혼한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인을 소개하며 가리키는 말(지칭)

(단위 : %)

구 분		사 례 수	와이프	집사람	아내	○○엄마	기타
전 체		(2,000)	41.8	40.6	11.9	5.4	0.3
성별	남성	(1,016)	42.5	42.3	9.8	4.8	0.5
	여성	(984)	41.1	38.8	13.9	6.1	0.1
연령	20대	(352)	65.3	18.6	14.6	1.3	0.2
	30대	(353)	68.1	19.8	11.6	0.4	0.0
	40대	(435)	48.4	33.5	15.0	3.1	0.0
	50대	(463)	23.2	57.4	10.9	8.0	0.5
	60대	(397)	12.3	66.6	7.3	13.0	0.8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44.7	37.3	13.6	4.2	0.2
	강원권	(58)	30.0	54.1	3.5	12.4	0.0
	충청권	(212)	43.7	40.7	9.7	6.0	0.0
	전라권	(182)	34.2	54.6	2.8	8.4	0.0
	경상권	(488)	39.4	41.6	13.4	4.8	0.8
	제주	(26)	38.6	20.1	13.6	24.9	2.8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46.9	34.5	11.6	6.4	0.6
	2인 가구	(454)	26.7	54.3	8.6	9.8	0.5
	3인 가구	(659)	47.7	36.9	11.5	3.9	0.0
	4인 가구	(674)	45.2	37.2	14.0	3.3	0.4
	5인 가구 이상	(69)	42.3	31.1	16.3	9.5	0.8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15.0	43.1	0.0	42.0	0.0
	중학교 졸업	(47)	5.1	64.8	7.8	20.9	1.5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26.4	55.2	10.3	7.8	0.3
	대학교 졸업(재학)	(1,144)	53.6	30.0	13.3	2.8	0.2
	대학원 재학 이상	(27)	57.8	26.2	8.0	6.0	2.1



## 12. 자녀를 둔 며느리가 시부모나 친정 부모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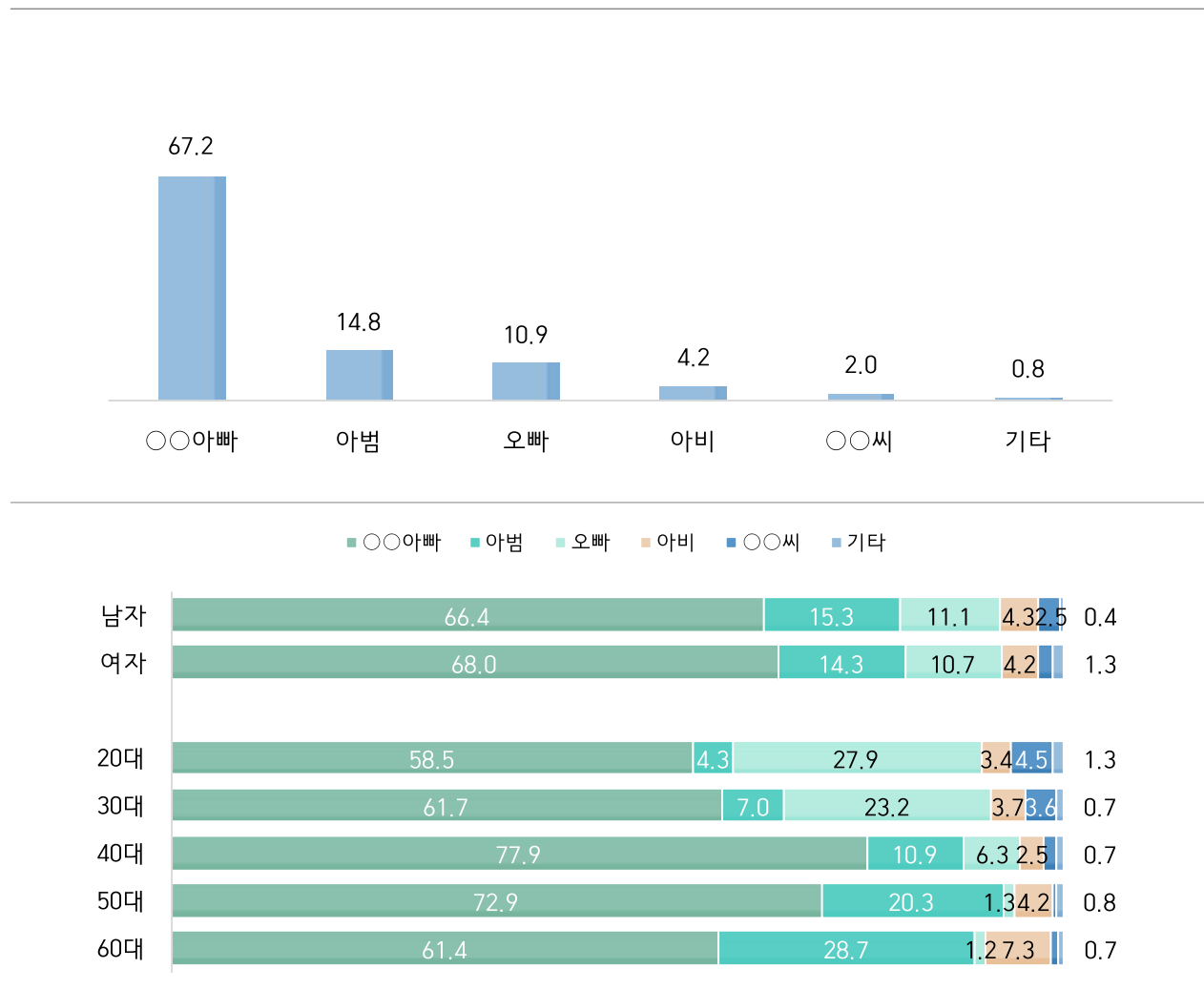
문12

아이가 있는(자녀를 둔) 며느리가 시부모나 친정 부모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가리켜 말할 때는 누구라고 합니까?

- ❖ 자녀를 둔 며느리가 시부모나 친정 부모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주로 ‘○○아빠’(67.2%)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아범’(14.8%), ‘오빠’(10.9%), ‘아비’(4.2%), ‘○○씨’(2.0%)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남편’, ‘여보’, ‘애아빠’ 등이 있음.

[ 그림 3-12 ] 자녀를 둔 며느리가 시부모나 친정 부모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지칭)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자녀를 둔 며느리가 시부모나 친정 부모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부르는 방법으로 ‘○○아빠’를 선택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68.0%), 연령별로는 40대(77.9%), 거주 지역별로는 충청권(74.3%),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74.4%), 최종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74.2%)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12 ] 자녀를 둔 며느리가 시부모나 친정 부모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지칭)

(단위 : %)

구 분		사 례 수	○○아빠	아범	오빠	아비	○○씨	기타
전 체		(2,000)	67.2	14.8	10.9	4.2	2.0	0.8
성별	남성	(1,016)	66.4	15.3	11.1	4.3	2.5	0.4
	여성	(984)	68.0	14.3	10.7	4.2	1.5	1.3
연령	20대	(352)	58.5	4.3	27.9	3.4	4.5	1.3
	30대	(353)	61.7	7.0	23.2	3.7	3.6	0.7
	40대	(435)	77.9	10.9	6.3	2.5	1.5	0.7
	50대	(463)	72.9	20.3	1.3	4.2	0.5	0.8
	60대	(397)	61.4	28.7	1.2	7.3	0.8	0.7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65.0	18.7	9.8	4.1	1.8	0.6
	강원권	(58)	61.6	19.3	13.6	0.0	0.0	5.5
	충청권	(212)	74.3	8.6	11.3	5.4	0.0	0.4
	전라권	(182)	71.9	8.8	9.4	4.3	5.5	0.0
	경상권	(488)	67.3	11.7	12.7	4.7	2.3	1.3
가구원 수	제주	(26)	71.6	0.0	24.7	0.0	3.0	0.7
	1인 가구	(144)	64.1	12.8	14.6	3.5	4.0	1.0
	2인 가구	(454)	62.6	22.8	6.0	6.1	1.3	1.3
	3인 가구	(659)	68.2	12.9	13.0	3.8	1.5	0.7
	4인 가구	(674)	69.2	11.4	12.2	4.0	2.4	0.7
최종 학력	5인 가구 이상	(69)	74.4	17.5	3.6	0.0	3.9	0.6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74.2	17.3	0.0	8.5	0.0	0.0
	중학교 졸업	(47)	65.5	26.8	0.0	7.6	0.0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65.0	23.0	4.3	6.2	0.6	1.0
	대학교 졸업(재학)	(1,144)	68.9	9.0	15.7	2.6	3.0	0.8
	대학원 재학 이상	(27)	56.5	5.4	23.8	8.9	5.5	0.0



### 13. 배변 행위를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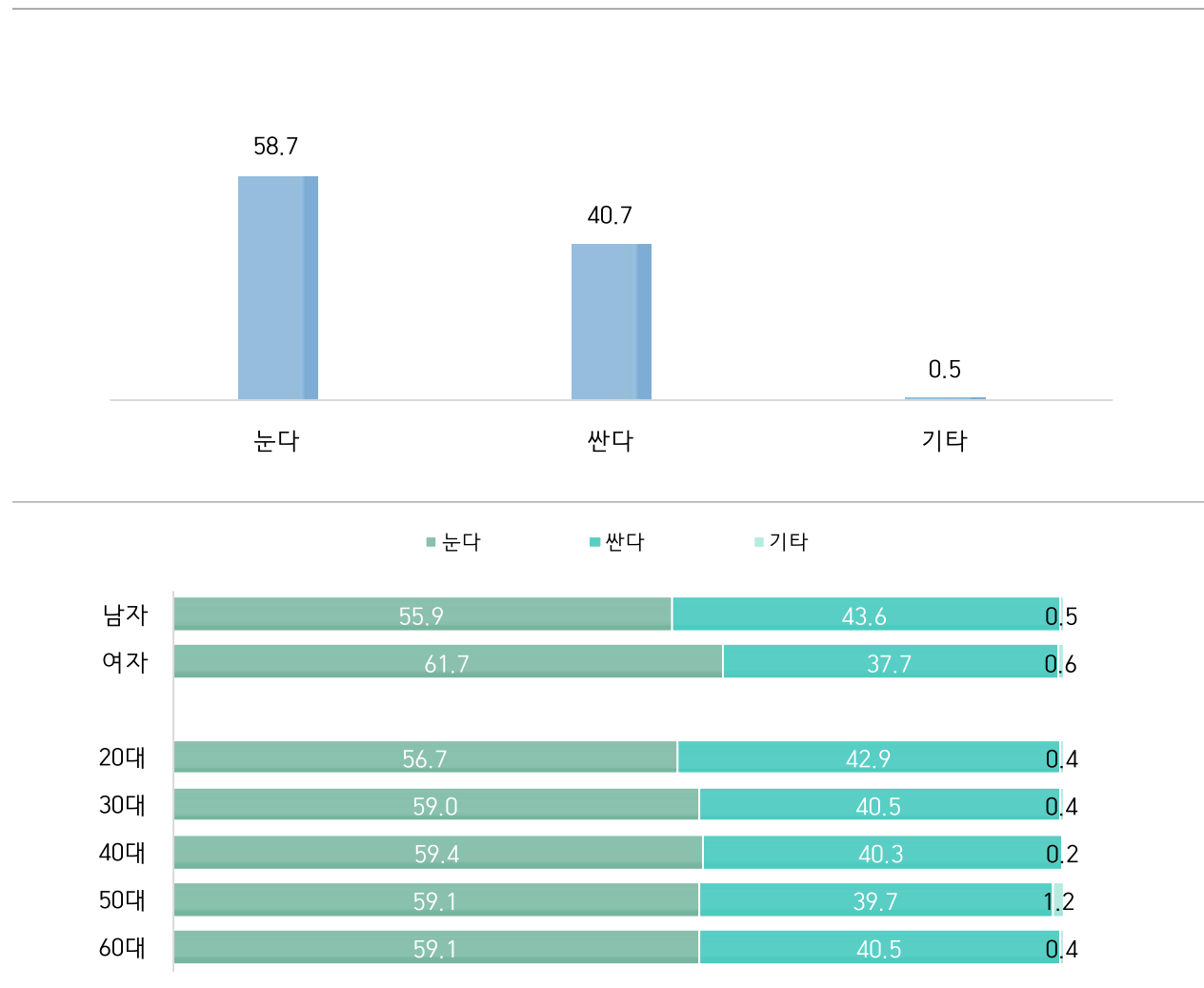
문13

화장실이나 변소에서 똥이나 오줌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 ❖ 화장실이나 변소에서 똥이나 오줌을 주로 ‘눈다’(58.7%)라고 표현하며, 다음으로 ‘싼다’(40.7%)가 뒤를 이음.
- ❖ 기타 응답으로는 ‘본다’, ‘화장실 간다’ 등이 있음.

[ 그림 3-13 ] 배변 행위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화장실이나 변소에서 똥이나 오줌을 ‘눈다’고 표현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61.7%), 연령별로는 40대(59.4%), 거주 지역별로는 경상권(73.7%), 가구원 수별로는 3인 가구(61.9%),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65.6%)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13 ] 배변 행위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 례 수	눈다	싼다	기타
전 체		(2,000)	58.7	40.7	0.5
성별	남성	(1,016)	55.9	43.6	0.5
	여성	(984)	61.7	37.7	0.6
연령	20대	(352)	56.7	42.9	0.4
	30대	(353)	59.0	40.5	0.4
	40대	(435)	59.4	40.3	0.2
	50대	(463)	59.1	39.7	1.2
	60대	(397)	59.1	40.5	0.4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54.7	44.7	0.6
	강원권	(58)	61.8	37.4	0.9
	충청권	(212)	55.3	44.3	0.4
	전라권	(182)	49.6	50.4	0.0
	경상권	(488)	73.7	25.8	0.6
	제주	(26)	24.3	74.7	1.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54.7	44.8	0.5
	2인 가구	(454)	60.0	39.5	0.5
	3인 가구	(659)	61.9	37.7	0.4
	4인 가구	(674)	56.5	42.7	0.8
	5인 가구 이상	(69)	50.1	49.9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50.2	49.8	0.0
	중학교 졸업	(47)	60.3	38.3	1.5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60.0	39.6	0.4
	대학교 졸업(재학)	(1,144)	57.7	41.7	0.6
	대학원 재학 이상	(27)	65.6	30.4	4.0





## 14. 장에 가서 쌀을 구입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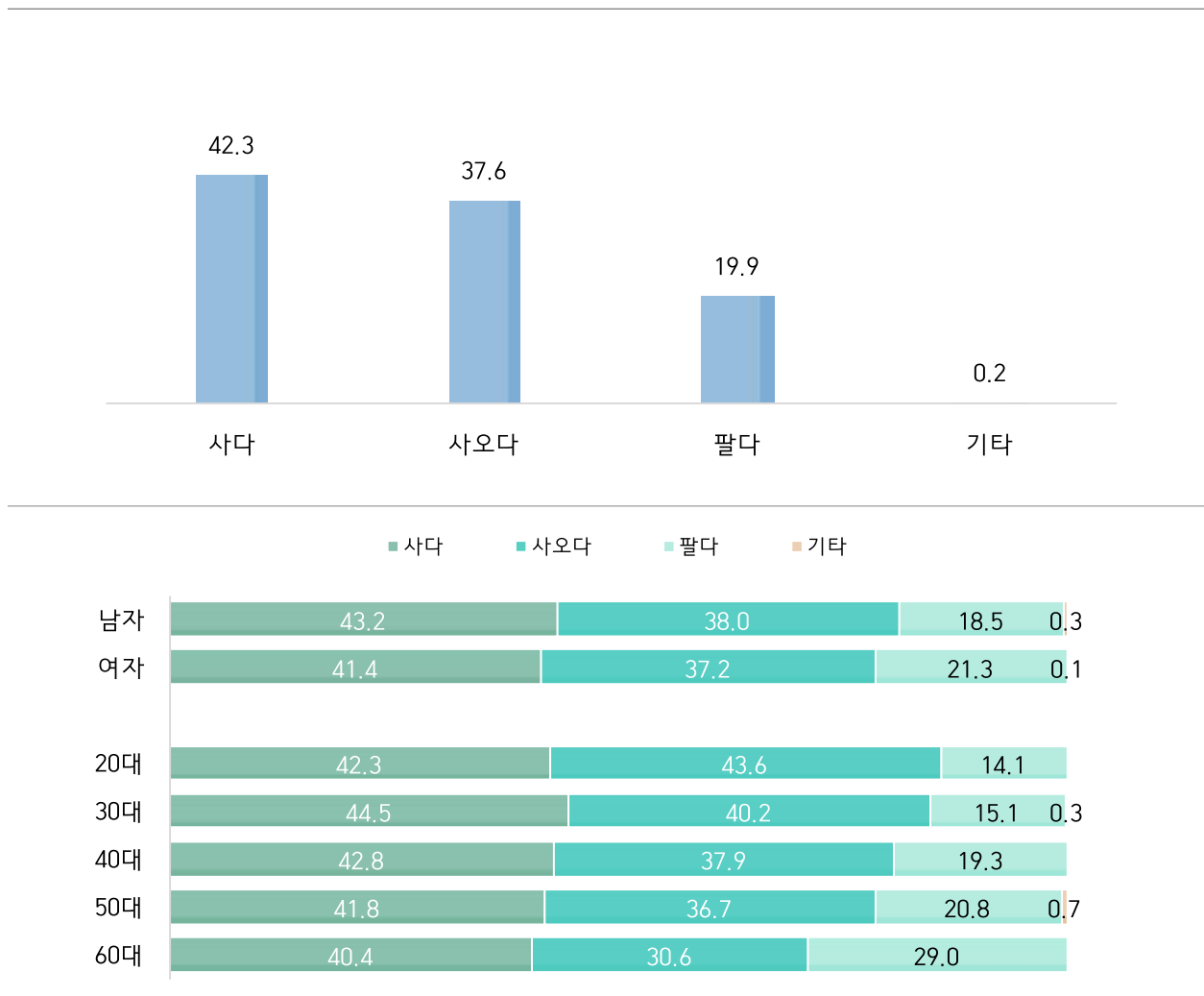
문14

쌀이 떨어지면 장에 가서 쌀을 어떻게 합니까?

- ❖ 쌀이 떨어지면 장에 가서 쌀을 주로 ‘사다’(42.3%)라고 표현하며, 다음으로 ‘사오다’(37.6%), ‘팔다’(19.9%)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꼬다’, ‘주문한다’가 있음.

[ 그림 3-14 ] 장에 가서 쌀을 구입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쌀이 떨어지면 장에 가서 쌀을 ‘사다’라고 표현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43.2%), 연령별로는 30대(44.5%),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권(53.2%), 가구원 수별로는 3인 가구(44.1%),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50.9%)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14 ] 장에 가서 쌀을 구입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사다	사오다	팔다	기타
전 체		(2,000)	42.3	37.6	19.9	0.2
성별	남성	(1,016)	43.2	38.0	18.5	0.3
	여성	(984)	41.4	37.2	21.3	0.1
연령	20대	(352)	42.3	43.6	14.1	0.0
	30대	(353)	44.5	40.2	15.1	0.3
	40대	(435)	42.8	37.9	19.3	0.0
	50대	(463)	41.8	36.7	20.8	0.7
	60대	(397)	40.4	30.6	29.0	0.0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43.7	41.4	14.7	0.2
	강원권	(58)	53.2	37.7	9.1	0.0
	충청권	(212)	41.6	40.1	17.9	0.4
	전라권	(182)	31.5	29.9	38.1	0.5
	경상권	(488)	42.5	30.3	27.2	0.0
	제주	(26)	39.6	58.2	2.2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42.0	42.3	15.7	0.0
	2인 가구	(454)	43.5	32.9	23.7	0.0
	3인 가구	(659)	44.1	37.7	18.1	0.1
	4인 가구	(674)	39.8	39.4	20.3	0.5
	5인 가구 이상	(69)	42.5	40.5	17.1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34.7	50.2	15.0	0.0
	중학교 졸업	(47)	32.3	26.1	41.7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39.9	34.6	25.4	0.1
	대학교 졸업(재학)	(1,144)	44.2	40.0	15.6	0.3
	대학원 재학 이상	(27)	50.9	39.9	9.3	0.0



## 15.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하며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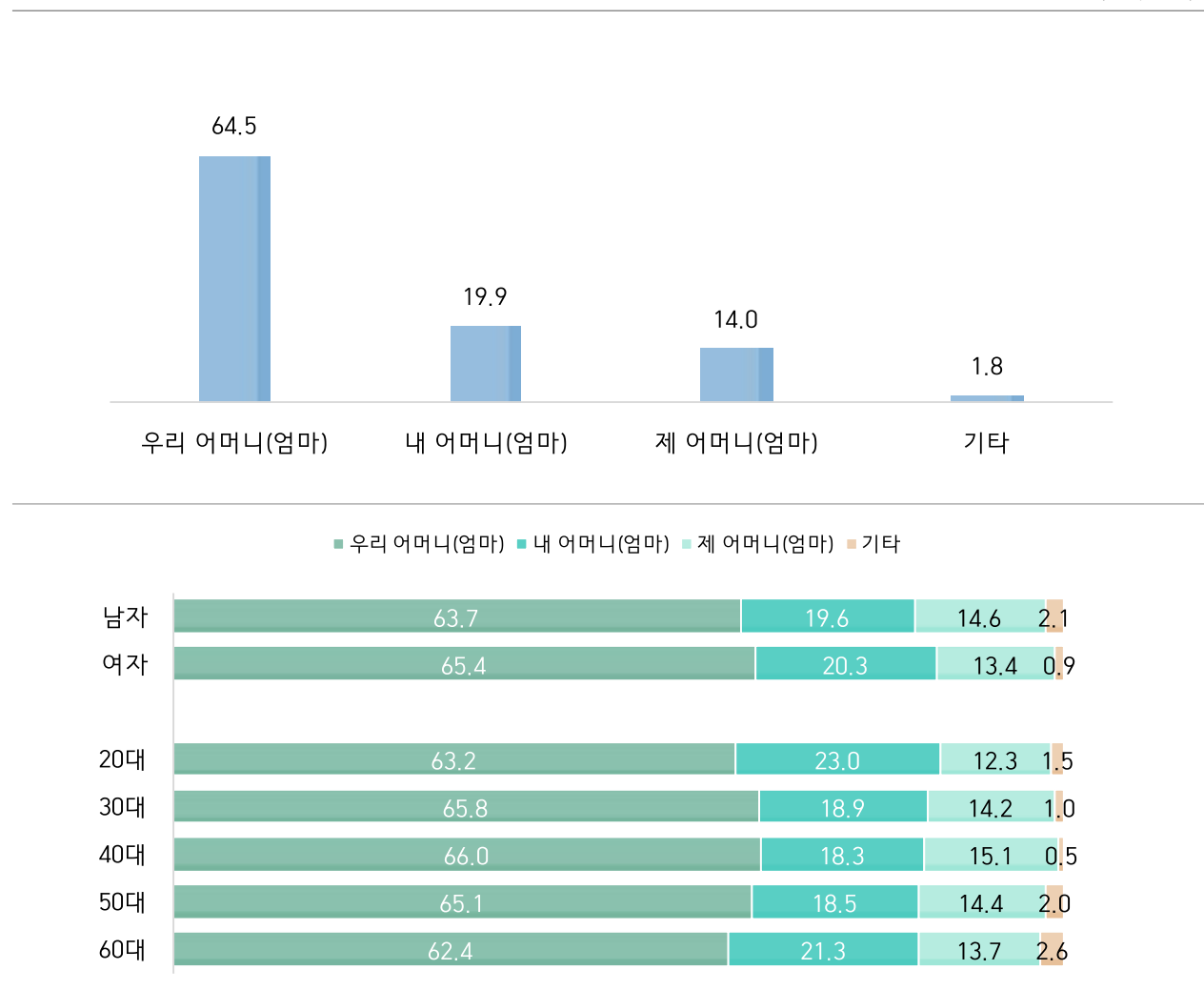
문15

나의 어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 ❖ 나의 어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주로 '우리 어머니(엄마)'(64.5%)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내 어머니(엄마)'(19.9%), '제 어머니(엄마)'(14.0%)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어머님', '저희 어머니(엄마)', '울엄마' 등이 있음.

[ 그림 3-15 ]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하며 가리키는 말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나의 어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우리 어머니(엄마)’를 선택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65.4%), 연령별로는 40대(66.0%),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78.3%),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69.0%),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69.4%)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15 ]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하며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우리 어머니(엄마)	내 어머니(엄마)	제 어머니(엄마)	기타
전 체		(2,000)	64.5	19.9	14.0	1.8
성별	남성	(1,016)	63.7	19.6	14.6	2.2
	여성	(984)	65.4	20.3	13.4	1.4
연령	20대	(352)	63.2	23.0	12.3	1.7
	30대	(353)	65.8	18.9	14.2	1.4
	40대	(435)	66.0	18.3	15.1	1.1
	50대	(463)	65.1	18.5	14.4	2.0
	60대	(397)	62.4	21.3	13.7	2.9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66.6	18.7	12.9	2.0
	강원권	(58)	60.9	17.8	20.4	0.9
	충청권	(212)	61.3	13.1	24.2	1.5
	전라권	(182)	63.6	25.6	10.8	0.0
	경상권	(488)	61.5	24.6	12.5	2.0
	제주	(26)	78.3	2.3	9.8	9.5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63.6	13.4	20.6	2.3
	2인 가구	(454)	60.8	23.2	14.9	1.1
	3인 가구	(659)	66.0	20.2	12.6	1.7
	4인 가구	(674)	65.3	20.2	12.6	2.1
	5인 가구 이상	(69)	69.0	5.8	21.3	3.8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65.1	0.0	34.9	0.0
	중학교 졸업	(47)	65.6	16.5	14.9	3.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65.2	19.0	13.4	2.7
	대학교 졸업(재학)	(1,144)	64.0	21.0	14.3	1.1
	대학원 재학 이상	(27)	69.4	15.8	9.5	5.2



## 16. 상대방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

문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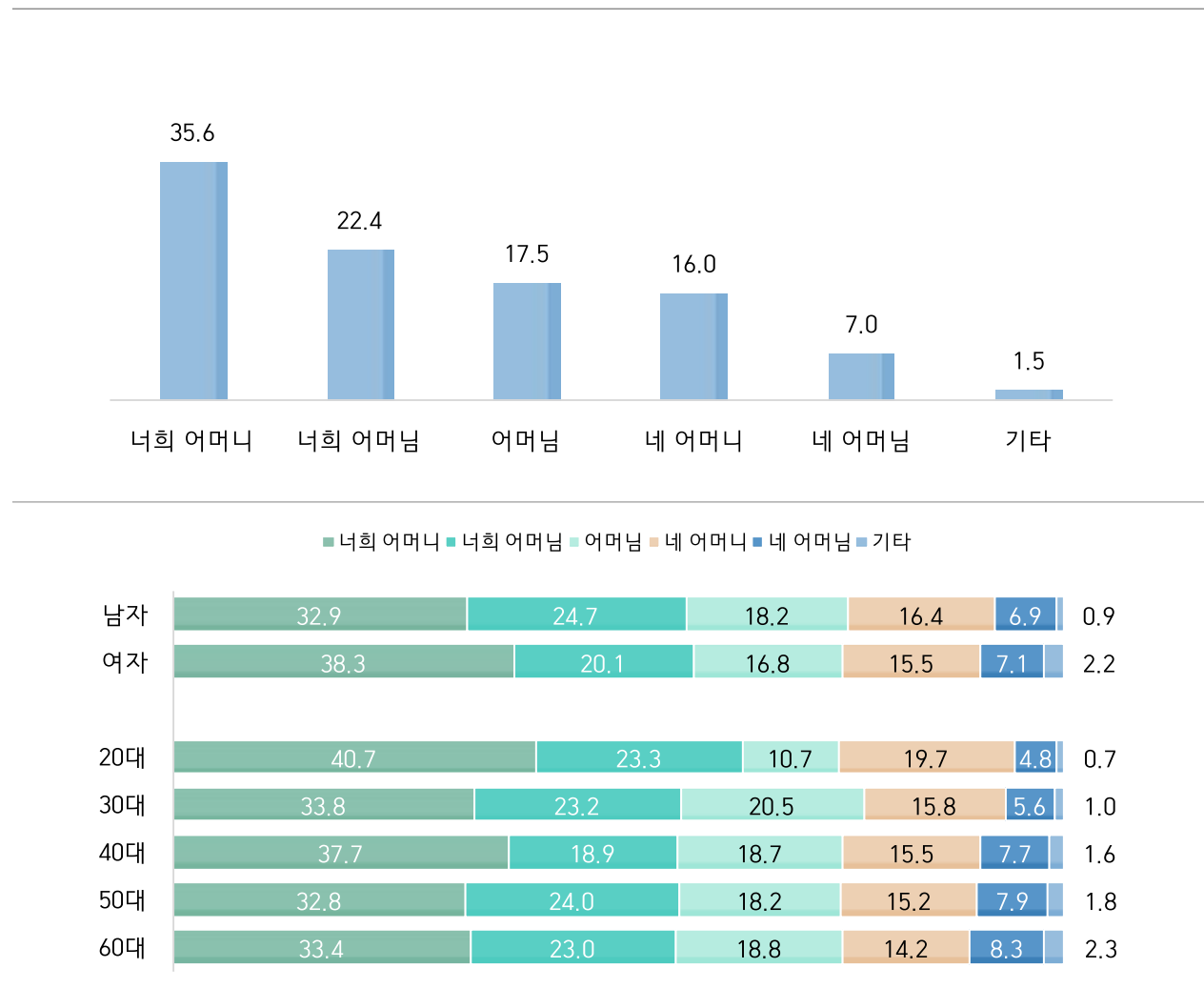
상대방의 어머니를 지칭할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충> 상대방의 어머니의 안부를 물어 볼 때, 「           건강은 괜찮으시지?」라고 합니까?

- ❖ 상대방의 어머니를 지칭할 때 주로 ‘너희 어머니’(35.6%)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너희 어머니님’(22.4%), ‘어머님’(17.5%), ‘네 어머니’(16.0%), ‘네 어머니님’(7.0%)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너희 엄마’, ‘너거 엄마’, ‘너네 어머니’ 등이 있음.

[ 그림 3-16 ] 상대방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상대방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방법으로 ‘너희 어머니’를 선택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38.3%), 연령별로는 20대(40.7%),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60.4%),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40.5%), 최종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52.7%)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16 ] 상대방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너희 어머니	너희 어머니님	어머님	네 어머니	네 어머니님	기타
전 체		(2,000)	35.6	22.4	17.5	16.0	7.0	1.5
성별	남성	(1,016)	32.9	24.7	18.2	16.4	6.9	0.9
	여성	(984)	38.3	20.1	16.8	15.5	7.1	2.2
연령	20대	(352)	40.7	23.3	10.7	19.7	4.8	0.7
	30대	(353)	33.8	23.2	20.5	15.8	5.6	1.0
	40대	(435)	37.7	18.9	18.7	15.5	7.7	1.6
	50대	(463)	32.8	24.0	18.2	15.2	7.9	1.8
	60대	(397)	33.4	23.0	18.8	14.2	8.3	2.3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28.4	23.4	25.0	16.1	6.6	0.6
	강원권	(58)	27.6	32.5	17.8	20.1	2.0	0.0
	충청권	(212)	37.6	27.0	17.9	10.6	6.4	0.4
	전라권	(182)	54.6	16.3	1.2	14.3	13.2	0.4
	경상권	(488)	42.4	20.2	7.7	18.8	6.7	4.1
	제주	(26)	60.4	11.2	12.8	4.9	0.8	1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40.5	22.4	22.9	8.1	3.6	2.6
	2인 가구	(454)	36.5	23.0	15.4	14.7	8.4	2.0
	3인 가구	(659)	31.0	24.9	18.5	17.8	6.8	1.0
	4인 가구	(674)	38.4	19.9	16.8	16.3	7.1	1.5
	5인 가구 이상	(69)	34.8	19.5	17.7	21.0	5.0	2.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52.7	17.3	6.2	15.3	8.5	0.0
	중학교 졸업	(47)	42.0	18.0	17.4	12.1	4.2	6.3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36.4	21.4	19.2	15.3	6.0	1.7
	대학교 졸업(재학)	(1,144)	34.6	23.3	16.7	16.4	7.7	1.3
	대학원 재학 이상	(27)	33.7	22.7	9.3	23.4	10.8	0.0



## 17. 익히지 않은 고기를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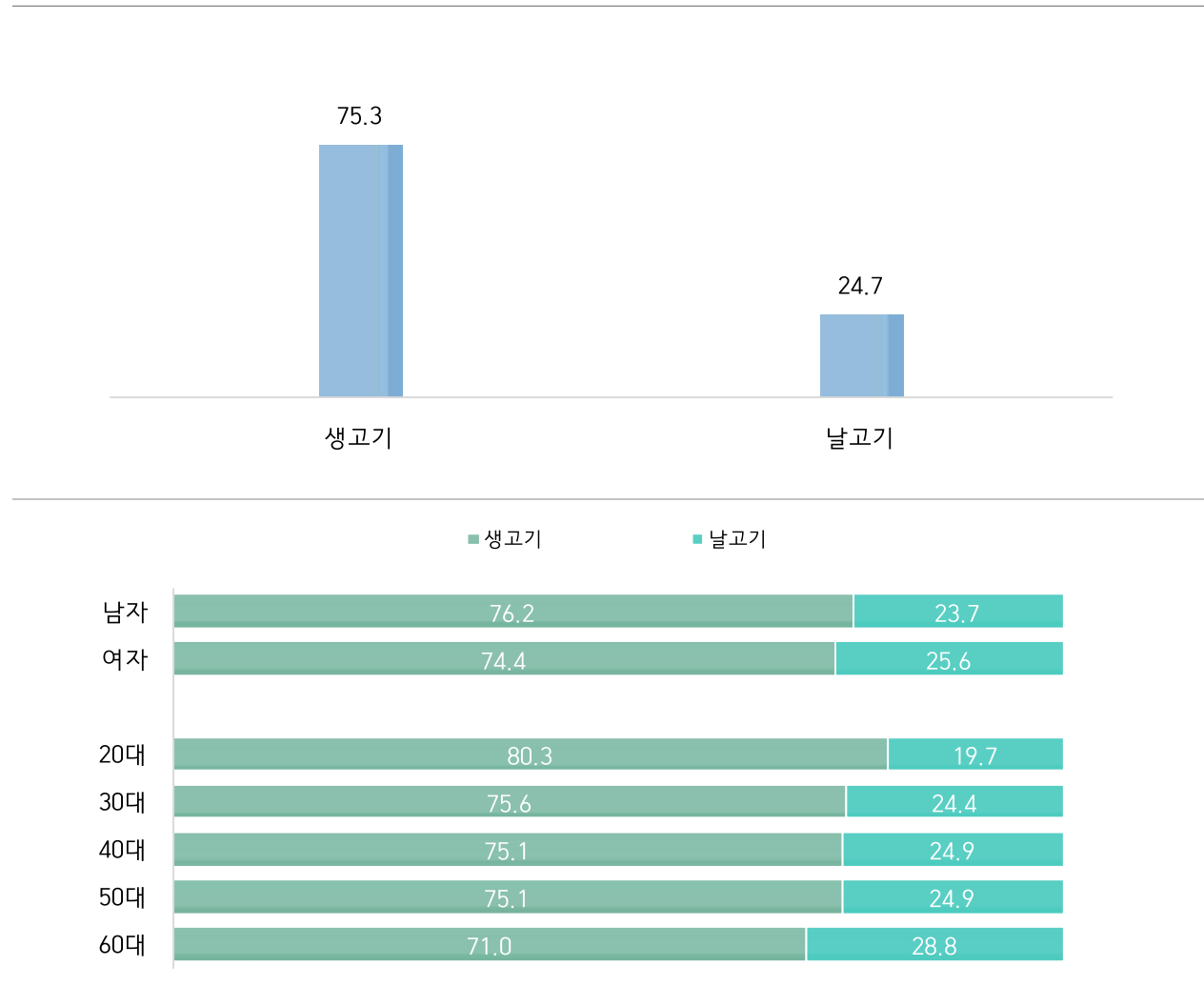
문17

익히지 않은 고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름철에는 [     ]를 잘 익혀 먹어야 한다.’

❖ 익히지 않은 고기를 주로 ‘생고기’(75.3%)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날고기’(24.7%) 순임.

[ 그림 3-17 ] 익히지 않은 고기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 전체 응답 기준, 0.1% 미만 응답 값 제외

## ■ 특성별 분석

- ❖ 익히지 않은 고기를 가리키는 말로 ‘생고기’를 선택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76.2%), 연령별로는 20대(80.3%),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84.4%),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86.4%),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재학)(75.6%)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17 ] 익히지 않은 고기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생고기	날고기
전 체		(2,000)	75.3	24.7
성별	남성	(1,016)	76.2	23.7
	여성	(984)	74.4	25.6
연령	20대	(352)	80.3	19.7
	30대	(353)	75.6	24.4
	40대	(435)	75.1	24.9
	50대	(463)	75.1	24.9
	60대	(397)	71.0	28.8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75.5	24.5
	강원권	(58)	79.7	20.3
	충청권	(212)	84.2	15.8
	전라권	(182)	67.6	32.4
	경상권	(488)	72.8	27.0
	제주	(26)	84.4	15.6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67.9	32.1
	2인 가구	(454)	73.2	26.6
	3인 가구	(659)	73.5	26.5
	4인 가구	(674)	79.0	21.0
	5인 가구 이상	(69)	86.4	13.6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60.4	39.6
	중학교 졸업	(47)	73.1	26.9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75.3	24.7
	대학교 졸업(재학)	(1,144)	75.6	24.3
	대학원 재학 이상	(27)	73.3	26.7





## 18. 눈 속에 있는 흰 부분을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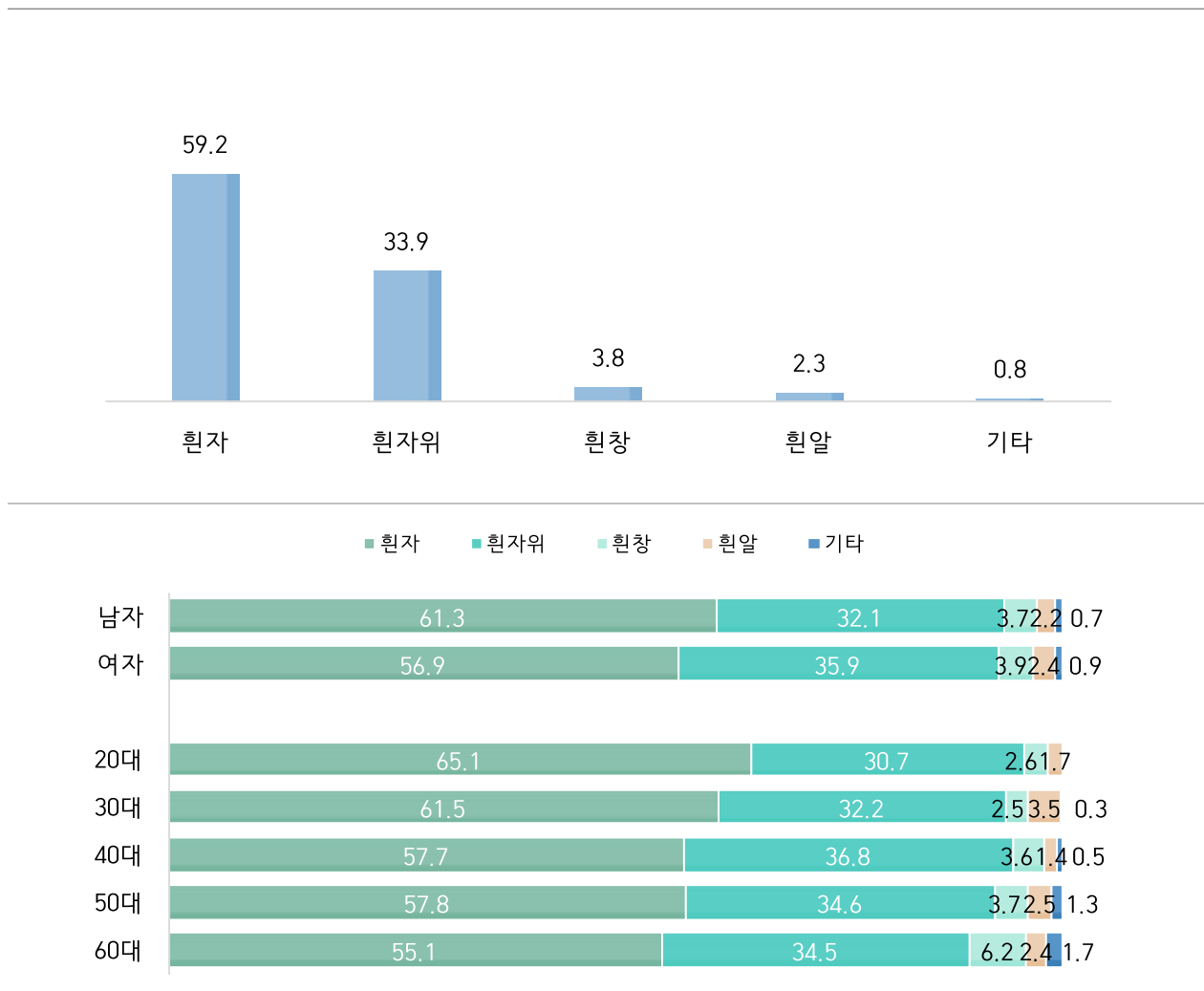
문18

눈 속에 있는 흰 부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 눈 속에 있는 흰 부분을 주로 ‘흰자’(59.2%)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흰자위’(33.9%), ‘흰창’(3.8%), ‘흰알’(2.3%)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흰챙이’, ‘흰눈동자’, ‘흰동자’ 등이 있음.

[ 그림 3-18 ] 눈 속에 있는 흰 부분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눈 속에 있는 흰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흰자’를 선택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61.3%), 연령별로는 20대(65.1%),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65.8%),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65.6%),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65.0%)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18 ] 눈 속에 있는 흰 부분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흰자	흰자위	흰창	흰알	기타
전 체		(2,000)	59.2	33.9	3.8	2.3	0.8
성별	남성	(1,016)	61.3	32.1	3.7	2.2	0.7
	여성	(984)	56.9	35.9	3.9	2.4	0.9
연령	20대	(352)	65.1	30.7	2.6	1.7	0.0
	30대	(353)	61.5	32.2	2.5	3.5	0.3
	40대	(435)	57.7	36.8	3.6	1.4	0.5
	50대	(463)	57.8	34.6	3.7	2.5	1.3
	60대	(397)	55.1	34.5	6.2	2.4	1.7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65.8	28.3	1.8	3.5	0.5
	강원권	(58)	29.6	69.7	0.0	0.7	0.0
	충청권	(212)	63.0	35.4	0.9	0.7	0.0
	전라권	(182)	62.0	25.6	12.1	0.3	0.0
	경상권	(488)	46.3	43.9	6.7	1.5	1.6
	제주	(26)	51.9	37.5	0.8	0.0	9.8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57.8	35.7	2.0	3.7	0.7
	2인 가구	(454)	55.6	34.6	5.4	2.4	1.9
	3인 가구	(659)	61.4	31.2	3.9	3.0	0.5
	4인 가구	(674)	59.0	36.2	3.1	1.3	0.4
	5인 가구 이상	(69)	65.6	30.9	1.6	1.1	0.8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62.2	37.8	0.0	0.0	0.0
	중학교 졸업	(47)	43.6	39.9	14.8	1.3	0.4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59.2	32.7	4.1	3.0	1.0
	대학교 졸업(재학)	(1,144)	59.6	34.6	3.2	2.0	0.6
	대학원 재학 이상	(27)	65.0	28.2	3.2	0.0	3.7



## 19. 귤구멍 속에 낀 누런 색깔의 때를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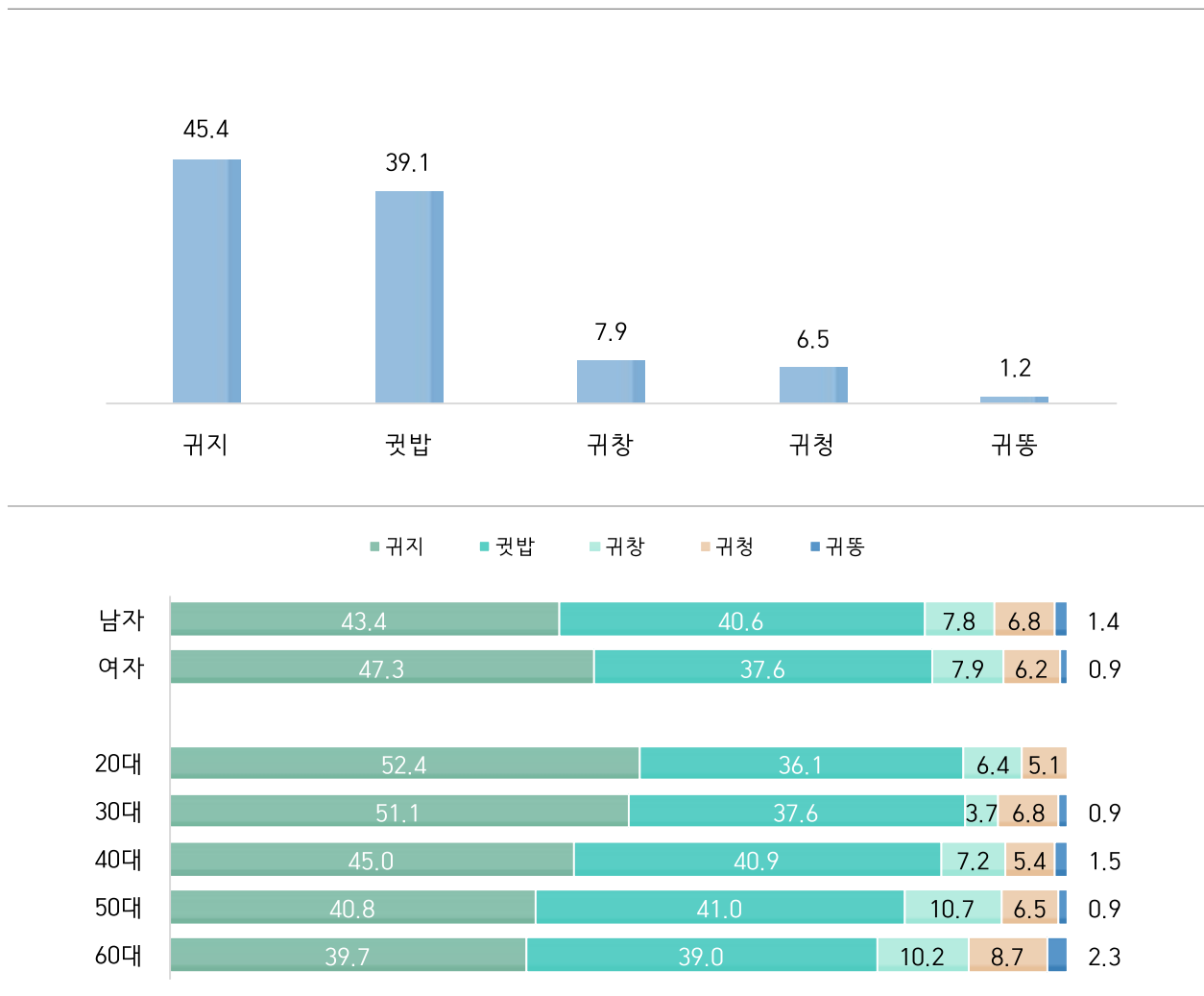
문19

귤구멍 속에 낀 누런 색깔의 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 ❖ 귤구멍 속에 낀 누런 색깔의 때를 주로 ‘귀지’(45.4%)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귤밥’(39.1%), ‘귀창’(7.9%), ‘귀청’(6.5%), ‘귀똥’(1.2%) 순임.

[ 그림 3-19 ] 귤구멍 속에 낀 누런 색깔의 때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컷구멍 속에 낀 누런 색깔의 때를 가리키는 말로 ‘귀지’를 선택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47.3%), 연령별로는 20대(52.4%),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63.7%),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52.6%),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재학)(50.1%)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19 ] 컷구멍 속에 낀 누런 색깔의 때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귀지	컷밥	귀창	귀청	귀똥
전 체		(2,000)	45.4	39.1	7.9	6.5	1.2
성별	남성	(1,016)	43.4	40.6	7.8	6.8	1.4
	여성	(984)	47.3	37.6	7.9	6.2	0.9
연령	20대	(352)	52.4	36.1	6.4	5.1	0.0
	30대	(353)	51.1	37.6	3.7	6.8	0.9
	40대	(435)	45.0	40.9	7.2	5.4	1.5
	50대	(463)	40.8	41.0	10.7	6.5	0.9
	60대	(397)	39.7	39.0	10.2	8.7	2.3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56.1	38.6	2.4	2.2	0.7
	강원권	(58)	35.6	24.6	0.8	39.0	0.0
	충청권	(212)	36.2	58.4	1.7	1.8	1.8
	전라권	(182)	37.9	56.1	2.0	2.9	1.0
	경상권	(488)	29.5	27.5	25.4	15.4	2.2
	제주	(26)	63.7	36.3	0.0	0.0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41.4	42.9	7.9	7.0	0.9
	2인 가구	(454)	41.8	39.6	8.2	8.3	2.1
	3인 가구	(659)	46.4	39.9	6.9	5.2	1.5
	4인 가구	(674)	46.9	38.3	8.7	5.8	0.4
	5인 가구 이상	(69)	52.6	28.9	5.6	12.9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15.7	55.6	28.6	0.0	0.0
	중학교 졸업	(47)	24.8	42.9	16.2	13.5	2.7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39.9	42.4	9.5	6.9	1.4
	대학교 졸업(재학)	(1,144)	50.1	36.7	6.3	5.9	1.0
	대학원 재학 이상	(27)	47.2	37.3	6.4	9.1	0.0



## 20. 한쪽 다리를 오그리고 다른 쪽 다리를 그 위에 포개어 앉는 자세를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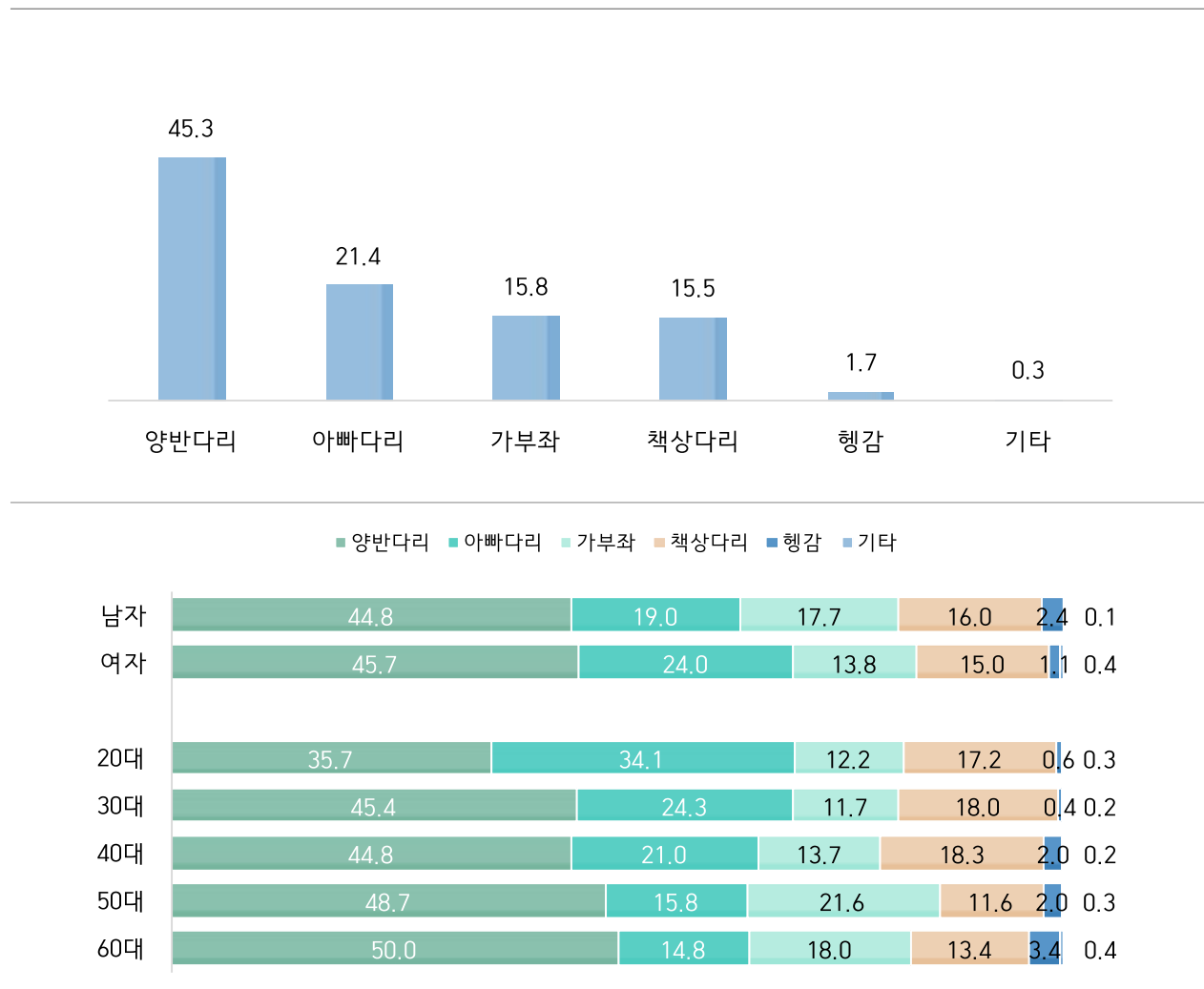
문20

한쪽 다리를 오그리고 다른 쪽 다리를 그 위에 포개어 엮고 앉은 자세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 ❖ 한쪽 다리를 오그리고 다른 쪽 다리를 그 위에 포개어 앉는 자세를 주로 ‘양반다리’(45.3%)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아빠다리’(21.4%), ‘가부좌’(15.8%), ‘책상다리’(15.5%), ‘행감’(1.7%)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양반자세’가 있음.

[ 그림 3-20 ] 한쪽 다리를 오그리고 다른 한쪽 다리를 그 위에 포개어 앉는 자세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한쪽 다리를 오그리고 다른 쪽 다리를 그 위에 포개어 앉는 자세를 가리키는 말로 ‘양반다리’를 선택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45.7%), 연령별로는 60대(50.0%),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57.4%),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52.7%), 최종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86.7%)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20 ] 한쪽 다리를 오그리고 다른 한쪽 다리를 그 위에 포개어 앉는 자세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양반다리	아빠다리	가부좌	책상다리	행감	기타
전 체		(2,000)	45.3	21.4	15.8	15.5	1.7	0.3
성별	남성	(1,016)	44.8	19.0	17.7	16.0	2.4	0.1
	여성	(984)	45.7	24.0	13.8	15.0	1.1	0.4
연령	20대	(352)	35.7	34.1	12.2	17.2	0.6	0.3
	30대	(353)	45.4	24.3	11.7	18.0	0.4	0.2
	40대	(435)	44.8	21.0	13.7	18.3	2.0	0.2
	50대	(463)	48.7	15.8	21.6	11.6	2.0	0.3
	60대	(397)	50.0	14.8	18.0	13.4	3.4	0.4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41.0	22.6	13.0	21.7	1.6	0.1
	강원권	(58)	43.6	24.3	23.7	8.4	0.0	0.0
	충청권	(212)	52.0	25.5	12.2	10.3	0.0	0.0
	전라권	(182)	38.0	27.2	21.9	2.9	10.0	0.0
	경상권	(488)	53.7	14.7	20.1	10.6	0.0	0.9
	제주	(26)	57.4	20.4	14.1	7.1	0.0	1.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52.7	17.8	13.2	15.9	0.3	0.2
	2인 가구	(454)	48.2	16.5	16.3	15.0	3.4	0.5
	3인 가구	(659)	43.9	23.9	14.4	16.7	1.0	0.1
	4인 가구	(674)	43.3	23.5	18.3	13.1	1.7	0.2
	5인 가구 이상	(69)	43.0	17.9	7.0	30.2	1.2	0.8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86.7	7.1	6.2	0.0	0.0	0.0
	중학교 졸업	(47)	45.7	10.8	18.5	19.4	3.1	2.5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51.3	17.4	15.8	13.4	2.0	0.2
	대학교 졸업(재학)	(1,144)	40.8	25.0	15.7	16.7	1.6	0.2
	대학원 재학 이상	(27)	44.0	9.5	16.7	26.4	0.0	3.3



## 21. 이랬다저랬다 하거나 아무 일이나 끼어들어 실없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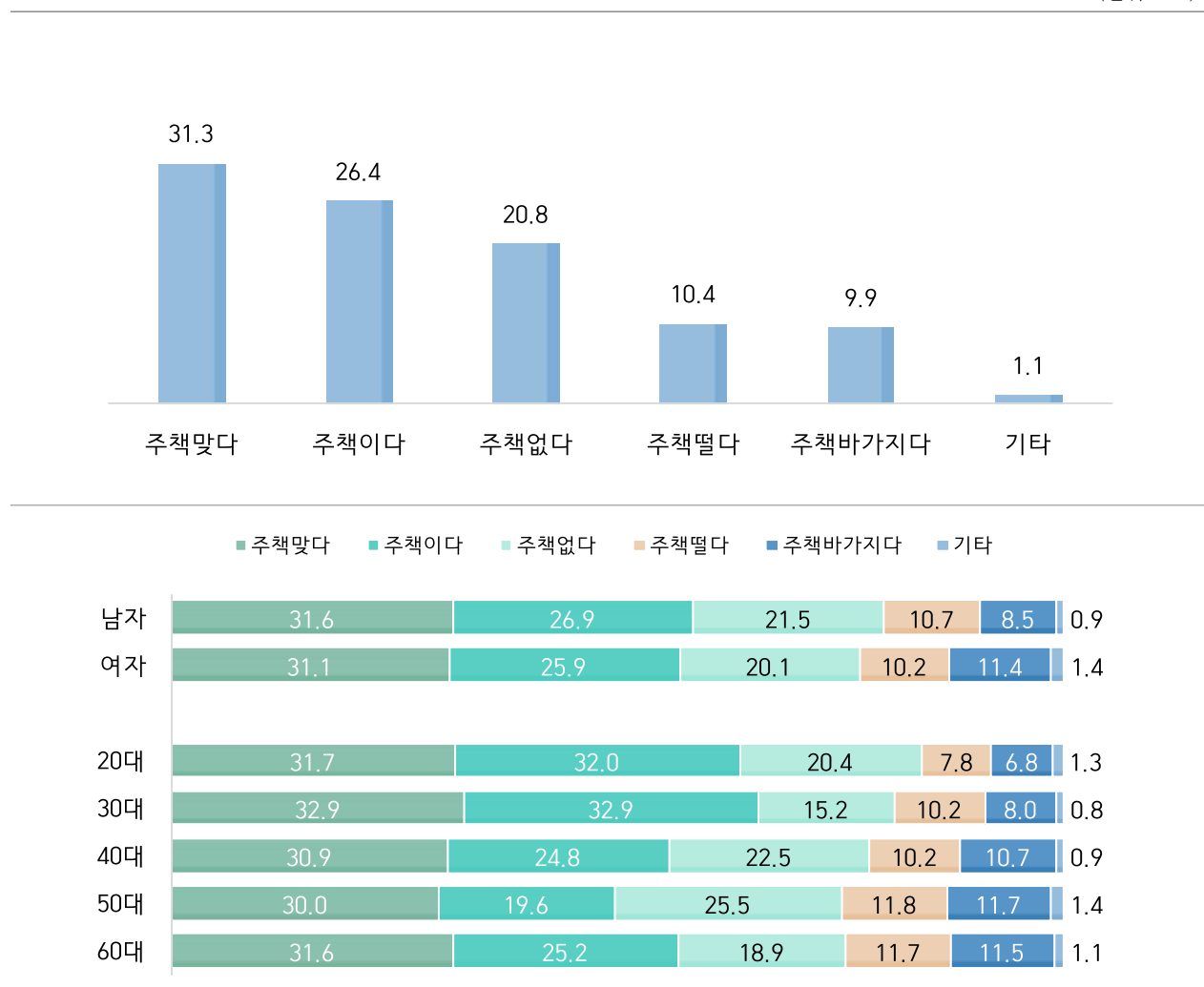
문21

일정한 쯤대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거나 아무 일이나 끼어들어 실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 ❖ 일정한 쯤대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거나 아무 일이나 끼어들어 실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로 ‘주책맞다’(31.3%)고 표현하며, 다음으로 ‘주책이다’(26.4%), ‘주책없다’(20.8%), ‘주책떨다’(10.4%), ‘주책바가지다’(9.9%)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쯤대없다’, ‘오지랖넓다’, ‘주접편다’ 등이 있음.

[ 그림 3-21 ] 이랬다저랬다 하거나 아무 일이나 끼어들어 실없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일정한 잣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거나 아무 일이나 끼어들어 실없는 행동을 ‘주책맞다’고 표현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31.6%), 연령별로는 30대(32.9%), 거주 지역별로는 전라권(39.1%), 가구원 수별로는 3인 가구(33.4%),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40.3%)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21 ] 이랬다저랬다 하거나 아무 일이나 끼어들어 실없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주책맞다	주책이다	주책없다	주책떨다	주책 바가지다	기타
전 체		(2,000)	31.3	26.4	20.8	10.4	9.9	1.1
성별	남성	(1,016)	31.6	26.9	21.5	10.7	8.5	0.9
	여성	(984)	31.1	25.9	20.1	10.2	11.4	1.4
연령	20대	(352)	31.7	32.0	20.4	7.8	6.8	1.3
	30대	(353)	32.9	32.9	15.2	10.2	8.0	0.8
	40대	(435)	30.9	24.8	22.5	10.2	10.7	0.9
	50대	(463)	30.0	19.6	25.5	11.8	11.7	1.4
	60대	(397)	31.6	25.2	18.9	11.7	11.5	1.1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32.3	30.0	18.8	10.8	7.6	0.5
	강원권	(58)	28.1	14.1	6.8	15.7	35.3	0.0
	충청권	(212)	25.1	24.5	25.4	10.5	14.5	0.0
	전라권	(182)	39.1	16.3	29.5	9.2	5.9	0.0
	경상권	(488)	29.8	23.9	22.0	9.5	11.3	3.4
가구원 수	제주	(26)	25.4	43.1	10.8	10.1	8.7	1.9
	1인 가구	(144)	31.7	31.0	15.6	7.8	12.9	1.1
	2인 가구	(454)	30.3	23.8	23.7	10.7	10.0	1.5
	3인 가구	(659)	33.4	25.6	19.9	10.4	10.3	0.5
	4인 가구	(674)	30.3	27.0	21.5	11.1	8.7	1.4
최종 학력	5인 가구 이상	(69)	28.7	34.7	15.8	7.5	11.0	2.4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17.3	39.3	14.0	7.9	21.5	0.0
	중학교 졸업	(47)	27.0	22.3	22.4	13.8	11.6	2.9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28.5	25.3	22.6	12.0	10.3	1.3
	대학교 졸업(재학)	(1,144)	33.3	27.4	19.7	9.2	9.6	0.9
최종 학력	대학원 재학 이상	(27)	40.3	15.2	19.0	16.2	5.9	3.3





## 22. 음식을 잘못 삼키어 갑자기 재채기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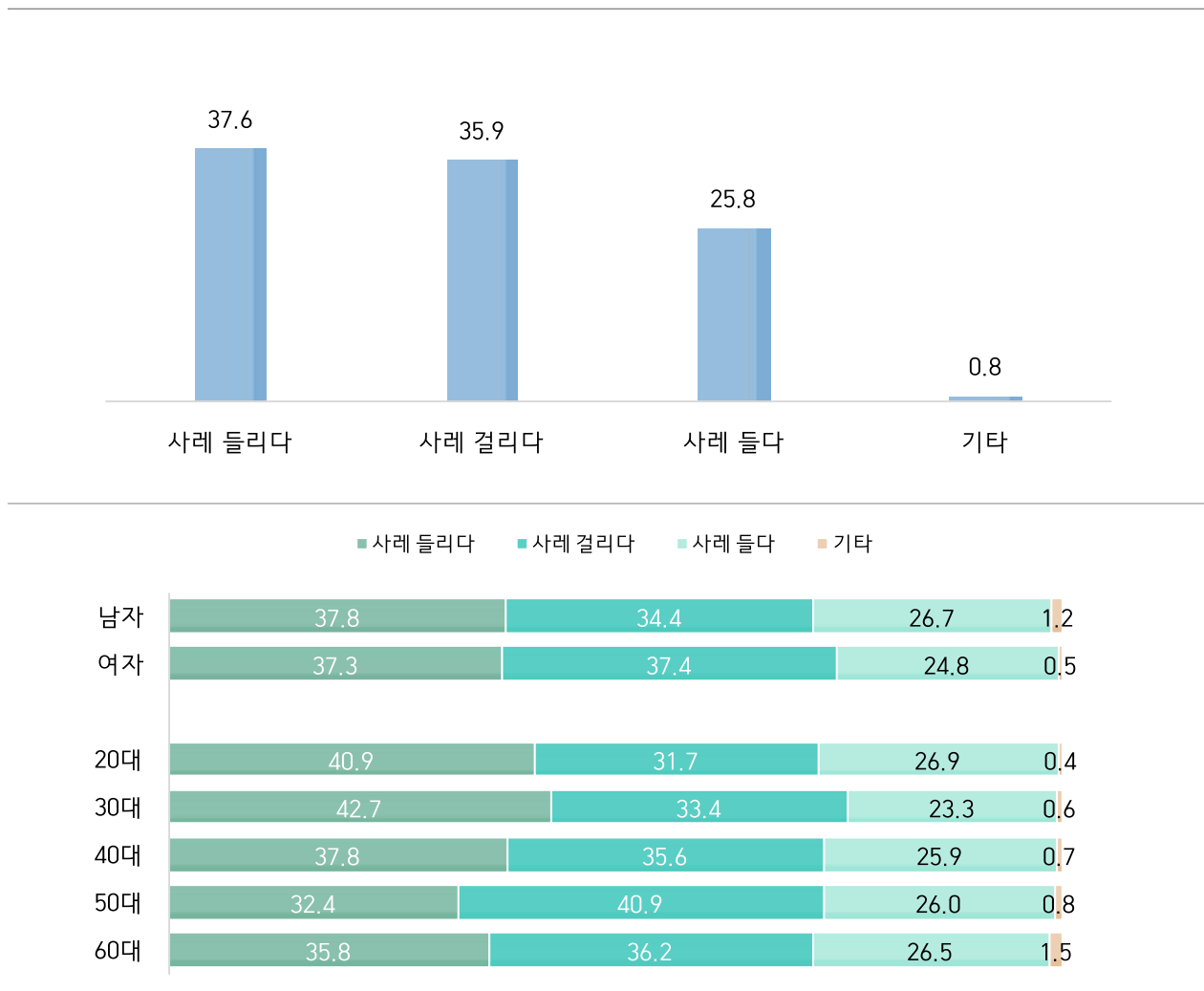
문22

음식을 잘못 삼키어 숨구멍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갑자기 재채기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 ❖ 음식을 잘못 삼키어 숨구멍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갑자기 재채기하는 것을 주로 ‘사레 들리다’(37.6%)라고 표현하며, 다음으로 ‘사레 걸리다’(35.9%), ‘사레 들다’(25.8%)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사레 만나다’, ‘싸래기’, ‘새알들었다’ 등이 있음.

[ 그림 3-22 ] 음식을 잘못 삼키어 갑자기 재채기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음식을 잘못 삼키어 숨구멍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갑자기 재채기를 하는 것을 ‘사례 들리다’라고 표현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37.8%), 연령별로는 30대(42.7%), 거주 지역별로는 경상권(49.9%),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43.7%),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재학)(39.8%)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22 ] 음식을 잘못 삼키어 갑자기 재채기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사례 들리다	사례 걸리다	사례 들다	기타
전 체		(2,000)	37.6	35.9	25.8	0.8
성별	남성	(1,016)	37.8	34.4	26.7	1.2
	여성	(984)	37.3	37.4	24.8	0.5
연령	20대	(352)	40.9	31.7	26.9	0.4
	30대	(353)	42.7	33.4	23.3	0.6
	40대	(435)	37.8	35.6	25.9	0.7
	50대	(463)	32.4	40.9	26.0	0.8
	60대	(397)	35.8	36.2	26.5	1.5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33.6	37.6	28.3	0.4
	강원권	(58)	20.4	45.8	30.0	3.9
	충청권	(212)	38.1	38.1	23.8	0.0
	전라권	(182)	34.5	33.7	31.9	0.0
	경상권	(488)	49.9	29.5	18.6	2.0
	제주	(26)	17.8	59.1	21.8	1.3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43.7	27.1	27.7	1.6
	2인 가구	(454)	32.0	39.9	26.9	1.1
	3인 가구	(659)	39.5	37.0	23.1	0.4
	4인 가구	(674)	38.8	34.2	26.3	0.7
	5인 가구 이상	(69)	30.9	32.6	34.1	2.5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27.0	53.8	19.1	0.0
	중학교 졸업	(47)	34.5	37.7	26.3	1.5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35.0	37.0	27.3	0.7
	대학교 졸업(재학)	(1,144)	39.8	34.6	24.7	0.9
	대학원 재학 이상	(27)	23.2	47.3	29.5	0.0



## 23. 하품할 때 두 팔을 쪽 펴면서 몸을 뒤로 젖히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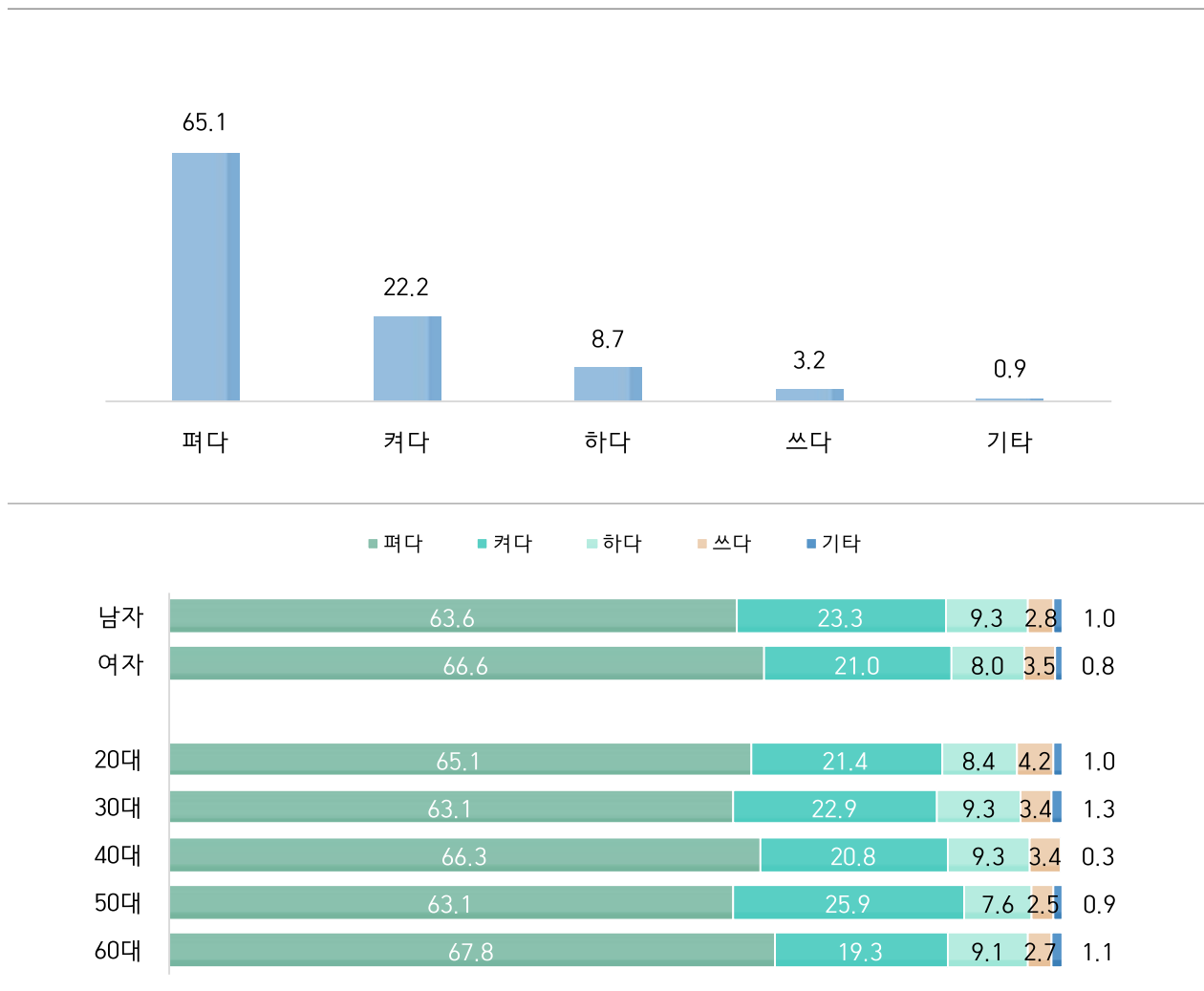
문23

하품할 때 두 팔을 쪽 펴면서 몸을 뒤로 젖히면서 기지개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 ❖ 하품할 때 두 팔을 쪽 펴면서 몸을 뒤로 젖히는 행동을 주로 기지개를 ‘펴다’(65.1%)라고 표현하며, 다음으로 ‘켜다’(22.2%), ‘하다’(8.7%), ‘쓰다’(3.2%)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편다’, ‘킨다’, ‘편다’ 등이 있음.

[ 그림 3-23 ] 하품할 때 두 팔을 쪽 펴면서 몸을 뒤로 젖히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하품할 때 두 팔을 쭉 펴면서 몸을 뒤로 젖히는 행동을 기지개를 ‘펴다’라고 표현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66.6%), 연령별로는 60대(67.8%),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74.0%),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69.9%), 최종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88.4%)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23 ] 하품할 때 두 팔을 쭉 펴면서 몸을 뒤로 젖히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펴다	켜다	하다	쓰다	기타
전 체		(2,000)	65.1	22.2	8.7	3.2	0.9
성별	남성	(1,016)	63.6	23.3	9.3	2.8	1.0
	여성	(984)	66.6	21.0	8.0	3.5	0.8
연령	20대	(352)	65.1	21.4	8.4	4.2	1.0
	30대	(353)	63.1	22.9	9.3	3.4	1.3
	40대	(435)	66.3	20.8	9.3	3.4	0.3
	50대	(463)	63.1	25.9	7.6	2.5	0.9
	60대	(397)	67.8	19.3	9.1	2.7	1.1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66.4	24.7	7.2	1.6	0.1
	강원권	(58)	48.1	35.9	7.8	8.1	0.0
	충청권	(212)	54.9	29.4	9.7	6.0	0.0
	전라권	(182)	69.0	7.9	17.0	6.1	0.0
	경상권	(488)	66.8	17.3	8.7	3.8	3.4
	제주	(26)	74.0	21.3	1.9	0.0	2.7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61.4	19.7	14.7	3.1	1.1
	2인 가구	(454)	65.2	22.9	8.8	2.4	0.7
	3인 가구	(659)	66.2	22.2	7.1	3.4	1.1
	4인 가구	(674)	64.2	22.3	9.1	3.6	0.8
	5인 가구 이상	(69)	69.9	21.3	6.1	2.0	0.8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88.4	0.0	11.6	0.0	0.0
	중학교 졸업	(47)	67.5	16.6	7.5	4.4	3.9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68.3	18.1	10.2	2.8	0.7
	대학교 졸업(재학)	(1,144)	62.6	25.1	7.9	3.3	1.0
	대학원 재학 이상	(27)	65.1	28.6	0.0	6.3	0.0



## 24. 특별히 더 좋은 상태를 강조하여 꾸미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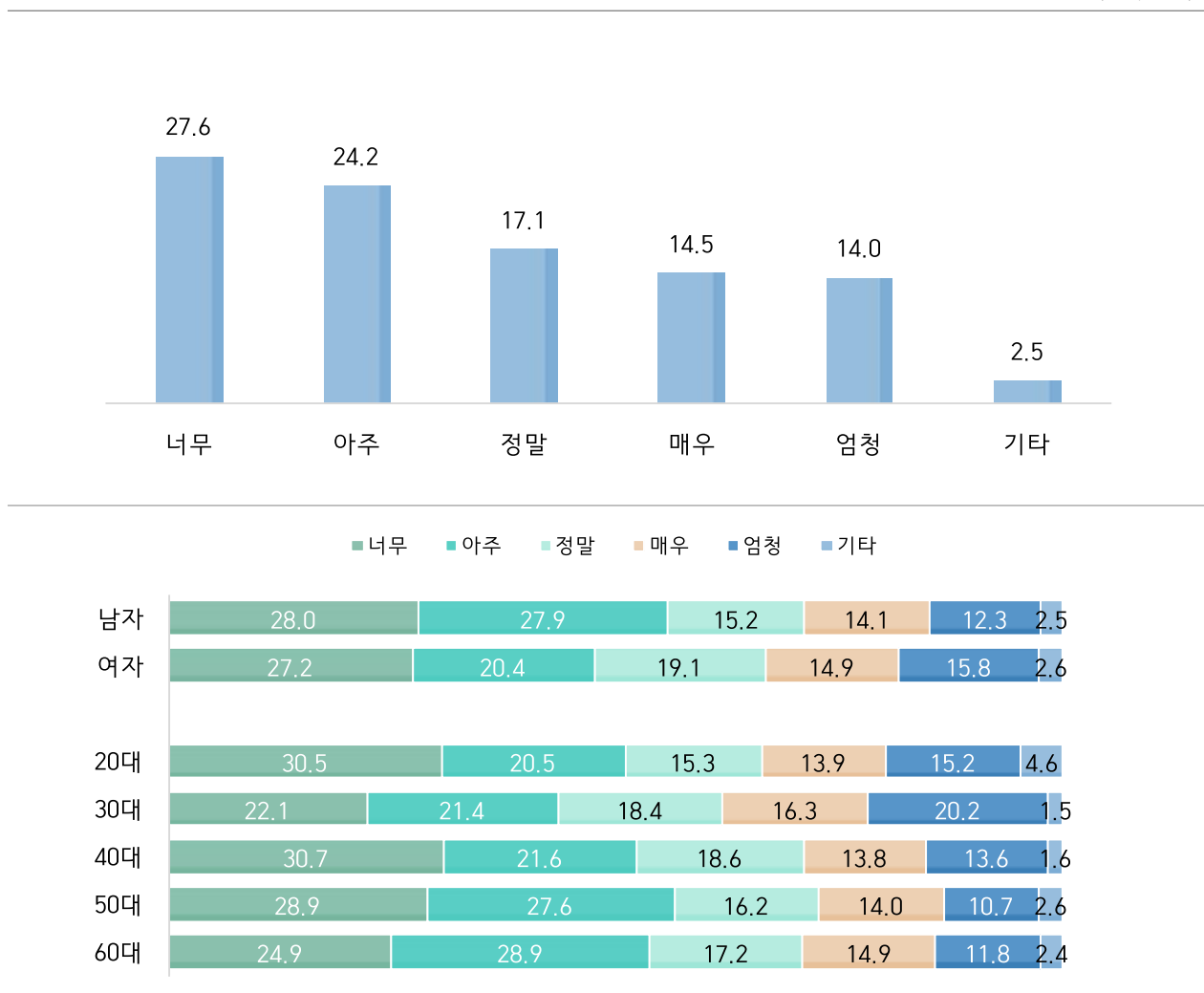
문24

오늘 기분이 다른 때에 비해 특별히 더 좋을 때, 어떻게 좋다고 말합니까?

- ❖ 오늘 기분이 다른 때에 비해 특별히 더 좋을 때 주로 '너무'(27.6%) 좋다고 표현하며, 다음으로 '아주'(24.2%), '정말'(17.1%), '매우'(14.5%), '엄청'(14.0%)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진짜', '억수로', '디게' 등이 있음.

[ 그림 3-24 ] 특별히 더 좋은 상태를 강조하여 꾸미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오늘 기분이 다른 때에 비해 특별히 더 좋을 때 ‘너무’ 좋다고 표현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 보면, 성별로는 남성(28.0%), 연령별로는 40대(30.7%), 거주 지역별로는 충청권(32.5%), 가구원 수별로는 2인 가구(32.1%), 최종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32.3%)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24 ] 특별히 더 좋은 상태를 강조하여 꾸미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너무	아주	정말	매우	엄청	기타
전 체		(2,000)	27.6	24.2	17.1	14.5	14.0	2.5
성별	남성	(1,016)	28.0	27.9	15.2	14.1	12.3	2.5
	여성	(984)	27.2	20.4	19.1	14.9	15.8	2.6
연령	20대	(352)	30.5	20.5	15.3	13.9	15.2	4.6
	30대	(353)	22.1	21.4	18.4	16.3	20.2	1.5
	40대	(435)	30.7	21.6	18.6	13.8	13.6	1.6
	50대	(463)	28.9	27.6	16.2	14.0	10.7	2.6
	60대	(397)	24.9	28.9	17.2	14.9	11.8	2.4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28.3	27.0	17.2	12.0	14.6	1.0
	강원권	(58)	24.6	22.3	18.1	13.2	20.2	1.6
	충청권	(212)	32.5	16.3	20.2	18.2	10.3	2.5
	전라권	(182)	19.0	19.4	25.5	26.8	7.5	1.7
	경상권	(488)	27.3	24.4	11.9	14.1	16.1	6.1
	제주	(26)	31.4	13.3	28.4	7.3	15.3	4.3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26.8	17.6	22.0	12.9	18.3	2.3
	2인 가구	(454)	32.1	25.7	14.8	14.3	11.0	2.1
	3인 가구	(659)	24.1	24.6	18.9	14.8	15.3	2.3
	4인 가구	(674)	28.6	23.1	16.3	14.9	14.1	3.0
	5인 가구 이상	(69)	23.3	35.7	14.2	11.6	12.2	2.9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32.3	0.0	41.5	0.0	26.2	0.0
	중학교 졸업	(47)	26.4	26.5	11.5	14.9	13.9	6.8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27.2	27.5	17.6	13.8	11.6	2.3
	대학교 졸업(재학)	(1,144)	28.1	22.4	16.8	15.2	15.2	2.4
	대학원 재학 이상	(27)	19.0	14.0	18.9	11.7	29.3	7.2



## 25. 세 번의 낮과 밤이 지나가는 동안을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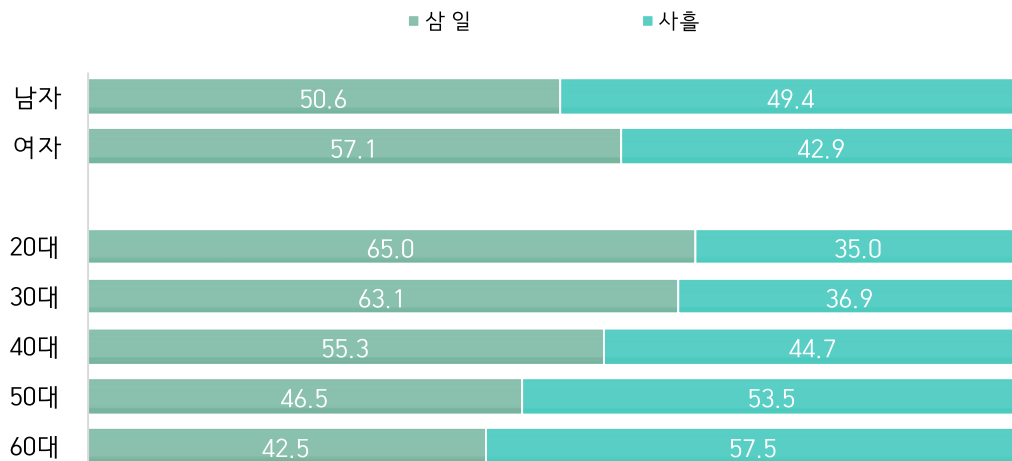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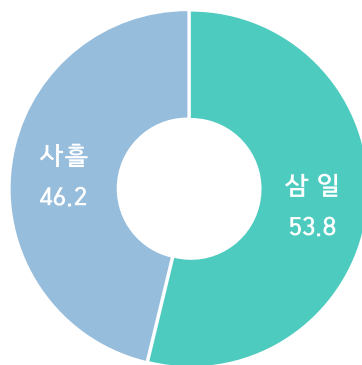
문25

그제, 어제, 오늘까지 휴일이면 얼마 동안 휴일인 겁니까?

- ❖ 그제, 어제, 오늘까지 휴일인 경우 ‘삼 일’ 동안 휴일이라고 표현한 응답 비율은 53.8%이고, ‘사흘’ 동안 휴일이라고 표현한 비율은 46.2%임.

[ 그림 3-25 ] 세 번의 낮과 밤이 지나가는 동안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그제, 어제, 오늘까지를 ‘삼 일’이라고 표현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57.1%),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93.5%),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62.1%),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재학)(56.3%)에서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표 3-25 ] 세 번의 낮과 밤이 지나가는 동안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 례 수	삼 일	사 흘
전 체		(2,000)	53.8	46.2
성별	남성	(1,016)	50.6	49.4
	여성	(984)	57.1	42.9
연령	20대	(352)	65.0	35.0
	30대	(353)	63.1	36.9
	40대	(435)	55.3	44.7
	50대	(463)	46.5	53.5
	60대	(397)	42.5	57.5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53.9	46.1
	강원권	(58)	47.2	52.8
	충청권	(212)	66.7	33.3
	전라권	(182)	31.6	68.4
	경상권	(488)	54.9	45.1
	제주	(26)	93.5	6.5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56.9	43.1
	2인 가구	(454)	43.0	57.0
	3인 가구	(659)	56.2	43.8
	4인 가구	(674)	57.1	42.9
	5인 가구 이상	(69)	62.1	37.9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55.0	45.0
	중학교 졸업	(47)	54.4	45.6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50.1	49.9
	대학교 졸업(재학)	(1,144)	56.3	43.7
	대학원 재학 이상	(27)	52.0	48.0





## 26. 회초리를 맞는 횟수가 삼 회인 경우를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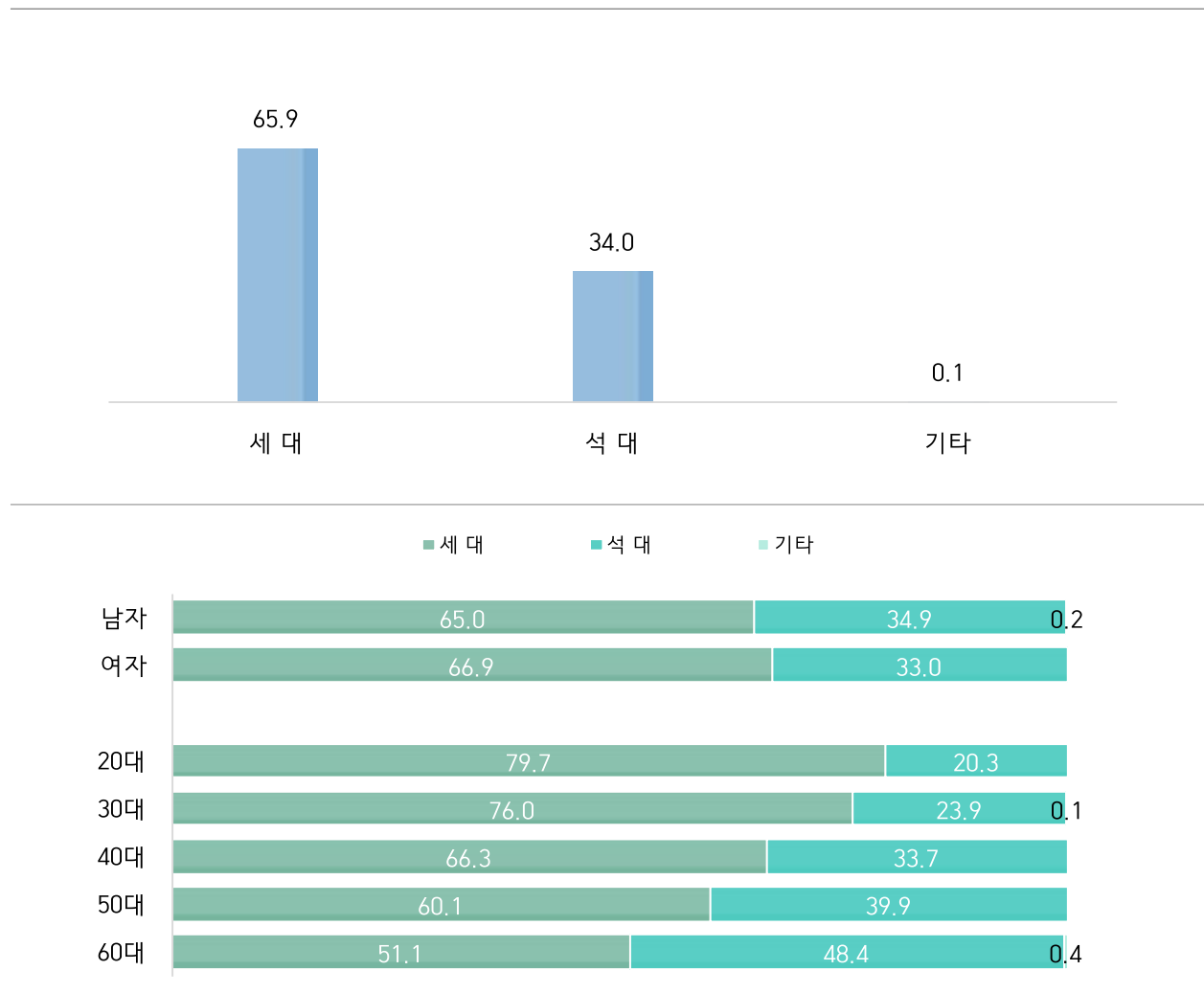
문26

회초리 맞는 횟수가 삼 회라면 몇 대 맞았다고 합니까?

- ❖ 회초리를 맞는 횟수가 삼 회인 경우, 주로 '세 대'(65.9%) 맞았다고 표현하며, 다음으로 '석 대'(34.0%)가 뒤를 이음.
- ❖ 기타 응답으로는 '시대'가 있음.

[ 그림 3-26 ] 회초리를 맞는 횟수가 삼 회인 경우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회초리를 맞는 횟수가 삼 회인 경우, ‘세 대’ 맞았다고 표현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66.9%),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72.3%),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71.8%), 최종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75.9%)에서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표 3-26 ] 회초리를 맞는 횟수가 삼 회인 경우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 례 수	세 대	석 대	기 타
전 체		(2,000)	65.9	34.0	0.1
성별	남성	(1,016)	65.0	34.9	0.2
	여성	(984)	66.9	33.0	0.0
연령	20대	(352)	79.7	20.3	0.0
	30대	(353)	76.0	23.9	0.1
	40대	(435)	66.3	33.7	0.0
	50대	(463)	60.1	39.9	0.0
	60대	(397)	51.1	48.4	0.4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66.4	33.6	0.0
	강원권	(58)	65.7	34.3	0.0
	충청권	(212)	67.0	33.0	0.0
	전라권	(182)	61.7	38.3	0.0
	경상권	(488)	65.8	33.8	0.4
	제주	(26)	72.3	27.7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71.8	27.8	0.5
	2인 가구	(454)	58.6	41.1	0.3
	3인 가구	(659)	69.7	30.3	0.0
	4인 가구	(674)	66.3	33.7	0.0
	5인 가구 이상	(69)	63.5	36.5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75.9	24.1	0.0
	중학교 졸업	(47)	60.8	37.8	1.5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62.9	36.9	0.2
	대학교 졸업(재학)	(1,144)	68.2	31.8	0.0
	대학원 재학 이상	(27)	60.2	39.8	0.0



## 27. 손가락과 젓가락을 합쳐서 세는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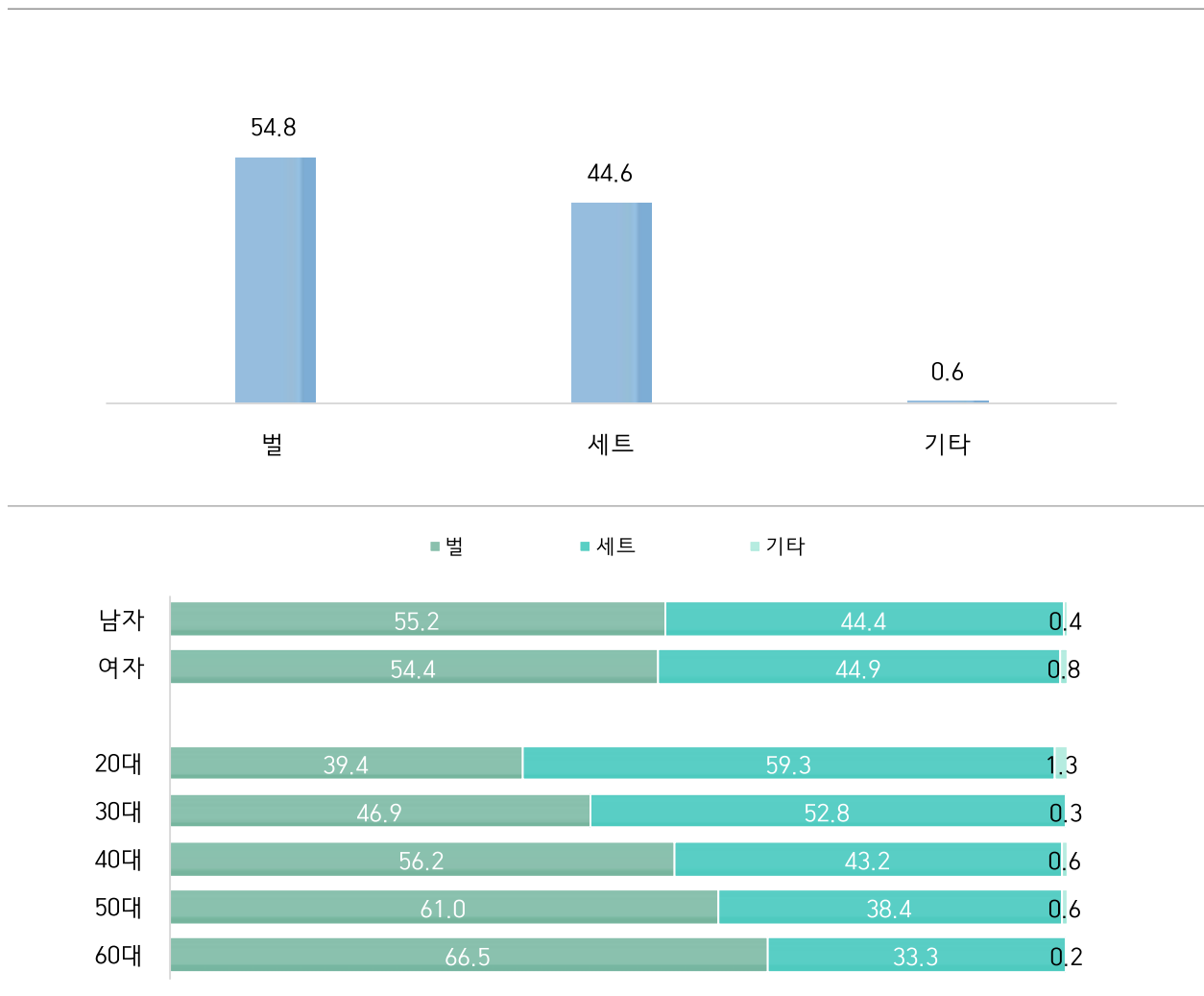
문27

손가락과 젓가락을 합쳐서 셀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수저 한 [ ]

- ❖ 손가락과 젓가락을 합쳐서 셀 때 주로 수저 한 '벌'(54.8%)이라 말하며, 다음으로 '세트'(44.6%)가 뒤를 이음.
- ❖ 기타 응답으로는 '쌍', '개', '짝' 등이 있음.

[ 그림 3-27 ] 손가락과 젓가락을 합쳐서 세는 단위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순가락과 젓가락을 합쳐서 셀 때 수저 한 ‘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55.2%),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권(71.1%), 가구원 수별로는 2인 가구(60.3%), 최종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92.1%)에서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표 3-27 ] 순가락과 젓가락을 합쳐서 세는 단위

(단위 : %)

구 분		사 례 수	별	세트	기타
전 체		(2,000)	54.8	44.6	0.6
성별	남성	(1,016)	55.2	44.4	0.4
	여성	(984)	54.4	44.9	0.8
연령	20대	(352)	39.4	59.3	1.3
	30대	(353)	46.9	52.8	0.3
	40대	(435)	56.2	43.2	0.6
	50대	(463)	61.0	38.4	0.6
	60대	(397)	66.5	33.3	0.2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52.1	47.4	0.5
	강원권	(58)	71.1	28.9	0.0
	충청권	(212)	49.4	50.3	0.2
	전라권	(182)	52.8	47.2	0.0
	경상권	(488)	63.1	35.9	1.1
	제주	(26)	28.4	70.2	1.3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54.6	44.9	0.5
	2인 가구	(454)	60.3	39.0	0.7
	3인 가구	(659)	54.3	45.4	0.3
	4인 가구	(674)	51.7	47.6	0.7
	5인 가구 이상	(69)	53.4	44.7	1.9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92.1	7.9	0.0
	중학교 졸업	(47)	66.7	31.9	1.5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58.6	40.7	0.6
	대학교 졸업(재학)	(1,144)	51.2	48.3	0.5
	대학원 재학 이상	(27)	62.9	37.1	0.0



## 28. 볼펜을 세는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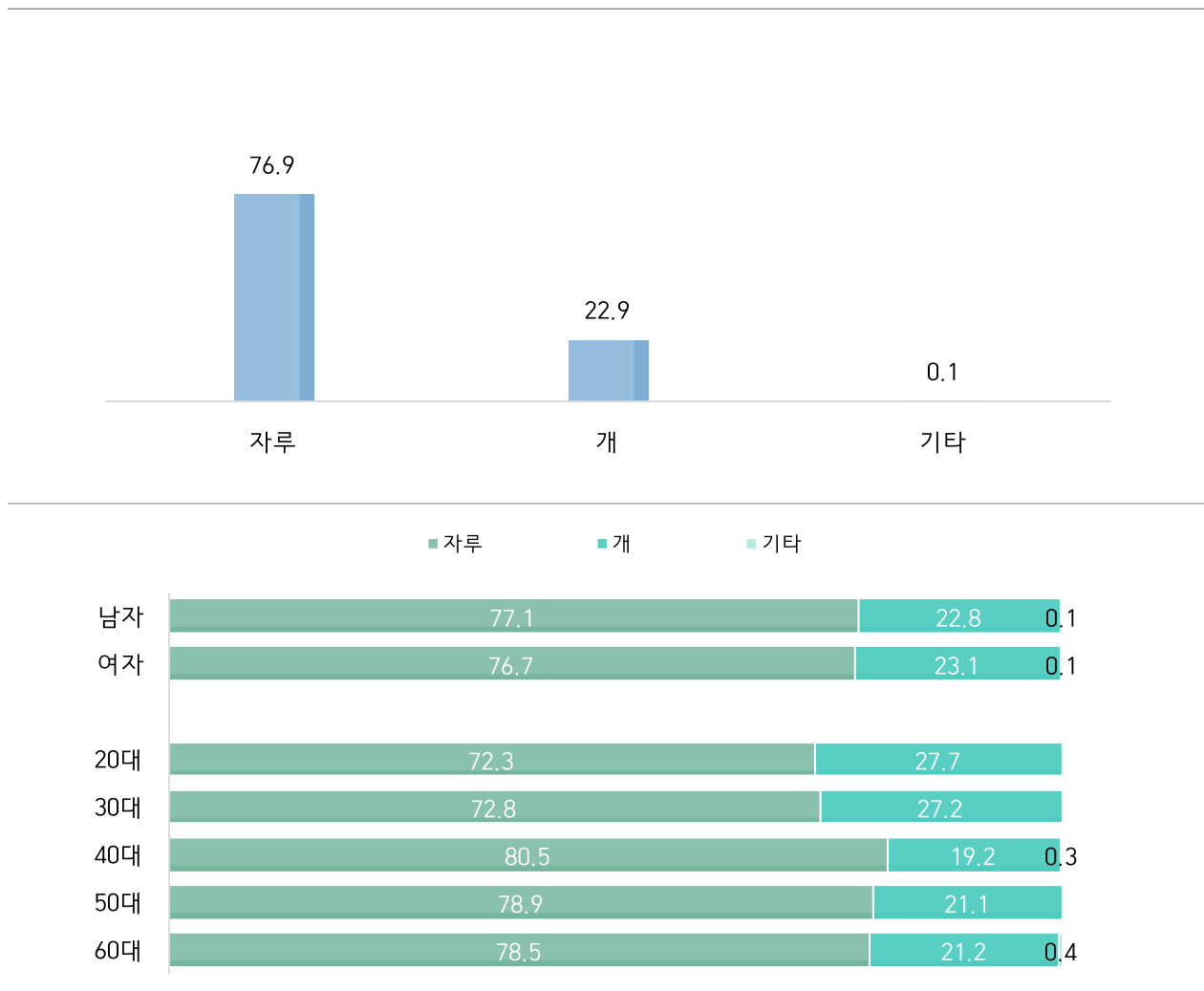
문28

볼펜을 셀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볼펜 한 [     ]

- ❖ 볼펜을 셀 때는 주로 볼펜 한 ‘자루’(76.9%)라고 표현하며, 다음으로 볼펜 한 ‘개’(22.9%)가 뒤를 이음.
- ❖ 기타 응답으로는 ‘타스’가 있음.

[ 그림 3-28 ] 볼펜을 세는 단위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볼펜을 세는 단위로 ‘자루’라고 응답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77.1%), 연령별로는 40대(80.5%),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권(89.4%),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81.5%),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87.0%)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28 ] 볼펜을 세는 단위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자루	개	기타
전 체		(2,000)	76.9	22.9	0.1
성별	남성	(1,016)	77.1	22.8	0.1
	여성	(984)	76.7	23.1	0.1
연령	20대	(352)	72.3	27.7	0.0
	30대	(353)	72.8	27.2	0.0
	40대	(435)	80.5	19.2	0.3
	50대	(463)	78.9	21.1	0.0
	60대	(397)	78.5	21.2	0.4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78.2	21.8	0.0
	강원권	(58)	89.4	9.3	1.2
	충청권	(212)	71.3	28.7	0.0
	전라권	(182)	66.0	34.0	0.0
	경상권	(488)	79.8	19.8	0.4
	제주	(26)	66.1	33.9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78.1	21.4	0.5
	2인 가구	(454)	76.8	22.8	0.4
	3인 가구	(659)	75.6	24.4	0.0
	4인 가구	(674)	77.6	22.4	0.0
	5인 가구 이상	(69)	81.5	18.5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58.3	41.7	0.0
	중학교 졸업	(47)	77.4	21.1	1.5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78.2	21.5	0.3
	대학교 졸업(재학)	(1,144)	75.9	24.1	0.0
	대학원 재학 이상	(27)	87.0	13.0	0.0



## 29. 귀밀에서 턱까지 난 수염을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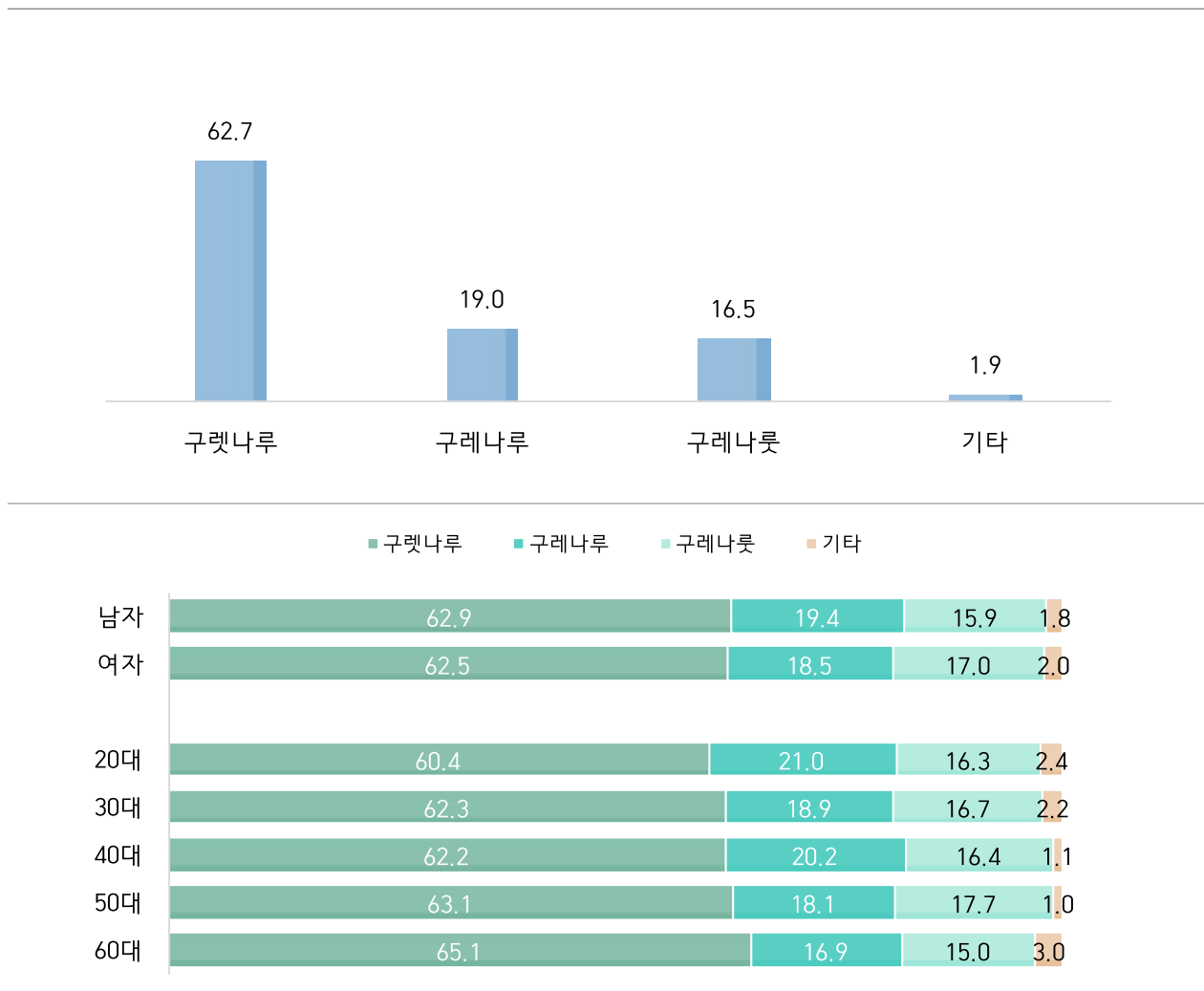
문29

귀밀에서 턱까지 난 수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 귀밀에서 턱까지 난 수염을 주로 ‘구렛나루’(62.7%)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구레나루’(19.0%), ‘구렛나룻’(16.5%)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굴레쉬엄’, ‘구리새미’, ‘턱수염’ 등이 있음.

[ 그림 3-29 ] 귀밀에서 턱까지 난 수염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귀밀에서 턱까지 난 수염을 가리키는 말로 ‘구렛나루’라고 응답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62.9%), 연령별로는 60대(65.1%),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88.9%),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66.4%), 최종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재학)(65.5%)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29 ] 귀밀에서 턱까지 난 수염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구렛나루	구레나루	구레나룻	기타
전 체		(2,000)	62.7	19.0	16.5	1.9
성별	남성	(1,016)	62.9	19.4	15.9	1.8
	여성	(984)	62.5	18.5	17.0	2.0
연령	20대	(352)	60.4	21.0	16.3	2.4
	30대	(353)	62.3	18.9	16.7	2.2
	40대	(435)	62.2	20.2	16.4	1.1
	50대	(463)	63.1	18.1	17.7	1.0
	60대	(397)	65.1	16.9	15.0	3.0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62.6	17.7	17.8	1.9
	강원권	(58)	75.2	6.1	18.7	0.0
	충청권	(212)	62.1	24.5	13.1	0.2
	전라권	(182)	62.1	27.0	9.1	1.8
	경상권	(488)	60.5	18.6	18.0	2.8
	제주	(26)	88.9	2.7	7.6	0.8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66.4	21.8	11.2	0.6
	2인 가구	(454)	65.9	16.2	15.7	2.1
	3인 가구	(659)	59.3	20.7	18.4	1.6
	4인 가구	(674)	63.4	18.5	16.0	2.1
	5인 가구 이상	(69)	60.5	18.5	17.8	3.3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37.5	19.1	28.0	15.3
	중학교 졸업	(47)	63.1	18.5	17.1	1.3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65.5	17.2	15.8	1.6
	대학교 졸업(재학)	(1,144)	61.0	20.3	17.0	1.7
	대학원 재학 이상	(27)	63.9	17.1	8.1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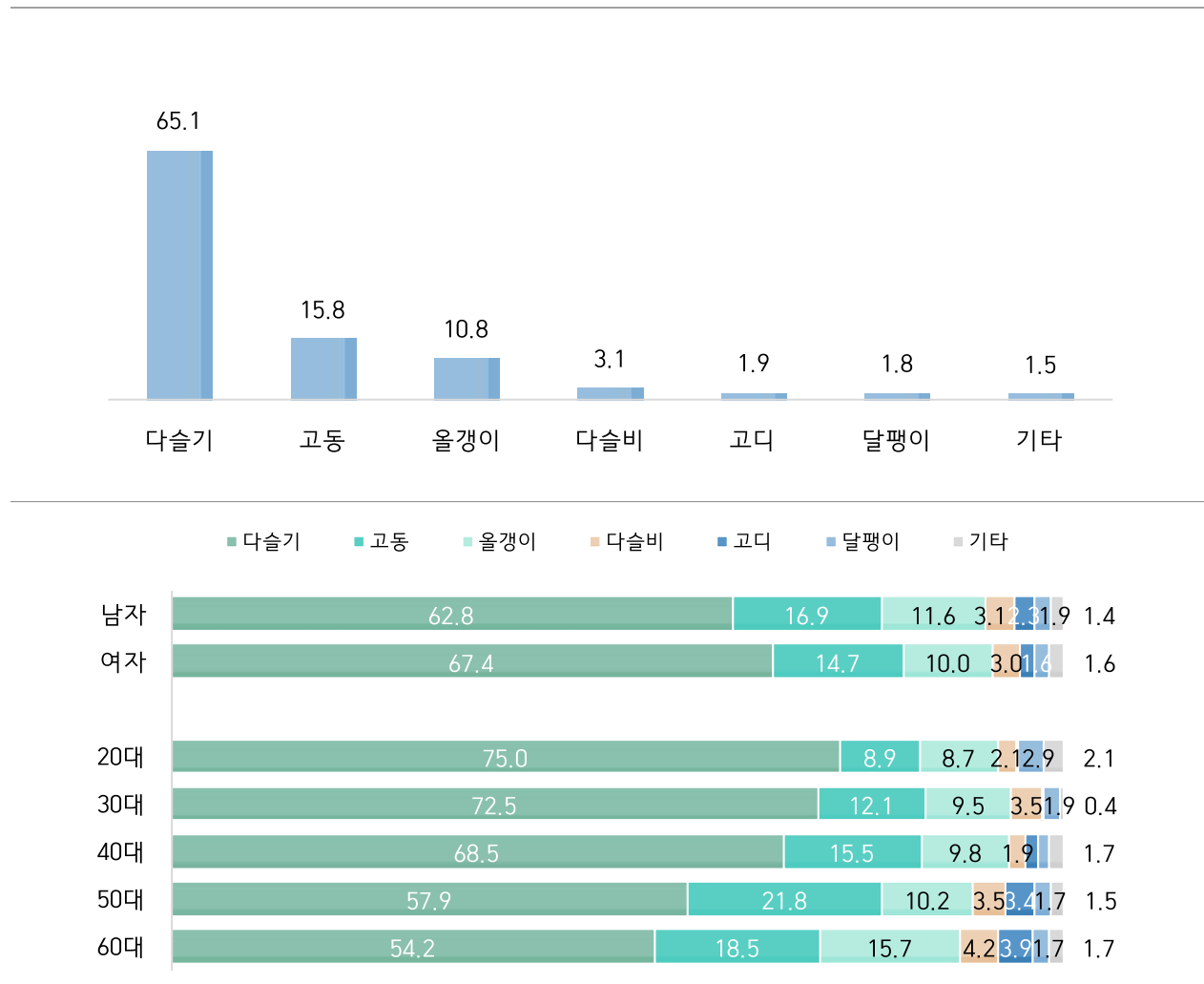
### 30. 냇물에 살고, 검은 갈색이나 누런 갈색의 나사 모양 딱딱한 껍질에 흰 얼룩무늬가 있는 동물을 가리키는 말

문30

냇물에 살고, 나사 모양의 딱딱한 껍질은 검은 갈색이나 누런 갈색인데 흰 얼룩무늬가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 냇물에 살고, 검은 갈색이나 누런 갈색의 나사 모양 딱딱한 껍질에 흰 얼룩무늬가 있는 동물을 주로 ‘다슬기’(65.1%)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고동’(15.8%), ‘올갱이’(10.8%), ‘다슬비’ (3.1%), ‘고디’ (1.9%), ‘달팽이’(1.8%)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골뱅이’, ‘소라’, ‘꿀부리’, ‘웬보말’ 등이 있음.

[ 그림 3-30 ] 냇물에 살고, 검은 갈색이나 누런 갈색의 나사 모양 딱딱한 껍질에 흰 얼룩무늬가 있는 동물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냇물에 살고, 검은 갈색이나 누런 갈색의 나사 모양 딱딱한 껍질에 흰 얼룩무늬가 있는 동물을 ‘다슬기’라고 부르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67.4%),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권(85.6%), 가구원 수별로는 4인 가구(70.6%),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재학)(68.7%)에서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표 3-30 ] 냇물에 살고, 검은 갈색이나 누런 갈색의 나사 모양 딱딱한 껍질에 흰 얼룩무늬가 있는 동물

(단위 : %)

구 분		사례 수	다슬기	고동	올갱이	다슬비	고디	달팽이	기타
전 체		(2,000)	65.1	15.8	10.8	3.1	1.9	1.8	1.5
성별	남성	(1,016)	62.8	16.9	11.6	3.1	2.3	1.9	1.4
	여성	(984)	67.4	14.7	10.0	3.0	1.6	1.7	1.6
연령	20대	(352)	75.0	8.9	8.7	2.1	0.2	2.9	2.1
	30대	(353)	72.5	12.1	9.5	3.5	0.2	1.9	0.4
	40대	(435)	68.5	15.5	9.8	1.9	1.4	1.1	1.7
	50대	(463)	57.9	21.8	10.2	3.5	3.4	1.7	1.5
	60대	(397)	54.2	18.5	15.7	4.2	3.9	1.7	1.7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64.7	19.7	11.2	2.0	0.0	2.1	0.4
	강원권	(58)	85.6	4.3	0.8	1.5	0.0	7.1	0.7
	충청권	(212)	59.5	3.8	29.3	6.0	0.0	0.7	0.8
	전라권	(182)	78.0	12.3	3.9	2.5	0.0	2.2	1.1
	경상권	(488)	60.6	15.4	6.3	4.4	7.9	1.0	4.2
	제주	(26)	73.1	18.4	1.8	1.7	0.0	1.5	3.4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67.4	15.1	8.0	1.9	3.9	2.1	1.6
	2인 가구	(454)	56.1	17.6	14.8	4.6	2.6	2.6	1.8
	3인 가구	(659)	64.7	16.7	11.0	3.1	1.5	2.1	0.9
	4인 가구	(674)	70.6	14.2	8.7	2.4	1.4	1.0	1.7
	5인 가구 이상	(69)	68.8	13.1	8.7	1.2	3.3	1.9	3.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51.4	16.7	14.0	6.2	11.6	0.0	0.0
	중학교 졸업	(47)	50.5	10.7	19.0	2.7	6.6	2.5	8.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60.7	18.4	10.7	3.7	3.3	2.0	1.3
	대학교 졸업(재학)	(1,144)	68.7	14.3	10.4	2.7	0.7	1.7	1.4
	대학원 재학 이상	(27)	64.4	14.3	16.1	0.0	3.2	0.0	2.1



### 31. 닭이나 꿩 따위의 머리에 세로로 붙은 톱니 모양의 붉은 살 조각을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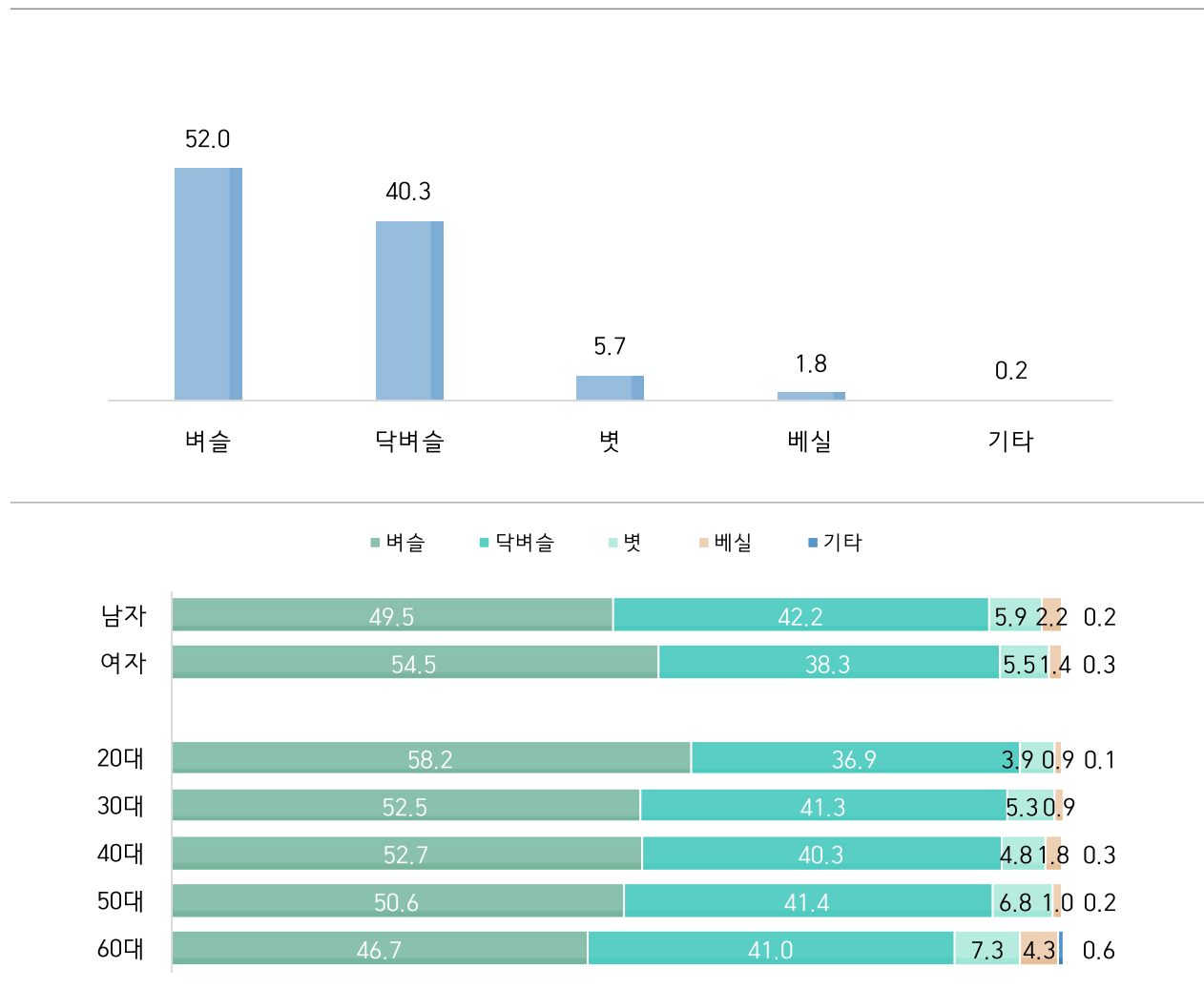
문31

닭이나 꿩 따위의 머리에 세로로 붙은 톱니 모양의 붉은 살 조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 닭이나 꿩 따위의 머리에 세로로 붙은 톱니 모양의 붉은 살 조각을 주로 ‘벼슬’(52.0%)이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닥벼슬’(40.3%), ‘벧’(5.7%), ‘베실’(1.8%)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닭벼슬’이 있음.

[ 그림 3-31 ] 닭이나 꿩 따위의 머리에 세로로 붙은 톱니 모양의 붉은 살 조각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닭이나 꿩 따위의 머리에 세로로 붙은 톱니 모양의 붉은 살 조각을 ‘벼슬’이라 부르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54.5%), 연령별로는 20대(58.2%),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권(72.8%), 가구원 수별로는 4인 가구(53.8%),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60.5%)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31 ] 닭이나 꿩 따위의 머리에 세로로 붙은 톱니 모양의 붉은 살 조각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벼슬	닥벼슬	벚	베실	기타
전 체		(2,000)	52.0	40.3	5.7	1.8	0.2
성별	남성	(1,016)	49.5	42.2	5.9	2.2	0.2
	여성	(984)	54.5	38.3	5.5	1.4	0.3
연령	20대	(352)	58.2	36.9	3.9	0.9	0.1
	30대	(353)	52.5	41.3	5.3	0.9	0.0
	40대	(435)	52.7	40.3	4.8	1.8	0.3
	50대	(463)	50.6	41.4	6.8	1.0	0.2
	60대	(397)	46.7	41.0	7.3	4.3	0.6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53.7	36.8	8.5	1.0	0.0
	강원권	(58)	72.8	27.2	0.0	0.0	0.0
	충청권	(212)	54.9	35.2	6.7	2.9	0.2
	전라권	(182)	49.0	47.3	1.1	2.6	0.0
	경상권	(488)	46.3	48.0	2.0	2.9	0.8
	제주	(26)	39.6	56.7	3.0	0.0	0.8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52.5	44.0	2.0	1.1	0.5
	2인 가구	(454)	48.5	40.8	6.8	3.5	0.4
	3인 가구	(659)	52.3	40.1	6.3	1.1	0.2
	4인 가구	(674)	53.8	38.9	5.7	1.6	0.0
	5인 가구 이상	(69)	52.9	44.4	1.1	0.0	1.6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38.5	42.3	19.1	0.0	0.0
	중학교 졸업	(47)	48.3	40.4	0.0	9.4	1.9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48.7	43.9	4.6	2.6	0.3
	대학교 졸업(재학)	(1,144)	54.3	37.8	6.7	1.0	0.1
	대학원 재학 이상	(27)	60.5	39.5	0.0	0.0	0.0



### 32. 가는 파같이 생기고 잎은 좀 납작하며, 파나 마늘 대신 양념으로 쓰거나 오이소박이에 넣기도 하는 채소를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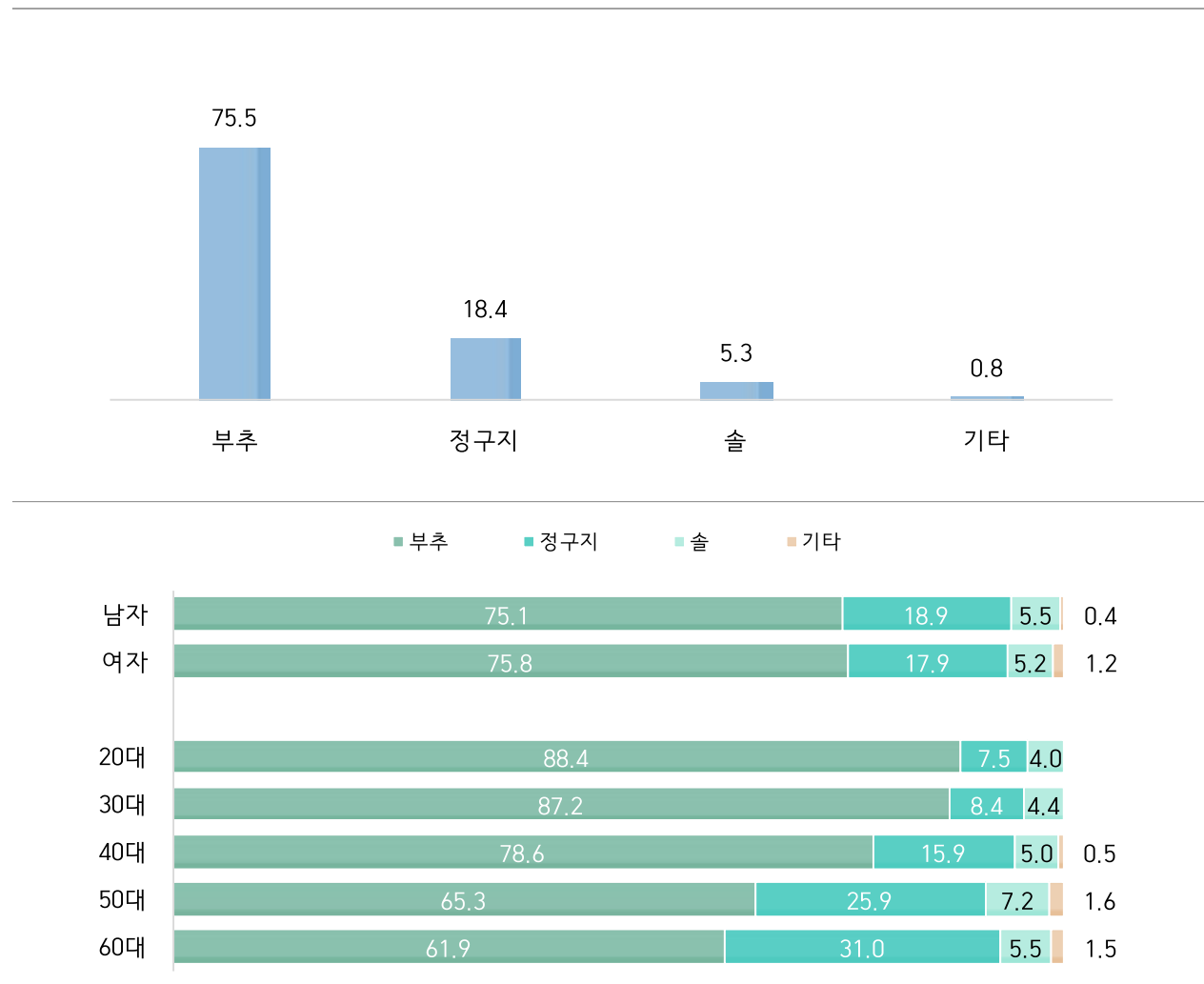
문32

가는 파같이 생기고 잎은 좀 납작하며, 파나 마늘 대신 양념으로 쓰거나 오이소박이에 넣기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 가는 파같이 생기고 잎은 좀 납작하며, 파나 마늘 대신 양념으로 쓰거나 오이소박이에 넣기도 하는 채소를 주로 ‘부추’(75.5%)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정구지’(18.4%), ‘솔’(5.3%)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줄’, ‘세우리’가 있음.

[ 그림 3-32 ] 가는 파같이 생기고 잎은 좀 납작한 채소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가는 파같이 생기고 잎은 좀 납작한 채소를 ‘부추’라고 부르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75.8%),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권(97.6%),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86.8%),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89.1%)에서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표 3-32 ] 가는 파같이 생기고 잎은 좀 납작한 채소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부추	정구지	솔	기타
전 체		(2,000)	75.5	18.4	5.3	0.8
성별	남성	(1,016)	75.1	18.9	5.5	0.4
	여성	(984)	75.8	17.9	5.2	1.2
연령	20대	(352)	88.4	7.5	4.0	0.0
	30대	(353)	87.2	8.4	4.4	0.0
	40대	(435)	78.6	15.9	5.0	0.5
	50대	(463)	65.3	25.9	7.2	1.6
	60대	(397)	61.9	31.0	5.5	1.5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84.9	10.2	3.9	1.1
	강원권	(58)	97.6	1.5	0.0	0.9
	충청권	(212)	73.1	24.8	2.2	0.0
	전라권	(182)	61.8	4.0	33.4	0.8
	경상권	(488)	58.7	41.1	0.2	0.0
	제주	(26)	81.9	7.6	0.0	10.6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77.2	18.5	3.7	0.7
	2인 가구	(454)	64.7	27.8	6.7	0.9
	3인 가구	(659)	74.9	17.5	7.0	0.6
	4인 가구	(674)	81.7	13.7	3.6	0.9
	5인 가구 이상	(69)	86.8	10.7	1.2	1.4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57.7	42.3	0.0	0.0
	중학교 졸업	(47)	50.1	39.8	7.6	2.5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70.3	24.1	4.5	1.2
	대학교 졸업(재학)	(1,144)	79.8	13.7	6.0	0.5
	대학원 재학 이상	(27)	89.1	10.9	0.0	0.0



### 33. 논에다 모를 심어서 키운 식물을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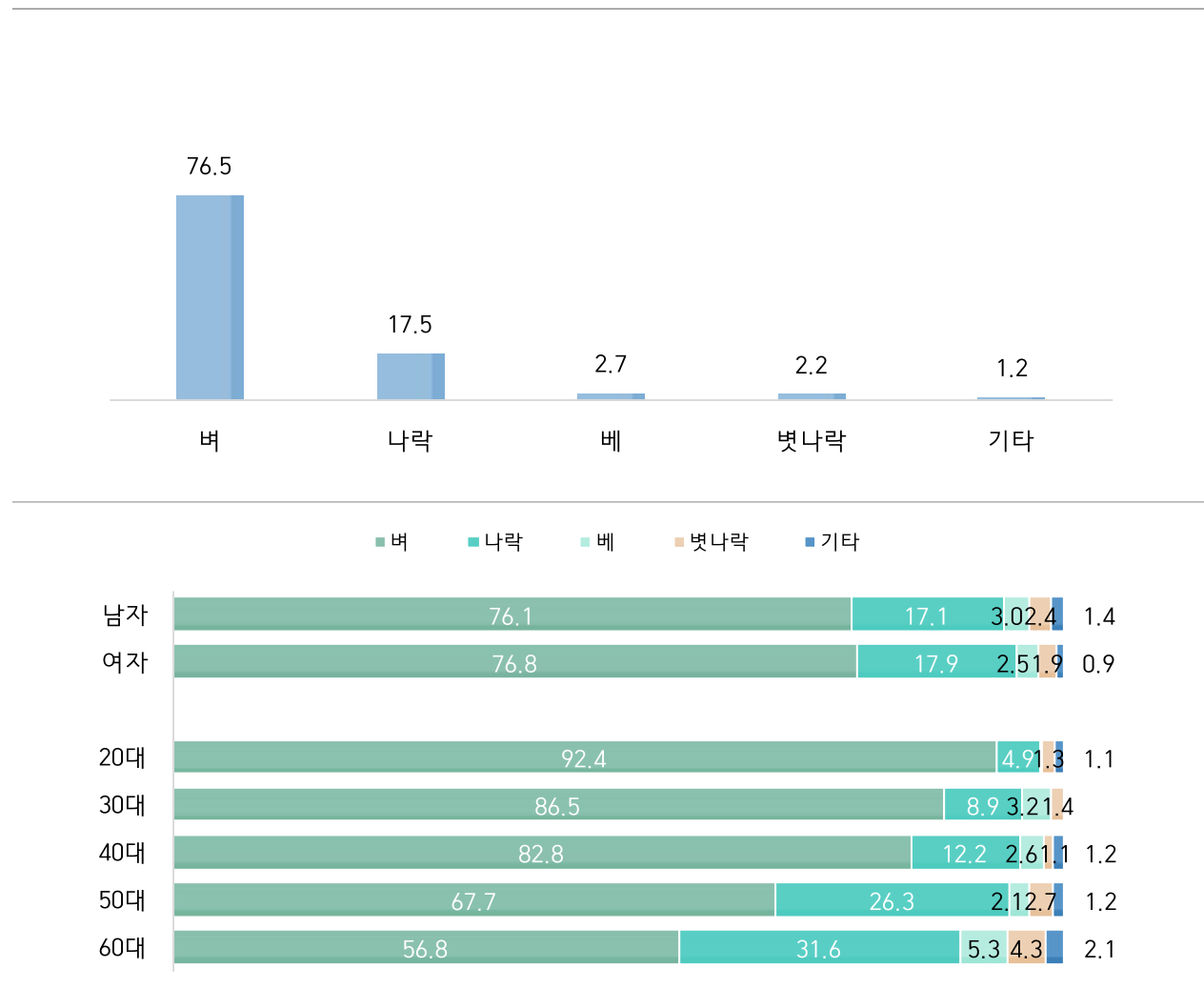
문33

논에다 모를 심어서 키운 식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 논에다 모를 심어서 키운 식물을 주로 ‘벼’(76.5%)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나락’(17.5%), ‘베’(2.7%), ‘벼나락’(2.2%)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벼이삭’, ‘나록’, ‘이삭’ 등이 있음.

[ 그림 3-33 ] 논에다 모를 심어서 키운 식물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논에다 모를 심어서 키운 식물을 ‘벼’라고 부르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76.8%),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권(91.8%), 가구원 수별로는 4인 가구(81.6%),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재학)(82.4%)에서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표 3-33 ] 논에다 모를 심어서 키운 식물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벼	나락	배	벼나락	기타
전 체		(2,000)	76.5	17.5	2.7	2.2	1.2
성별	남성	(1,016)	76.1	17.1	3.0	2.4	1.4
	여성	(984)	76.8	17.9	2.5	1.9	0.9
연령	20대	(352)	92.4	4.9	0.3	1.3	1.1
	30대	(353)	86.5	8.9	3.2	1.4	0.0
	40대	(435)	82.8	12.2	2.6	1.1	1.2
	50대	(463)	67.7	26.3	2.1	2.7	1.2
	60대	(397)	56.8	31.6	5.3	4.3	2.1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81.5	11.2	3.2	2.7	1.4
	강원권	(58)	91.8	2.0	0.0	0.9	5.4
	충청권	(212)	85.8	8.8	4.7	0.7	0.0
	전라권	(182)	48.3	41.0	2.1	6.5	2.1
	경상권	(488)	70.0	28.0	1.4	0.4	0.2
	제주	(26)	84.1	8.8	3.1	0.0	3.9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76.6	14.7	3.5	4.0	1.2
	2인 가구	(454)	63.0	28.1	3.4	3.2	2.3
	3인 가구	(659)	80.5	13.8	3.5	1.2	0.9
	4인 가구	(674)	81.6	14.6	1.4	1.8	0.7
	5인 가구 이상	(69)	76.5	16.6	2.0	5.0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55.6	44.4	0.0	0.0	0.0
	중학교 졸업	(47)	44.1	45.5	7.6	0.0	2.9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70.0	22.3	3.3	3.1	1.3
	대학교 졸업(재학)	(1,144)	82.4	13.0	2.2	1.6	0.9
	대학원 재학 이상	(27)	77.6	8.1	3.1	5.5	5.7





## 34. 무청을 엮어 말린 것을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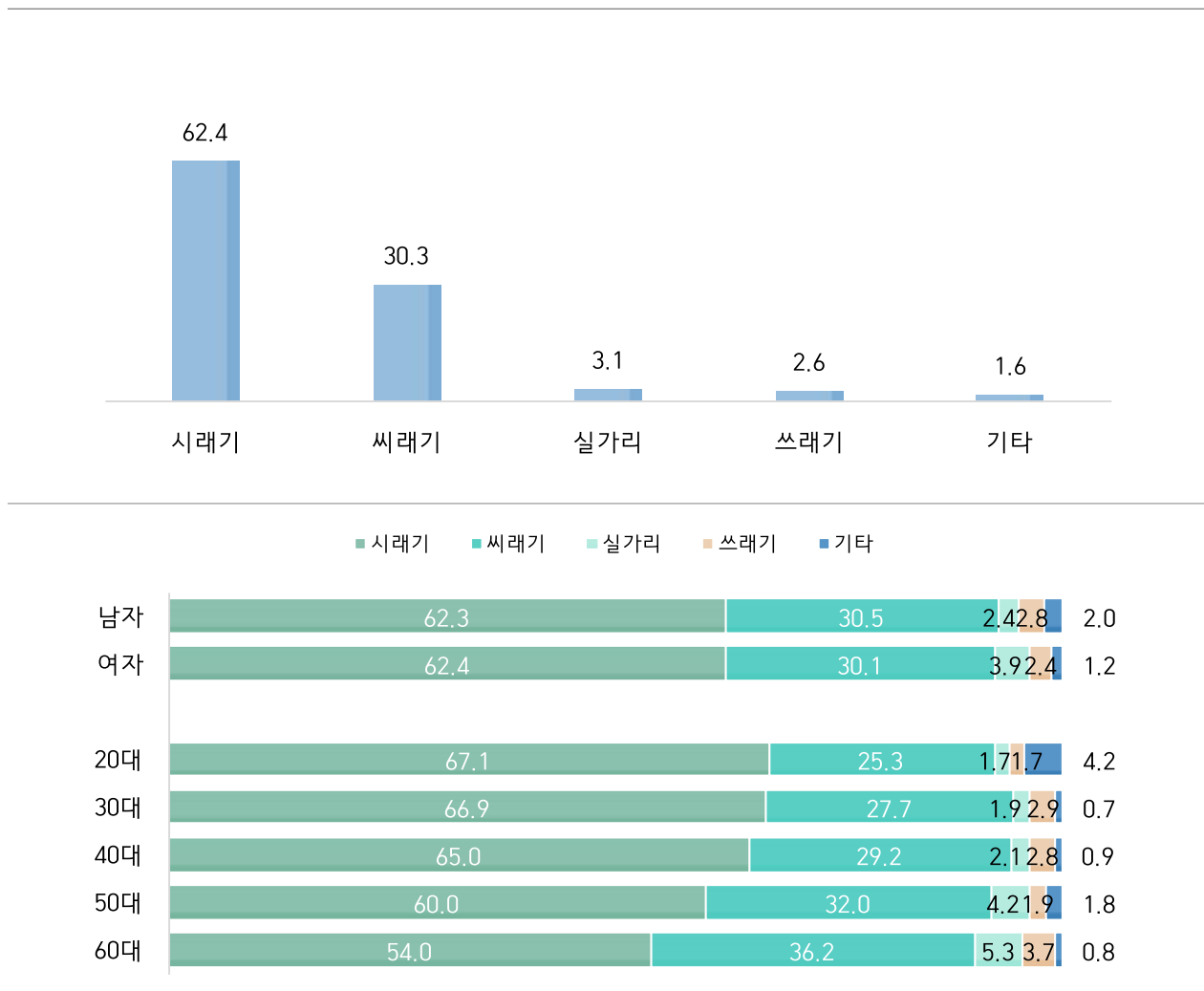
문34

무청을 엮어 말린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 무청을 엮어 말린 것을 주로 ‘시래기’(62.4%)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씨래기’(30.3%), ‘실가리’(3.1%), ‘쓰래기’(2.6%)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쓰라기’, ‘우거지’, ‘무우청’ 등이 있음.

[ 그림 3-34 ] 무청을 엮어 말린 것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무청을 엮어 말린 것을 ‘시래기’라고 부르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권(89.7%),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67.9%),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67.4%)에서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표 3-34 ] 무청을 엮어 말린 것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시래기	씨래기	실가리	쓰래기	기타
전 체		(2,000)	62.4	30.3	3.1	2.6	1.6
성별	남성	(1,016)	62.3	30.5	2.4	2.8	2.0
	여성	(984)	62.4	30.1	3.9	2.4	1.2
연령	20대	(352)	67.1	25.3	1.7	1.7	4.2
	30대	(353)	66.9	27.7	1.9	2.9	0.7
	40대	(435)	65.0	29.2	2.1	2.8	0.9
	50대	(463)	60.0	32.0	4.2	1.9	1.8
	60대	(397)	54.0	36.2	5.3	3.7	0.8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64.2	27.9	3.1	3.0	1.8
	강원권	(58)	89.7	10.3	0.0	0.0	0.0
	충청권	(212)	55.7	39.6	0.4	3.1	1.2
	전라권	(182)	62.7	20.2	15.9	1.1	0.0
	경상권	(488)	57.0	38.8	0.2	2.0	1.9
	제주	(26)	78.8	5.2	0.0	9.6	6.4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56.1	34.5	4.9	2.7	1.8
	2인 가구	(454)	56.7	34.0	4.6	3.5	1.2
	3인 가구	(659)	65.4	28.5	2.5	2.7	0.9
	4인 가구	(674)	63.9	29.4	2.6	2.2	1.9
	5인 가구 이상	(69)	67.9	21.9	1.2	0.0	9.1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36.5	48.7	0.0	14.8	0.0
	중학교 졸업	(47)	43.4	44.0	7.8	0.0	4.7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60.8	30.5	2.8	3.8	2.0
	대학교 졸업(재학)	(1,144)	64.3	29.6	3.2	1.6	1.3
	대학원 재학 이상	(27)	67.4	21.1	3.7	7.7	0.0



### 35. 제사상에 올려놓는 밥을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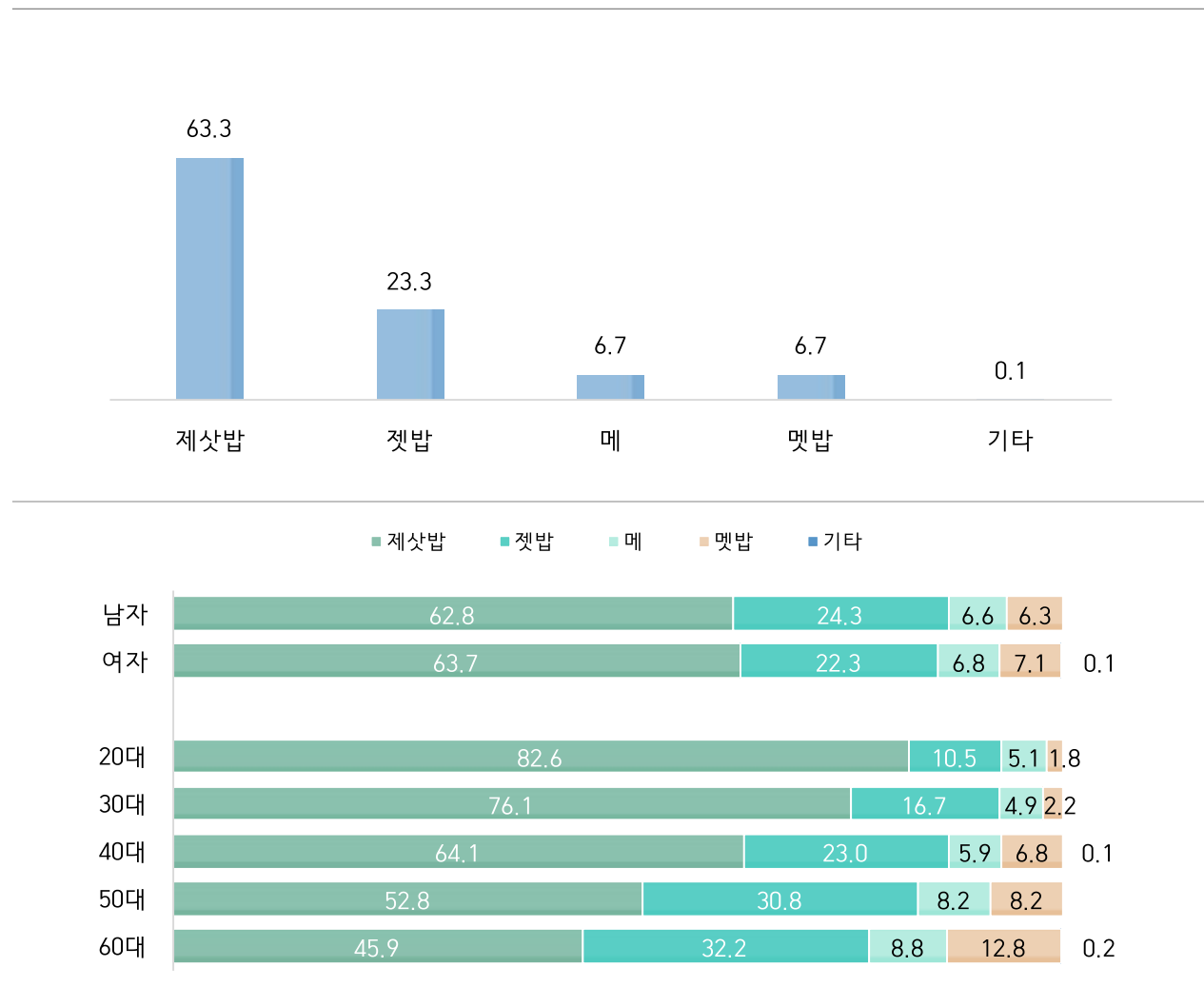
문35

제사상에 올려놓는 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 제사상에 올려놓는 밥을 주로 ‘제삿밥’(63.3%)이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젯밥’(23.3%), ‘메’ 및 ‘멧밥’(각각 6.7%) 순임.

[ 그림 3-35 ] 제사상에 올려놓는 밥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제사상에 올려놓는 밥을 ‘제삿밥’이라고 부르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63.7%), 거주 지역별로는 충청권(76.6%),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72.2%),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69.8%)에서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표 3-35 ] 제사상에 올려놓는 밥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제삿밥	젯밥	메	멧밥	기타
전 체		(2,000)	63.3	23.3	6.7	6.7	0.1
성별	남성	(1,016)	62.8	24.3	6.6	6.3	0.0
	여성	(984)	63.7	22.3	6.8	7.1	0.1
연령	20대	(352)	82.6	10.5	5.1	1.8	0.0
	30대	(353)	76.1	16.7	4.9	2.2	0.0
	40대	(435)	64.1	23.0	5.9	6.8	0.1
	50대	(463)	52.8	30.8	8.2	8.2	0.0
	60대	(397)	45.9	32.2	8.8	12.8	0.2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61.5	27.1	8.9	2.5	0.0
	강원권	(58)	34.6	15.1	27.9	22.5	0.0
	충청권	(212)	76.6	22.4	0.7	0.3	0.0
	전라권	(182)	66.1	23.3	2.2	8.2	0.2
	경상권	(488)	65.2	16.0	3.3	15.3	0.2
	제주	(26)	34.2	35.7	14.6	15.5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66.7	20.5	7.8	5.0	0.0
	2인 가구	(454)	53.8	27.6	7.0	11.4	0.2
	3인 가구	(659)	65.5	22.9	6.1	5.4	0.0
	4인 가구	(674)	65.7	22.5	6.5	5.2	0.0
	5인 가구 이상	(69)	72.2	13.8	9.1	4.9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49.7	36.2	6.2	7.9	0.0
	중학교 졸업	(47)	44.1	36.9	3.3	13.8	1.9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57.7	25.5	7.2	9.5	0.0
	대학교 졸업(재학)	(1,144)	67.8	21.2	6.5	4.5	0.0
	대학원 재학 이상	(27)	69.8	20.2	6.7	3.3	0.0



## 36. 여닫게 되어 있는 물건을 잠그는 장치를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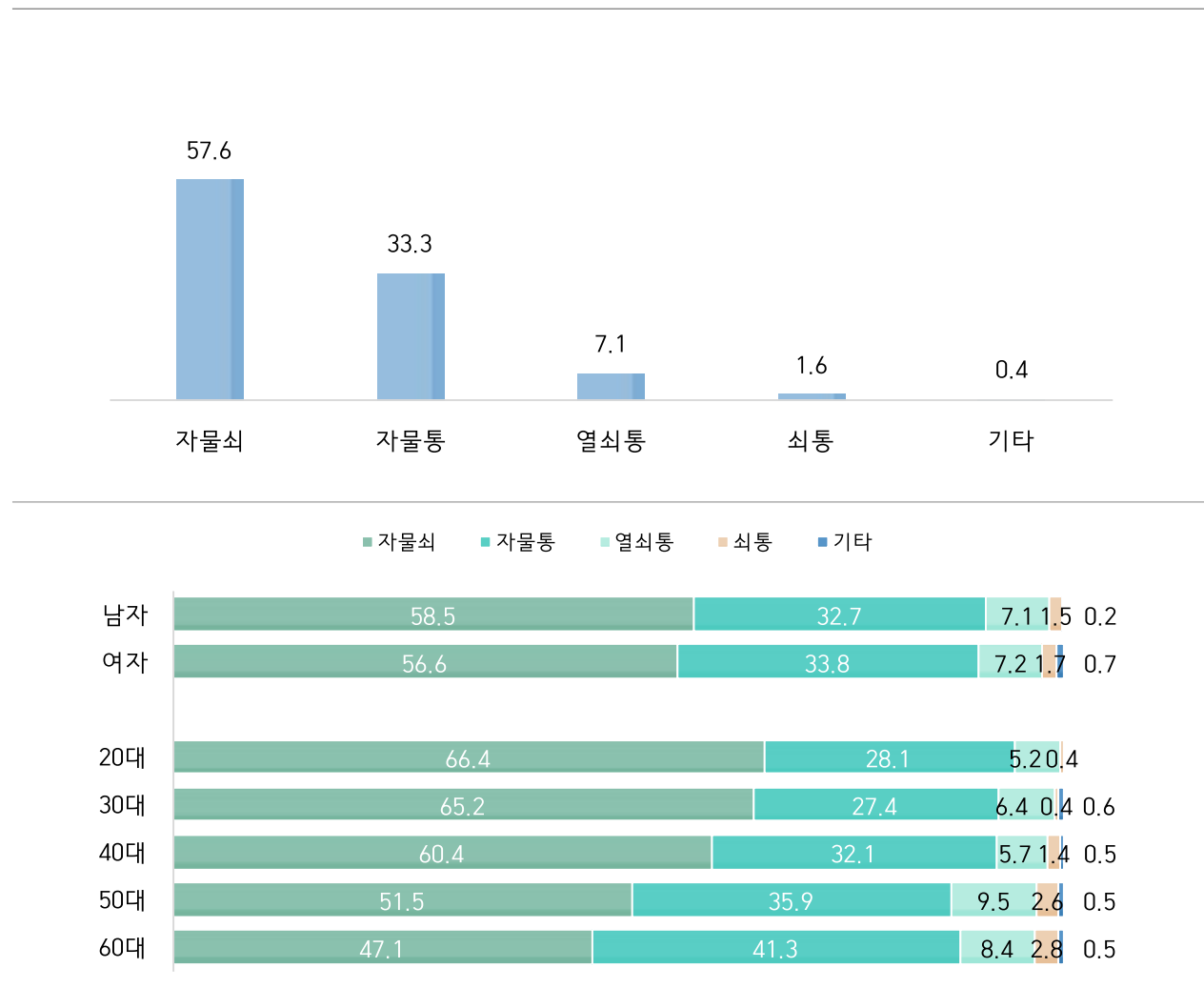
문36

여닫게 되어 있는 물건을 잠그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 ❖ 여닫게 되어 있는 물건을 잠그는 장치를 주로 ‘자물쇠’(57.6%)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자물통’(33.3%), ‘열쇠통’(7.1%), ‘쇠통’(1.6%)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통쇠’가 있음.

[ 그림 3-36 ] 여닫게 되어 있는 물건을 잠그는 장치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여닫게 되어 있는 물건을 잠그는 장치를 ‘자물쇠’라고 부르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58.5%),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83.2%),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65.9%),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74.0%)에서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표 3-36 ] 여닫게 되어 있는 물건을 잠그는 장치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자물쇠	자물통	열쇠통	쇠통	기타
전 체		(2,000)	57.6	33.3	7.1	1.6	0.4
성별	남성	(1,016)	58.5	32.7	7.1	1.5	0.2
	여성	(984)	56.6	33.8	7.2	1.7	0.7
연령	20대	(352)	66.4	28.1	5.2	0.4	0.0
	30대	(353)	65.2	27.4	6.4	0.4	0.6
	40대	(435)	60.4	32.1	5.7	1.4	0.5
	50대	(463)	51.5	35.9	9.5	2.6	0.5
	60대	(397)	47.1	41.3	8.4	2.8	0.5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59.8	32.0	7.8	0.4	0.0
	강원권	(58)	59.9	34.3	4.4	0.0	1.3
	충청권	(212)	62.1	34.7	2.4	0.8	0.0
	전라권	(182)	35.2	39.3	20.6	3.5	1.3
	경상권	(488)	57.7	34.2	3.3	3.9	0.9
	제주	(26)	83.2	10.6	1.5	0.0	4.7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65.1	28.8	3.9	2.1	0.1
	2인 가구	(454)	52.6	34.1	10.5	2.2	0.7
	3인 가구	(659)	58.2	32.7	7.2	1.7	0.2
	4인 가구	(674)	57.9	34.9	5.8	1.1	0.4
	5인 가구 이상	(69)	65.9	26.6	5.2	0.0	2.3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67.1	24.1	0.0	8.8	0.0
	중학교 졸업	(47)	34.9	52.3	6.1	4.0	2.7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52.1	36.8	8.5	2.1	0.6
	대학교 졸업(재학)	(1,144)	61.8	30.7	6.3	1.1	0.2
	대학원 재학 이상	(27)	74.0	11.7	11.4	0.0	2.9



### 37. 부엌 천장이나 벽이 연기에 까맣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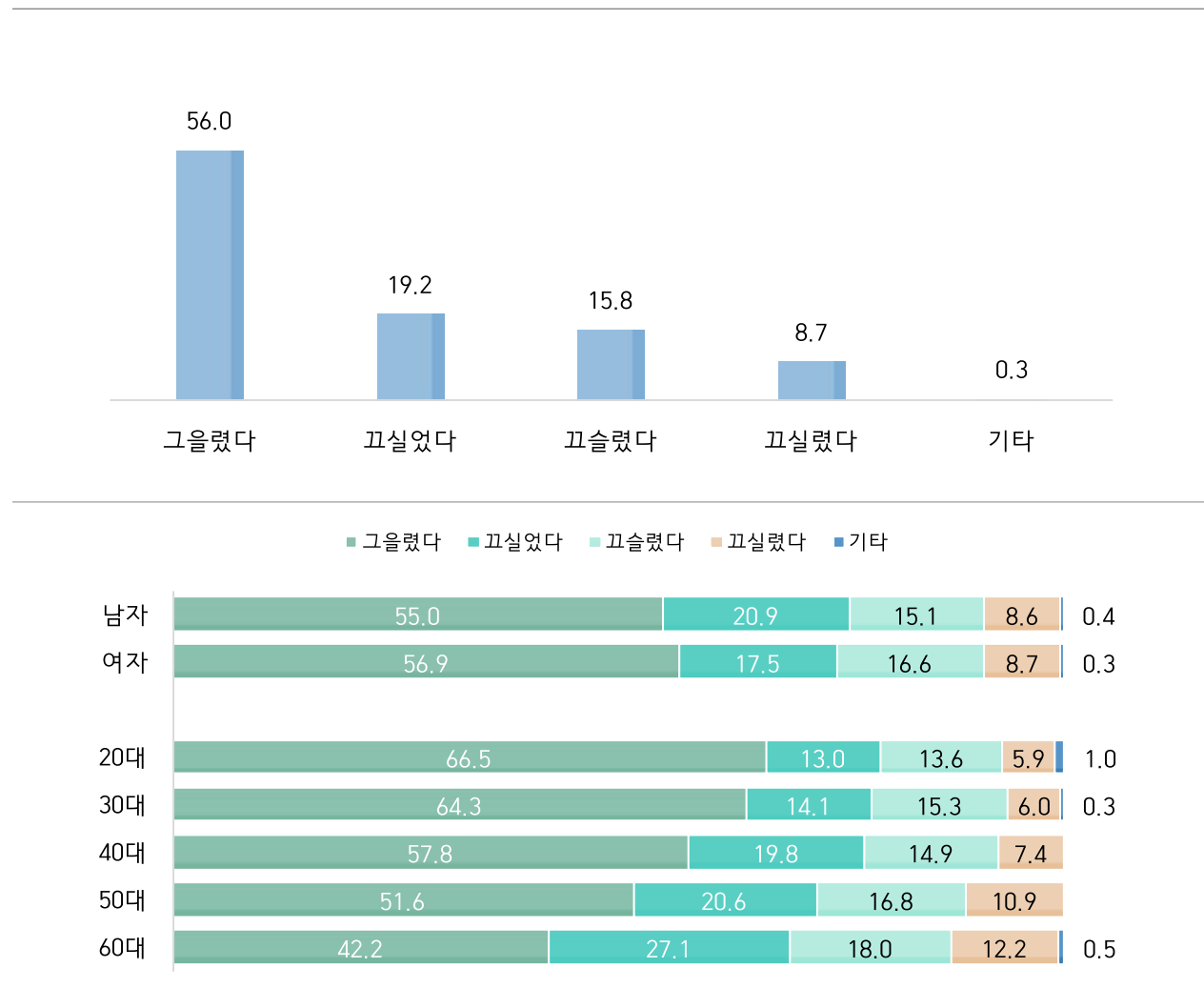
문37

부엌 천장이나 벽이 연기에 까맣게 된 것을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 ❖ 부엌 천장이나 벽이 연기에 까맣게 된 것을 주로 ‘그을렸다’(56.0%)라고 표현하며, 다음으로 ‘끄실었다’(19.2%), ‘끄슬렀다’(15.8%), ‘끄실렀다’(8.7%)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탸다’, ‘끄을렀다’, ‘그슬렀다’ 등이 있음.

[ 그림 3-37 ] 부엌 천장이나 벽이 연기에 까맣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부엌 천장이나 벽이 연기에 까맣게 된 것을 ‘그을렸다’라고 표현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56.9%),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86.9%),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68.4%),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63.0%)에서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표 3-37 ] 부엌 천장이나 벽이 연기에 까맣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그을렸다	끄실었다	끄슬렀다	끄실렀다	기타
전 체		(2,000)	56.0	19.2	15.8	8.7	0.3
성별	남성	(1,016)	55.0	20.9	15.1	8.6	0.4
	여성	(984)	56.9	17.5	16.6	8.7	0.3
연령	20대	(352)	66.5	13.0	13.6	5.9	1.0
	30대	(353)	64.3	14.1	15.3	6.0	0.3
	40대	(435)	57.8	19.8	14.9	7.4	0.0
	50대	(463)	51.6	20.6	16.8	10.9	0.0
	60대	(397)	42.2	27.1	18.0	12.2	0.5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62.5	16.4	12.5	8.4	0.1
	강원권	(58)	65.0	9.2	21.9	3.9	0.0
	충청권	(212)	58.9	16.4	16.0	8.7	0.0
	전라권	(182)	32.3	22.0	35.2	10.5	0.0
	경상권	(488)	46.9	27.6	15.1	9.2	1.1
	제주	(26)	86.9	0.0	7.6	5.5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52.5	15.1	20.5	11.5	0.5
	2인 가구	(454)	44.4	23.5	19.6	12.2	0.3
	3인 가구	(659)	55.0	20.7	15.5	8.3	0.5
	4인 가구	(674)	64.1	16.6	12.8	6.2	0.2
	5인 가구 이상	(69)	68.4	12.3	13.2	6.1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33.3	15.3	0.0	51.4	0.0
	중학교 졸업	(47)	26.7	31.9	32.1	9.3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50.2	23.1	16.5	10.1	0.2
	대학교 졸업(재학)	(1,144)	61.1	16.2	15.1	7.1	0.5
	대학원 재학 이상	(27)	63.0	16.9	4.8	15.3	0.0





### 38. 뭉친 흰밥 위에 날생선 살을 얹어 만든 음식을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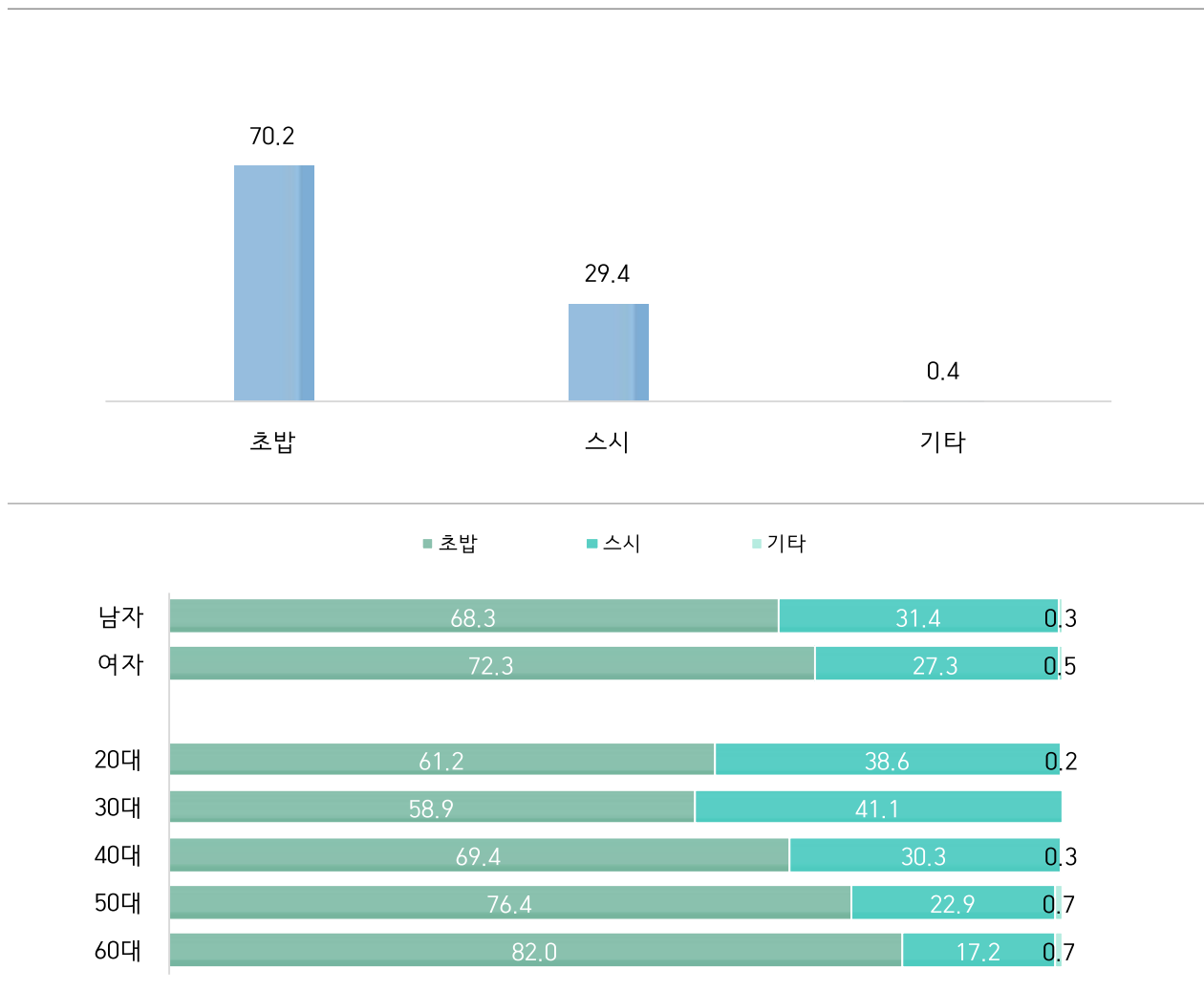
문38

일본 음식의 하나로 흰밥을 뭉친 뒤에 그 위에 날생선의 살을 얹어 만든 음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 일본 음식의 하나로 흰밥을 뭉친 뒤에 그 위에 날생선의 살을 얹어 만든 음식을 주로 ‘초밥’ (70.2%)이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스시’(29.4%)가 뒤를 이음.
- ❖ 기타 응답으로는 ‘회’, ‘생선초밥’이 있음.

[ 그림 3-38 ] 뭉친 흰밥 위에 날생선 살을 얹어 만든 음식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흰밥을 뭉친 뒤에 그 위에 날생선의 살을 얹어 만든 음식을 ‘초밥’이라고 부르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72.3%), 연령별로는 60대(82.0%),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85.2%), 가구원 수별로는 2인 가구(79.0%), 최종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93.1%)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38 ] 뭉친 흰밥 위에 날생선 살을 얹어 만든 음식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 례 수	초밥	스시	기타
전 체		(2,000)	70.2	29.4	0.4
성별	남성	(1,016)	68.3	31.4	0.3
	여성	(984)	72.3	27.3	0.5
연령	20대	(352)	61.2	38.6	0.2
	30대	(353)	58.9	41.1	0.0
	40대	(435)	69.4	30.3	0.3
	50대	(463)	76.4	22.9	0.7
	60대	(397)	82.0	17.2	0.7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68.7	31.3	0.0
	강원권	(58)	71.3	28.7	0.0
	충청권	(212)	82.6	17.4	0.0
	전라권	(182)	74.5	25.5	0.0
	경상권	(488)	65.5	32.9	1.6
	제주	(26)	85.2	13.3	1.5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76.2	23.8	0.0
	2인 가구	(454)	79.0	20.1	0.9
	3인 가구	(659)	66.4	33.3	0.3
	4인 가구	(674)	66.7	33.2	0.1
	5인 가구 이상	(69)	71.0	27.2	1.8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93.1	6.9	0.0
	중학교 졸업	(47)	85.2	9.5	5.3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75.7	23.6	0.6
	대학교 졸업(재학)	(1,144)	65.8	34.2	0.1
	대학원 재학 이상	(27)	68.0	32.0	0.0



### 39. ‘ㄷ’자 모양 철사 침을 사용하여 서류를 철하는 도구를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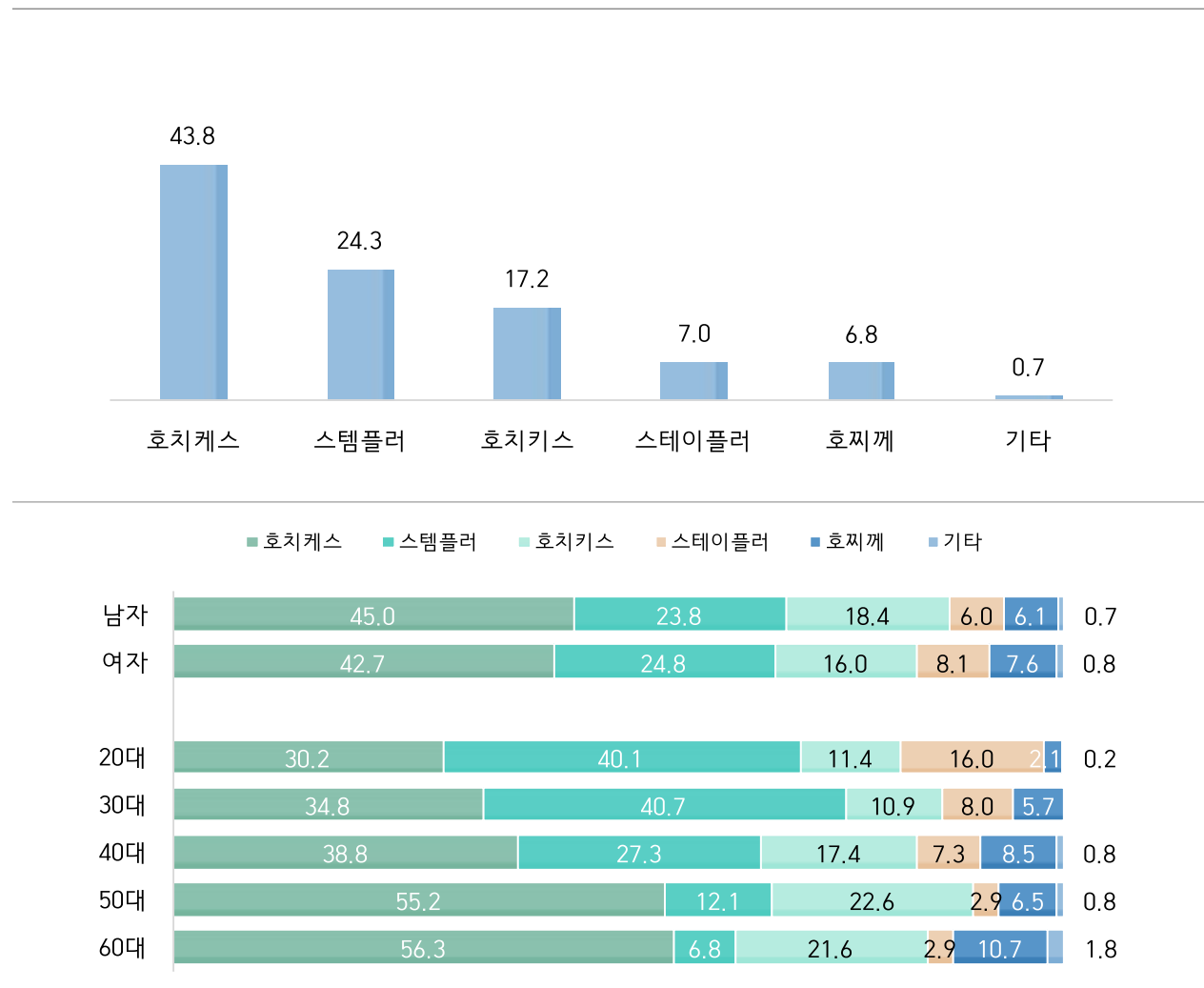
문39

‘ㄷ’자 모양으로 생긴 철사 침(針)을 사용하여 서류를 철하는 도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 ❖ ‘ㄷ’자 모양으로 생긴 철사 침을 사용하여 서류를 철하는 도구를 주로 ‘호치케스’(43.8%)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스탬플러’(24.3%), ‘호치키스’(17.2%), ‘스테이플러’(7.0%), ‘호찌께’(6.8%)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호츠케스’, ‘호치케트’, ‘호치케치’ 등이 있음.

[ 그림 3-39 ] ‘ㄷ’자 모양 철사 침을 사용하여 서류를 철하는 도구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ㄷ’자 모양으로 생긴 철사 침을 사용하여 서류를 철하는 도구를 ‘호치케스’라고 부르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45.0%), 거주 지역별로는 충청권(47.5%), 가구원 수별로는 2인 가구(52.0%), 최종 학력별로는 중학교 졸업(56.0%)에서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표 3-39 ] ‘ㄷ’자 모양 철사 침을 사용하여 서류를 철하는 도구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호치케스	스텝플러	호치키스	스테이플러	호찌끼	기타
전 체		(2,000)	43.8	24.3	17.2	7.0	6.8	0.7
성별	남성	(1,016)	45.0	23.8	18.4	6.0	6.1	0.7
	여성	(984)	42.7	24.8	16.0	8.1	7.6	0.8
연령	20대	(352)	30.2	40.1	11.4	16.0	2.1	0.2
	30대	(353)	34.8	40.7	10.9	8.0	5.7	0.0
	40대	(435)	38.8	27.3	17.4	7.3	8.5	0.8
	50대	(463)	55.2	12.1	22.6	2.9	6.5	0.8
	60대	(397)	56.3	6.8	21.6	2.9	10.7	1.8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45.0	25.6	15.8	7.4	6.0	0.1
	강원권	(58)	24.8	26.5	33.5	14.0	1.2	0.0
	충청권	(212)	47.5	30.7	9.0	9.8	3.0	0.0
	전라권	(182)	47.4	26.6	2.7	0.5	22.8	0.0
	경상권	(488)	41.2	17.7	26.6	6.4	5.3	2.7
	제주	(26)	34.9	23.8	29.6	11.7	0.0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35.4	28.3	17.8	10.5	6.0	2.1
	2인 가구	(454)	52.0	11.9	20.0	4.3	10.3	1.5
	3인 가구	(659)	44.6	26.2	14.9	8.3	5.6	0.4
	4인 가구	(674)	40.3	29.3	17.0	7.0	6.1	0.4
	5인 가구 이상	(69)	35.4	31.1	22.3	6.6	4.5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48.6	0.0	42.9	0.0	0.0	8.5
	중학교 졸업	(47)	56.0	5.3	16.5	2.3	13.5	6.4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52.0	13.4	21.1	4.2	8.4	0.9
	대학교 졸업(재학)	(1,144)	38.3	32.5	14.0	9.1	5.7	0.3
	대학원 재학 이상	(27)	24.9	33.2	33.3	8.5	0.0	0.0



## 40. 드라마, 가요, 뉴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전자제품을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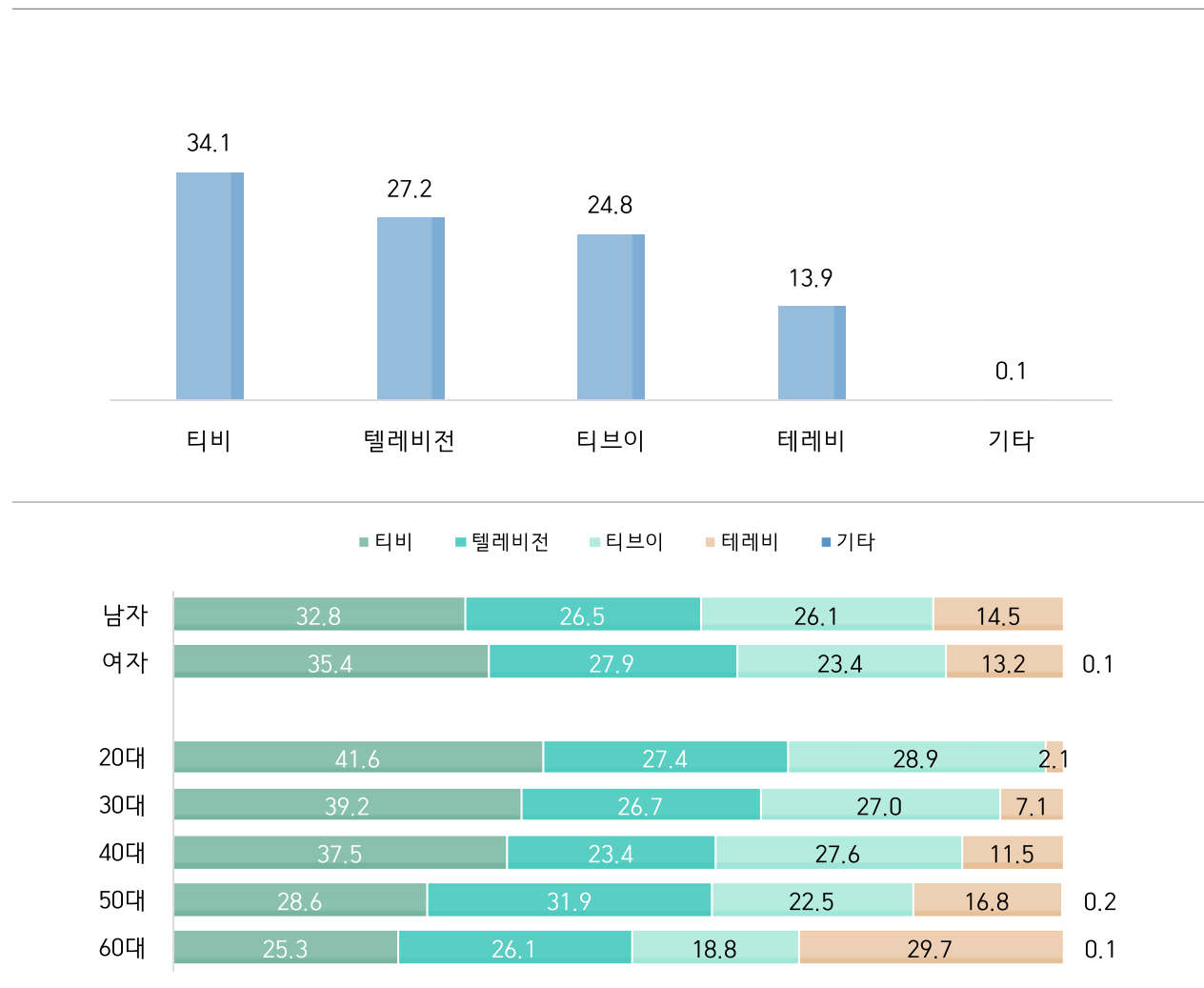
문40

드라마, 가요, 뉴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전자제품을 뭐라고 합니까?

- ❖ 드라마, 가요, 뉴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전자제품을 주로 ‘티브이’(34.1%)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텔레비전’(27.2%), ‘티브이’(24.8%), ‘테레비’(13.9%) 순임.

[ 그림 3-40 ] 드라마, 가요, 뉴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전자제품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드라마, 가요, 뉴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전자제품을 ‘티브이’라고 부르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35.4%),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54.2%),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39.8%),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재학)(38.4%)에서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표 3-40 ] 드라마, 가요, 뉴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전자제품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티브이	텔레비전	티브이	테레비	기타
전 체		(2,000)	34.1	27.2	24.8	13.9	0.1
성별	남성	(1,016)	32.8	26.5	26.1	14.5	0.0
	여성	(984)	35.4	27.9	23.4	13.2	0.1
연령	20대	(352)	41.6	27.4	28.9	2.1	0.0
	30대	(353)	39.2	26.7	27.0	7.1	0.0
	40대	(435)	37.5	23.4	27.6	11.5	0.0
	50대	(463)	28.6	31.9	22.5	16.8	0.2
	60대	(397)	25.3	26.1	18.8	29.7	0.1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35.6	24.2	26.6	13.6	0.0
	강원권	(58)	27.1	45.7	10.5	16.6	0.0
	충청권	(212)	39.0	31.5	19.6	9.5	0.4
	전라권	(182)	37.8	17.1	32.4	12.7	0.0
	경상권	(488)	26.9	33.5	22.9	16.7	0.0
	제주	(26)	54.2	23.7	10.0	10.5	1.5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37.2	24.6	22.8	15.4	0.0
	2인 가구	(454)	27.6	28.7	21.1	22.4	0.1
	3인 가구	(659)	34.3	27.6	27.6	10.4	0.1
	4인 가구	(674)	36.9	26.5	25.6	11.1	0.0
	5인 가구 이상	(69)	39.8	26.0	18.7	15.5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7.9	33.1	0.0	59.0	0.0
	중학교 졸업	(47)	18.7	19.9	22.8	38.6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29.2	28.3	22.1	20.4	0.0
	대학교 졸업(재학)	(1,144)	38.4	26.8	26.6	8.1	0.0
	대학원 재학 이상	(27)	25.9	22.5	36.5	12.0	3.2



## 41. 문이나 자물쇠를 잠그고 여는 데 사용하는 물건을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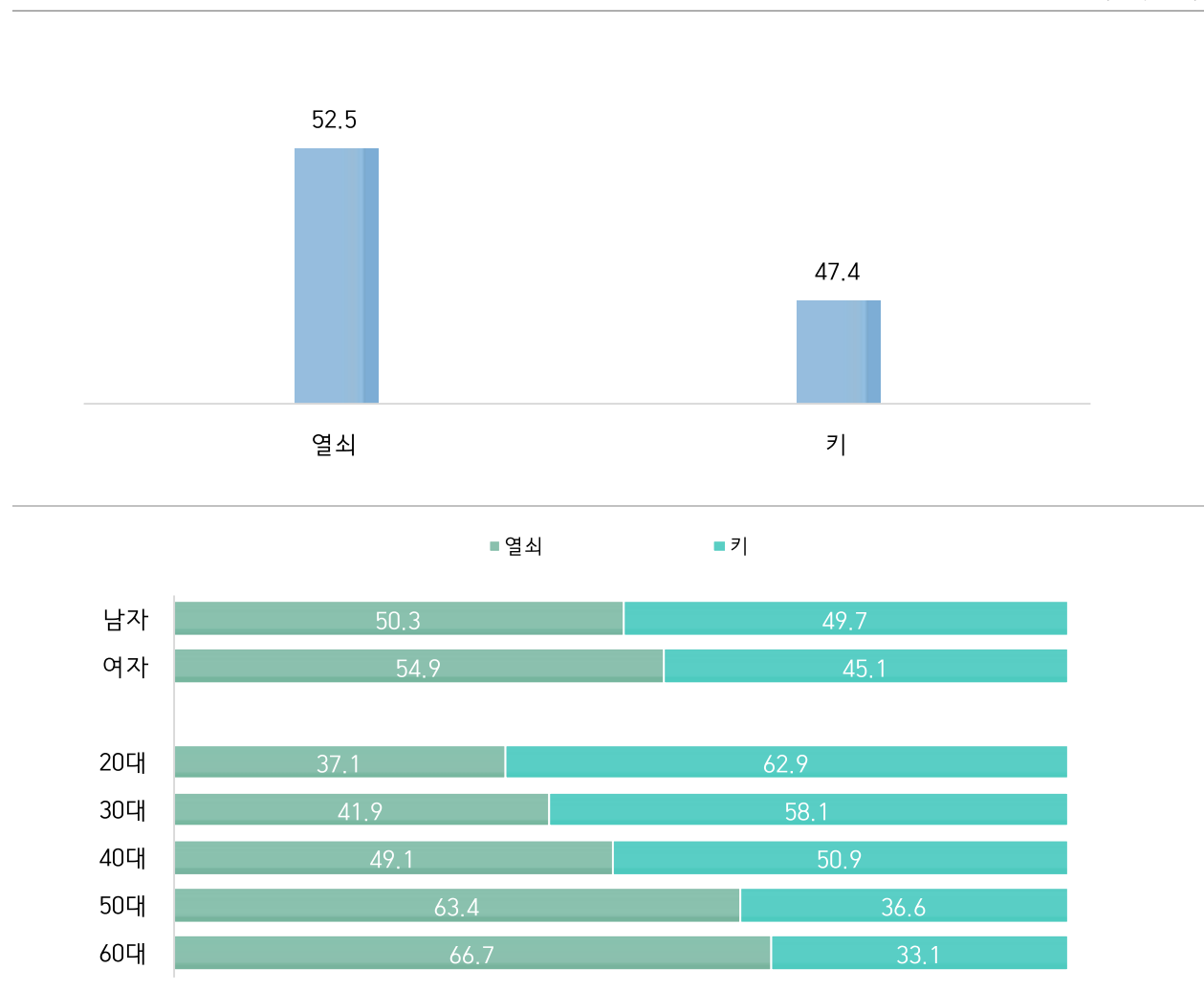
문41

문이나 자물쇠를 잠그고 여는 데 사용하는 물건을 뭐라고 합니까?

- ❖ 문이나 자물쇠를 잠그고 여는 데 사용하는 물건을 주로 ‘열쇠’(52.5%)라고 부르며, 다음으로는 ‘키’(47.4%) 순임.

[ 그림 3-41 ] 문이나 자물쇠를 잠그고 여는 데 사용하는 물건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 전체 응답 기준, 0.1% 미만 응답 값 제외

## ■ 특성별 분석

- ❖ 문이나 자물쇠를 잠그고 여는 데 사용하는 물건을 ‘열쇠’라고 부르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 보면, 성별로는 여성(54.9%),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69.3%), 가구원 수별로는 2인 가구(65.9%), 최종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85.2%)에서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표 3-41 ] 문이나 자물쇠를 잠그고 여는 데 사용하는 물건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열쇠	키	열시
전 체		(2,000)	52.5	47.4	0.0
성별	남성	(1,016)	50.3	49.7	0.1
	여성	(984)	54.9	45.1	0.0
연령	20대	(352)	37.1	62.9	0.0
	30대	(353)	41.9	58.1	0.0
	40대	(435)	49.1	50.9	0.0
	50대	(463)	63.4	36.6	0.0
	60대	(397)	66.7	33.1	0.2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52.3	47.7	0.0
	강원권	(58)	65.7	34.3	0.0
	충청권	(212)	44.1	55.9	0.0
	전라권	(182)	54.8	45.2	0.0
	경상권	(488)	53.4	46.4	0.1
	제주	(26)	69.3	30.7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55.0	45.0	0.0
	2인 가구	(454)	65.9	33.9	0.2
	3인 가구	(659)	48.6	51.4	0.0
	4인 가구	(674)	46.3	53.7	0.0
	5인 가구 이상	(69)	56.5	43.5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85.2	14.8	0.0
	중학교 졸업	(47)	68.3	30.3	1.5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60.8	39.2	0.0
	대학교 졸업(재학)	(1,144)	46.2	53.8	0.0
	대학원 재학 이상	(27)	43.9	56.1	0.0





## 42. 물건을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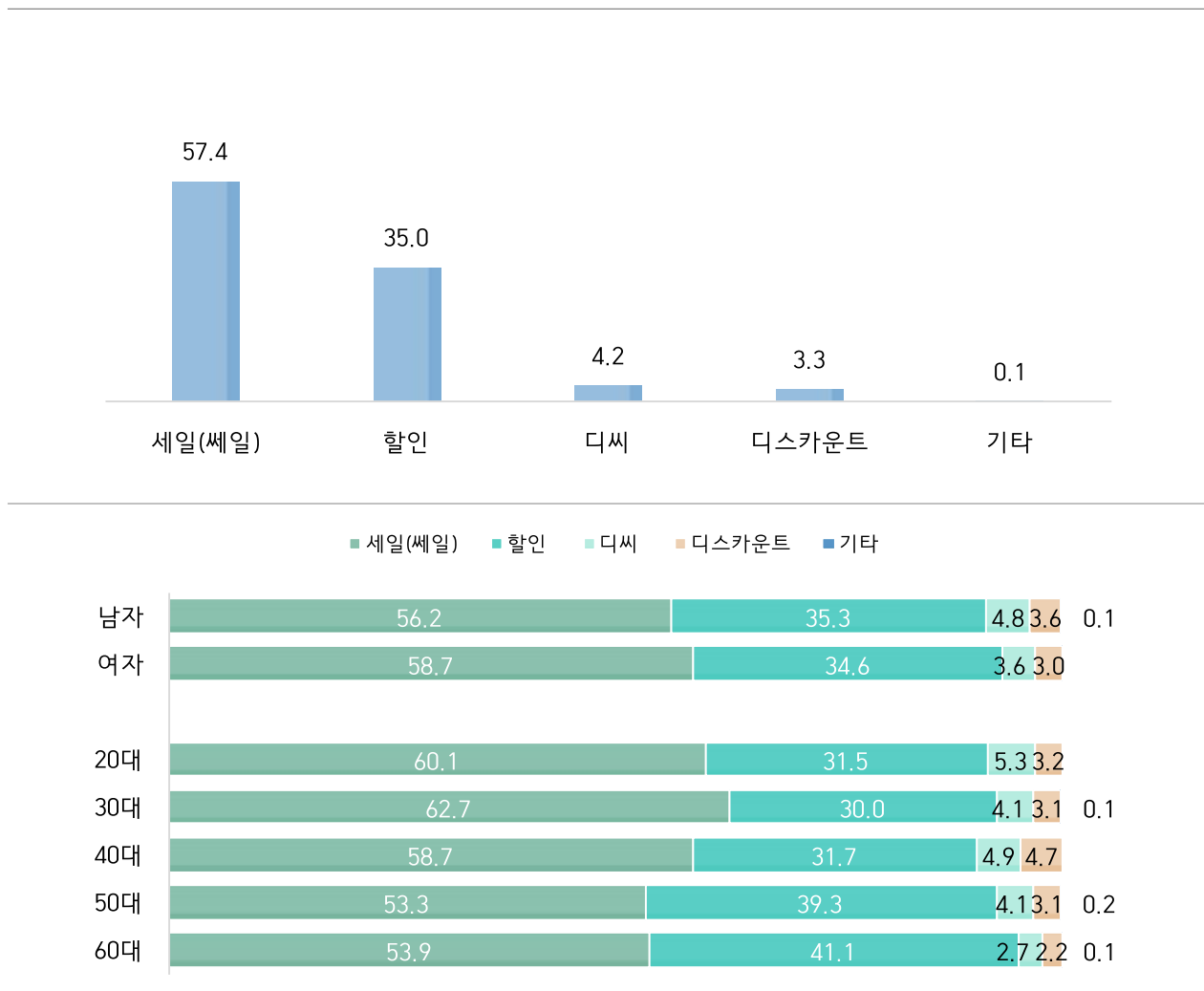
문42

물건을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 물건을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주로 ‘세일(세일)’(57.4%)이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할인’(35.0%), ‘디씨’(4.2%), ‘디스카운트’(3.3%) 순임.

[ 그림 3-42 ] 물건을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물건을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세일(세일)’이라고 부르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58.7%), 연령별로는 30대(62.7%), 거주 지역별로는 충청권(61.9%),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58.9%),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68.7%)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42 ] 물건을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세일(세일)	할인	디씨	디스카운트	기타
전 체		(2,000)	57.4	35.0	4.2	3.3	0.1
성별	남성	(1,016)	56.2	35.3	4.8	3.6	0.1
	여성	(984)	58.7	34.6	3.6	3.0	0.0
연령	20대	(352)	60.1	31.5	5.3	3.2	0.0
	30대	(353)	62.7	30.0	4.1	3.1	0.1
	40대	(435)	58.7	31.7	4.9	4.7	0.0
	50대	(463)	53.3	39.3	4.1	3.1	0.2
	60대	(397)	53.9	41.1	2.7	2.2	0.1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61.2	33.8	3.0	2.0	0.0
	강원권	(58)	46.9	43.9	3.6	5.5	0.0
	충청권	(212)	61.9	28.9	4.3	4.9	0.0
	전라권	(182)	45.8	42.6	7.4	4.2	0.0
	경상권	(488)	53.7	35.5	5.7	4.9	0.3
	제주	(26)	46.5	48.2	3.2	0.7	1.5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58.9	34.9	4.0	2.2	0.0
	2인 가구	(454)	53.9	38.2	3.4	4.1	0.4
	3인 가구	(659)	58.8	33.0	5.7	2.5	0.0
	4인 가구	(674)	58.6	34.1	3.6	3.8	0.0
	5인 가구 이상	(69)	52.6	42.1	2.5	2.8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35.2	64.8	0.0	0.0	0.0
	중학교 졸업	(47)	45.4	44.3	5.9	4.4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56.2	38.2	2.7	2.7	0.2
	대학교 졸업(재학)	(1,144)	58.7	32.6	5.1	3.6	0.0
	대학원 재학 이상	(27)	68.7	17.3	10.3	3.7	0.0



### 43. 보안을 위해 미리 설정하여 쓰는 개인 고유의 숫자와 문자열을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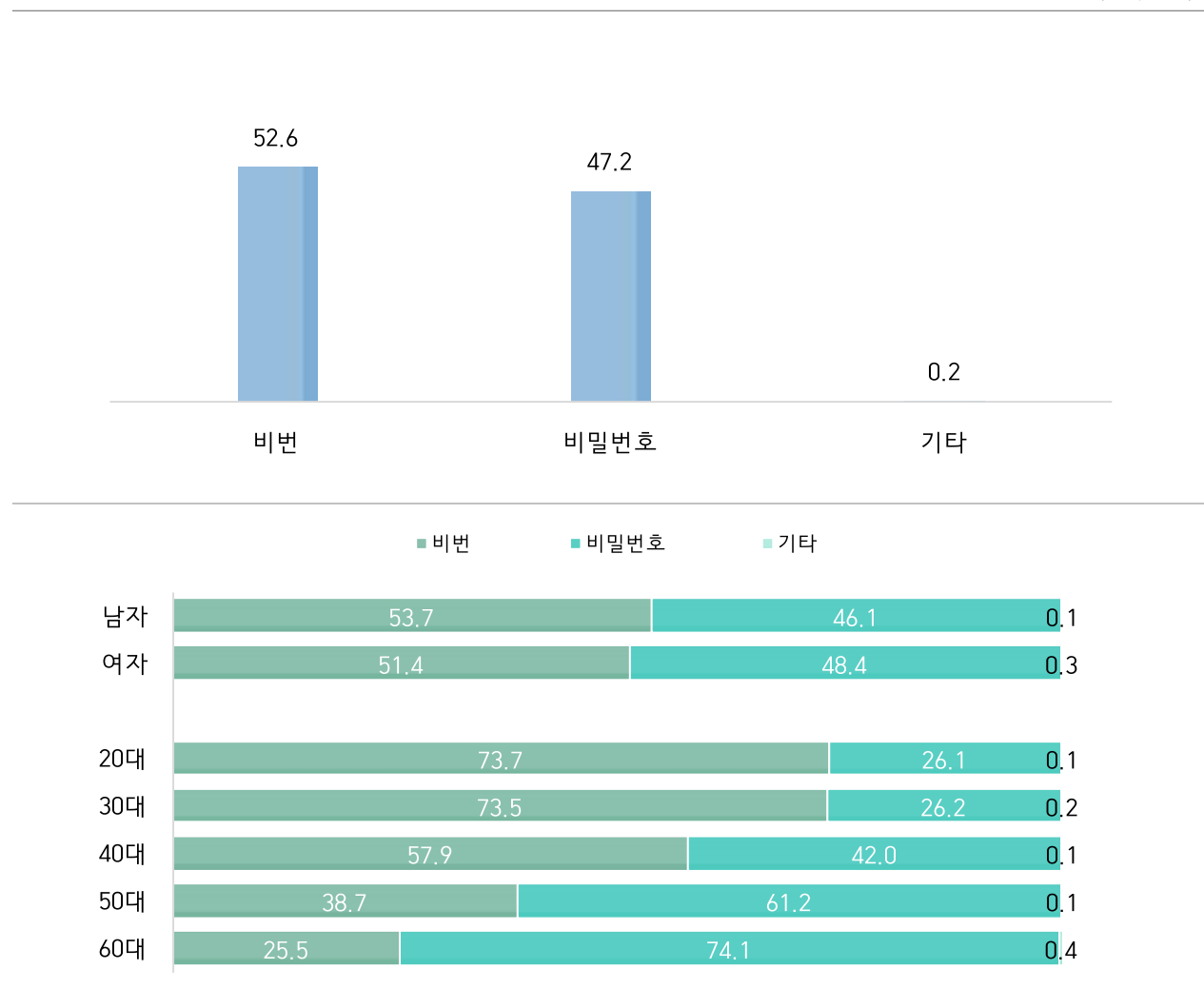
문43

은행이나 컴퓨터 시스템 따위에 접속할 때, 보안을 위하여 미리 설정하여 쓰는 개인 고유의 숫자와 문자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패스워드’** 말고 뭐라고 합니까?

- ❖ 은행이나 컴퓨터 시스템 따위에 접속할 때, 보안을 위하여 미리 설정하여 쓰는 개인 고유의 숫자와 문자열을 주로 ‘비번’(52.6%)이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비밀번호’(47.2%)가 뒤를 이음.

[ 그림 3-43 ] 보안을 위해 미리 설정하여 쓰는 개인 고유의 숫자와 문자열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보안을 위해 미리 설정하여 쓰는 개인 고유의 숫자와 문자열을 ‘비번’이라 부르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53.7%),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53.7%), 가구원 수별로는 4인 가구(60.9%),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71.0%)에서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표 3-43 ] 보안을 위해 미리 설정하여 쓰는 개인 고유의 숫자와 문자열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 례 수	비 번	비밀번호	기 타
전 체		(2,000)	52.6	47.2	0.2
성 별	남성	(1,016)	53.7	46.1	0.1
	여성	(984)	51.4	48.4	0.3
연 령	20대	(352)	73.7	26.1	0.1
	30대	(353)	73.5	26.2	0.2
	40대	(435)	57.9	42.0	0.1
	50대	(463)	38.7	61.2	0.1
	60대	(397)	25.5	74.1	0.4
거 주 지 역	수도권	(1,034)	53.7	46.3	0.0
	강원권	(58)	49.3	50.7	0.0
	충청권	(212)	52.0	47.8	0.2
	전라권	(182)	51.6	48.4	0.0
	경상권	(488)	52.3	47.0	0.7
	제주	(26)	31.7	68.3	0.0
가 구 원 수	1인 가구	(144)	59.3	40.1	0.6
	2인 가구	(454)	33.9	65.8	0.3
	3인 가구	(659)	55.5	44.3	0.2
	4인 가구	(674)	60.9	39.1	0.0
	5인 가구 이상	(69)	51.9	47.4	0.8
최 종 학 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19.1	72.4	8.5
	중학교 졸업	(47)	23.3	76.7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38.4	61.5	0.1
	대학교 졸업(재학)	(1,144)	63.2	36.6	0.2
	대학원 재학 이상	(27)	71.0	29.0	0.0



#### 44. 대형 마트보다 작은 규모의 소매점을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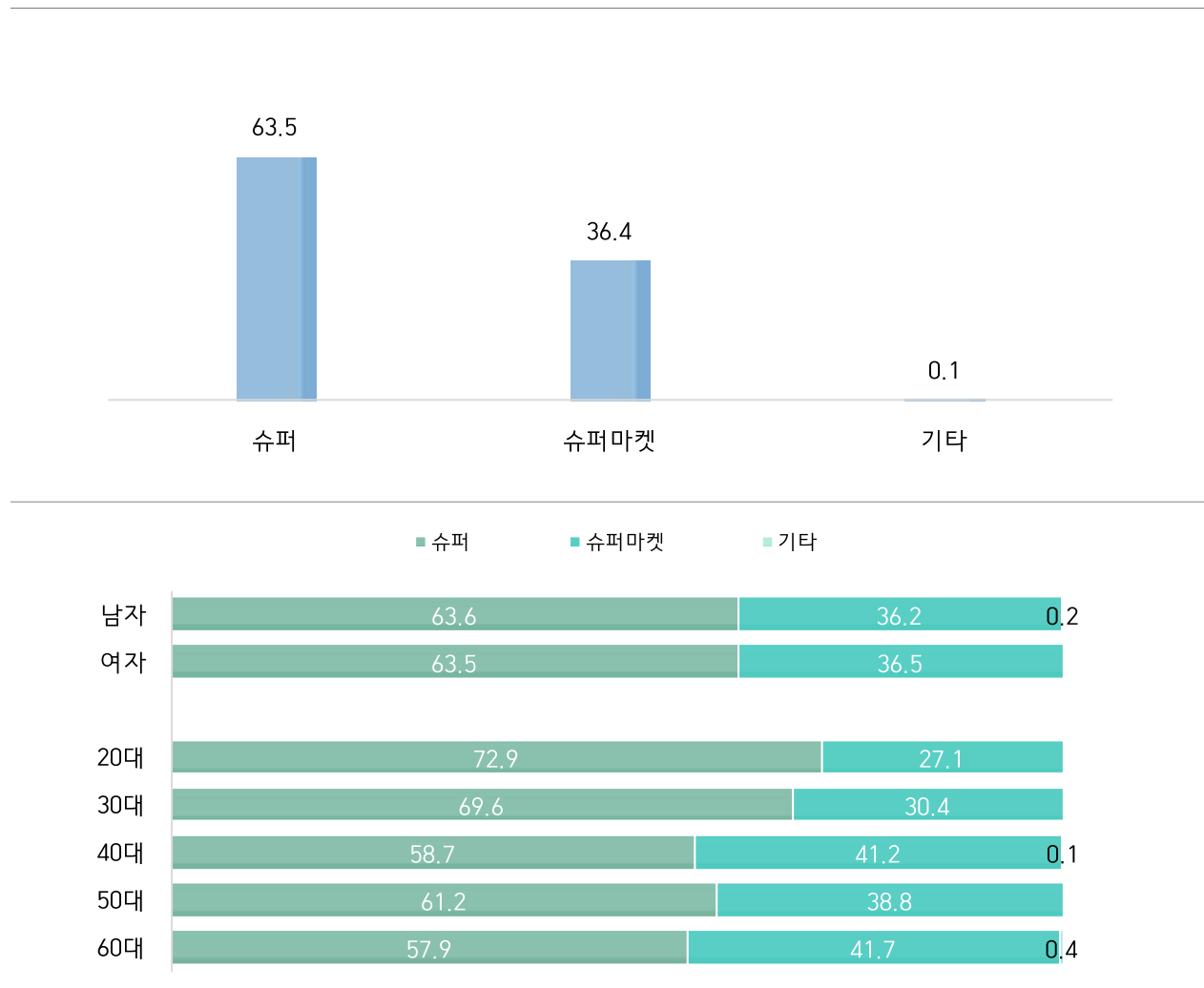
문44

식료품, 일용 잡화, 의료품 따위의 가정용품을 갖추어 놓고 물건을 사들여서 싼값으로 팔며, 물건을 살 사람이 직접 물건을 고르고 물건값은 계산대에서 치르게 하는 대형 마트보다 작은 규모의 소매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슈’자가 들어가는 말로 뭐라고 합니까?

- ❖ 물건을 살 사람이 직접 물건을 고르고 물건값은 계산대에서 치르게 하는 대형 마트보다 작은 규모의 소매점을 주로 ‘슈퍼’(63.5%)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슈퍼마켓’(36.4%)이 뒤를 이음.
- ❖ 기타 응답으로는 ‘가게’가 있음.

[ 그림 3-44 ] 대형 마트보다 작은 규모의 소매점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물건을 살 사람이 직접 물건을 고르고 물건값은 계산대에서 치르게 하는 대형 마트보다 작은 규모의 소매점을 ‘슈퍼’라고 부르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연령별로는 20대(72.9%), 거주 지역별로는 전라권(68.8%),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66.0%),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72.7%)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44 ] 대형 마트보다 작은 규모의 소매점을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 례 수	슈퍼	슈퍼마켓	기타
전 체		(2,000)	63.5	36.4	0.1
성별	남성	(1,016)	63.6	36.2	0.2
	여성	(984)	63.5	36.5	0.0
연령	20대	(352)	72.9	27.1	0.0
	30대	(353)	69.6	30.4	0.0
	40대	(435)	58.7	41.2	0.1
	50대	(463)	61.2	38.8	0.0
	60대	(397)	57.9	41.7	0.4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64.5	35.5	0.0
	강원권	(58)	60.7	39.3	0.0
	충청권	(212)	64.4	35.6	0.0
	전라권	(182)	68.8	31.2	0.0
	경상권	(488)	59.3	40.2	0.5
	제주	(26)	68.3	31.7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66.0	34.0	0.0
	2인 가구	(454)	59.8	39.7	0.5
	3인 가구	(659)	65.7	34.3	0.0
	4인 가구	(674)	64.3	35.7	0.0
	5인 가구 이상	(69)	55.4	44.6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61.1	38.9	0.0
	중학교 졸업	(47)	68.4	30.2	1.5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59.0	40.9	0.1
	대학교 졸업(재학)	(1,144)	66.2	33.8	0.0
	대학원 재학 이상	(27)	72.7	23.6	3.7



## 45.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먹는 시원한 면 요리를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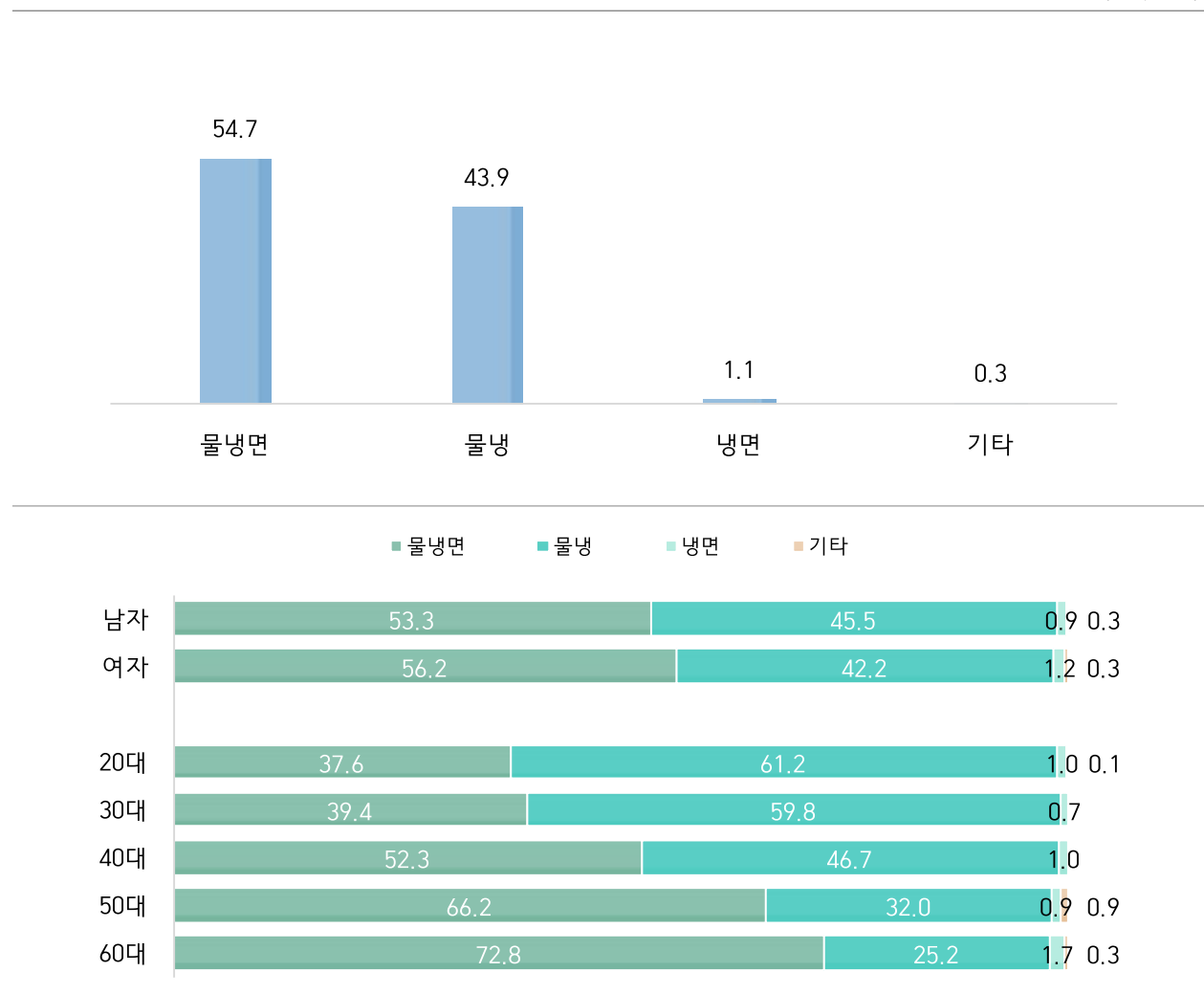
문45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이걸 먹고 싶을 때 '뭐 주세요'라고 합니까?

- ❖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먹는 시원한 면요리를 주문할 때 주로 '물냉면'(54.7%)이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물냉'(43.9%), '냉면'(1.1%)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비냉', '후식 냉면'이 있음.

[ 그림 3-45 ]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먹는 시원한 면 요리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먹는 시원한 면 요리를 ‘물냉면’이라고 부르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56.2%),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68.9%), 가구원 수별로는 2인 가구(64.3%), 최종 학력별로는 중학교 졸업(73.8%)에서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표 3-45 ]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먹는 시원한 면 요리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물냉면	물냉	냉면	기타
전 체		(2,000)	54.7	43.9	1.1	0.3
성별	남성	(1,016)	53.3	45.5	0.9	0.3
	여성	(984)	56.2	42.2	1.2	0.3
연령	20대	(352)	37.6	61.2	1.0	0.1
	30대	(353)	39.4	59.8	0.7	0.0
	40대	(435)	52.3	46.7	1.0	0.0
	50대	(463)	66.2	32.0	0.9	0.9
	60대	(397)	72.8	25.2	1.7	0.3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52.6	46.5	0.6	0.3
	강원권	(58)	39.4	60.6	0.0	0.0
	충청권	(212)	54.9	44.5	0.0	0.7
	전라권	(182)	53.3	46.7	0.0	0.0
	경상권	(488)	60.8	35.7	3.2	0.3
	제주	(26)	68.9	31.1	0.0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48.3	50.1	1.1	0.5
	2인 가구	(454)	64.3	33.8	1.8	0.2
	3인 가구	(659)	52.6	46.2	0.7	0.5
	4인 가구	(674)	52.1	46.9	0.8	0.2
	5인 가구 이상	(69)	52.1	45.3	2.5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56.0	27.0	17.0	0.0
	중학교 졸업	(47)	73.8	24.8	1.5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63.0	35.9	0.8	0.3
	대학교 졸업(재학)	(1,144)	48.5	50.2	1.1	0.2
	대학원 재학 이상	(27)	49.4	47.4	0.0	3.2





## Ⅱ 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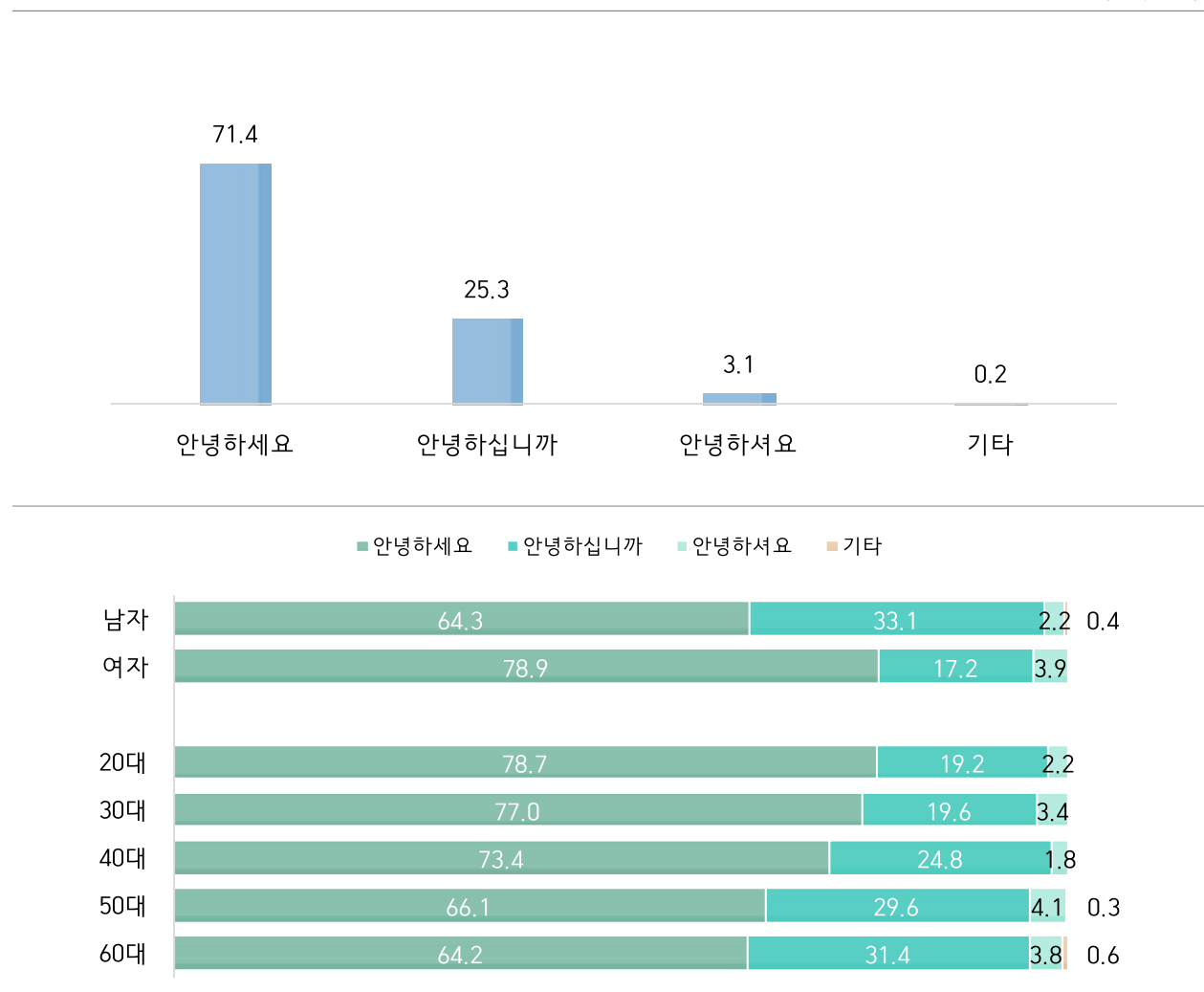
### 1.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인사할 때 하는 말

문1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인사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 ❖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인사할 때 주로 ‘안녕하세요’(71.4%)라고 하며, 다음으로 ‘안녕하십니까’(25.3%), ‘안녕하셔요’(3.1%)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잘있었어요’가 있음.

[ 그림 3-46 ]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인사할 때 하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78.9%),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91.2%), 가구원 수별로는 4인 가구(74.8%),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재학)(73.4%)에서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표 3-46 ]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인사할 때 하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타
전 체		(2,000)	71.4	25.3	3.1	0.2
성별	남성	(1,016)	64.3	33.1	2.2	0.4
	여성	(984)	78.9	17.2	3.9	0.0
연령	20대	(352)	78.7	19.2	2.2	0.0
	30대	(353)	77.0	19.6	3.4	0.0
	40대	(435)	73.4	24.8	1.8	0.0
	50대	(463)	66.1	29.6	4.1	0.3
	60대	(397)	64.2	31.4	3.8	0.6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71.3	26.2	2.3	0.2
	강원권	(58)	78.3	20.5	0.0	1.2
	충청권	(212)	79.6	17.8	2.6	0.0
	전라권	(182)	62.7	30.6	6.7	0.0
	경상권	(488)	69.6	26.2	4.0	0.3
	제주	(26)	91.2	8.8	0.0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63.3	33.5	3.2	0.0
	2인 가구	(454)	69.7	26.3	3.5	0.5
	3인 가구	(659)	71.0	25.1	3.8	0.2
	4인 가구	(674)	74.8	22.8	2.4	0.0
	5인 가구 이상	(69)	71.9	28.1	0.0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65.6	34.4	0.0	0.0
	중학교 졸업	(47)	63.0	30.5	6.5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69.2	27.1	3.5	0.3
	대학교 졸업(재학)	(1,144)	73.4	23.7	2.7	0.1
	대학원 재학 이상	(27)	70.8	29.2	0.0	0.0



## 2. 백화점에서 손님이 삼십만 원짜리 물건값을 물어봤을 때 점원이 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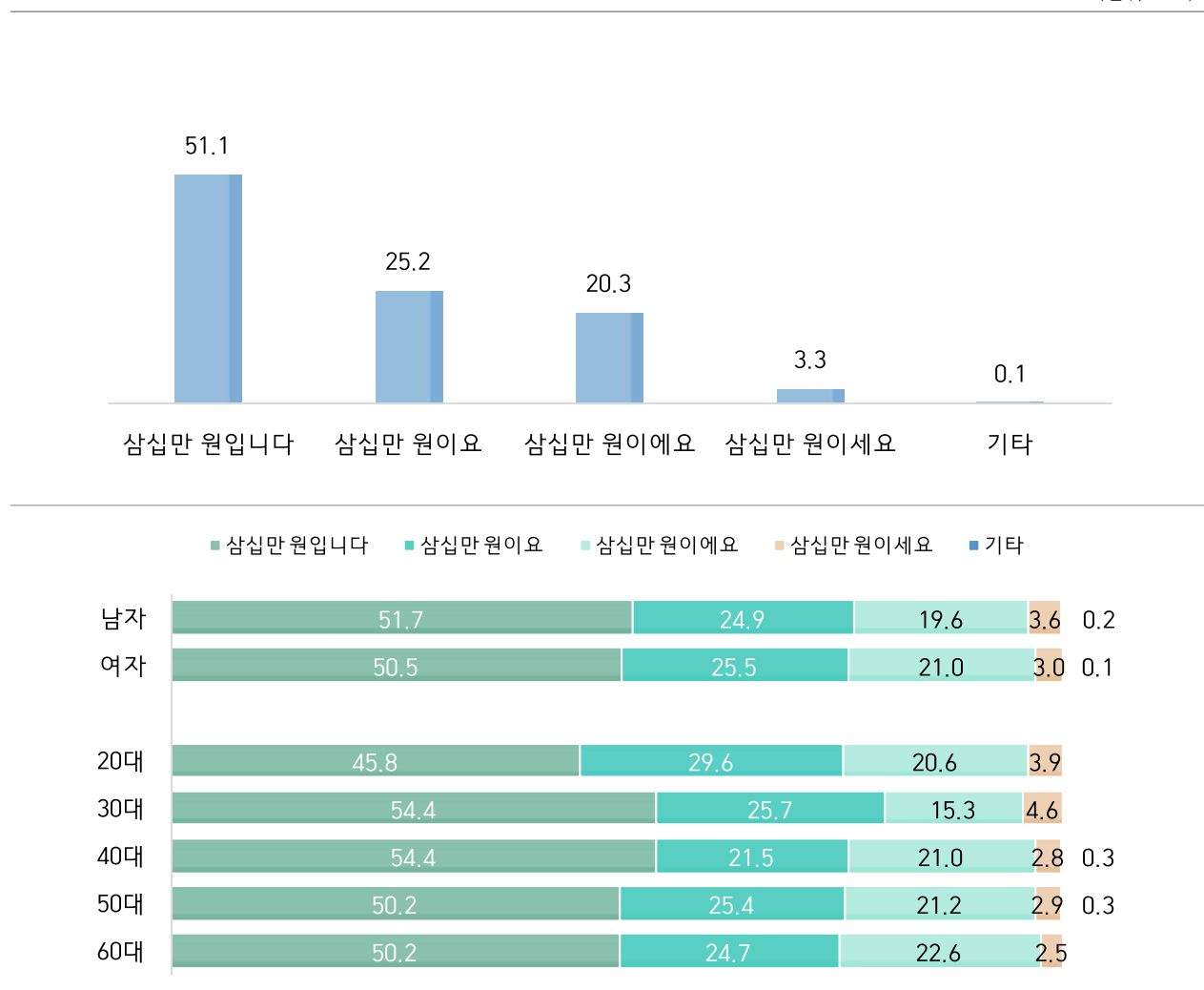
문2

백화점에서 손님이 점원에게 물건값을 물어봤을 때 값이 삼십만 원이면 점원은 보통 어떻게 대답합니까?

- ❖ 백화점에서 손님이 점원에게 물건값을 물어봤을 때 값이 삼십만 원인 경우, 점원은 주로 ‘삼십만 원입니다’(51.1%)라고 대답하며, 다음으로 ‘삼십만 원이요’(25.2%), ‘삼십만 원이에요’(20.3%), ‘삼십만 원이세요’(3.3%)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삼십만 원 되시겠습니다’가 있음.

[ 그림 3-47 ] 백화점에서 손님이 삼십만 원짜리 물건값을 물어봤을 때 점원이 하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점원이 물건값을 ‘삼십만 원입니다’라 대답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51.7%), 연령별로는 30대 및 40대(각각 54.4%),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권(83.3%),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58.1%),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57.9%)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47 ] 백화점에서 손님이 삼십만 원짜리 물건값을 물어봤을 때 점원이 하는 말

(단위 : %)

구 분		사 례 수	삼십만 원입니다	삼십만 원이요	삼십만 원이에요	삼십만 원이세요	기타
전 체		(2,000)	51.1	25.2	20.3	3.3	0.1
성별	남성	(1,016)	51.7	24.9	19.6	3.6	0.2
	여성	(984)	50.5	25.5	21.0	3.0	0.1
연령	20대	(352)	45.8	29.6	20.6	3.9	0.0
	30대	(353)	54.4	25.7	15.3	4.6	0.0
	40대	(435)	54.4	21.5	21.0	2.8	0.3
	50대	(463)	50.2	25.4	21.2	2.9	0.3
	60대	(397)	50.2	24.7	22.6	2.5	0.0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48.1	25.6	22.9	3.3	0.1
	강원권	(58)	83.3	13.8	1.7	1.1	0.0
	충청권	(212)	51.4	27.1	20.2	1.2	0.0
	전라권	(182)	29.9	37.1	21.0	11.9	0.0
	경상권	(488)	59.8	21.6	17.2	1.2	0.3
	제주	(26)	82.7	4.5	10.6	2.2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58.1	18.1	16.2	7.6	0.0
	2인 가구	(454)	48.4	26.2	23.0	2.1	0.4
	3인 가구	(659)	50.1	27.1	19.8	3.0	0.0
	4인 가구	(674)	52.2	24.6	19.9	3.3	0.0
	5인 가구 이상	(69)	53.2	21.9	19.4	4.4	1.1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47.2	8.8	44.0	0.0	0.0
	중학교 졸업	(47)	52.6	34.7	12.7	0.0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49.1	25.5	22.3	2.9	0.2
	대학교 졸업(재학)	(1,144)	52.3	25.0	19.0	3.7	0.1
	대학원 재학 이상	(27)	57.9	15.0	22.3	4.8	0.0



### 3. 간호사가 환자에게 진료실로 들어가라고 할 때 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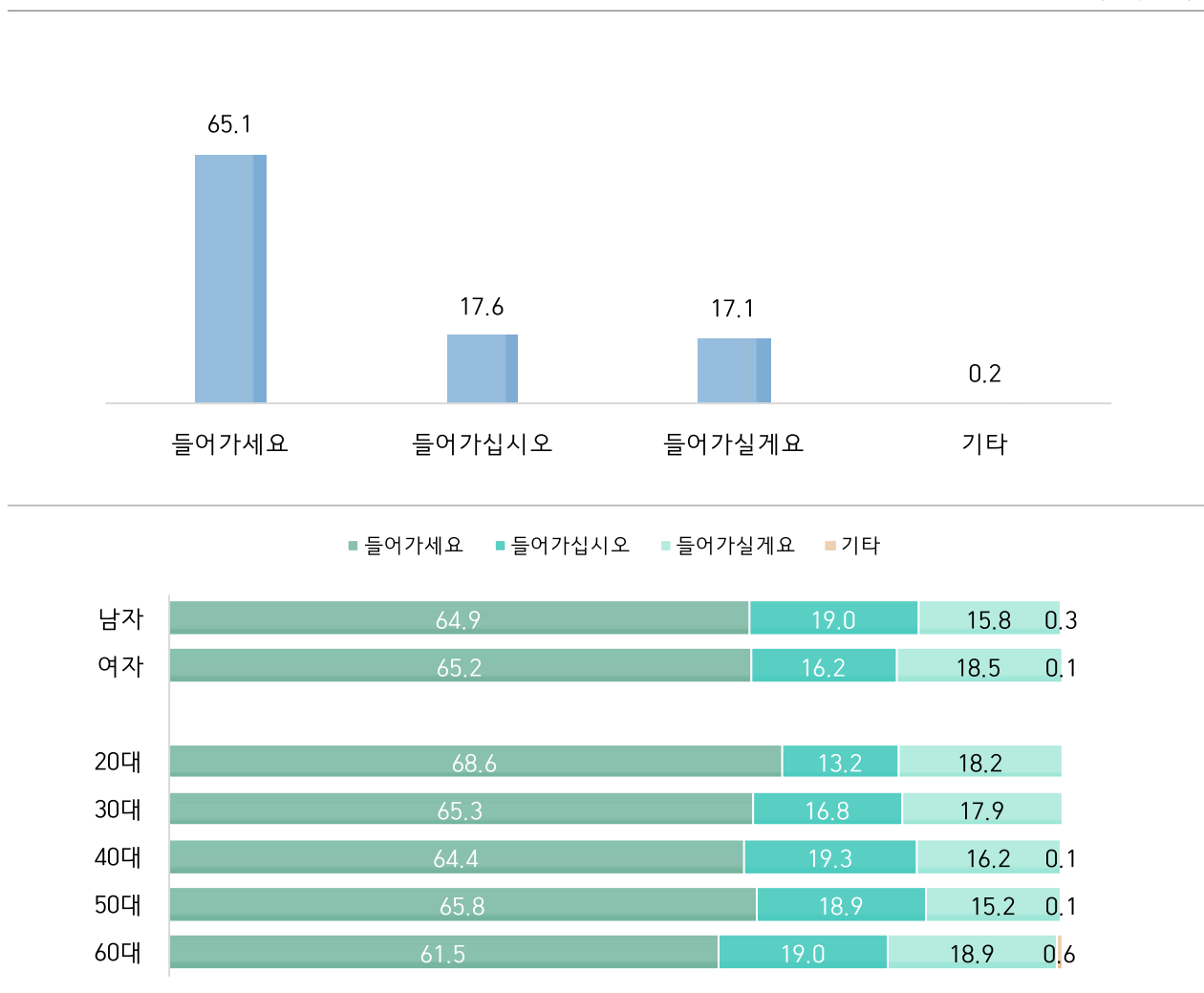
문3

병원 대기실에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진료실로 들어가라고 할 때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진료실로 들어’ 다음에 뭐라고 하죠?

- ❖ 간호사가 환자를 진료실로 안내할 때, 주로 진료실로 ‘들어가세요’(65.1%)라고 말하며, 다음으로 ‘들어가십시오’(17.6%), ‘들어가실게요’(17.1%)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가 있음.

[ 그림 3-48 ] 간호사가 환자에게 진료실로 들어가라고 할 때 하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병원 대기실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진료실로 안내할 때, 진료실로 ‘들어가세요’라고 말한다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65.2%), 연령별로는 20대(68.6%),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73.7%), 가구원 수별로는 3인 가구(69.3%),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재학)(67.4%)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48 ] 간호사가 환자에게 진료실로 들어가라고 할 때 하는 말

(단위 : %)

구 분		사 례 수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실게요	기타
전 체		(2,000)	65.1	17.6	17.1	0.2
성별	남성	(1,016)	64.9	19.0	15.8	0.3
	여성	(984)	65.2	16.2	18.5	0.1
연령	20대	(352)	68.6	13.2	18.2	0.0
	30대	(353)	65.3	16.8	17.9	0.0
	40대	(435)	64.4	19.3	16.2	0.1
	50대	(463)	65.8	18.9	15.2	0.1
	60대	(397)	61.5	19.0	18.9	0.6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64.7	16.1	19.0	0.1
	강원권	(58)	54.5	9.9	34.7	0.9
	충청권	(212)	63.9	13.4	22.7	0.0
	전라권	(182)	57.9	24.2	17.8	0.0
	경상권	(488)	69.7	21.7	8.3	0.3
	제주	(26)	73.7	6.2	20.1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53.5	20.2	26.3	0.0
	2인 가구	(454)	65.1	17.7	16.5	0.8
	3인 가구	(659)	69.3	16.3	14.4	0.0
	4인 가구	(674)	63.9	18.4	17.7	0.0
	5인 가구 이상	(69)	59.7	18.0	22.3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62.2	0.0	29.3	8.5
	중학교 졸업	(47)	57.7	26.0	16.3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62.1	20.7	16.9	0.3
	대학교 졸업(재학)	(1,144)	67.4	15.3	17.3	0.0
	대학원 재학 이상	(27)	63.6	23.0	13.4	0.0



#### 4. 나를 도와준 유일한 친구에게 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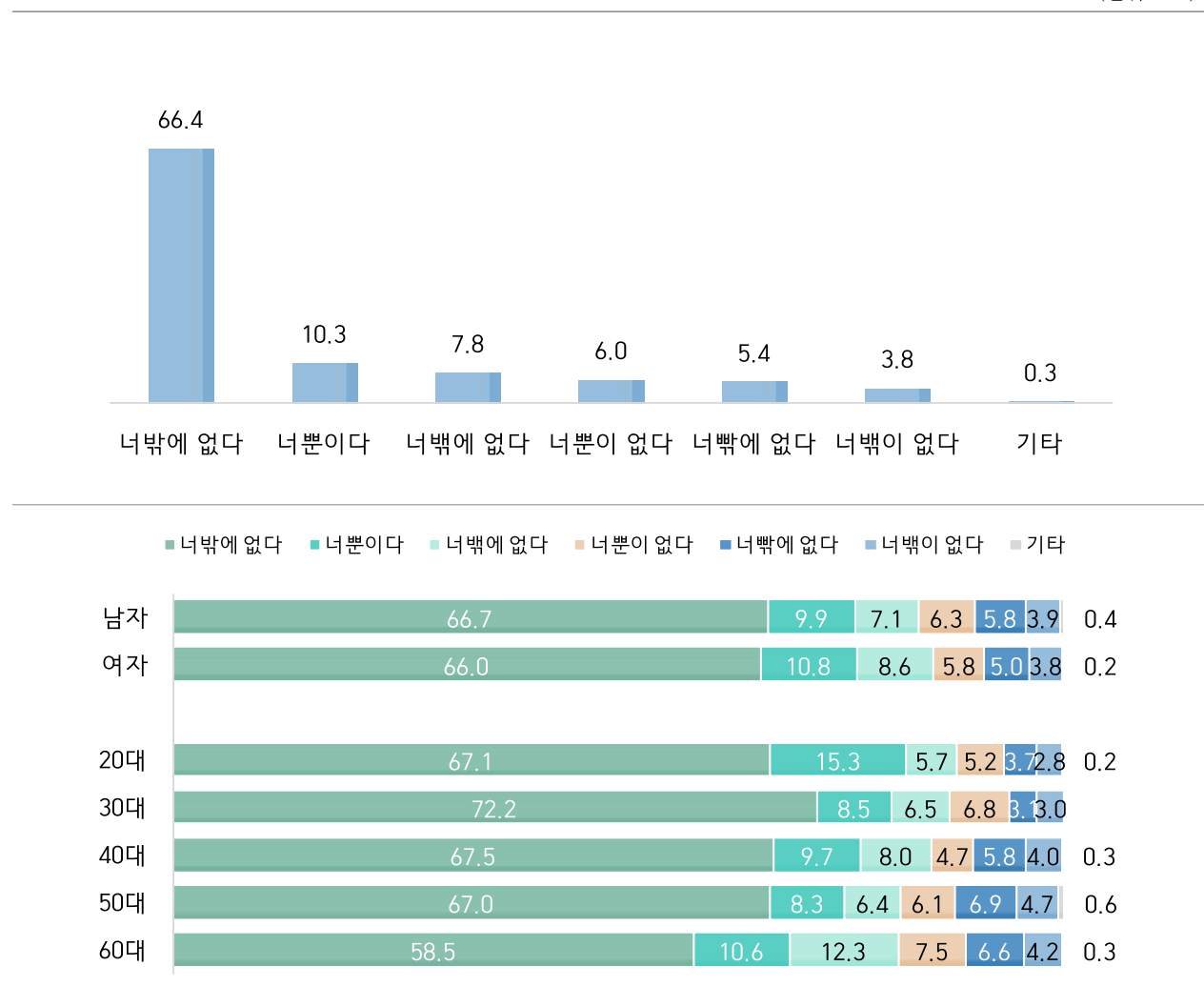
문4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를 한 친구만이 도와주었을 때, 그 친구에게 하는 말로 ‘그래도 날 생각해주는 사람은 너’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 ❖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를 한 친구만이 도와준 경우, 그 친구에게 주로 ‘너밖에 없다’(66.4%)고 말하며, 다음으로 ‘너뿐이다’(10.3%), ‘너백에 없다’(7.8%), ‘너뿐이 없다’(6.0%), ‘너뺏에 없다’(5.4%), ‘너백이 없다’(3.8%)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니밖에 없다’, ‘니빠이 없다’ 등이 있음.

[ 그림 3-49 ] 나를 도와준 유일한 친구에게 하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를 한 친구만이 도와주었을 때, 그 친구에게 ‘너밖에 없다’고 말하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66.7%), 연령별로는 30대(72.2%),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87.3%), 가구원 수별로는 4인 가구(71.1%),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70.4%)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49 ] 나를 도와준 유일한 친구에게 하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너밖에 없다	너뿐이다	너백에 없다	너뿐이 없다	너뻑에 없다	너백이 없다	기타
전 체		(2,000)	66.4	10.3	7.8	6.0	5.4	3.8	0.3
성별	남성	(1,016)	66.7	9.9	7.1	6.3	5.8	3.9	0.4
	여성	(984)	66.0	10.8	8.6	5.8	5.0	3.8	0.2
연령	20대	(352)	67.1	15.3	5.7	5.2	3.7	2.8	0.2
	30대	(353)	72.2	8.5	6.5	6.8	3.1	3.0	0.0
	40대	(435)	67.5	9.7	8.0	4.7	5.8	4.0	0.3
	50대	(463)	67.0	8.3	6.4	6.1	6.9	4.7	0.6
	60대	(397)	58.5	10.6	12.3	7.5	6.6	4.2	0.3
	제주	(26)	87.3	4.0	0.0	7.0	1.7	0.0	0.0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68.6	10.5	6.8	6.8	3.8	3.5	0.0
	강원권	(58)	84.5	3.7	4.9	0.8	0.0	6.0	0.0
	충청권	(212)	74.8	11.3	4.0	6.2	2.6	1.1	0.0
	전라권	(182)	45.3	17.5	6.7	9.9	10.0	10.5	0.0
	경상권	(488)	62.6	8.0	12.7	3.3	9.0	3.2	1.2
	제주	(26)	87.3	4.0	0.0	7.0	1.7	0.0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60.2	15.8	7.6	6.9	6.3	3.1	0.0
	2인 가구	(454)	61.7	9.9	11.6	7.4	5.2	4.0	0.3
	3인 가구	(659)	66.6	11.5	6.0	6.4	5.5	3.9	0.1
	4인 가구	(674)	71.1	8.0	7.5	4.5	4.8	3.6	0.5
	5인 가구 이상	(69)	61.8	14.1	2.8	6.2	9.9	5.2	0.0
	제주	(26)	87.3	4.0	0.0	7.0	1.7	0.0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49.5	26.4	15.3	8.8	0.0	0.0	0.0
	중학교 졸업	(47)	35.9	14.6	10.8	18.0	11.3	9.4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64.3	10.1	9.7	4.5	6.6	4.4	0.4
	대학교 졸업(재학)	(1,144)	69.0	10.2	6.4	6.6	4.3	3.2	0.2
	대학원 재학 이상	(27)	70.4	9.4	3.2	4.0	6.1	3.2	3.7
	제주	(26)	87.3	4.0	0.0	7.0	1.7	0.0	0.0





## 5. 잘 아는 초등학생을 만나 학교에 가는 것인지 궁금할 때 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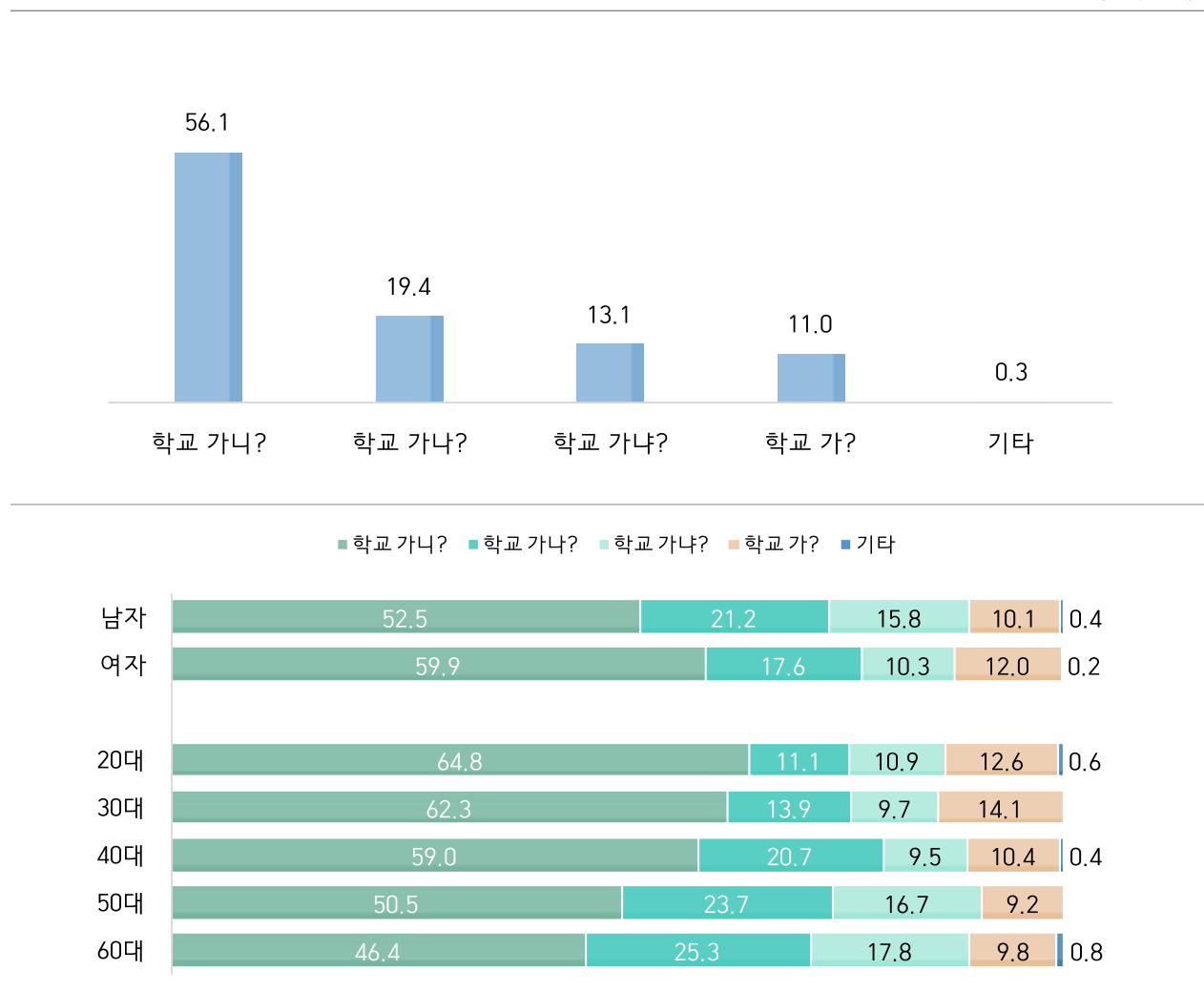
문5

길을 가다가 잘 아는 초등학생을 만났을 때, 그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인지 궁금하면 어떻게 묻습니까?

- ❖ 길을 가다가 잘 아는 초등학생을 만났을 때, 학생에게 주로 ‘학교 가니?’(56.1%)라고 물으며, 다음으로 ‘학교 가나?’(19.4%), ‘학교 가냐?’(13.1%), ‘학교 가?’(11.0%)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학교 가는 길이니?’, ‘학교 가는 길인가?’, ‘학교 가는 길이야?’ 등이 있음.

[ 그림 3-50 ] 잘 아는 초등학생을 만나 학교에 가는 것인지 궁금할 때 하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잘 아는 초등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인지 궁금할 때 ‘학교 가니?’라고 묻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59.9%),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91.0%), 가구원 수별로는 4인 가구(60.2%),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62.5%)에서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표 3-50 ] 잘 아는 초등학생을 만나 학교에 가는 것인지 궁금할 때 하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학교 가니?	학교 가나?	학교 가냐?	학교 가?	기타
전 체		(2,000)	56.1	19.4	13.1	11.0	0.3
성별	남성	(1,016)	52.5	21.2	15.8	10.1	0.4
	여성	(984)	59.9	17.6	10.3	12.0	0.2
연령	20대	(352)	64.8	11.1	10.9	12.6	0.6
	30대	(353)	62.3	13.9	9.7	14.1	0.0
	40대	(435)	59.0	20.7	9.5	10.4	0.4
	50대	(463)	50.5	23.7	16.7	9.2	0.0
	60대	(397)	46.4	25.3	17.8	9.8	0.8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62.4	11.2	13.7	12.3	0.4
	강원권	(58)	70.6	5.5	8.4	15.5	0.0
	충청권	(212)	60.6	8.9	12.0	18.5	0.0
	전라권	(182)	58.1	11.3	18.7	11.8	0.0
	경상권	(488)	36.5	47.1	11.3	4.6	0.4
	제주	(26)	91.0	0.0	1.5	5.8	1.7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57.7	18.0	16.1	8.2	0.0
	2인 가구	(454)	47.2	21.5	17.8	12.5	1.0
	3인 가구	(659)	58.1	18.0	13.3	10.6	0.0
	4인 가구	(674)	60.2	20.0	8.9	10.5	0.4
	5인 가구 이상	(69)	53.3	15.9	14.6	16.1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7.9	43.9	48.2	0.0	0.0
	중학교 졸업	(47)	45.5	24.1	23.0	5.9	1.5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50.5	24.5	13.6	11.2	0.2
	대학교 졸업(재학)	(1,144)	60.7	15.7	12.2	11.1	0.4
	대학원 재학 이상	(27)	62.5	12.1	7.1	18.3	0.0



## 6. 매우 바빠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할 때, ‘지금은’ 다음에 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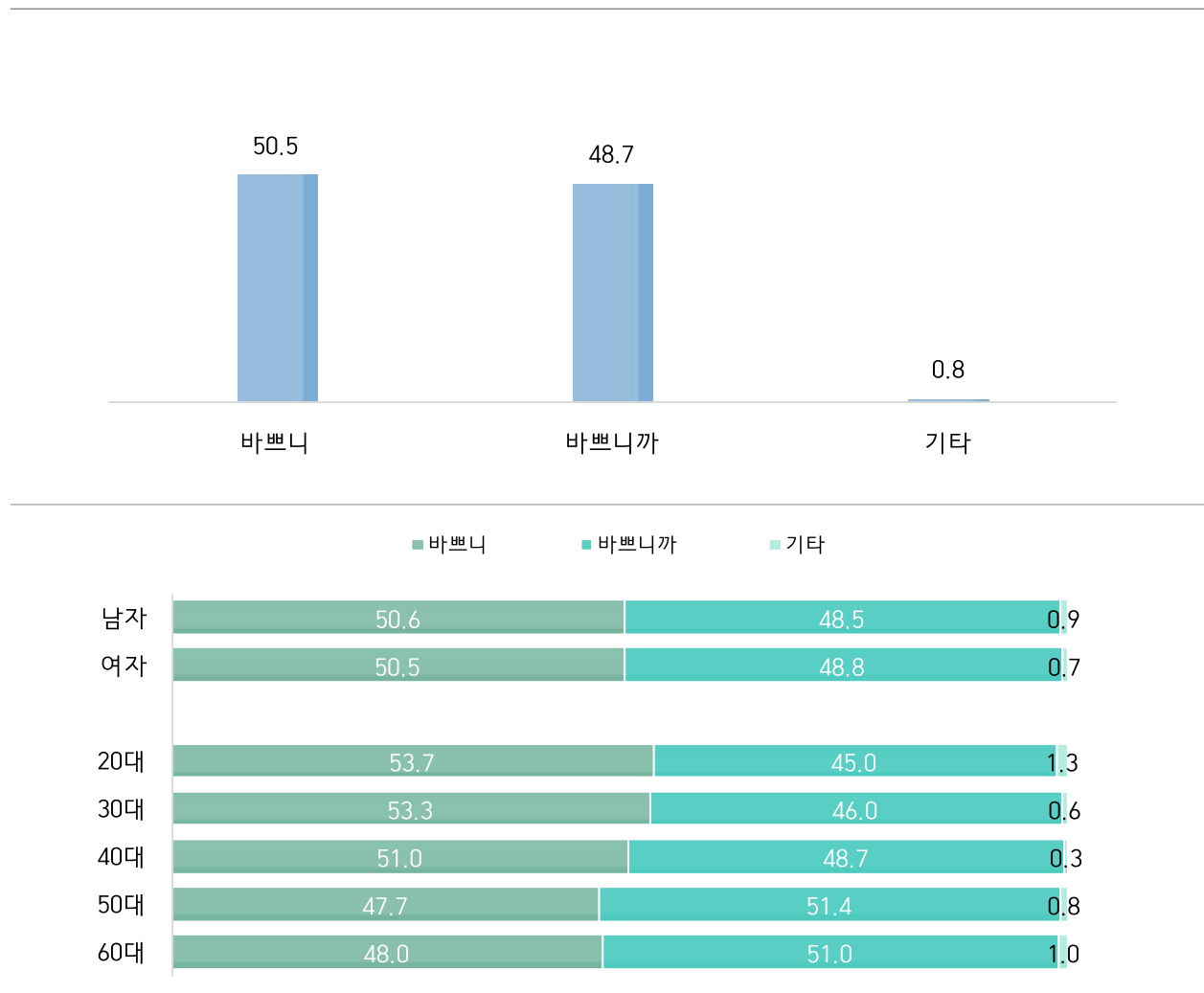
문6

아주 바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자고 할 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하려면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은**’ 다음에 뭐라고 하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합니까?

- ❖ 아주 바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할 때, ‘지금은’ 다음에 ‘바쁘니’라고 말한다는 응답이 50.5%로 가장 높았고, ‘바쁘니까’라고 말한다는 응답이 48.7%로 나타남.
- ❖ 기타 응답으로는 ‘바빠서’, ‘바쁘다’, ‘바빠’ 등이 있음.

[ 그림 3-51 ] 매우 바빠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할 때, ‘지금은’ 다음에 하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아주 바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할 때, ‘지금은’ 다음에 ‘바쁘니’라고 말한다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연령별로는 20대(53.7%), 거주 지역별로는 전라권(63.1%), 가구원 수별로는 4인 가구(52.6%), 최종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재학)(51.1%)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51 ] 매우 바빠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할 때, ‘지금은’ 다음에 하는 말

(단위 : %)

구 분		사 례 수	바쁘니	바쁘니까	기타
전 체		(2,000)	50.5	48.7	0.8
성별	남성	(1,016)	50.6	48.5	0.9
	여성	(984)	50.5	48.8	0.7
연령	20대	(352)	53.7	45.0	1.3
	30대	(353)	53.3	46.0	0.6
	40대	(435)	51.0	48.7	0.3
	50대	(463)	47.7	51.4	0.8
	60대	(397)	48.0	51.0	1.0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55.8	44.1	0.1
	강원권	(58)	58.0	38.7	3.3
	충청권	(212)	41.7	58.3	0.0
	전라권	(182)	63.1	35.5	1.4
	경상권	(488)	39.1	58.8	2.1
	제주	(26)	24.2	75.8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46.6	52.3	1.1
	2인 가구	(454)	49.1	49.8	1.0
	3인 가구	(659)	51.0	48.5	0.4
	4인 가구	(674)	52.6	46.7	0.7
	5인 가구 이상	(69)	43.5	53.8	2.7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41.1	58.9	0.0
	중학교 졸업	(47)	39.7	60.3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51.1	48.4	0.5
	대학교 졸업(재학)	(1,144)	50.8	48.2	1.0
	대학원 재학 이상	(27)	45.6	50.7	3.7



## 7. 방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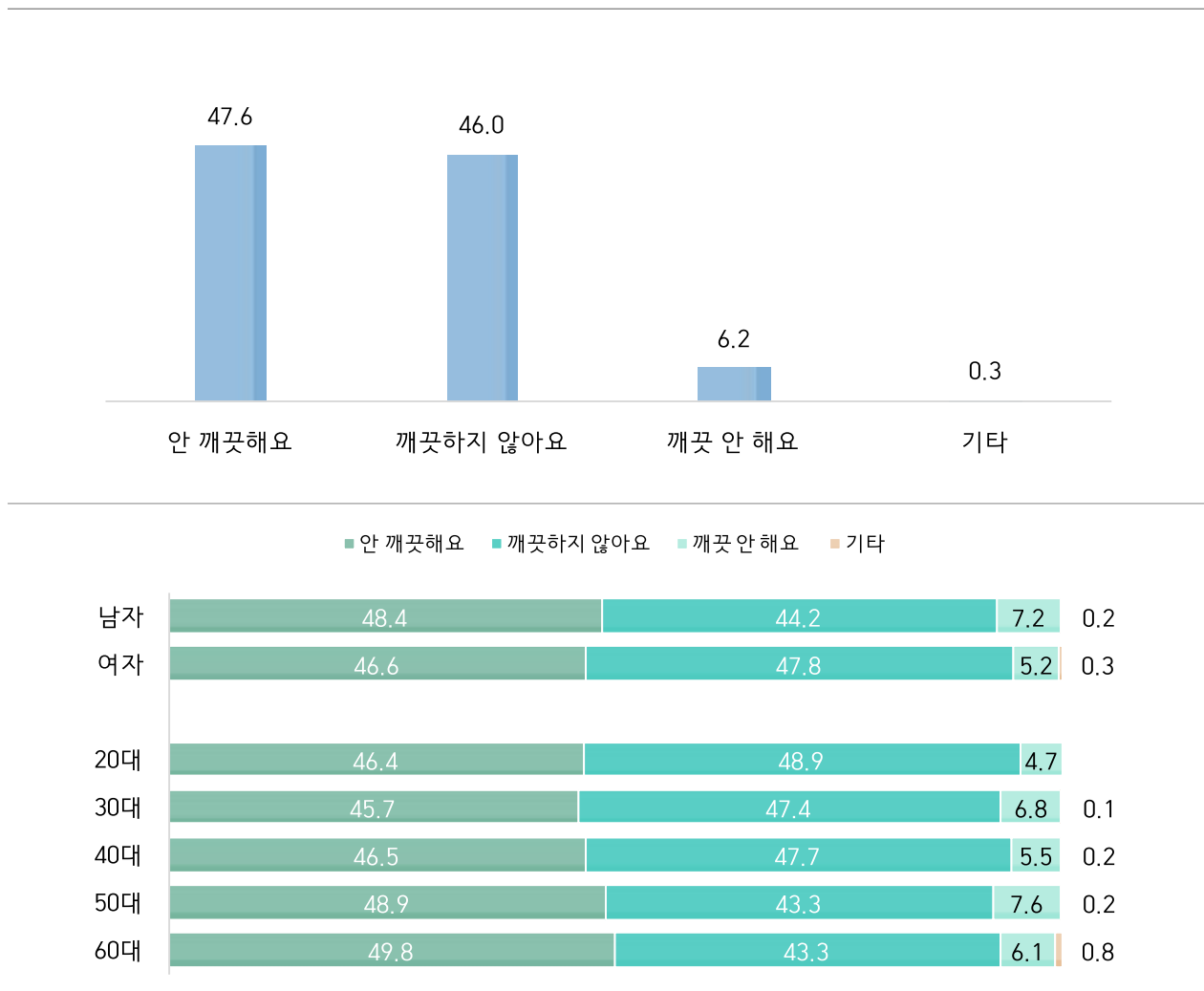
문7

방이 깨끗한지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려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요. 방이 별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 ❖ 방이 깨끗한지 물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 주로 ‘안 깨끗해요’(47.6%)라고 대답하며, 다음으로 ‘깨끗하지 않아요’(46.0%), ‘깨끗 안 해요’(6.2%)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더러워요’가 있음.

[ 그림 3-52 ] 방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방이 깨끗한지 물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 ‘안 깨끗해요’라고 대답하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48.4%), 연령별로는 60대(49.8%), 거주 지역별로는 경상권(60.0%), 가구원 수별로는 4인 가구(49.5%), 최종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69.3%)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52 ] 방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안 깨끗해요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 안 해요	기타
전 체		(2,000)	47.6	46.0	6.2	0.3
성별	남성	(1,016)	48.4	44.2	7.2	0.2
	여성	(984)	46.6	47.8	5.2	0.3
연령	20대	(352)	46.4	48.9	4.7	0.0
	30대	(353)	45.7	47.4	6.8	0.1
	40대	(435)	46.5	47.7	5.5	0.2
	50대	(463)	48.9	43.3	7.6	0.2
	60대	(397)	49.8	43.3	6.1	0.8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41.4	55.4	3.2	0.1
	강원권	(58)	44.7	52.6	2.7	0.0
	충청권	(212)	51.4	43.8	4.9	0.0
	전라권	(182)	46.7	36.7	16.6	0.0
	경상권	(488)	60.0	29.0	10.1	0.9
	제주	(26)	42.3	57.7	0.0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46.3	45.1	7.5	1.1
	2인 가구	(454)	46.6	43.5	9.1	0.8
	3인 가구	(659)	47.0	48.4	4.6	0.0
	4인 가구	(674)	49.5	44.6	5.9	0.0
	5인 가구 이상	(69)	43.0	54.2	2.8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69.3	23.8	6.9	0.0
	중학교 졸업	(47)	55.0	32.7	12.4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46.6	46.4	6.8	0.2
	대학교 졸업(재학)	(1,144)	47.6	46.7	5.4	0.3
	대학원 재학 이상	(27)	55.0	33.9	11.1	0.0



## 8. 다 먹어서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을 표현하는 보조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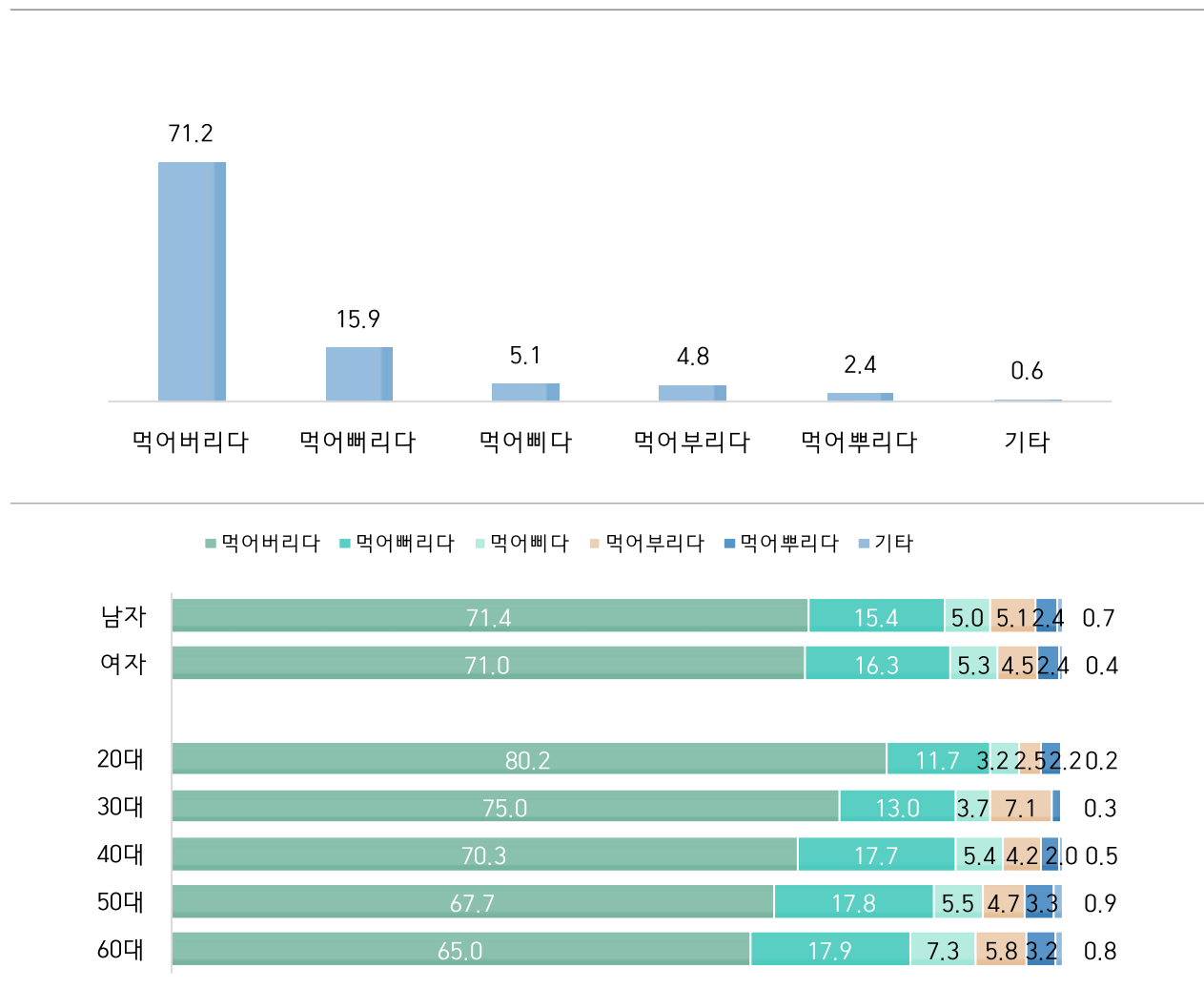
문8

나중에 먹으려고 남겨 놓은 간식을 다른 가족들이 다 먹어서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때, ‘가족들이 간식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어’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 ❖ 가족들이 간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을 때, 주로 가족들이 다 ‘먹어버리다’(71.2%)라고 말하며, 다음으로 ‘먹어빠리다’(15.9%), ‘먹어빠다’(5.1%), ‘먹어부리다’(4.8%), ‘먹어뿌리다’(2.4%)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먹어뿔다’, ‘먹었다’, ‘먹어불다’ 등이 있음.

[ 그림 3-53 ] 다 먹어서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을 표현하는 보조동사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가족들이 간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을 때, ‘먹어버리다’라고 표현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71.4%),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93.2%),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79.8%),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77.8%)에서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표 3-53 ] 다 먹어서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을 표현하는 보조동사

(단위 : %)

구 분		사례 수	먹어 버리다	먹어 빠리다	먹어빠다	먹어 부리다	먹어 뿌리다	기타
전 체		(2,000)	71.2	15.9	5.1	4.8	2.4	0.6
성별	남성	(1,016)	71.4	15.4	5.0	5.1	2.4	0.7
	여성	(984)	71.0	16.3	5.3	4.5	2.4	0.4
연령	20대	(352)	80.2	11.7	3.2	2.5	2.2	0.2
	30대	(353)	75.0	13.0	3.7	7.1	0.9	0.3
	40대	(435)	70.3	17.7	5.4	4.2	2.0	0.5
	50대	(463)	67.7	17.8	5.5	4.7	3.3	0.9
	60대	(397)	65.0	17.9	7.3	5.8	3.2	0.8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81.0	11.5	3.0	3.4	0.8	0.2
	강원권	(58)	91.8	5.5	0.0	1.3	1.5	0.0
	충청권	(212)	72.7	18.4	2.4	3.9	2.6	0.0
	전라권	(182)	51.9	17.7	10.0	18.0	0.4	2.0
	경상권	(488)	53.4	25.4	9.9	3.8	6.5	1.0
가구원 수	제주	(26)	93.2	1.3	0.0	4.9	0.0	0.7
	1인 가구	(144)	72.1	14.9	3.1	3.2	5.2	1.5
	2인 가구	(454)	69.2	17.0	6.0	4.6	2.7	0.6
	3인 가구	(659)	70.5	14.6	6.5	5.5	2.5	0.4
	4인 가구	(674)	72.3	17.3	4.1	4.7	1.2	0.4
최종 학력	5인 가구 이상	(69)	79.8	9.6	0.6	4.6	3.9	1.6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46.0	37.0	0.0	0.0	17.0	0.0
	중학교 졸업	(47)	47.1	30.8	5.0	9.1	8.0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67.6	18.0	6.9	3.8	2.8	0.8
	대학교 졸업(재학)	(1,144)	74.7	13.7	4.0	5.5	1.6	0.5
	대학원 재학 이상	(27)	77.8	12.3	6.2	0.0	3.7	0.0





### Ⅲ 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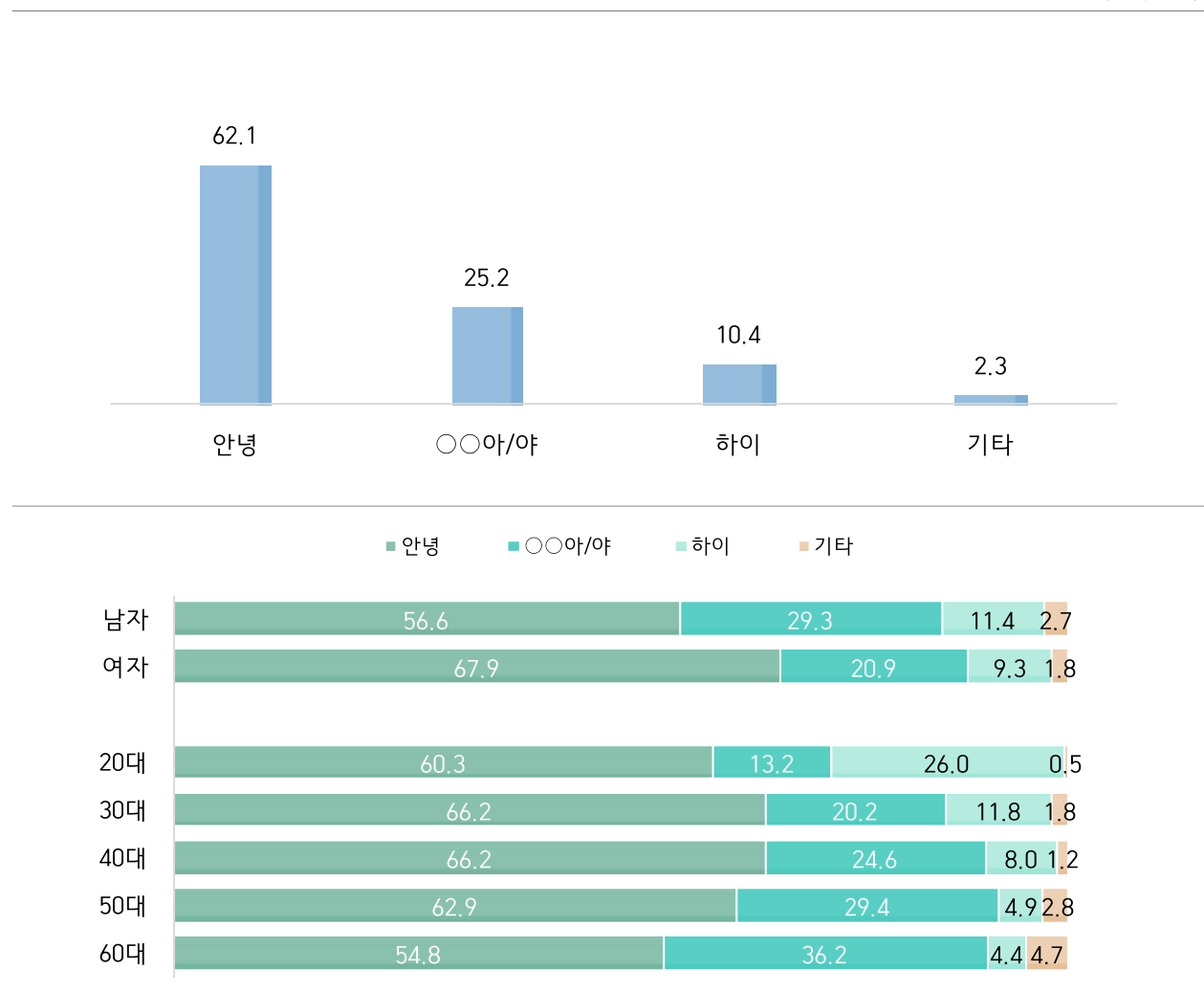
#### 1. 친구를 만났을 때 처음 인사로 하는 말

문1 친구를 만났을 때 처음 인사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 ❖ 친구를 만났을 때 처음에 주로 ‘안녕’(62.1%)이라고 인사하며, 다음으로 ‘○○아/야’(25.2%), ‘하이’(10.4%)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잘지냈어’, ‘오랜만이다/오래간만이다’, ‘잘있었나’ 등이 있음.

[ 그림 3-54 ] 친구를 만났을 때 처음 인사로 하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친구를 만났을 때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67.9%), 연령별로는 30대 및 40대(각각 66.2%), 거주 지역별로는 전라권(69.1%), 가구원 수별로는 4인 가구(65.0%),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68.5%)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54 ] 친구를 만났을 때 처음 인사로 하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안녕	○○아/야	하이	기타
전 체		(2,000)	62.1	25.2	10.4	2.3
성별	남성	(1,016)	56.6	29.3	11.4	2.7
	여성	(984)	67.9	20.9	9.3	1.8
연령	20대	(352)	60.3	13.2	26.0	0.5
	30대	(353)	66.2	20.2	11.8	1.8
	40대	(435)	66.2	24.6	8.0	1.2
	50대	(463)	62.9	29.4	4.9	2.8
	60대	(397)	54.8	36.2	4.4	4.7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58.6	28.5	12.2	0.8
	강원권	(58)	63.9	19.9	9.7	6.5
	충청권	(212)	62.1	31.8	3.7	2.4
	전라권	(182)	69.1	15.7	14.4	0.8
	경상권	(488)	66.6	19.9	8.3	5.2
	제주	(26)	68.9	20.4	4.8	5.8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50.8	33.0	12.5	3.7
	2인 가구	(454)	62.9	28.7	4.9	3.6
	3인 가구	(659)	62.5	22.6	12.9	2.1
	4인 가구	(674)	65.0	22.8	11.2	1.1
	5인 가구 이상	(69)	50.1	35.0	10.7	4.2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48.4	28.3	0.0	23.2
	중학교 졸업	(47)	59.4	22.2	4.0	14.5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60.2	31.5	5.8	2.6
	대학교 졸업(재학)	(1,144)	63.6	21.6	13.6	1.3
	대학원 재학 이상	(27)	68.5	3.7	20.9	6.9



## 2. 일을 마친 뒤 먼저 가면서 회사 동료에게 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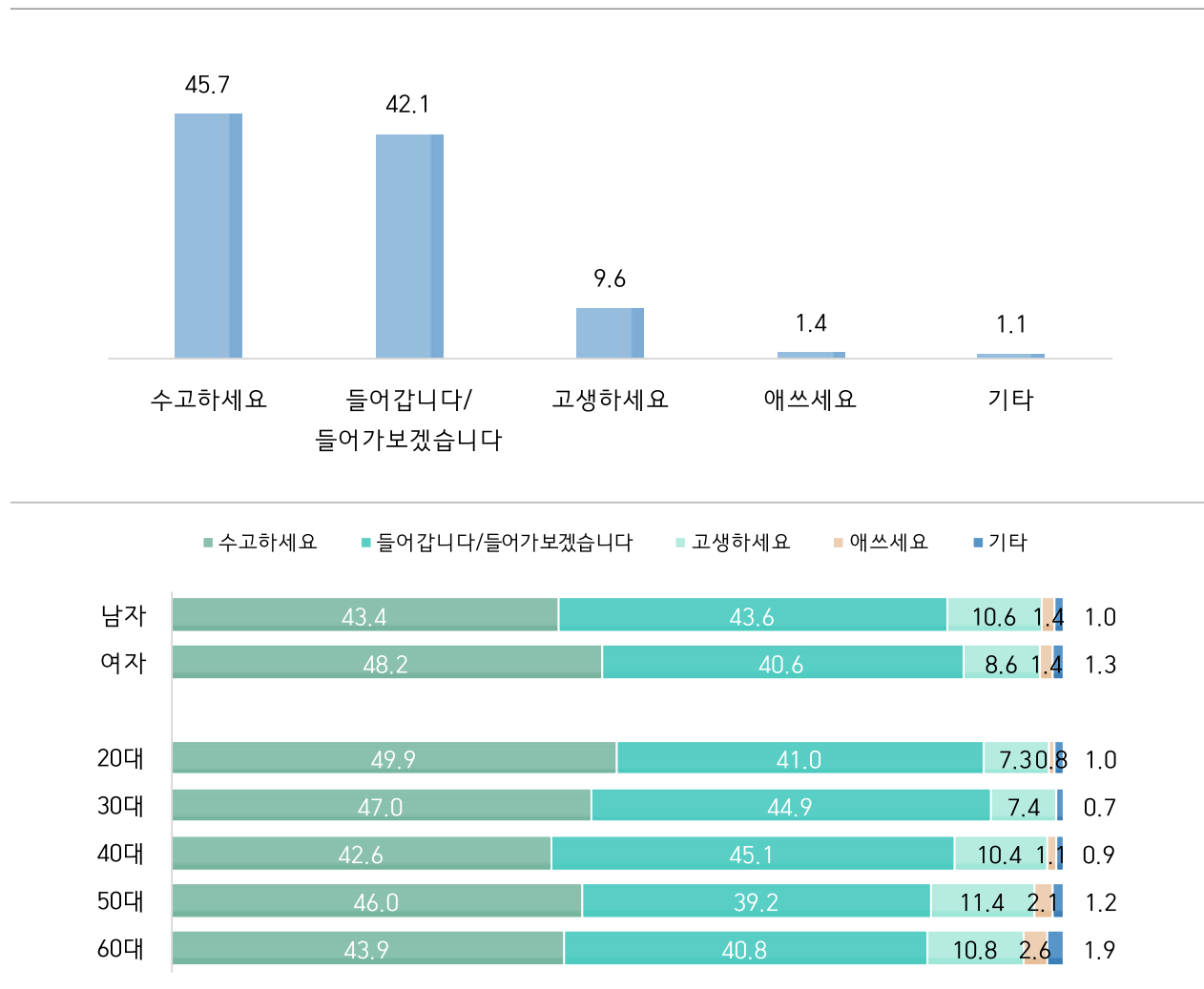
문2

일을 마친 뒤 먼저 가면서 회사 동료에게 인사말을 어떻게 합니까?

- ❖ 일을 마친 뒤 먼저 가면서 회사 동료들에게 주로 ‘수고하세요’(45.7%)라고 인사하며, 다음으로 ‘들어갑니다/들어가보겠습니다’(42.1%), ‘고생하세요’(9.6%), ‘애쓰세요’(1.4%)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먼저 갑니다’, ‘내일 뵙요/내일 봐요’, ‘뒤에 오소/뒤에 오이소’ 등이 있음.

[ 그림 3-55 ] 일을 마친 뒤 먼저 가면서 회사 동료에게 하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일을 마친 뒤 먼저 가면서 회사 동료에게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 보면, 성별로는 여성(48.2%), 연령별로는 20대(49.9%), 거주 지역별로는 경상권(56.4%), 가구원 수별로는 4인 가구(48.8%),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재학)(48.0%)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55 ] 일을 마친 뒤 먼저 가면서 회사 동료에게 하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수고하세요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생하세요	애쓰세요	기타
전 체		(2,000)	45.7	42.1	9.6	1.4	1.1
성별	남성	(1,016)	43.4	43.6	10.6	1.4	1.0
	여성	(984)	48.2	40.6	8.6	1.4	1.3
연령	20대	(352)	49.9	41.0	7.3	0.8	1.0
	30대	(353)	47.0	44.9	7.4	0.0	0.7
	40대	(435)	42.6	45.1	10.4	1.1	0.9
	50대	(463)	46.0	39.2	11.4	2.1	1.2
	60대	(397)	43.9	40.8	10.8	2.6	1.9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41.6	49.6	7.3	1.1	0.3
	강원권	(58)	41.9	40.2	16.8	0.0	1.2
	충청권	(212)	40.2	46.7	11.4	1.6	0.2
	전라권	(182)	48.7	39.2	11.2	0.9	0.0
	경상권	(488)	56.4	26.1	12.3	2.2	3.1
	제주	(26)	43.3	31.0	13.4	0.0	12.4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37.4	44.1	14.1	2.1	2.4
	2인 가구	(454)	45.7	39.5	11.8	1.5	1.5
	3인 가구	(659)	44.2	45.5	8.7	0.9	0.7
	4인 가구	(674)	48.8	40.9	7.7	1.8	0.8
	5인 가구 이상	(69)	47.6	35.4	13.6	0.0	3.3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31.4	34.0	26.1	0.0	8.5
	중학교 졸업	(47)	42.4	39.1	15.8	1.3	1.5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42.8	43.5	10.7	2.3	0.7
	대학교 졸업(재학)	(1,144)	48.0	41.5	8.5	0.8	1.2
	대학원 재학 이상	(27)	47.8	37.1	9.4	0.0	5.8



### 3.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배달해 준 물건을 받으면서 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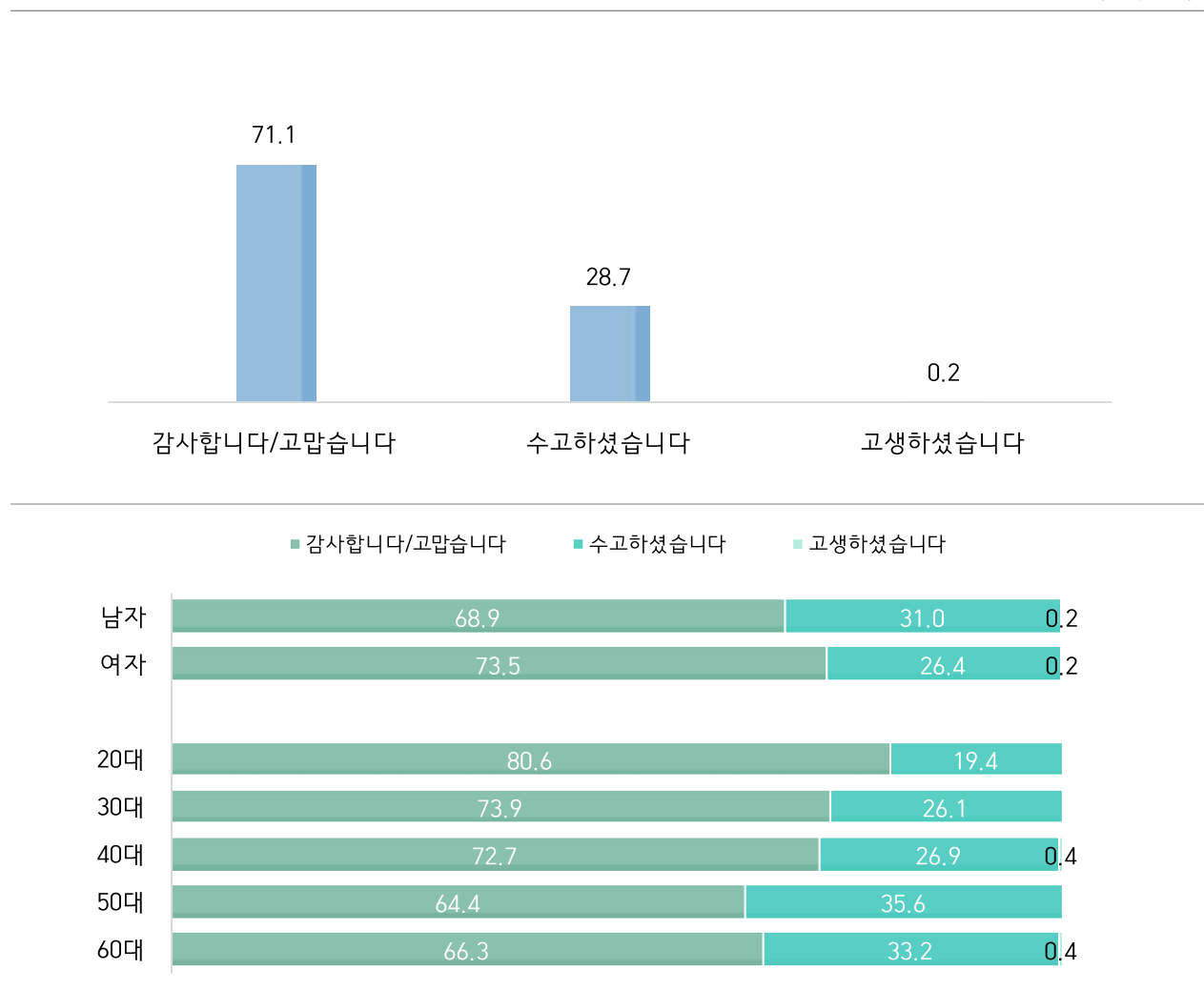
문3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무게가 좀 나가는 물건을 배달해 주었을 때, 물건을 받으면서 어떻게 인사합니까?

- ❖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물건을 배달해 주었을 때, 주로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71.1%)라고 인사하며, 다음으로 ‘수고하셨습니다’(28.7%), ‘고생하셨습니다’(0.2%) 순임.

[ 그림 3-56 ]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배달해 준 물건을 받으면서 하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물건을 배달해 주었을 때,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73.5%), 연령별로는 20대(80.6%),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권(78.6%), 가구원 수별로는 4인 가구(75.4%),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재학)(72.6%)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56 ]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배달해 준 물건을 받으면서 하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 체		(2,000)	71.1	28.7	0.2
성별	남성	(1,016)	68.9	31.0	0.2
	여성	(984)	73.5	26.4	0.2
연령	20대	(352)	80.6	19.4	0.0
	30대	(353)	73.9	26.1	0.0
	40대	(435)	72.7	26.9	0.4
	50대	(463)	64.4	35.6	0.0
	60대	(397)	66.3	33.2	0.4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71.9	27.7	0.3
	강원권	(58)	78.6	21.4	0.0
	충청권	(212)	72.2	27.8	0.0
	전라권	(182)	57.4	42.6	0.0
	경상권	(488)	73.3	26.7	0.0
	제주	(26)	69.7	30.3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69.9	30.1	0.0
	2인 가구	(454)	65.4	34.3	0.4
	3인 가구	(659)	70.7	29.3	0.0
	4인 가구	(674)	75.4	24.3	0.3
	5인 가구 이상	(69)	74.0	26.0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65.8	34.2	0.0
	중학교 졸업	(47)	62.8	37.2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69.5	30.3	0.2
	대학교 졸업(재학)	(1,144)	72.6	27.2	0.1
	대학원 재학 이상	(27)	69.9	30.1	0.0



#### 4. 손윗사람과 전화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을 때 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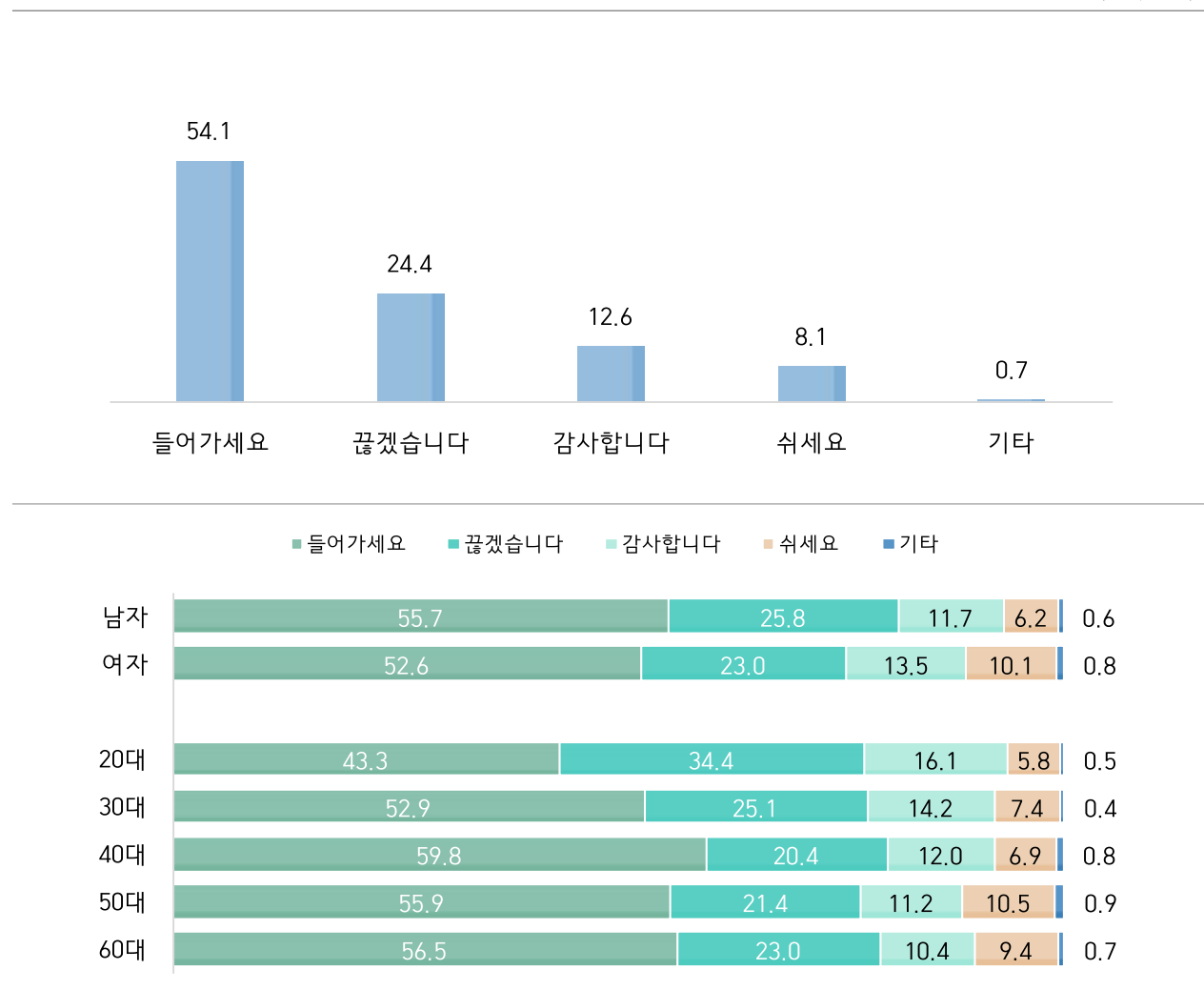
문4

손윗사람과 전화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을 때 보통 인사말을 어떻게 합니까?

- ❖ 손윗사람과 전화 통화를 마치고 끊을 때, 주로 ‘들어가세요’(54.1%)라고 인사하며, 다음으로 ‘끊겠습니다’(24.4%), ‘감사합니다’(12.6%), ‘취세요’(8.1%)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안녕히 계세요’, ‘먼저 끊으세요’, ‘건강하세요’ 등이 있음.

[ 그림 3-57 ] 손윗사람과 전화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을 때 하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손윗사람과 전화 통화를 마치고 끊을 때, ‘들어가요’라고 인사하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 보면, 성별로는 남성(55.7%), 연령별로는 40대(59.8%),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66.7%), 가구원 수별로는 2인 가구(56.9%), 최종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77.2%)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57 ] 손윗사람과 전화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을 때 하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들어가요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세요	기타
전 체		(2,000)	54.1	24.4	12.6	8.1	0.7
성별	남성	(1,016)	55.7	25.8	11.7	6.2	0.6
	여성	(984)	52.6	23.0	13.5	10.1	0.8
연령	20대	(352)	43.3	34.4	16.1	5.8	0.5
	30대	(353)	52.9	25.1	14.2	7.4	0.4
	40대	(435)	59.8	20.4	12.0	6.9	0.8
	50대	(463)	55.9	21.4	11.2	10.5	0.9
	60대	(397)	56.5	23.0	10.4	9.4	0.7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53.0	28.0	9.3	9.2	0.4
	강원권	(58)	60.1	7.4	10.6	20.1	1.9
	충청권	(212)	51.6	22.3	17.1	9.0	0.0
	전라권	(182)	49.4	18.0	23.4	9.2	0.0
	경상권	(488)	58.0	22.2	14.2	4.1	1.5
	제주	(26)	66.7	21.4	7.0	1.7	3.2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55.4	20.4	16.5	6.1	1.7
	2인 가구	(454)	56.9	19.5	13.0	10.4	0.3
	3인 가구	(659)	52.7	27.2	12.0	7.8	0.2
	4인 가구	(674)	54.3	24.9	12.9	7.0	0.9
	5인 가구 이상	(69)	45.2	34.0	5.0	12.1	3.6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77.2	14.0	8.8	0.0	0.0
	중학교 졸업	(47)	54.1	16.9	14.8	11.2	3.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55.9	21.6	13.2	8.6	0.7
	대학교 졸업(재학)	(1,144)	52.7	26.9	12.0	7.8	0.6
	대학원 재학 이상	(27)	58.3	15.3	20.9	5.5	0.0





## 5. 주말 이사를 위해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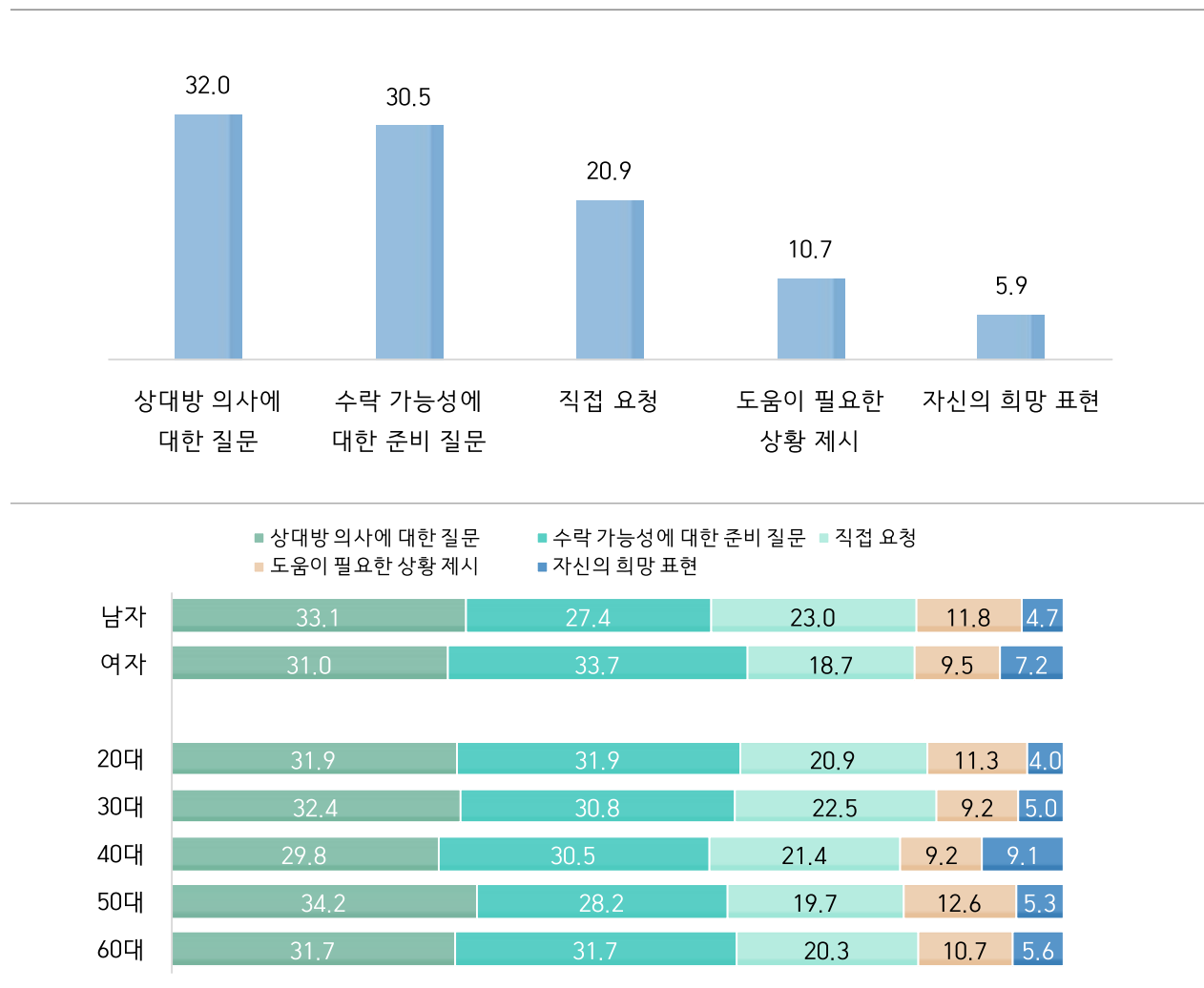
문5

이번 주말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려면 어떻게 말합니까?

- ❖ 주말에 친구에게 이사 도움을 어떻게 청하는지 확인한 결과, ‘상대방 의사에 대한 질문(예: 주말에 이사하는 것 좀 도와줄래?)’(32.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수락 가능성에 대한 준비 질문(예: 주말에 바빠?/뭐해?)’(30.5%), ‘직접 요청(예: 주말에 이사하는 것 좀 도와줘)’(20.9%), ‘도움이 필요한 상황 제시(예: 나 주말에 이사하는데...)’(10.7%), ‘자신의 희망 표현(예: 주말에 이사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5.9%) 순임.

[ 그림 3-58 ] 주말 이사를 위해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식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주말 이사를 위해 친구에게 도움을 청할 때, ‘상대방 의사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33.1%), 연령별로는 50대(34.2%),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권(33.8%),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36.3%), 최종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39.1%)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58 ] 주말 이사를 위해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식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상대방 의사에 대한 질문 (예: 주말에 이사하는 것 좀 도와줄래?)	수락 가능성에 대한 준비 질문 (예: 주말에 바빠?/뭐해?)	직접 요청 (예: 주말에 이사하는 것 좀 도와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제시 (예: 나 주말에 이사하는데..)	자신의 희망 표현 (예: 주말에 이사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전 체		(2,000)	32.0	30.5	20.9	10.7	5.9
성별	남성	(1,016)	33.1	27.4	23.0	11.8	4.7
	여성	(984)	31.0	33.7	18.7	9.5	7.2
연령	20대	(352)	31.9	31.9	20.9	11.3	4.0
	30대	(353)	32.4	30.8	22.5	9.2	5.0
	40대	(435)	29.8	30.5	21.4	9.2	9.1
	50대	(463)	34.2	28.2	19.7	12.6	5.3
	60대	(397)	31.7	31.7	20.3	10.7	5.6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33.7	31.0	17.8	10.5	7.0
	강원권	(58)	33.8	35.8	20.5	7.7	2.2
	충청권	(212)	28.4	33.8	24.5	10.4	2.9
	전라권	(182)	25.0	26.6	30.0	15.8	2.5
	경상권	(488)	33.2	29.0	21.1	9.8	6.9
	제주	(26)	19.3	27.8	44.8	4.9	3.2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36.3	27.4	22.5	10.4	3.5
	2인 가구	(454)	30.7	32.9	20.0	10.5	5.9
	3인 가구	(659)	35.3	29.4	19.7	10.9	4.7
	4인 가구	(674)	30.3	30.5	21.8	10.3	7.2
	5인 가구 이상	(69)	18.3	31.9	25.7	13.7	10.4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39.1	42.4	0.0	18.5	0.0
	중학교 졸업	(47)	25.7	41.3	17.8	12.3	2.9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30.9	31.0	21.0	10.9	6.1
	대학교 졸업(재학)	(1,144)	32.9	29.5	21.0	10.6	6.0
	대학원 재학 이상	(27)	37.1	36.7	24.0	0.0	2.2



## 6. 이사하는 친구의 도움 요청을 다른 일이 있어서 거절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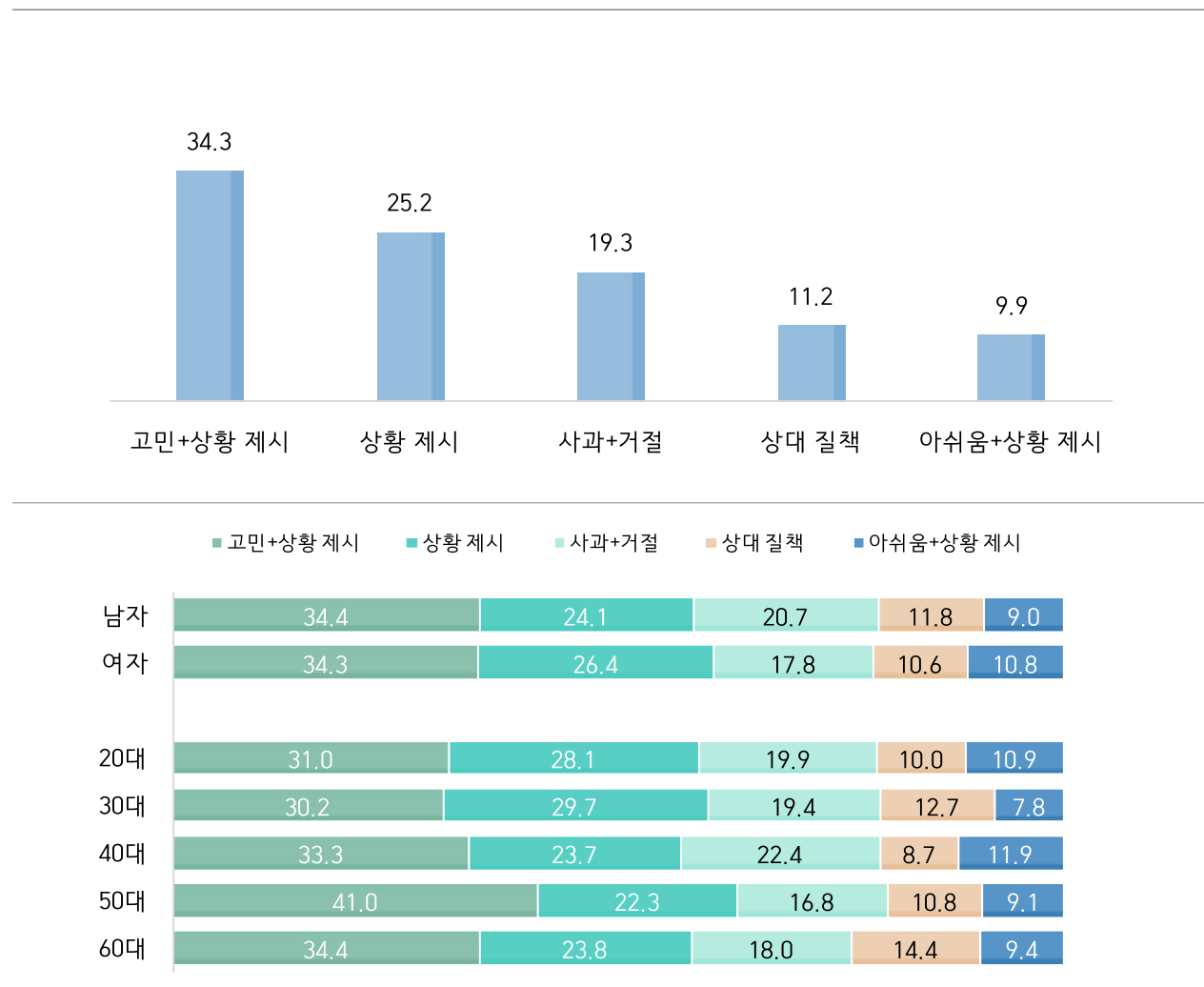
문6

친구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다른 일이 있어서 거절하려면 어떻게 말합니까?

- ❖ 이사하는 친구의 도움 요청을 다른 일이 있어서 거절할 때, 주로 ‘고민+상황 제시(예: 어떡하지? 그날 다른 일정이 있는데...)’(34.3%)하며, 다음으로 ‘상황 제시(예: 그날 다른 일이 있어)’ (25.2%), ‘사과+거절(예: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19.3%), ‘상대 질책(예: 진작 말하지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11.2%), ‘아쉬움+상황 제시(예: 내가 도와주면 좋을텐데 그날 다른 일이 있어)’ (9.9%) 순임.

[ 그림 3-59 ] 이사하는 친구의 도움 요청을 다른 일이 있어서 거절하는 방식

(단위 : %)



\* 전체 응답 기준, 0.1% 미만 응답 값 제외

## ■ 특성별 분석

- ❖ 이사하는 친구의 도움 요청을 다른 일이 있어서 거절할 때, ‘고민+상황 제시’를 하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연령별로는 50대(41.0%), 거주 지역별로는 경상권(37.0%), 가구원 수별로는 3인 가구(37.3%),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54.8%)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59 ] 이사하는 친구의 도움 요청을 다른 일이 있어서 거절하는 방식

(단위 : %)

구 분		사례 수	고민+상황 제시 (예: 어떡하지? 그날 다른 일정이 있는데..)	상황 제시 (예: 그날 다른 일이 있어)	사과+거절 (예: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	상대 질책 (예: 진작 말하지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	아쉬움+ 상황 제시 (예: 내가 도와주면 좋을텐데 그날 다른 일이 있어)	기타
전 체		(2,000)	34.3	25.2	19.3	11.2	9.9	0.0
성별	남성	(1,016)	34.4	24.1	20.7	11.8	9.0	0.0
	여성	(984)	34.3	26.4	17.8	10.6	10.8	0.1
연령	20대	(352)	31.0	28.1	19.9	10.0	10.9	0.0
	30대	(353)	30.2	29.7	19.4	12.7	7.8	0.1
	40대	(435)	33.3	23.7	22.4	8.7	11.9	0.0
	50대	(463)	41.0	22.3	16.8	10.8	9.1	0.1
	60대	(397)	34.4	23.8	18.0	14.4	9.4	0.0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33.4	25.4	19.8	10.9	10.5	0.0
	강원권	(58)	33.3	18.4	27.9	5.0	15.3	0.0
	충청권	(212)	36.0	22.3	24.1	11.1	6.6	0.0
	전라권	(182)	32.8	29.0	20.6	10.7	6.8	0.0
	경상권	(488)	37.0	25.8	13.4	13.1	10.5	0.2
	제주	(26)	21.5	22.5	38.4	7.2	10.4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26.7	31.3	15.2	14.8	11.9	0.0
	2인 가구	(454)	35.7	23.3	19.9	14.3	6.7	0.1
	3인 가구	(659)	37.3	23.3	19.2	9.9	10.2	0.0
	4인 가구	(674)	32.0	27.9	19.2	9.7	11.3	0.0
	5인 가구 이상	(69)	36.1	17.8	25.0	11.8	8.5	0.8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50.3	23.2	6.9	7.9	11.6	0.0
	중학교 졸업	(47)	34.4	33.6	14.0	13.7	4.2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36.5	23.6	17.5	13.2	9.2	0.1
	대학교 졸업(재학)	(1,144)	32.3	26.4	20.6	10.1	10.6	0.0
	대학원 재학 이상	(27)	54.8	9.0	25.6	2.9	7.6	0.0



## 7. 친한 동료나 친구의 도움 요청을 승낙할 때 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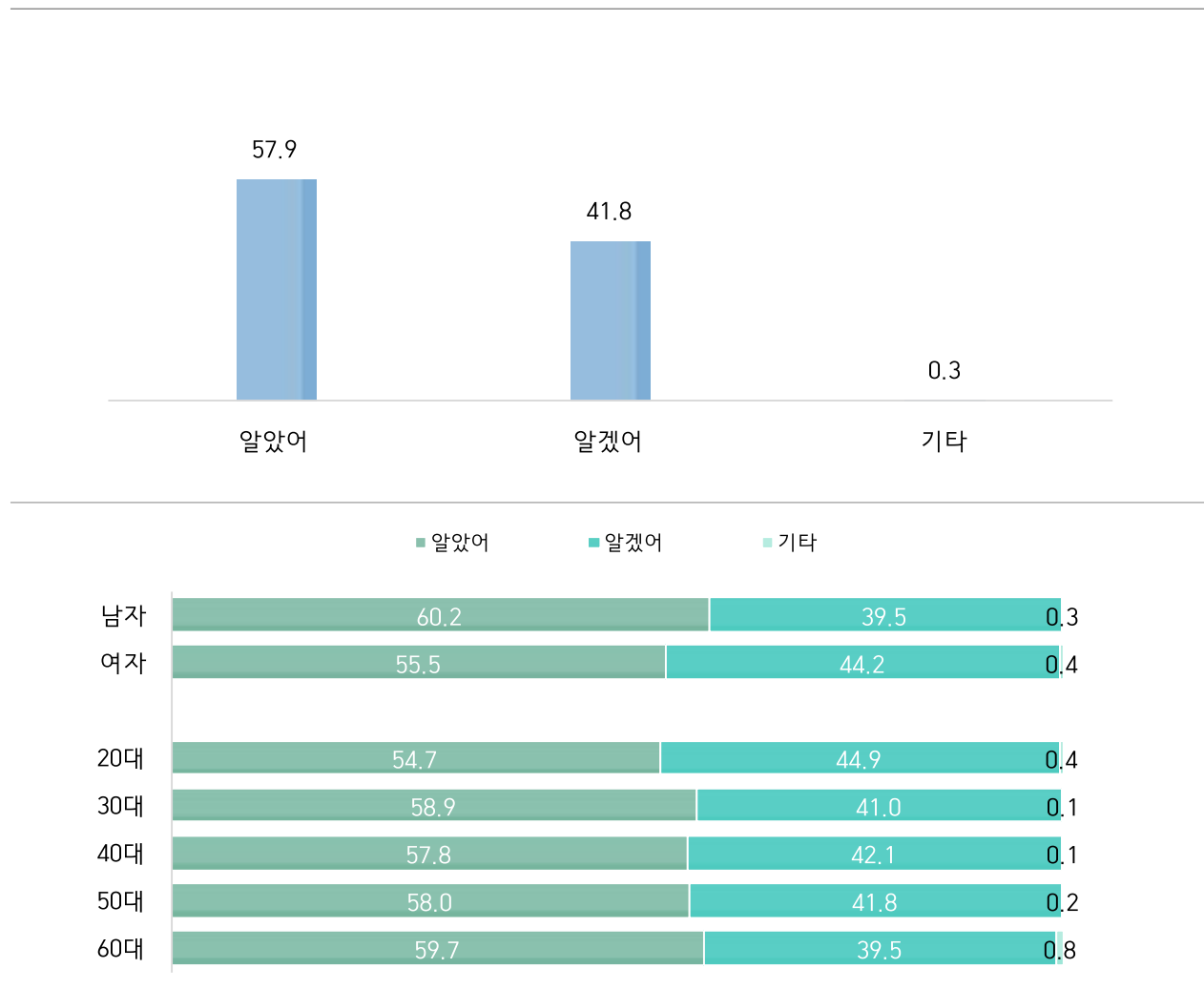
문7

친한 동료나 친구가 “내일 우리 일 좀 도와줘.”하고 부탁하면 도와주겠다고 승낙할 때 ‘알다’라는 말을 사용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어. 그래.’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 ❖ 친한 동료나 친구의 도움 요청에 승낙할 경우, 주로 ‘알았어’(57.9%)라고 대답하며, 다음으로 ‘알겠어’(41.8%)가 뒤를 이음.
- ❖ 기타 응답으로는 ‘오케이’, ‘그러지 뭐’, ‘도와줄게’ 등이 있음.

[ 그림 3-60 ] 친한 동료나 친구가 도움 요청을 승낙할 때 하는 말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친한 동료나 친구의 도움 요청에 ‘알았어’라고 승낙하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60.2%), 연령별로는 60대(59.7%),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72.8%),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60.5%), 최종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75.8%)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60 ] 친한 동료나 친구가 도움 요청을 승낙할 때 하는 말

(단위 : %)

구 분		사 례 수	알았어	알겠어	기타
전 체		(2,000)	57.9	41.8	0.3
성별	남성	(1,016)	60.2	39.5	0.3
	여성	(984)	55.5	44.2	0.4
연령	20대	(352)	54.7	44.9	0.4
	30대	(353)	58.9	41.0	0.1
	40대	(435)	57.8	42.1	0.1
	50대	(463)	58.0	41.8	0.2
	60대	(397)	59.7	39.5	0.8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53.9	45.9	0.2
	강원권	(58)	58.6	41.4	0.0
	충청권	(212)	58.9	41.1	0.0
	전라권	(182)	65.0	34.6	0.4
	경상권	(488)	62.3	37.0	0.6
	제주	(26)	72.8	27.2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60.5	39.1	0.5
	2인 가구	(454)	58.4	41.0	0.6
	3인 가구	(659)	58.4	41.5	0.1
	4인 가구	(674)	57.5	42.2	0.2
	5인 가구 이상	(69)	47.5	51.7	0.8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75.8	24.2	0.0
	중학교 졸업	(47)	61.5	38.5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58.1	41.6	0.3
	대학교 졸업(재학)	(1,144)	57.4	42.3	0.3
	대학원 재학 이상	(27)	58.3	41.7	0.0



## 8. 서로 알고 지내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내 성격을 칭찬할 때 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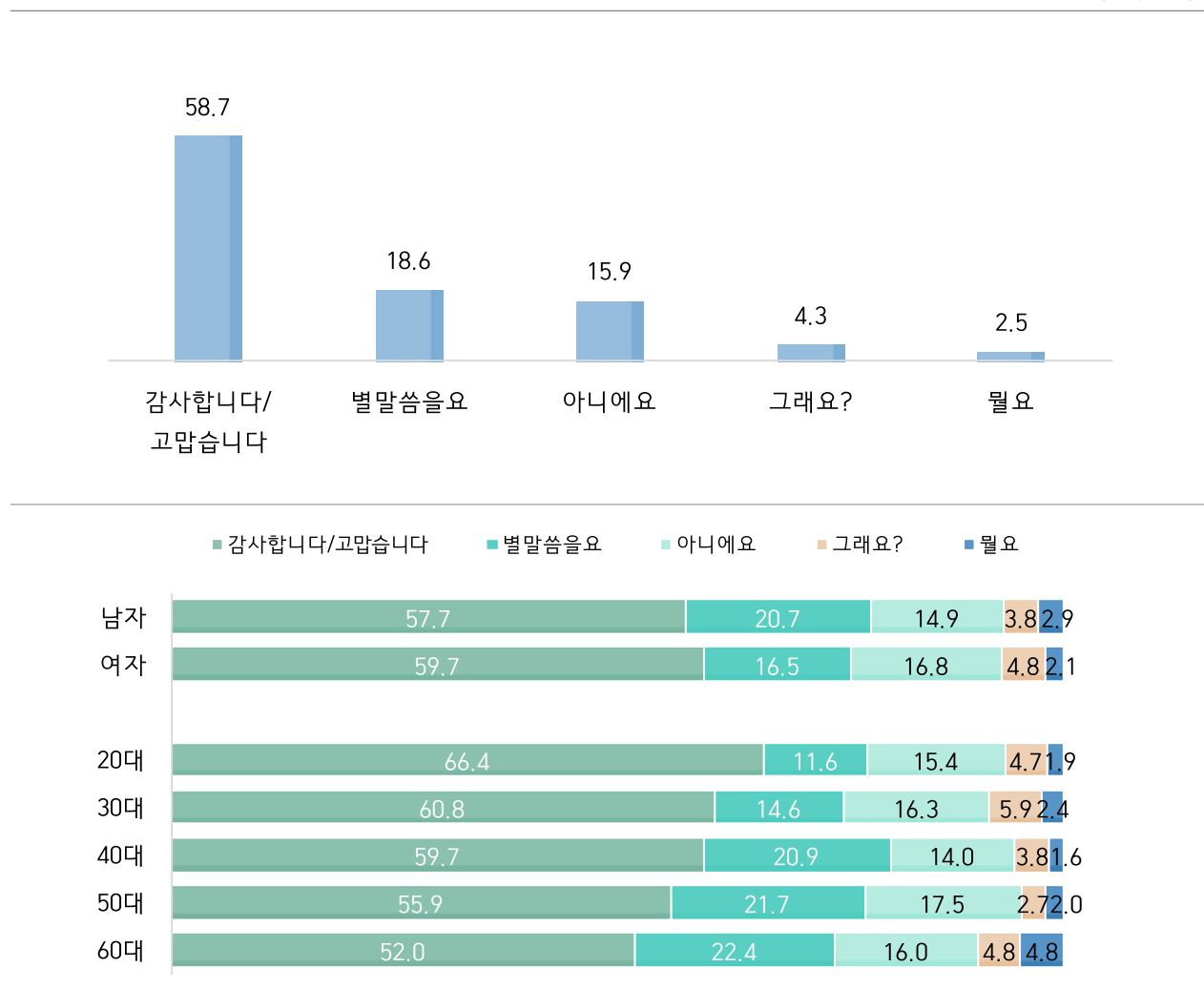
문8

서로 알고는 지내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이 “성격이 참 좋으시네요.”라고 칭찬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 ❖ 서로 알고는 지내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내 성격을 칭찬할 때, 주로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58.7%)라고 말하며, 다음으로 ‘별말씀을요’(18.6%), ‘아니에요’(15.9%), ‘그래요?’(4.3%), ‘월요’(2.5%) 순임.

[ 그림 3-61 ] 서로 알고 지내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내 성격을 칭찬할 때 하는 말

(단위 : %)



\* 전체 응답 기준, 0.1% 미만 응답 값 제외

## ■ 특성별 분석

- ❖ 서로 알고는 지내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내 성격을 칭찬할 때,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59.7%),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66.3%),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66.7%),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65.1%)에서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표 3-61 ] 서로 알고 지내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내 성격을 칭찬할 때 하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말씀을요	아니예요	그래요?	뭘요	말 안 함
전 체		(2,000)	58.7	18.6	15.9	4.3	2.5	0.0
성별	남성	(1,016)	57.7	20.7	14.9	3.8	2.9	0.1
	여성	(984)	59.7	16.5	16.8	4.8	2.1	0.0
연령	20대	(352)	66.4	11.6	15.4	4.7	1.9	0.0
	30대	(353)	60.8	14.6	16.3	5.9	2.4	0.0
	40대	(435)	59.7	20.9	14.0	3.8	1.6	0.0
	50대	(463)	55.9	21.7	17.5	2.7	2.0	0.1
	60대	(397)	52.0	22.4	16.0	4.8	4.8	0.0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61.7	18.6	13.9	4.0	1.8	0.0
	강원권	(58)	61.6	13.5	19.3	5.6	0.0	0.0
	충청권	(212)	53.0	18.4	16.5	8.5	3.5	0.0
	전라권	(182)	36.3	25.4	30.8	3.7	3.7	0.0
	경상권	(488)	62.4	16.7	14.3	3.2	3.4	0.0
	제주	(26)	66.3	20.4	5.8	1.3	3.9	2.2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57.0	23.0	10.5	7.8	1.7	0.0
	2인 가구	(454)	55.0	20.8	17.3	3.7	3.3	0.0
	3인 가구	(659)	57.1	18.3	16.7	5.5	2.3	0.0
	4인 가구	(674)	62.1	16.5	15.8	2.9	2.6	0.0
	5인 가구 이상	(69)	66.7	20.0	9.6	2.9	0.0	0.8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60.3	32.7	0.0	7.1	0.0	0.0
	중학교 졸업	(47)	45.4	18.8	23.0	8.3	4.5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58.4	21.1	13.8	3.8	2.8	0.0
	대학교 졸업(재학)	(1,144)	59.2	16.8	17.3	4.5	2.2	0.0
	대학원 재학 이상	(27)	65.1	18.5	8.4	0.0	6.0	2.1





## 9. 나의 작은 배려에 대해 상대방이 감사하다고 말할 때 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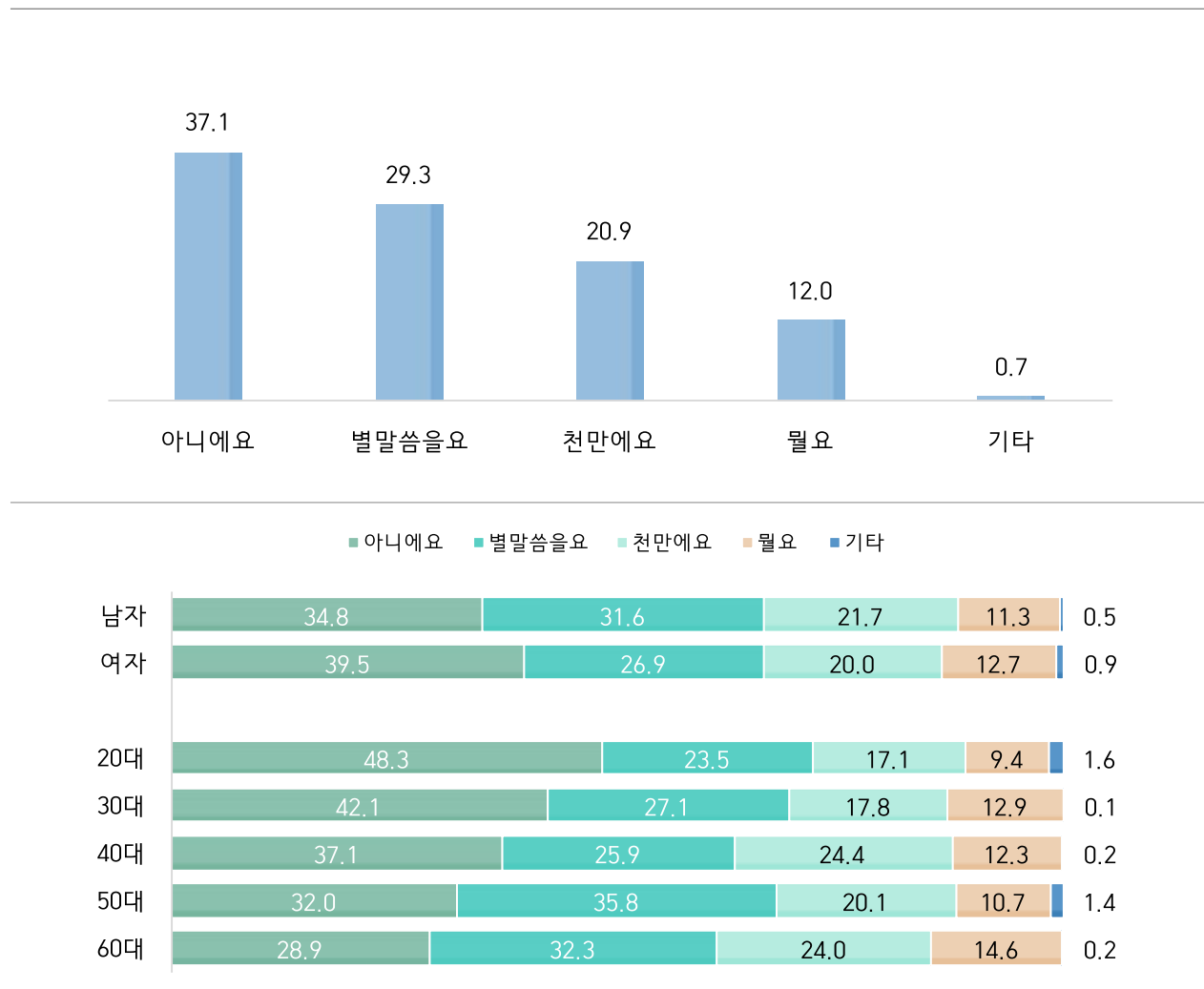
문9

나의 작은 배려에 대해 상대방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 ❖ 작은 배려에 상대방이 감사할 때, 주로 ‘아니에요’(37.1%)라고 말하며, 다음으로 ‘별말씀을요’(29.3%), ‘천만에요’(20.9%), ‘월요’(12.0%)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예/네’, ‘저도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데요’ 등이 있음.

[ 그림 3-62 ] 나의 작은 배려에 대해 상대방이 감사하다고 말할 때 하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나의 작은 배려에 상대방이 감사를 표할 때,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39.5%), 거주 지역별로는 경상권(41.4%),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40.6%),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47.1%)에서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표 3-62 ] 나의 작은 배려에 대해 상대방이 감사하다고 말할 때 하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아니에요	별말씀을요	천만에요	월요	기타
전 체		(2,000)	37.1	29.3	20.9	12.0	0.7
성별	남성	(1,016)	34.8	31.6	21.7	11.3	0.5
	여성	(984)	39.5	26.9	20.0	12.7	0.9
연령	20대	(352)	48.3	23.5	17.1	9.4	1.6
	30대	(353)	42.1	27.1	17.8	12.9	0.1
	40대	(435)	37.1	25.9	24.4	12.3	0.2
	50대	(463)	32.0	35.8	20.1	10.7	1.4
	60대	(397)	28.9	32.3	24.0	14.6	0.2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37.4	31.8	19.0	11.3	0.5
	강원권	(58)	32.2	30.8	23.4	12.7	0.9
	충청권	(212)	40.2	28.5	18.4	12.2	0.7
	전라권	(182)	22.3	25.2	37.6	14.9	0.0
	경상권	(488)	41.4	25.1	19.8	12.6	1.1
	제주	(26)	35.9	39.5	14.0	6.2	4.5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40.6	31.6	17.2	9.7	0.8
	2인 가구	(454)	36.6	30.0	21.5	11.8	0.2
	3인 가구	(659)	38.2	30.3	17.8	12.9	0.8
	4인 가구	(674)	36.4	27.5	24.0	11.2	0.9
	5인 가구 이상	(69)	31.0	28.0	22.8	16.9	1.3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13.1	26.6	43.2	17.0	0.0
	중학교 졸업	(47)	22.9	30.7	26.8	19.6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31.2	33.5	22.2	12.5	0.6
	대학교 졸업(재학)	(1,144)	41.7	26.6	19.5	11.4	0.8
	대학원 재학 이상	(27)	47.1	20.1	21.4	9.3	2.1



## 10.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어 사과할 때 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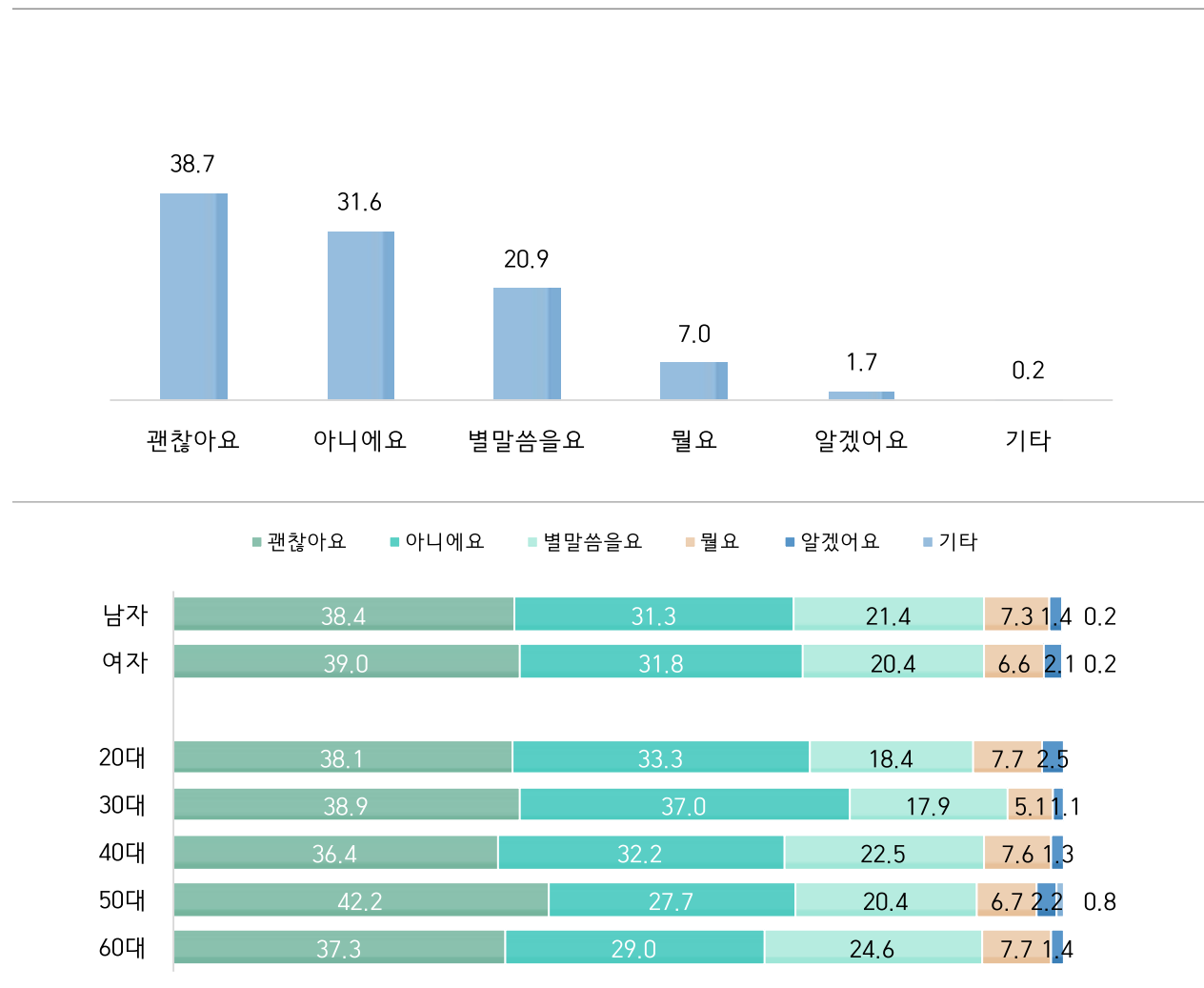
문10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약속 시간에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한 태도를 보이며 “늦게 와서 미안해요.”라고 말하면 괜찮다는 태도로 어떻게 말합니까?

- ❖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약속 시간에 조금 늦게 와서 사과할 때, 주로 ‘괜찮아요’(38.7%)라고 말하며, 다음으로 ‘아니에요’(31.6%), ‘별말씀을요’(20.9%), ‘월요’(7.0%), ‘알겠어요’(1.7%)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어서오세요’, ‘저도 금방 왔어요’ 등이 있음.

[ 그림 3-63 ]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어 사과할 때 하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어 사과할 때,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39.0%), 연령별로는 50대(42.2%),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54.7%),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39.8%), 최종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42.8%)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63 ]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어 사과할 때 하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괜찮아요	아니예요	별말씀을요	월요	알겠어요	기타
전 체		(2,000)	38.7	31.6	20.9	7.0	1.7	0.2
성별	남성	(1,016)	38.4	31.3	21.4	7.3	1.4	0.2
	여성	(984)	39.0	31.8	20.4	6.6	2.1	0.2
연령	20대	(352)	38.1	33.3	18.4	7.7	2.5	0.0
	30대	(353)	38.9	37.0	17.9	5.1	1.1	0.0
	40대	(435)	36.4	32.2	22.5	7.6	1.3	0.0
	50대	(463)	42.2	27.7	20.4	6.7	2.2	0.8
	60대	(397)	37.3	29.0	24.6	7.7	1.4	0.0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39.9	29.3	22.6	6.2	1.8	0.1
	강원권	(58)	38.1	24.3	21.4	15.4	0.0	0.9
	충청권	(212)	37.6	33.4	21.4	6.6	1.2	0.0
	전라권	(182)	28.0	29.4	27.9	12.3	2.5	0.0
	경상권	(488)	39.7	37.2	14.9	6.0	1.7	0.4
	제주	(26)	54.7	30.3	11.5	1.5	1.3	0.7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39.3	28.8	25.1	5.9	0.9	0.0
	2인 가구	(454)	38.9	30.3	21.9	7.5	1.3	0.1
	3인 가구	(659)	38.5	33.8	19.4	5.7	2.6	0.0
	4인 가구	(674)	38.4	30.6	21.0	8.3	1.2	0.4
	5인 가구 이상	(69)	39.8	33.6	18.3	4.9	3.5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42.8	41.9	15.3	0.0	0.0	0.0
	중학교 졸업	(47)	29.5	30.8	26.2	13.5	0.0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34.1	31.3	26.1	6.7	1.5	0.3
	대학교 졸업(재학)	(1,144)	42.0	31.3	17.6	7.0	1.9	0.1
	대학원 재학 이상	(27)	40.7	46.8	5.7	3.7	3.2	0.0



## 11. 아버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한 말을 할아버지한테 전할 때의 경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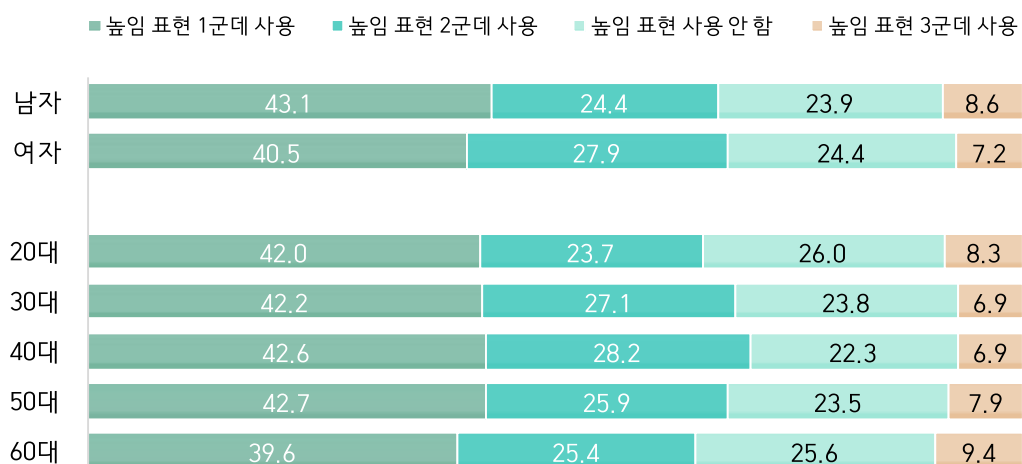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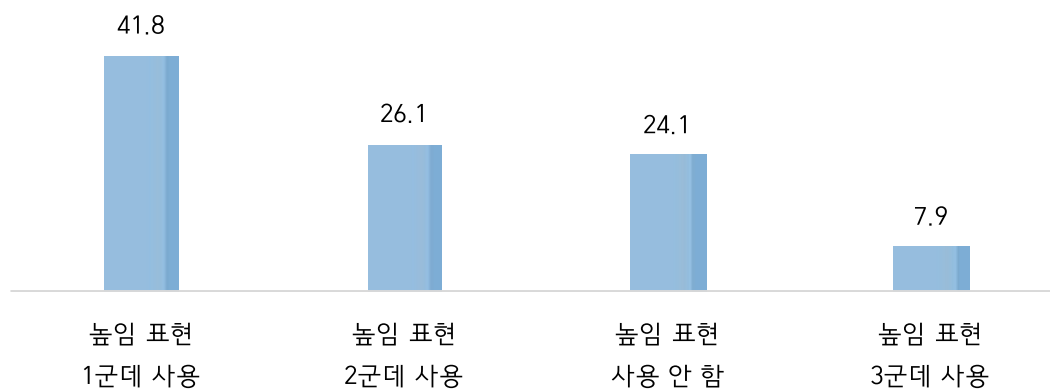
문11

아버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한 말을 할아버지한테 전하려면 할아버지께 어떻게 말합니까?

- ❖ 아버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한 말을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전하는지 확인한 결과, ‘높임 표현 1군데 사용(예: 아버지가 귀국한다고 하셨습니다.)’(41.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높임 표현 2군데 사용(예: 아버지께서 귀국한다고 하셨습니다.)’(26.1%), ‘높임 표현 사용 안 함(예: 아버지가 귀국한다고 했어요.)’(24.1%), ‘높임 표현 3군데 사용(예: 아버지께서 귀국하신다고 하셨습니다.)’(7.9%) 순으로 나타남.

[ 그림 3-64 ] 아버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한 말을 할아버지한테 전할 때의 경어법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아버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한 말을 할아버지한테 전할 때 ‘높임 표현 1군데 사용’하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43.1%), 연령별로는 50대(42.7%),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56.7%),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50.1%), 최종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52.7%)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64 ] 아버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한 말을 할아버지한테 전할 때의 경어법

(단위 : %)

구 분		사례 수	높임 표현 1군데 사용 (예: 아버지가 귀국한다고 하셨습니다.)	높임 표현 2군데 사용 (예: 아버지께서 귀국한다고 하셨습니다.)	높임 표현 사용 안 함 (예: 아버지가 귀국한다고 했어요.)	높임 표현 3군데 사용 (예: 아버지께서 귀국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 체		(2,000)	41.8	26.1	24.1	7.9
성별	남성	(1,016)	43.1	24.4	23.9	8.6
	여성	(984)	40.5	27.9	24.4	7.2
연령	20대	(352)	42.0	23.7	26.0	8.3
	30대	(353)	42.2	27.1	23.8	6.9
	40대	(435)	42.6	28.2	22.3	6.9
	50대	(463)	42.7	25.9	23.5	7.9
	60대	(397)	39.6	25.4	25.6	9.4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45.0	22.2	28.0	4.7
	강원권	(58)	46.7	29.2	18.8	5.3
	충청권	(212)	42.4	29.1	24.5	3.9
	전라권	(182)	36.2	36.4	9.8	17.6
	경상권	(488)	35.6	29.6	21.4	13.3
	제주	(26)	56.7	12.7	28.3	2.3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46.4	29.1	19.3	5.3
	2인 가구	(454)	38.2	28.9	24.5	8.4
	3인 가구	(659)	39.8	26.2	27.4	6.7
	4인 가구	(674)	44.5	24.6	21.2	9.6
	5인 가구 이상	(69)	50.1	15.9	29.4	4.7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52.7	30.3	17.0	0.0
	중학교 졸업	(47)	50.5	25.0	21.5	3.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43.5	27.1	20.3	9.1
	대학교 졸업(재학)	(1,144)	40.3	25.7	26.6	7.4
	대학원 재학 이상	(27)	40.9	19.6	33.7	5.8



## 12.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을 부르는 말(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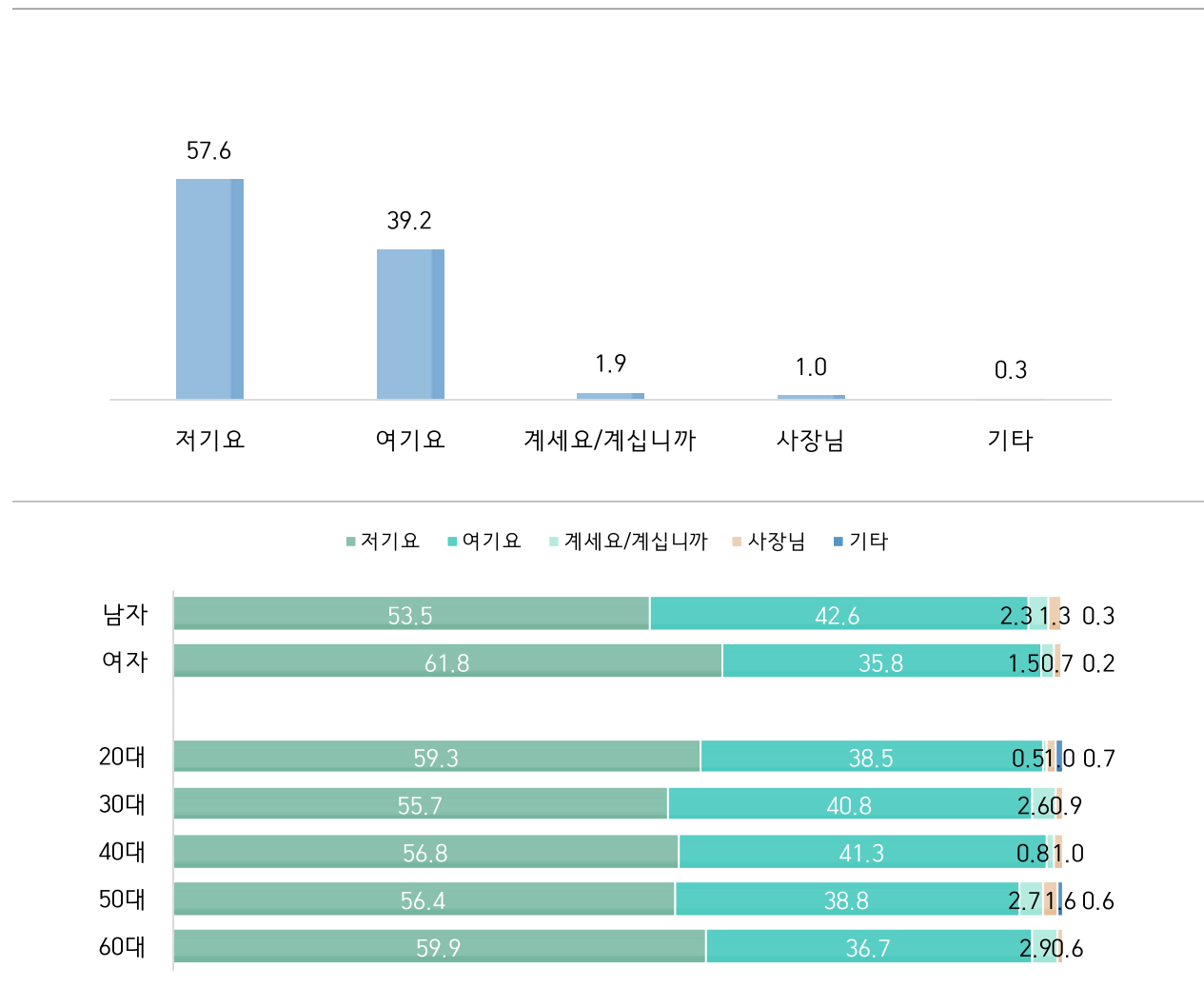
문12

가게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보이지 않아 주인을 부를 때, ‘저기요’와 ‘여기요’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 ❖ 가게에서 주인을 부를 때, 주로 ‘저기요’(57.6%)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여기요’(39.2%), ‘계세요/계십니까’(1.9%), ‘사장님’(1.0%)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보이소’, ‘실례합니다’, ‘선생님’ 등이 있음.

[ 그림 3-65 ]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을 부르는 말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가게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보이지 않을 경우, 주인을 ‘저기요’라고 부르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61.8%), 연령별로는 60대(59.9%), 거주 지역별로는 경상권(62.3%),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59.1%), 최종 학력별로는 중학교 졸업(63.1%)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65 ]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을 부르는 말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저기요	여기요	계세요/ 계십니까	사장님	기타
전 체		(2,000)	57.6	39.2	1.9	1.0	0.3
성별	남성	(1,016)	53.5	42.6	2.3	1.3	0.3
	여성	(984)	61.8	35.8	1.5	0.7	0.2
연령	20대	(352)	59.3	38.5	0.5	1.0	0.7
	30대	(353)	55.7	40.8	2.6	0.9	0.0
	40대	(435)	56.8	41.3	0.8	1.0	0.0
	50대	(463)	56.4	38.8	2.7	1.6	0.6
	60대	(397)	59.9	36.7	2.9	0.6	0.0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58.0	38.5	1.6	1.7	0.1
	강원권	(58)	61.9	26.4	9.8	1.9	0.0
	충청권	(212)	46.9	51.8	1.3	0.0	0.0
	전라권	(182)	57.2	42.8	0.0	0.0	0.0
	경상권	(488)	62.3	34.5	2.3	0.2	0.7
	제주	(26)	28.3	58.8	6.3	4.8	1.7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59.1	37.0	2.1	0.6	1.2
	2인 가구	(454)	57.6	38.4	2.5	1.4	0.0
	3인 가구	(659)	57.9	39.5	1.8	0.7	0.1
	4인 가구	(674)	57.0	40.0	1.2	1.3	0.4
	5인 가구 이상	(69)	55.6	38.8	5.0	0.7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51.4	48.6	0.0	0.0	0.0
	중학교 졸업	(47)	63.1	32.0	3.9	1.0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56.6	40.2	2.1	1.1	0.1
	대학교 졸업(재학)	(1,144)	58.0	38.9	1.8	1.0	0.4
	대학원 재학 이상	(27)	60.7	35.6	0.0	3.7	0.0





### 13. 친하지 않고 좀 어려운 선배의 질문에 시간이 없다고 대답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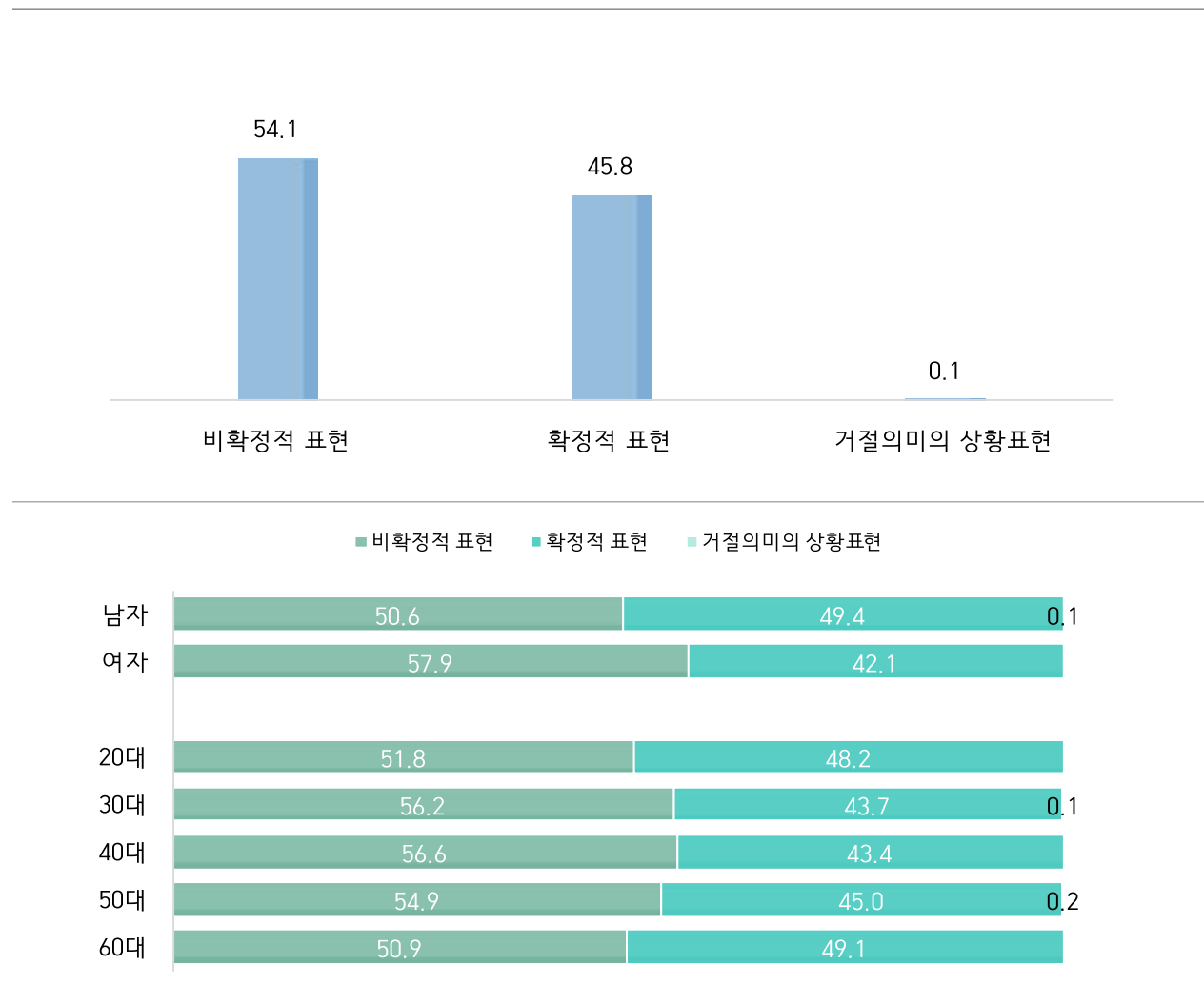
문13

친하지 않고 좀 대하기 어려운 선배(또는 나이 많은 이)가 금요일에 시간이 있냐고 묻는데, 그날 시간이 없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 ❖ 친하지 않고 좀 대하기 어려운 선배가 시간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날 시간이 없는 경우 어떻게 대답하는지 확인한 결과, ‘비확정적 표현(예: 그날 시간이 어려울 것 같아요/안 될 것 같아요/없을 것 같아요)’(54.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확정적 표현(예: 그날 시간이 어려워요/안 돼요/없어요)’(45.8%), ‘거절의미의 상황표현(예: 바빠요/일하고 있어요)’(0.1%) 순으로 나타남.

[ 그림 3-66 ] 친하지 않고 좀 어려운 선배의 질문에 시간이 없다고 대답하는 방식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친하지 않고 좀 대하기 어려운 선배의 질문에 시간이 없다고 대답할 때 ‘비확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57.9%), 연령별로는 40대(56.6%),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권(66.5%),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56.7%), 최종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58.4%)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66 ] 친하지 않고 좀 어려운 선배의 질문에 시간이 없다고 대답하는 방식

(단위 : %)

구 분		사례 수	비확정적 표현 (예: 그날 시간이 어려울 것 같아요/안 될 것 같아요/없을 것 같아요)	확정적 표현 (예: 그날 시간이 어려워요/안 돼요/없어요)	거절의미의 상황표현 (바빠요/일하고 있어요)
전 체		(2,000)	54.1	45.8	0.1
성별	남성	(1,016)	50.6	49.4	0.1
	여성	(984)	57.9	42.1	0.0
연령	20대	(352)	51.8	48.2	0.0
	30대	(353)	56.2	43.7	0.1
	40대	(435)	56.6	43.4	0.0
	50대	(463)	54.9	45.0	0.2
	60대	(397)	50.9	49.1	0.0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56.2	43.8	0.0
	강원권	(58)	66.5	33.5	0.0
	충청권	(212)	55.2	44.8	0.0
	전라권	(182)	41.9	58.1	0.0
	경상권	(488)	51.8	48.0	0.3
	제주	(26)	65.8	34.2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56.7	43.3	0.0
	2인 가구	(454)	55.5	44.3	0.3
	3인 가구	(659)	52.4	47.6	0.0
	4인 가구	(674)	54.2	45.8	0.0
	5인 가구 이상	(69)	56.1	43.9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58.4	41.6	0.0
	중학교 졸업	(47)	44.8	55.2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53.3	46.5	0.2
	대학교 졸업(재학)	(1,144)	55.0	45.0	0.0
	대학원 재학 이상	(27)	56.8	43.2	0.0



## IV 음운

### 1. ‘읽고’에서의 자음군단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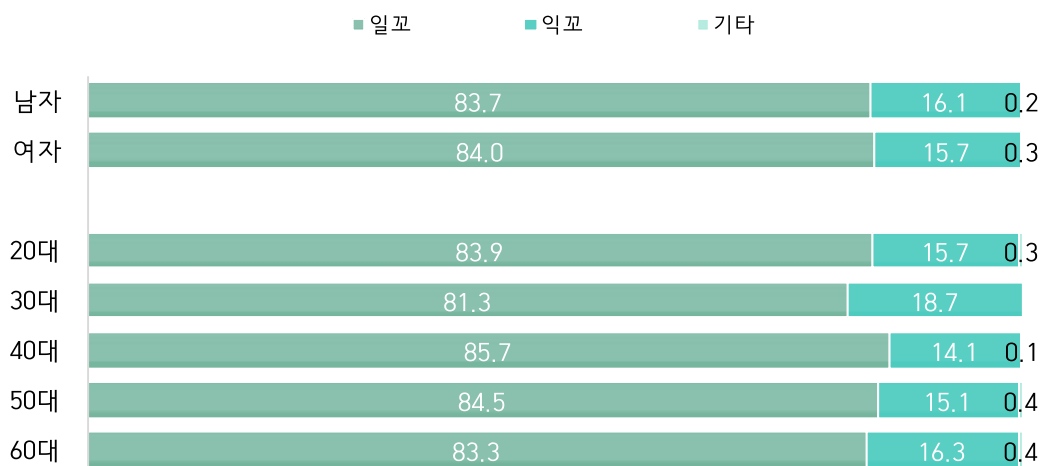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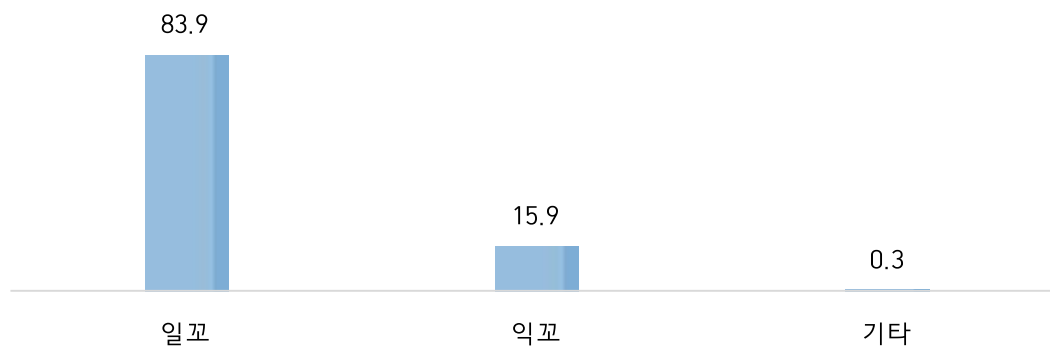
문1

책을 ‘보고 있다’와 같은 뜻으로 “책을 소리내어 어찌고 있다”고 합니까?

- ❖ “책을 소리내어 읽고 있다”라는 문장에서 ‘읽고’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확인한 결과, 주로 ‘일꼬’ (83.9%)라고 발음하며, 다음으로 ‘익꼬’(15.9%)가 뒤를 이음.
- ❖ 기타 응답으로는 ‘읽고’, ‘일고’ 등이 있음.

[ 그림 3-67 ] ‘읽고’에서의 자음군단순화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읽고’를 ‘일꼬’라고 발음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84.0%), 연령별로는 40대(85.7%),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권(98.9%),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89.9%), 최종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91.2%)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67 ] ‘읽고’에서의 자음군단순화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일꼬	익꼬	기타
전 체		(2,000)	83.9	15.9	0.3
성별	남성	(1,016)	83.7	16.1	0.2
	여성	(984)	84.0	15.7	0.3
연령	20대	(352)	83.9	15.7	0.3
	30대	(353)	81.3	18.7	0.0
	40대	(435)	85.7	14.1	0.1
	50대	(463)	84.5	15.1	0.4
	60대	(397)	83.3	16.3	0.4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86.4	13.4	0.2
	강원권	(58)	98.9	1.1	0.0
	충청권	(212)	82.7	17.3	0.0
	전라권	(182)	62.2	37.8	0.0
	경상권	(488)	85.5	13.7	0.7
	제주	(26)	78.0	22.0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87.5	12.5	0.0
	2인 가구	(454)	82.3	17.6	0.2
	3인 가구	(659)	84.1	15.7	0.2
	4인 가구	(674)	83.3	16.4	0.3
	5인 가구 이상	(69)	89.9	9.3	0.8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91.2	8.8	0.0
	중학교 졸업	(47)	82.8	17.2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84.3	15.4	0.3
	대학교 졸업(재학)	(1,144)	83.5	16.3	0.2
	대학원 재학 이상	(27)	84.5	15.5	0.0



## 2. ‘짧다’에서의 자음군단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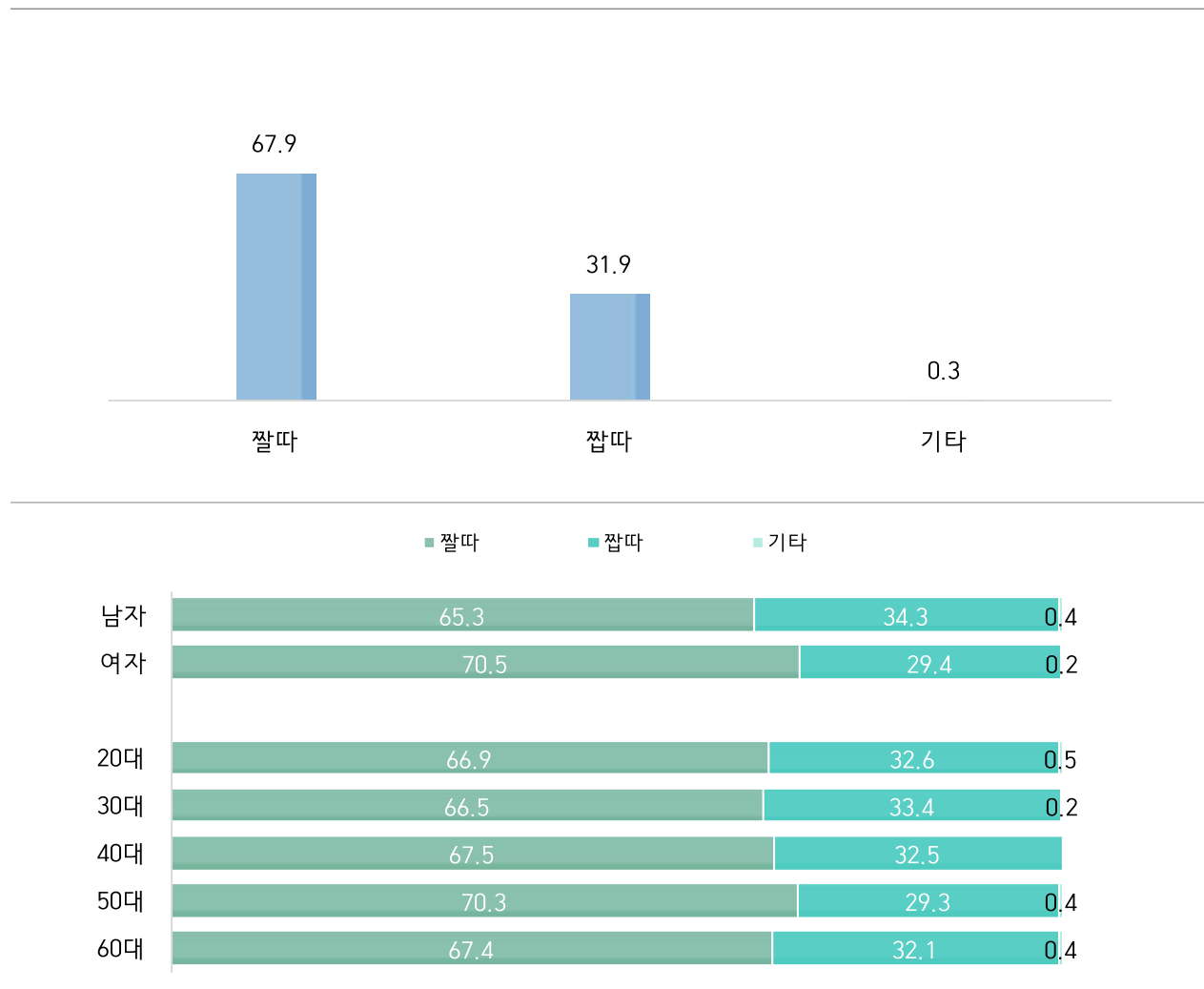
문2

길이가 다른 끈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길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 ❖ “하나는 길고 다른 하나는 짧다”라는 문장에서 ‘짧다’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확인한 결과, 주로 ‘짤따’(67.9%)라고 발음하며, 다음으로 ‘잡따’(31.9%)가 뒤를 이음.
- ❖ 기타 응답으로는 ‘잘다’가 있음.

[ 그림 3-68 ] ‘짧다’에서의 자음군단순화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짧다’를 ‘짤따’라고 발음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70.5%), 연령별로는 50대(70.3%),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권(87.5%),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72.7%), 최종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재학)(68.6%)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68 ] ‘짧다’에서의 자음군단순화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짤따	짧따	기타
전 체		(2,000)	67.9	31.9	0.3
성별	남성	(1,016)	65.3	34.3	0.4
	여성	(984)	70.5	29.4	0.2
연령	20대	(352)	66.9	32.6	0.5
	30대	(353)	66.5	33.4	0.2
	40대	(435)	67.5	32.5	0.0
	50대	(463)	70.3	29.3	0.4
	60대	(397)	67.4	32.1	0.4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71.5	28.5	0.0
	강원권	(58)	87.5	11.6	0.9
	충청권	(212)	70.7	29.3	0.0
	전라권	(182)	35.6	64.1	0.3
	경상권	(488)	69.0	30.1	0.9
	제주	(26)	59.3	40.7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70.0	29.5	0.5
	2인 가구	(454)	66.5	33.1	0.4
	3인 가구	(659)	67.1	32.6	0.3
	4인 가구	(674)	68.6	31.3	0.2
	5인 가구 이상	(69)	72.7	27.3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65.1	34.9	0.0
	중학교 졸업	(47)	61.6	38.4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68.6	30.9	0.5
	대학교 졸업(재학)	(1,144)	67.7	32.2	0.2
	대학원 재학 이상	(27)	67.4	32.6	0.0



### 3. ‘값이’에서의 자음군단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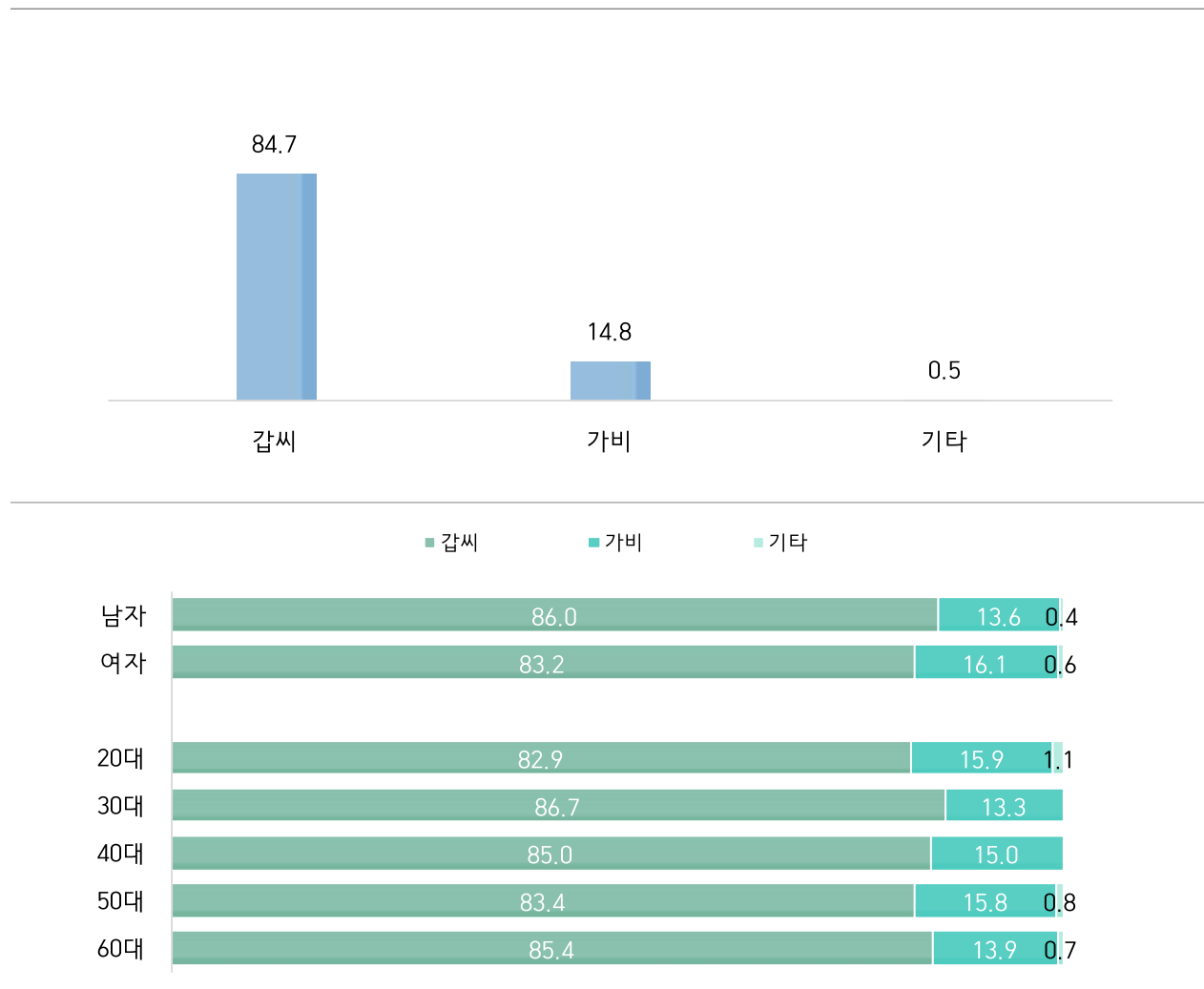
문3

물가가 많이 올랐을 경우 물건의 뭐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까? ‘가격’ 말고 한 글자 단어를 사용해 문장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 “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문장에서 ‘값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확인한 결과, 주로 ‘갑씨’(84.7%)라고 발음하며, 다음으로 ‘가비’(14.8%)이 뒤를 이음.
- ❖ 기타 응답으로는 ‘갑이’, ‘갑’, ‘값’ 등이 있음.

[ 그림 3-69 ] ‘값이’에서의 자음군단순화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값이’를 ‘갑씨’라고 발음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86.0%), 연령별로는 30대(86.7%),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권(86.4%),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86.0%), 최종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재학)(85.9%)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69 ] ‘값이’에서의 자음군단순화

(단위 : %)

구 분		사례 수	갑씨	가비	기타
전 체		(2,000)	84.7	14.8	0.5
성별	남성	(1,016)	86.0	13.6	0.4
	여성	(984)	83.2	16.1	0.6
연령	20대	(352)	82.9	15.9	1.1
	30대	(353)	86.7	13.3	0.0
	40대	(435)	85.0	15.0	0.0
	50대	(463)	83.4	15.8	0.8
	60대	(397)	85.4	13.9	0.7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85.9	13.9	0.2
	강원권	(58)	86.4	12.5	1.1
	충청권	(212)	86.3	13.7	0.0
	전라권	(182)	78.1	21.0	0.9
	경상권	(488)	83.8	15.0	1.2
	제주	(26)	78.4	21.6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86.0	13.5	0.5
	2인 가구	(454)	85.4	13.9	0.7
	3인 가구	(659)	83.8	15.8	0.4
	4인 가구	(674)	84.9	14.5	0.5
	5인 가구 이상	(69)	82.4	16.7	0.9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57.7	42.3	0.0
	중학교 졸업	(47)	81.9	18.1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85.9	13.7	0.4
	대학교 졸업(재학)	(1,144)	84.2	15.3	0.5
	대학원 재학 이상	(27)	85.4	10.9	3.7





#### 4. ‘못 잊는다’에서의 ‘ㄴ’ 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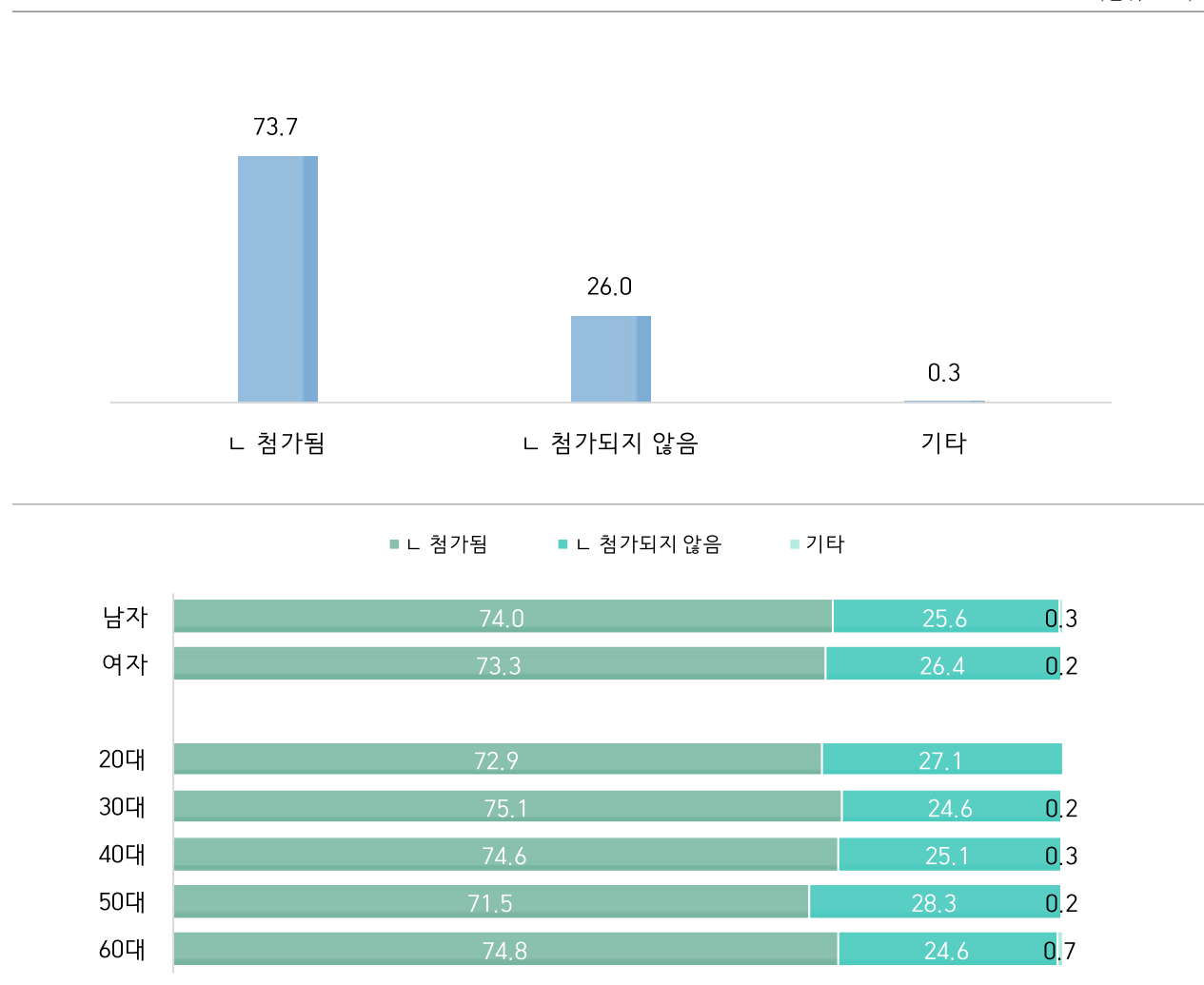
문4

첫사랑을(혹은 원수를) 영원히 못 어쩔다고 합니까?

- ❖ “못 잊는다”, “못 잊어” 등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확인한 결과, ‘ㄴ 첨가됨(예: 몬니저, 몬닌느다)’(73.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ㄴ 첨가되지 않음(예: 모디저, 모딘느다)’(26.0%)이 뒤를 이음.
- ❖ 기타 응답으로는 ‘몬인느다’, ‘몬이져’, ‘못잊어’가 있음.

[ 그림 3-70 ] ‘못 잊는다’에서의 ‘ㄴ’ 첨가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못 잇는다’, ‘못 잇어’에서 ‘ㄴ 첨가됨’으로 발음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74.0%), 연령별로는 30대(75.1%), 거주 지역별로는 충청권(75.0%), 가구원 수별로는 4인 가구(75.8%), 최종 학력별로는 중학교 졸업(82.1%)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70 ] ‘못 잇는다’에서의 ‘ㄴ’ 첨가

(단위 : %)

구 분		사 례 수	ㄴ 첨가됨 (예: 몬니저, 몬닌느다 등)	ㄴ 첨가되지 않음 (예: 모디저, 모딘느다 등)	기 타
전 체		(2,000)	73.7	26.0	0.3
성별	남성	(1,016)	74.0	25.6	0.3
	여성	(984)	73.3	26.4	0.2
연령	20대	(352)	72.9	27.1	0.0
	30대	(353)	75.1	24.6	0.2
	40대	(435)	74.6	25.1	0.3
	50대	(463)	71.5	28.3	0.2
	60대	(397)	74.8	24.6	0.7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74.0	25.8	0.2
	강원권	(58)	73.6	26.4	0.0
	충청권	(212)	75.0	25.0	0.0
	전라권	(182)	71.3	28.7	0.0
	경상권	(488)	73.8	25.3	0.8
	제주	(26)	63.6	36.4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67.6	32.4	0.0
	2인 가구	(454)	70.9	28.0	1.1
	3인 가구	(659)	75.2	24.8	0.0
	4인 가구	(674)	75.8	24.1	0.1
	5인 가구 이상	(69)	70.8	29.2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65.7	34.3	0.0
	중학교 졸업	(47)	82.1	17.9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76.1	23.7	0.2
	대학교 졸업(재학)	(1,144)	71.7	28.0	0.3
	대학원 재학 이상	(27)	79.6	16.7	3.7



## 5. ‘인사말’에서의 사잇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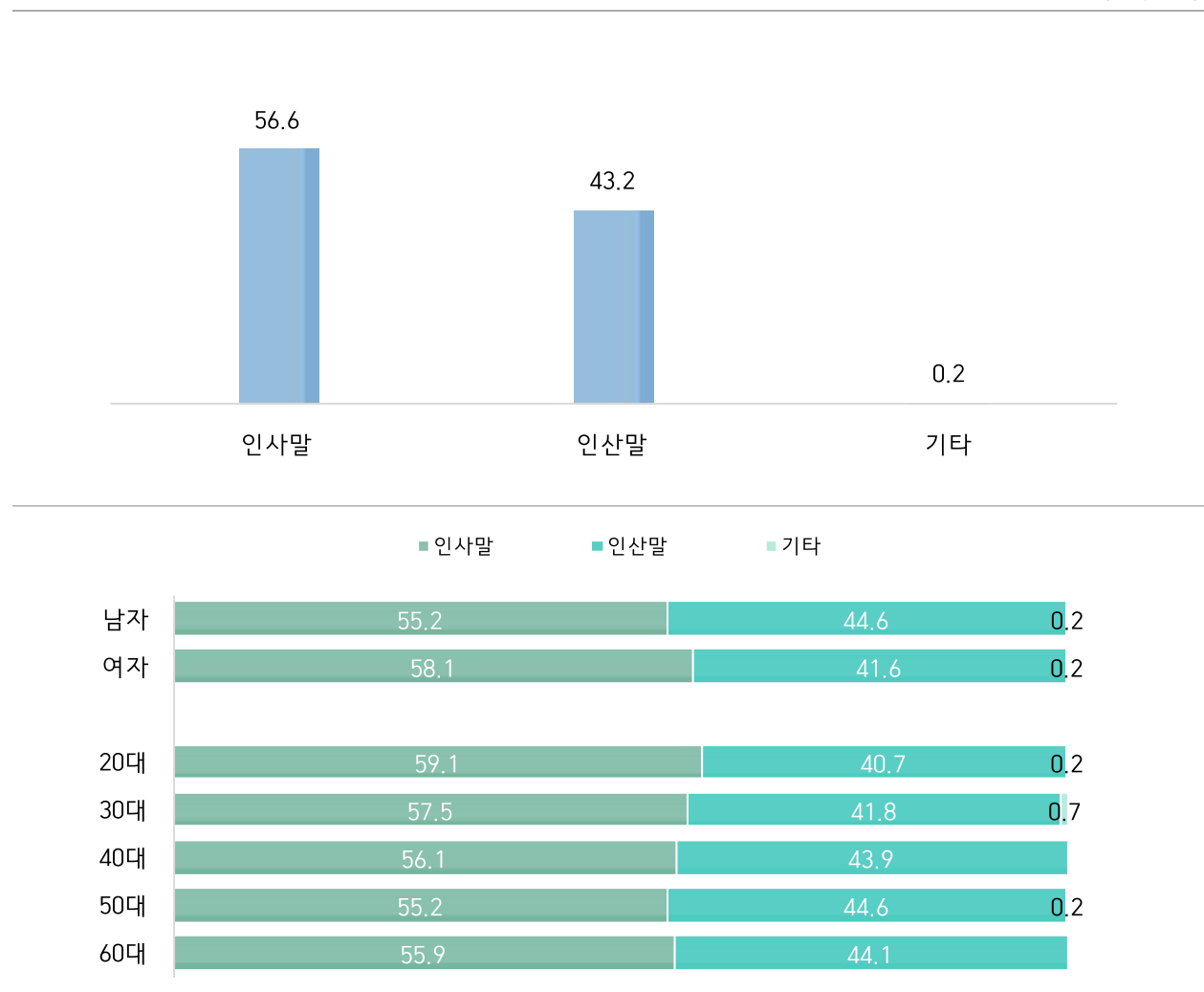
문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처럼 상대방에게 인사로 건네는 말을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 ❖ ‘인사말’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확인한 결과, 사잇소리가 없는 표준 발음 ‘인사말’(56.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잇소리가 나는 비표준 발음 ‘인산말’(43.2%)이 뒤를 이음.
- ❖ 기타 응답으로는 ‘인삿말’이 있음.

[ 그림 3-71 ] ‘인사말’에서의 사잇소리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인사말’을 사잇소리가 없는 표준 발음 ‘인사말’로 발음하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58.1%), 연령별로는 20대(59.1%), 거주 지역별로는 충청권(68.1%),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58.1%),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63.4%)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71 ] ‘인사말’에서의 사잇소리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인사말	인산말	기타
전 체		(2,000)	56.6	43.2	0.2
성별	남성	(1,016)	55.2	44.6	0.2
	여성	(984)	58.1	41.6	0.2
연령	20대	(352)	59.1	40.7	0.2
	30대	(353)	57.5	41.8	0.7
	40대	(435)	56.1	43.9	0.0
	50대	(463)	55.2	44.6	0.2
	60대	(397)	55.9	44.1	0.0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53.2	46.8	0.0
	강원권	(58)	58.4	40.4	1.2
	충청권	(212)	68.1	31.9	0.0
	전라권	(182)	55.5	44.5	0.0
	경상권	(488)	60.9	38.4	0.7
	제주	(26)	23.9	76.1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58.1	41.9	0.0
	2인 가구	(454)	54.6	45.4	0.0
	3인 가구	(659)	57.5	42.3	0.3
	4인 가구	(674)	57.4	42.3	0.3
	5인 가구 이상	(69)	52.3	47.7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48.4	51.6	0.0
	중학교 졸업	(47)	40.0	60.0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54.2	45.8	0.0
	대학교 졸업(재학)	(1,144)	58.9	40.7	0.4
	대학원 재학 이상	(27)	63.4	36.6	0.0



## 6. ‘장맛비’에서의 사잇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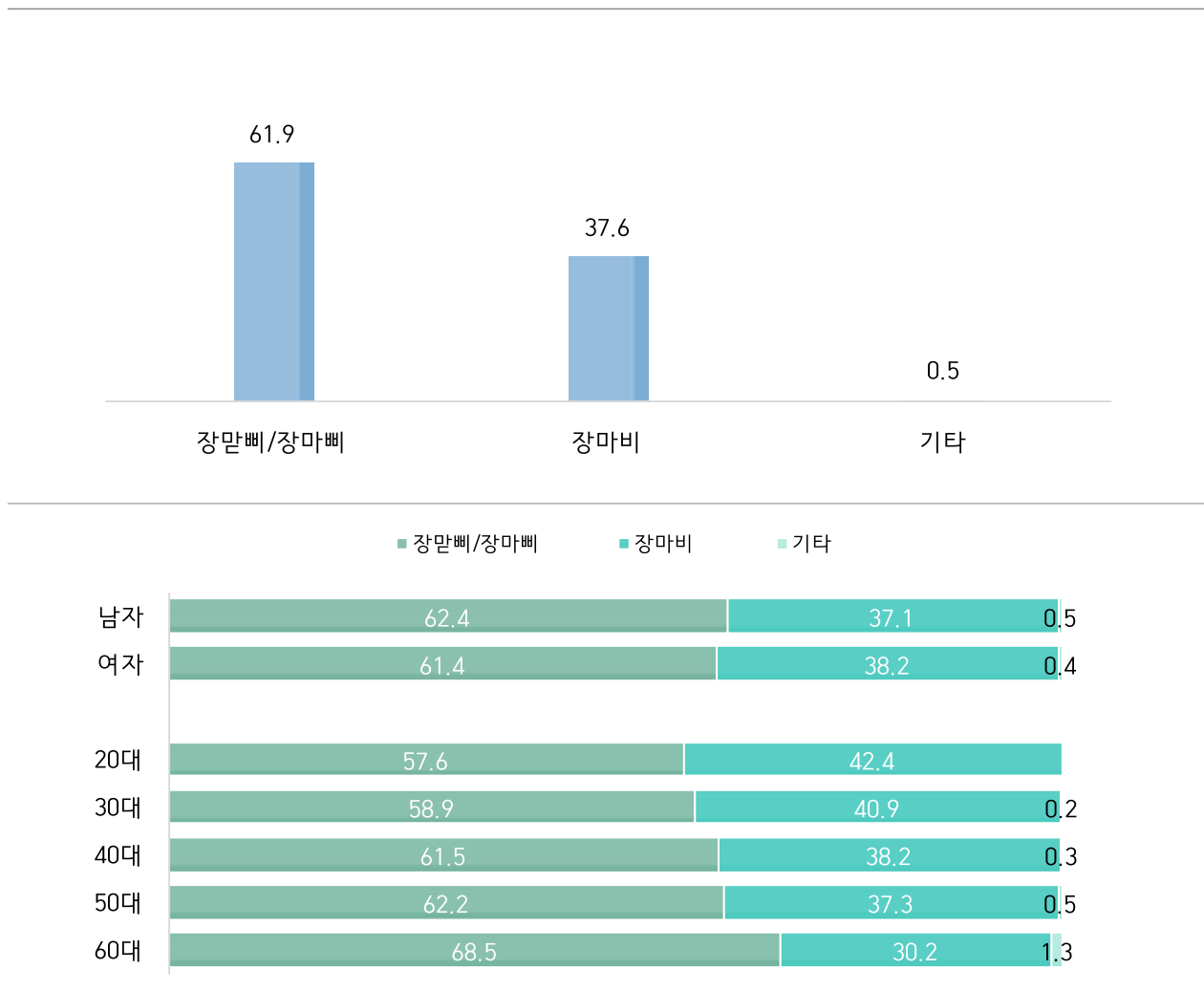
문6

‘장마철에 오는 비’를 무슨 비라고 합니까?

- ❖ ‘장맛비’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확인한 결과, 주로 사잇소리가 나는 표준 발음 ‘장만뻘/장마뻘’ (61.9%)라고 발음하며, 다음으로 ‘장마비’(37.6%)가 뒤를 이음.
- ❖ 기타 응답으로는 ‘장맛비’, ‘장맷뻘’ 등이 있음.

[ 그림 3-72 ] ‘장맛비’에서의 사잇소리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장맛비’를 ‘장만뻘/장마뻘’라고 발음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62.4%),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73.2%),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68.7%), 최종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86.0%)에서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표 3-72 ] ‘장맛비’에서의 사잇소리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장만뻘/장마뻘	장마비	기타
전 체		(2,000)	61.9	37.6	0.5
성별	남성	(1,016)	62.4	37.1	0.5
	여성	(984)	61.4	38.2	0.4
연령	20대	(352)	57.6	42.4	0.0
	30대	(353)	58.9	40.9	0.2
	40대	(435)	61.5	38.2	0.3
	50대	(463)	62.2	37.3	0.5
	60대	(397)	68.5	30.2	1.3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73.2	26.7	0.2
	강원권	(58)	69.0	31.0	0.0
	충청권	(212)	48.4	51.6	0.0
	전라권	(182)	53.7	46.3	0.0
	경상권	(488)	46.5	51.9	1.6
	제주	(26)	54.5	45.5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68.7	30.7	0.6
	2인 가구	(454)	65.5	33.7	0.8
	3인 가구	(659)	59.4	40.3	0.3
	4인 가구	(674)	60.6	39.1	0.3
	5인 가구 이상	(69)	60.1	38.3	1.6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86.0	14.0	0.0
	중학교 졸업	(47)	70.2	28.4	1.5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64.7	34.9	0.4
	대학교 졸업(재학)	(1,144)	60.2	39.3	0.5
	대학원 재학 이상	(27)	31.8	68.2	0.0



## 7. ‘신기다’에서의 유기음화/경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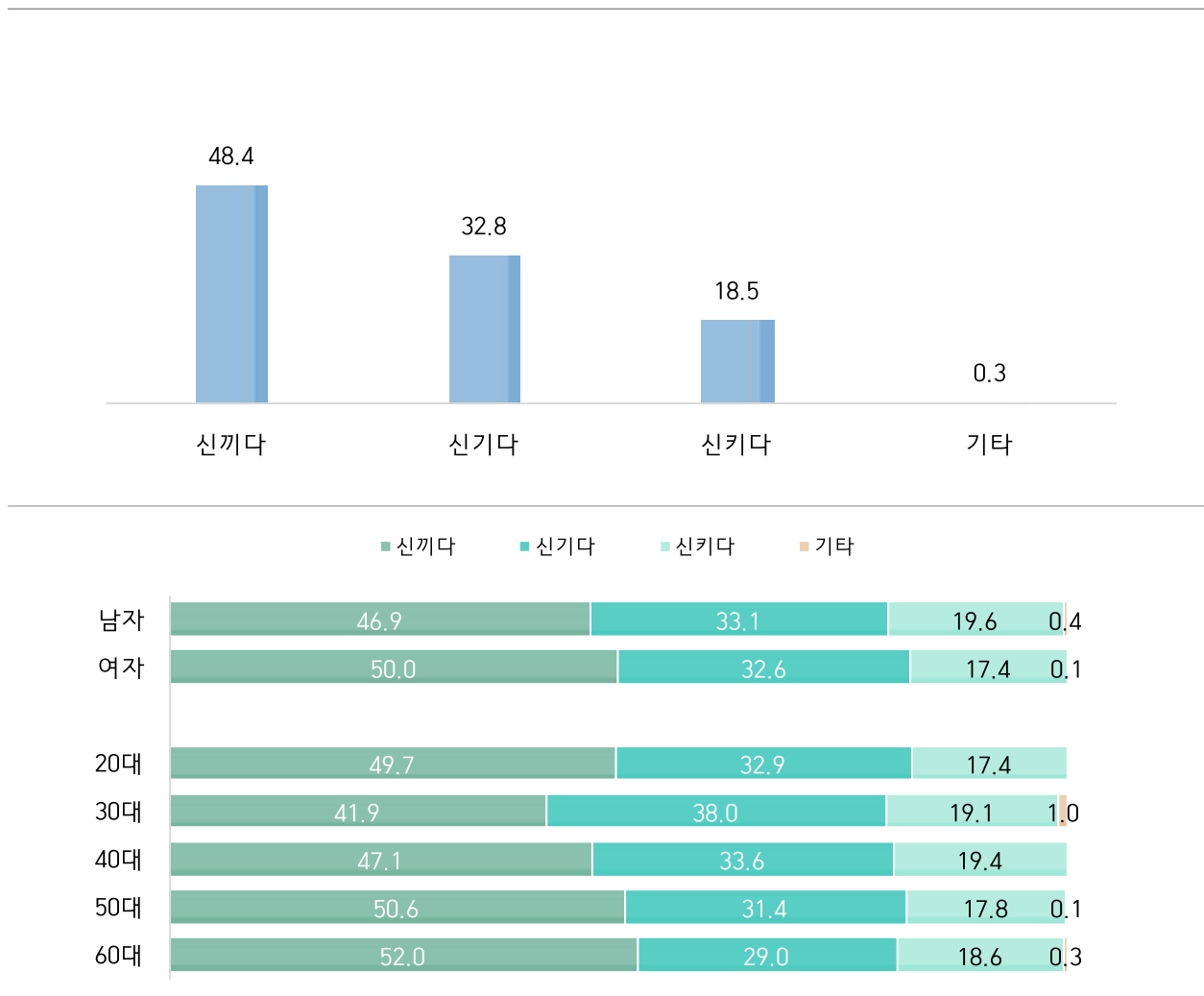
문7

혼자 신발을 신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신발을 신도록 할 때, 신발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 ❖ ‘신기다’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확인한 결과, 주로 경음화된 ‘신끼다’(48.4%)로 발음하며, 다음으로 유기음화나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신기다’(32.8%), 유기음화된 ‘신키다’(18.5%)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싱끼다’가 있음.

[ 그림 3-73 ] ‘신기다’에서의 유기음화/경음화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신기다’를 경음화된 ‘신끼다’라고 발음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50.0%), 연령별로는 60대(52.0%),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75.4%),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59.2%), 최종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82.7%)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73 ] ‘신기다’에서의 유기음화/경음화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신끼다	신기다	신키다	기타
전 체		(2,000)	48.4	32.8	18.5	0.3
성별	남성	(1,016)	46.9	33.1	19.6	0.4
	여성	(984)	50.0	32.6	17.4	0.1
연령	20대	(352)	49.7	32.9	17.4	0.0
	30대	(353)	41.9	38.0	19.1	1.0
	40대	(435)	47.1	33.6	19.4	0.0
	50대	(463)	50.6	31.4	17.8	0.1
	60대	(397)	52.0	29.0	18.6	0.3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49.4	30.2	20.4	0.0
	강원권	(58)	21.9	41.0	37.1	0.0
	충청권	(212)	35.8	41.0	23.2	0.0
	전라권	(182)	49.3	33.9	16.8	0.0
	경상권	(488)	53.2	34.0	11.7	1.1
	제주	(26)	75.4	23.9	0.7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54.4	31.4	14.2	0.0
	2인 가구	(454)	50.2	30.0	19.6	0.2
	3인 가구	(659)	46.3	34.6	18.5	0.6
	4인 가구	(674)	46.9	34.8	18.3	0.0
	5인 가구 이상	(69)	59.2	19.2	20.9	0.8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82.7	0.0	17.3	0.0
	중학교 졸업	(47)	52.4	28.9	17.2	1.5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52.5	28.8	18.6	0.1
	대학교 졸업(재학)	(1,144)	45.3	36.0	18.3	0.4
	대학원 재학 이상	(27)	40.5	36.1	23.3	0.0





## 8. ‘밭이’에서의 어간 말음 재구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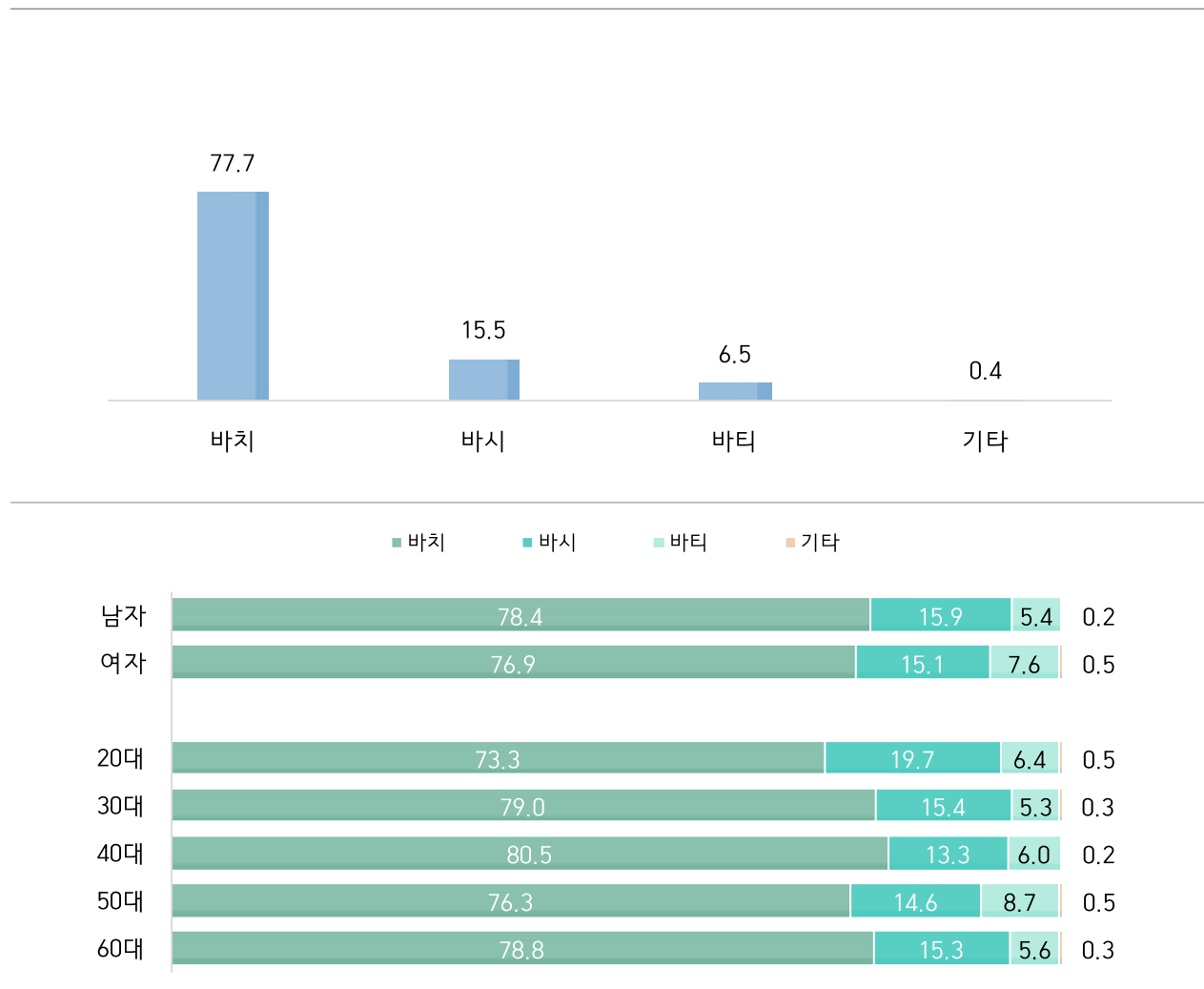
문8

들에는 벼를 키우는 논이 많고, 산에는 콩이나 감자를 키우는 무엇이 많다고 합니까?  
문장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 ‘밭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확인한 결과, 주로 ‘바치’(77.7%)라고 발음하며, 다음으로 ‘바시’(15.5%), ‘바티’(6.5%)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밭이’가 있음.

[ 그림 3-74 ] ‘밭이’에서의 어간 말음 재구조화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밭이’를 ‘바치’라고 발음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78.4%), 연령별로는 40대(80.5%),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권(91.6%),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82.1%), 최종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재학)(78.5%)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74 ] ‘밭이’에서의 어간 발음 재구조화

(단위 : %)

구 분		사례 수	바치	바시	바티	기타
전 체		(2,000)	77.7	15.5	6.5	0.4
성별	남성	(1,016)	78.4	15.9	5.4	0.2
	여성	(984)	76.9	15.1	7.6	0.5
연령	20대	(352)	73.3	19.7	6.4	0.5
	30대	(353)	79.0	15.4	5.3	0.3
	40대	(435)	80.5	13.3	6.0	0.2
	50대	(463)	76.3	14.6	8.7	0.5
	60대	(397)	78.8	15.3	5.6	0.3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80.4	14.5	5.2	0.0
	강원권	(58)	91.6	4.2	4.1	0.0
	충청권	(212)	74.1	19.6	6.3	0.0
	전라권	(182)	66.1	24.4	9.5	0.0
	경상권	(488)	75.9	13.9	8.8	1.4
	제주	(26)	80.5	17.1	0.7	1.7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81.3	13.6	5.1	0.0
	2인 가구	(454)	75.2	17.2	6.8	0.8
	3인 가구	(659)	74.2	17.5	8.0	0.3
	4인 가구	(674)	81.4	13.3	5.0	0.2
	5인 가구 이상	(69)	82.1	11.1	6.8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74.8	16.7	8.5	0.0
	중학교 졸업	(47)	73.4	22.4	4.2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78.5	14.7	6.3	0.5
	대학교 졸업(재학)	(1,144)	77.4	15.8	6.6	0.2
	대학원 재학 이상	(27)	73.2	11.2	11.1	4.5



## 9. ‘부엌에’에서의 어간 말음 재구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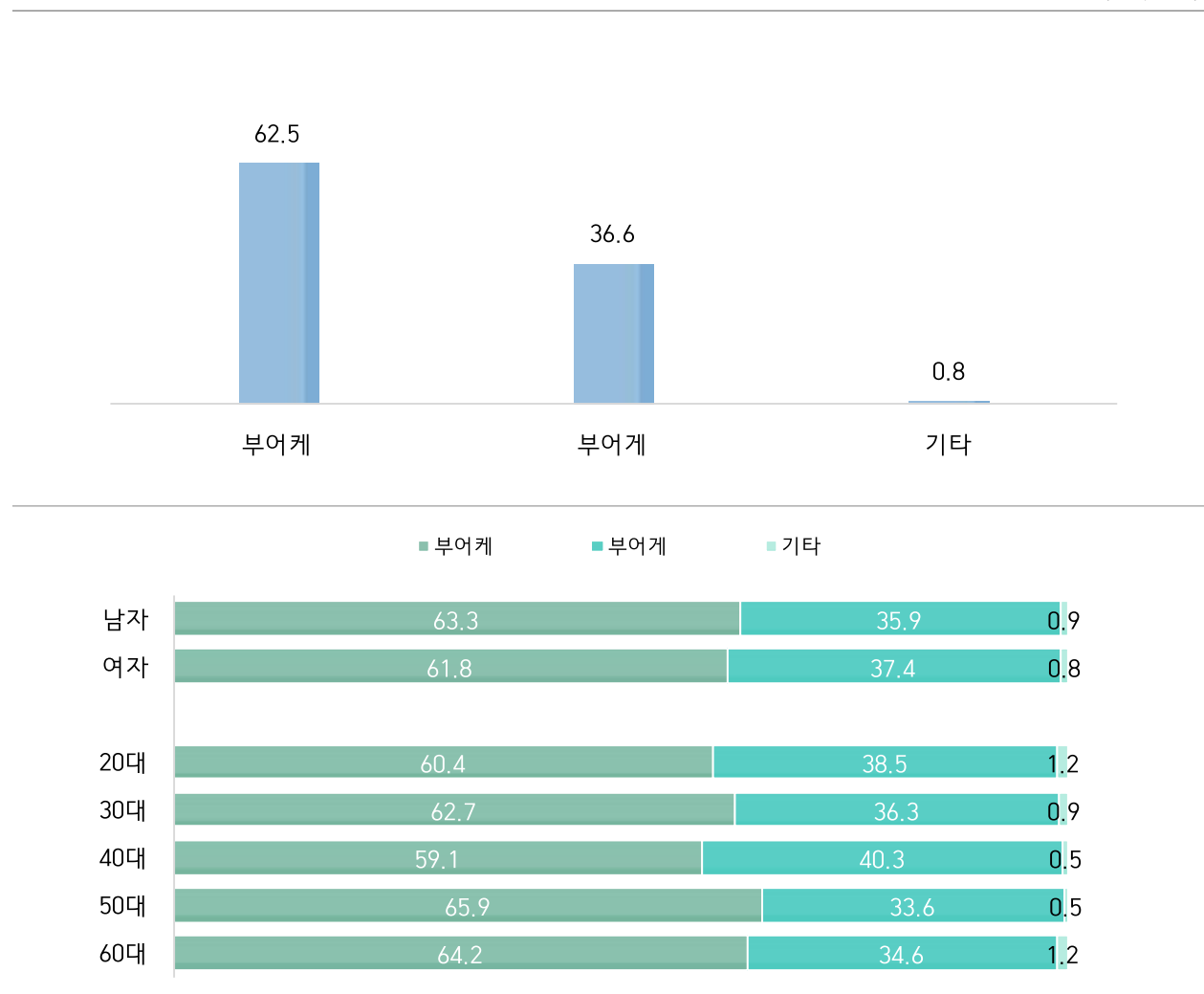
문9

고양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문장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 ‘부엌에’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확인한 결과, 주로 ‘부어케’(62.5%)라고 발음하며, 다음으로 ‘부어게’(36.6%)가 뒤를 이음.
- ❖ 기타 응답으로는 ‘부엌에’, ‘부엌’, ‘부엌에’ 등이 있음.

[ 그림 3-75 ] ‘부엌에’에서의 어간 말음 재구조화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부억에’를 ‘부어케’라고 발음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63.3%), 연령별로는 50대(65.9%),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권(90.4%),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66.6%), 최종 학력별로는 중학교 졸업(74.4%)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75 ] ‘부억에’에서의 어간 발음 재구조화

(단위 : %)

구 분		사례 수	부어케	부억에	기타
전 체		(2,000)	62.5	36.6	0.8
성별	남성	(1,016)	63.3	35.9	0.9
	여성	(984)	61.8	37.4	0.8
연령	20대	(352)	60.4	38.5	1.2
	30대	(353)	62.7	36.3	0.9
	40대	(435)	59.1	40.3	0.5
	50대	(463)	65.9	33.6	0.5
	60대	(397)	64.2	34.6	1.2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59.5	40.2	0.3
	강원권	(58)	90.4	9.6	0.0
	충청권	(212)	66.0	34.0	0.0
	전라권	(182)	65.2	34.8	0.0
	경상권	(488)	65.5	31.7	2.8
	제주	(26)	20.1	79.9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66.6	31.2	2.2
	2인 가구	(454)	65.0	33.3	1.7
	3인 가구	(659)	62.7	36.6	0.7
	4인 가구	(674)	60.8	38.9	0.3
	5인 가구 이상	(69)	53.1	46.9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63.5	36.5	0.0
	중학교 졸업	(47)	74.4	22.7	2.9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61.8	37.3	0.9
	대학교 졸업(재학)	(1,144)	62.7	36.8	0.5
	대학원 재학 이상	(27)	55.8	34.1	10.1



## 10. ‘베개’에서의 모음 재구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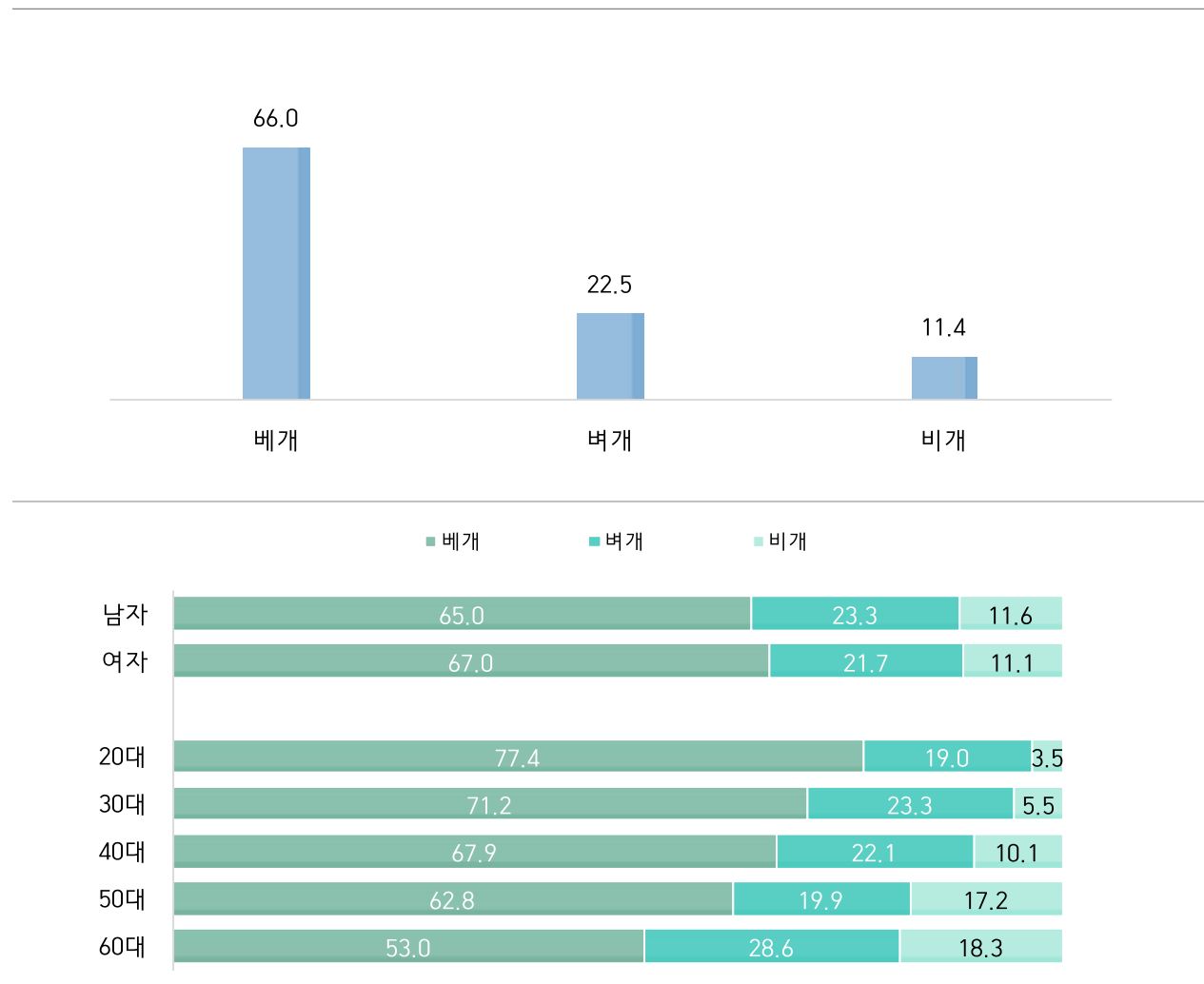
문10

잠잘 때 머리를 받치는 물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 잠잘 때 머리를 받치는 물건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확인한 결과, ‘베개’(66.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벼개’(22.5%), ‘비개’(11.4%) 순임.

[ 그림 3-76 ] ‘베개’에서의 모음 재구조화

(단위 : %)



\* 전체 응답 기준, 0.1% 미만 응답 값 제외

## ■ 특성별 분석

- ❖ 잠잘 때 머리를 받치는 물건을 ‘베개’라고 부르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67.0%),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96.9%),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75.2%),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72.2%)에서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표 3-76 ] ‘베개’에서의 모음 재구조화

(단위 : %)

구 분		사례 수	베개	벼개	비개	기타
전 체		(2,000)	66.0	22.5	11.4	0.1
성별	남성	(1,016)	65.0	23.3	11.6	0.0
	여성	(984)	67.0	21.7	11.1	0.1
연령	20대	(352)	77.4	19.0	3.5	0.2
	30대	(353)	71.2	23.3	5.5	0.1
	40대	(435)	67.9	22.1	10.1	0.0
	50대	(463)	62.8	19.9	17.2	0.1
	60대	(397)	53.0	28.6	18.3	0.0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67.2	24.9	7.9	0.0
	강원권	(58)	87.3	4.7	7.2	0.9
	충청권	(212)	70.7	21.5	7.7	0.0
	전라권	(182)	43.2	23.0	33.9	0.0
	경상권	(488)	65.8	20.9	13.0	0.2
	제주	(26)	96.9	3.1	0.0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70.0	20.6	9.4	0.0
	2인 가구	(454)	54.8	25.7	19.4	0.1
	3인 가구	(659)	69.4	20.9	9.6	0.0
	4인 가구	(674)	68.3	22.9	8.6	0.2
	5인 가구 이상	(69)	75.2	17.7	7.1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30.3	6.9	62.8	0.0
	중학교 졸업	(47)	49.3	20.8	29.8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64.3	21.4	14.2	0.1
	대학교 졸업(재학)	(1,144)	68.0	23.7	8.3	0.1
	대학원 재학 이상	(27)	72.2	17.8	10.0	0.0



## 11. ‘퍼다’에서의 모음 재구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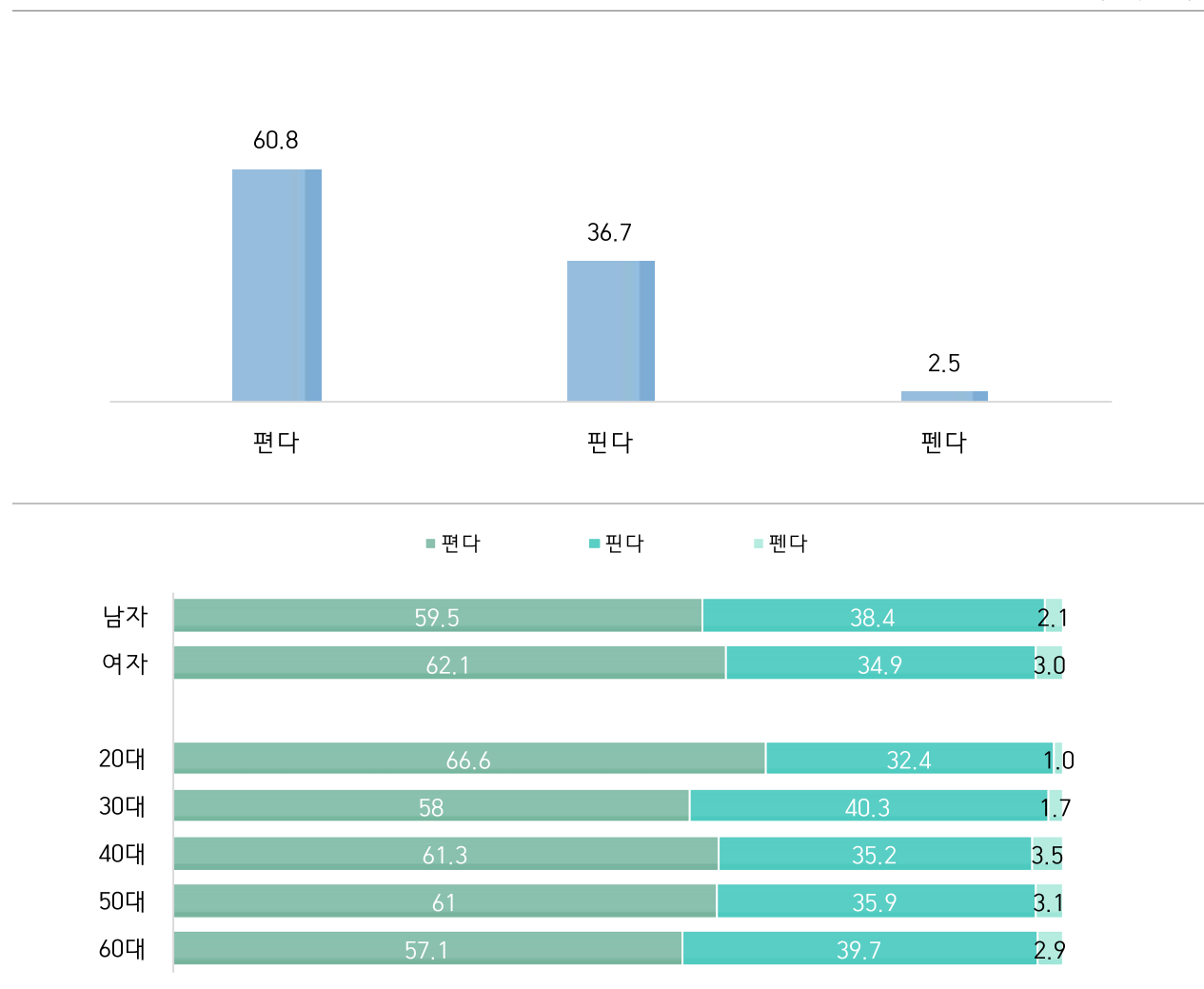
문11

주먹을 쥐었다가 뭉한다고 합니까?

- ❖ 주먹을 쥐었다가 펼치는 행동을 뭐라고 부르는지 확인한 결과, 주로 ‘편다’(60.8%)라고 부르며, 다음으로 ‘핀다’(36.7%), ‘펜다’(2.5%) 순임.

[ 그림 3-77 ] ‘퍼다’에서의 모음 재구조화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주먹을 ‘편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62.1%), 연령별로는 20대(66.6%),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권(82.6%),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78.1%),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재학)(62.9%)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77 ] ‘편다’에서의 모음 재구조화

(단위 : %)

구 분		사례 수	편다	핀다	펜다	기타
전 체		(2,000)	60.8	36.7	2.5	0.0
성별	남성	(1,016)	59.5	38.4	2.1	0.0
	여성	(984)	62.1	34.9	3.0	0.1
연령	20대	(352)	66.6	32.4	1.0	0.0
	30대	(353)	58.0	40.3	1.7	0.0
	40대	(435)	61.3	35.2	3.5	0.0
	50대	(463)	61.0	35.9	3.1	0.0
	60대	(397)	57.1	39.7	2.9	0.2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65.3	33.3	1.4	0.0
	강원권	(58)	82.6	17.4	0.0	0.0
	충청권	(212)	51.4	48.3	0.3	0.0
	전라권	(182)	43.6	51.2	5.2	0.0
	경상권	(488)	58.7	35.7	5.4	0.2
	제주	(26)	67.3	32.7	0.0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64.3	33.5	2.2	0.0
	2인 가구	(454)	59.7	37.8	2.3	0.2
	3인 가구	(659)	57.4	40.0	2.5	0.0
	4인 가구	(674)	62.2	34.8	3.0	0.0
	5인 가구 이상	(69)	78.1	21.9	0.0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14.7	76.8	0.0	8.5
	중학교 졸업	(47)	44.7	52.5	2.8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59.4	37.3	3.3	0.0
	대학교 졸업(재학)	(1,144)	62.9	35.3	1.8	0.0
	대학원 재학 이상	(27)	53.3	34.5	12.2	0.0





## 12. ‘바라’에서의 모음 재구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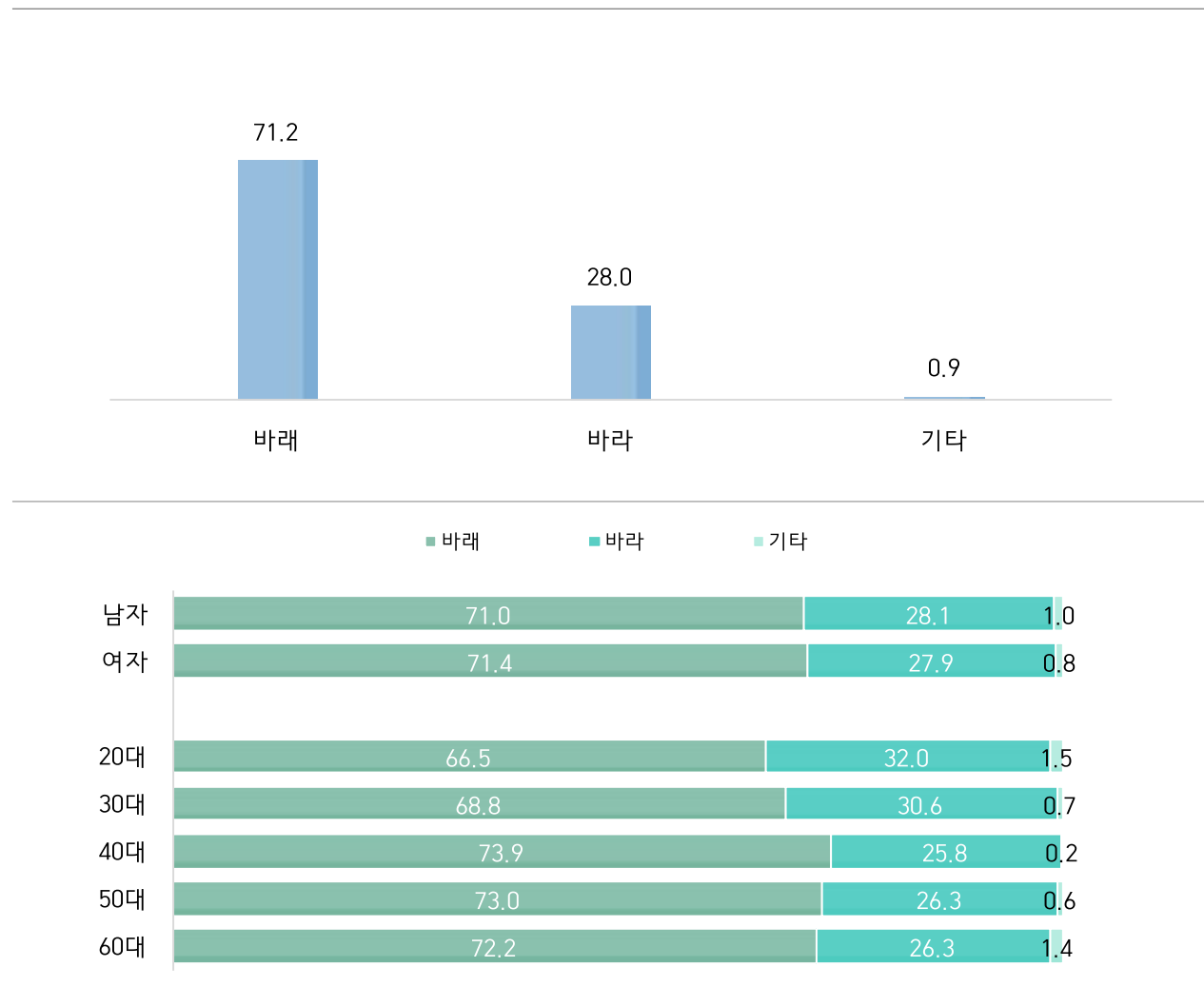
문12

친구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늘 건강하기를 뽀뽀.”라고 말할 때, ‘뽀뽀’는 두 글자로 어떻게 말합니까?

- ❖ “늘 건강하기를 바라”라는 문장에서 ‘바라’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확인한 결과, 주로 ‘바래’(71.2%)라고 발음하며, 다음으로 ‘바라’(28.0%)가 뒤를 이음.
- ❖ 기타 응답으로는 ‘빌게’, ‘바라요’, ‘바란다’ 등이 있음.

[ 그림 3-78 ] ‘바라’에서의 모음 재구조화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늘 건강하기를 ‘바래’라고 발음하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71.4%), 연령별로는 40대(73.9%),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91.9%),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75.4%), 최종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91.5%)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78 ] ‘바라’에서의 모음 재구조화

(단위 : %)

구 분		사례 수	바래	바라	기타
전 체		(2,000)	71.2	28.0	0.9
성별	남성	(1,016)	71.0	28.1	1.0
	여성	(984)	71.4	27.9	0.8
연령	20대	(352)	66.5	32.0	1.5
	30대	(353)	68.8	30.6	0.7
	40대	(435)	73.9	25.8	0.2
	50대	(463)	73.0	26.3	0.6
	60대	(397)	72.2	26.3	1.4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71.4	28.0	0.6
	강원권	(58)	78.2	21.8	0.0
	충청권	(212)	71.3	28.7	0.0
	전라권	(182)	73.4	26.6	0.0
	경상권	(488)	67.9	29.8	2.3
	제주	(26)	91.9	8.1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75.4	23.6	1.0
	2인 가구	(454)	68.3	30.6	1.2
	3인 가구	(659)	68.7	31.1	0.2
	4인 가구	(674)	74.3	24.2	1.4
	5인 가구 이상	(69)	73.8	26.2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91.5	0.0	8.5
	중학교 졸업	(47)	67.3	29.8	2.9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74.7	24.7	0.6
	대학교 졸업(재학)	(1,144)	68.7	30.5	0.8
	대학원 재학 이상	(27)	70.8	21.5	7.7



### 13. ‘잡아라’에서의 모음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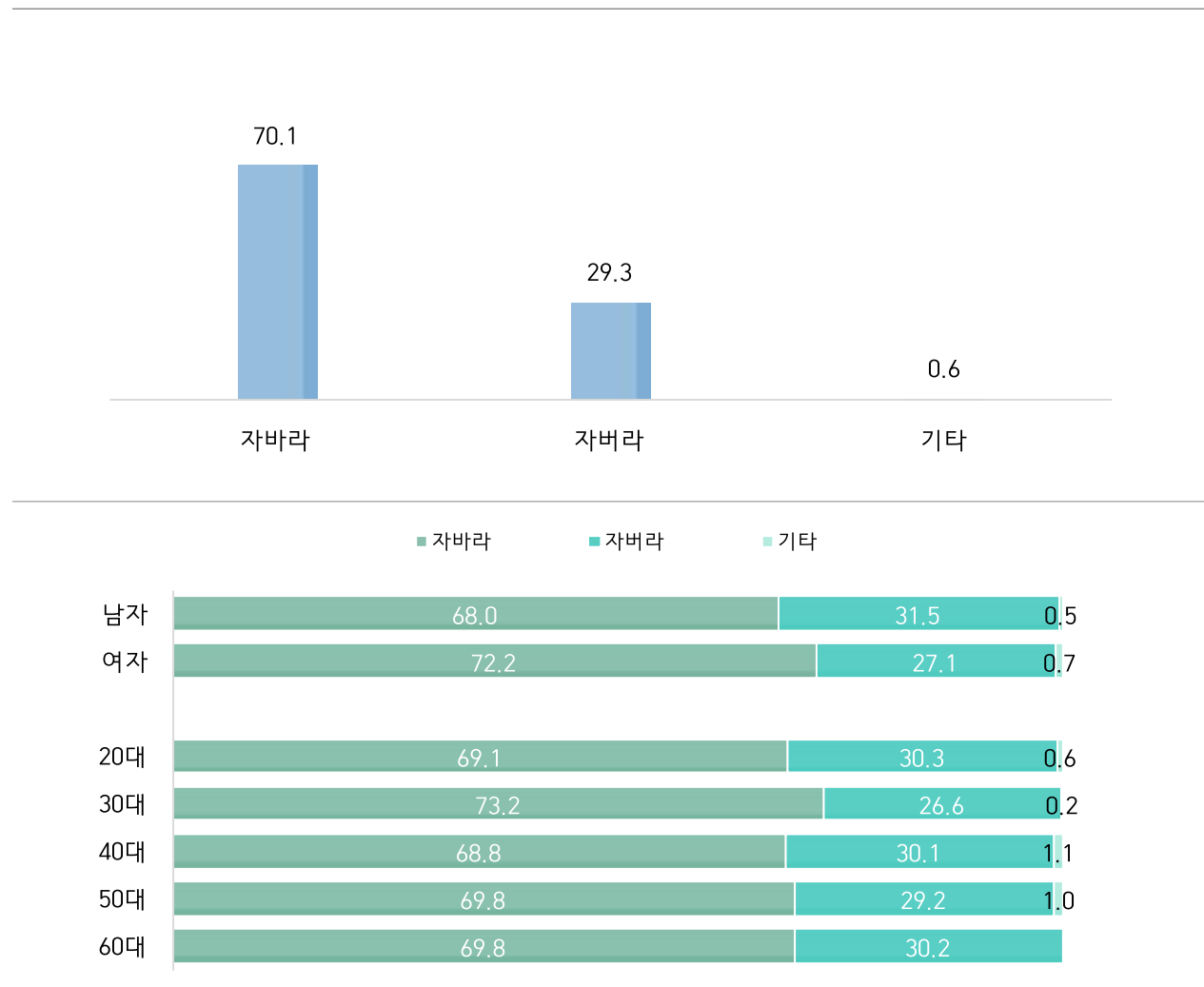
문13

아이를 데리고 사람 많은 곳에 갈 때, “내 손을 꼭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 ❖ “내 손을 꼭 잡아라”라는 문장에서 ‘잡아라’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확인한 결과, 주로 모음조화가 일어나는 ‘자바라’(70.1%)라고 발음하며, 다음으로 ‘자버라’(29.3%)가 뒤를 이음.
- ❖ 기타 응답으로는 ‘잡아라’, ‘쥐어라’, ‘잡어라’ 등이 있음.

[ 그림 3-79 ] ‘잡아라’에서의 모음조화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잡아라’를 모음조화가 일어나는 ‘자바라’라고 발음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72.2%), 연령별로는 30대(73.2%),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92.8%), 가구원 수별로는 5인 가구 이상(75.8%),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94.2%)에서 높게 나타남.

[ 표 3-79 ] ‘잡아라’에서의 모음조화

(단위 : %)

구 분		사 례 수	자바라	자버라	기타
전 체		(2,000)	70.1	29.3	0.6
성별	남성	(1,016)	68.0	31.5	0.5
	여성	(984)	72.2	27.1	0.7
연령	20대	(352)	69.1	30.3	0.6
	30대	(353)	73.2	26.6	0.2
	40대	(435)	68.8	30.1	1.1
	50대	(463)	69.8	29.2	1.0
	60대	(397)	69.8	30.2	0.0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64.8	34.8	0.5
	강원권	(58)	76.0	20.6	3.4
	충청권	(212)	80.1	19.9	0.0
	전라권	(182)	60.9	38.2	0.9
	경상권	(488)	78.4	20.8	0.7
	제주	(26)	92.8	7.2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68.8	31.2	0.0
	2인 가구	(454)	68.6	31.0	0.4
	3인 가구	(659)	68.8	30.4	0.8
	4인 가구	(674)	72.0	27.4	0.6
	5인 가구 이상	(69)	75.8	23.4	0.8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82.7	17.3	0.0
	중학교 졸업	(47)	67.5	32.5	0.0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67.6	31.7	0.7
	대학교 졸업(재학)	(1,144)	71.1	28.3	0.6
	대학원 재학 이상	(27)	94.2	5.8	0.0



## 14. ‘원룸’에서의 자음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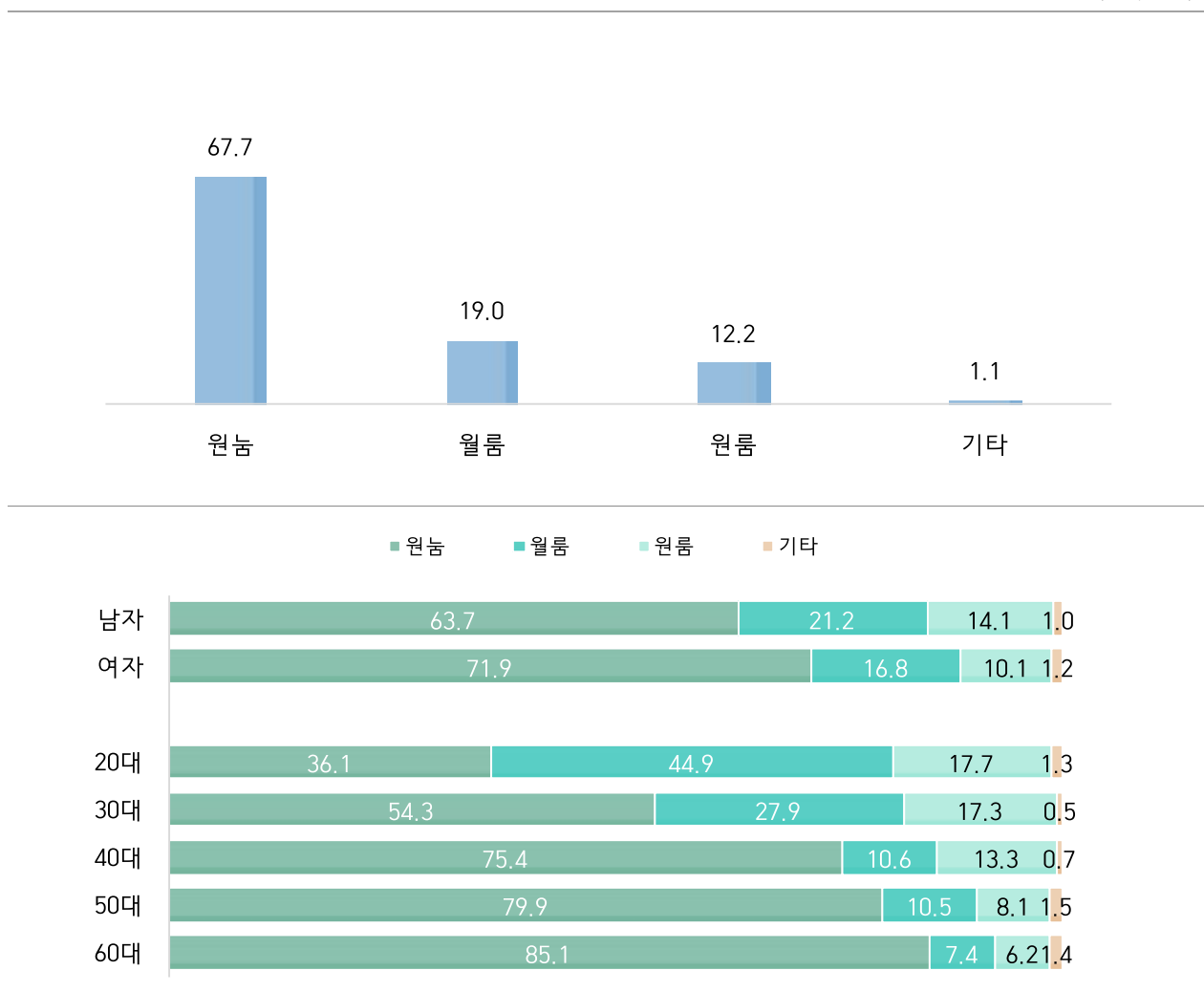
문14

방 하나에 침실, 거실, 부엌 등이 다 있는 집을 뭐라고 합니까?

- ❖ 방 하나에 침실, 거실, 부엌 등이 다 있는 집을 뭐라고 하는지 확인한 결과, ‘원룸’은 주로 비음화된 ‘원눔’(67.7%)이라 발음하며, 다음으로 유음화된 ‘월룸’(19.0%), 자음동화가 일어나지 않은 ‘원룸’(1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림 3-80 ] ‘원룸’에서의 자음동화

(단위 : %)



## ■ 특성별 분석

- ❖ ‘원룸’을 비음화 된 ‘원눔’이라고 발음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71.9%), 연령별로는 60대(85.1%), 거주 지역별로는 경상권(73.5%), 가구원 수별로는 2인 가구(77.6%), 최종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100.0%)에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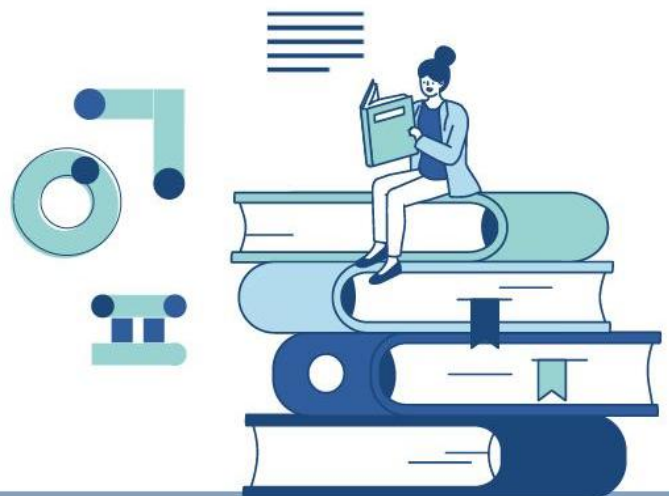
[ 표 3-80 ] ‘원룸’에서의 자음동화

(단위 : %)

구 분		사례 수	원눔	월룸	원룸	기타
전 체		(2000)	67.7	19.0	12.2	1.1
성별	남성	(1016)	63.7	21.2	14.1	1.0
	여성	(984)	71.9	16.8	10.1	1.2
연령	20대	(352)	36.1	44.9	17.7	1.3
	30대	(353)	54.3	27.9	17.3	0.5
	40대	(435)	75.4	10.6	13.3	0.7
	50대	(463)	79.9	10.5	8.1	1.5
	60대	(397)	85.1	7.4	6.2	1.4
거주 지역	수도권	(1034)	66.0	17.8	15.0	1.2
	강원권	(58)	67.6	16.4	16.0	0.0
	충청권	(212)	64.5	24.8	10.8	0.0
	전라권	(182)	65.9	25.6	8.5	0.0
	경상권	(488)	73.5	17.0	7.7	1.8
	제주	(26)	69.0	21.0	10.0	0.0
가구원 수	1인 가구	(144)	69.5	24.3	5.7	0.5
	2인 가구	(454)	77.6	13.6	8.0	0.8
	3인 가구	(659)	61.4	23.1	14.3	1.2
	4인 가구	(674)	66.3	17.8	14.6	1.3
	5인 가구 이상	(69)	73.0	16.9	9.2	0.9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100.0	0.0	0.0	0.0
	중학교 졸업	(47)	86.2	5.9	5.9	1.9
	고등학교 졸업(재학)	(771)	78.2	10.0	10.2	1.7
	대학교 졸업(재학)	(1144)	59.6	25.7	13.9	0.7
	대학원 재학 이상	(27)	66.1	25.3	8.6	0.0

## 제4장

# 조사 결과 심층 분석 및 정책 제언









## I

## 변인별 주요 변이 및 변화 양상 분석

- ❖ 변인별 주요 변이 및 변화 양상은 지역적 변인과 사회적 변인으로 나누어 어휘/문법/담화/음운의 영역에서 특정 변인에 따라 상대적으로 뚜렷한 변이 또는 변화가 나타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변화 관련 분석에서는 2015년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2016년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2021년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 등의 기존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하였음.
- ❖ 다만, 2015년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와 <2021년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는 조사 지역과 응답자의 수가 전국의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본 조사에 비해 매우 제한되었고, 2016년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는 자연스러운 발음을 유도했던 본 조사와 달리 문자를 읽는 발음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본 조사 결과와 기존 조사 결과의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 1. 지역적 변인 관련 주요 변이 및 변화

#### 1) 어휘

##### [어휘] 문1, 2 (부모에 대한 호칭)

- ❖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2021)의 결과와 유사하게 모든 지역에서 ‘엄마, 어머니’의 사용 비율이 모든 지역에서 95%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점차 표준형으로 교체되는 것으로 분석됨. 다만, 전라권과 충청권에서 지역어형인 ‘엄니’를 적은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전라권: 4.3%, 충청권: 2.3%).
- ❖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2021)의 결과와 유사하게 모든 지역에서 대체로 ‘아버지, 아빠’가 많이 사용됨.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아부지’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수도권: 6.4%, 충청권: 7.7%, 전라권: 10.2%, 경상권: 11.1%).

##### [어휘] 문3, 4, 5, 6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호칭)

- ❖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2021)의 결과와 유사하게 모든 지역에서 대체로 ‘아버님’이 많이 사용됨. 다만, 제주/전라권에서 ‘아버지’의 비율이 각각 35.8%, 28.8%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2021)의 결과와 유사하게 모든 지역에서 대체로 ‘장인어른, 아버님’이 많이 사용됨. 다만, 충청권과 경상권에서는 ‘장인어르신’의 비율이 각각 14.4%, 12.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2021)의 결과와 유사하게 모든 지역에서 대체로 ‘어머님, 어머니’가 많이 사용됨. 다만, 경상권, 강원권, 충청권에서는 ‘시어머니’의 비율이 각각 18.8%, 15.4%, 15.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2021)의 결과와 유사하게 모든 지역에서 대체로 ‘장모님, 어머님’이 많이 사용됨. 수도권/전라권은 ‘장모님, 어머님’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며, 강원권/충청권/경상권에서는 ‘장모님’의 비율이 ‘어머님’보다 높게 나타남. 그리고 제주에서만 ‘어머니’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6.6%).

#### [어휘] 문12 (남성 배우자에 대한 지칭)

- ❖ 모든 지역에서 ‘OO아빠’가 가장 많이 사용됨. 그리고 수도권/강원권은 ‘OO아빠 > 아범 > 오빠’의 순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충청권/전라권/경상권은 ‘OO아빠 > 오빠 > 아범’의 순으로 사용하고 있음.

#### [어휘] 문14 (장에 가서 쌀을 구입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 ❖ 수도권/강원권/충청권/경상권/제주권은 ‘사다, 사오다, 팔다’의 순으로 사용하고 있음. 다만, 전라권은 ‘팔다’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팔다, 사다, 사오다’의 순으로 사용하고 있음.
- ❖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2021)에서는 경상권과 전라권 50/80대 화자들이 ‘(쌀을) 팔다’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경상권과 전라권에서 ‘(쌀을) 팔다’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2021)에서는 경기도 80대 화자에게서만 ‘사오다’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사오다’의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 (수도권: 41.4%, 강원권: 37.7%, 충청권: 40.1%, 전라권: 29.9%, 경상권: 30.3%, 제주: 58.2%).

#### [어휘] 문18 (눈 속에 있는 흰 부분을 가리키는 말)

- ❖ 모든 지역에서 표준어형 ‘흰자, 흰자위’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전라권/경상권에서는 지역어형인 ‘흰창’을 각각 12.1%, 6.7%로 사용하고 있으며, 충청권은 0.9%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2021)에서도 경상권/전라권 50대 이상 화자들은 지역어형인 ‘흰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어휘] 문19 (꿇구멍 속에 낀 누런 색깔의 때를 가리키는 말)

- ❖ 수도권/제주권은 표준어형 ‘귀지(56.1%/63.7%)’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지역어형인 ‘꿇밥(38.6%/36.3%)’도 높은 비율로 나타남.



- ❖ 강원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은 지역어형이 표준어형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남. 강원권은 지역어형 ‘귀청(39.0%), 꺾밥(24.6%)’, 충청권/전라권은 지역어형 ‘꺾밥(58.4%/56.1%)’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 경상권에서는 표준어형 ‘귀지’가 29.5%로 나타나며, 지역어형인 ‘꺾밥, 귀창, 귀청, 귀똥’이 각각 27.5%, 25.4%, 15.4%, 2.2%로 나타남.

#### [어휘] 문20 (두 다리를 포개어 앉은 자세를 가리키는 말)

- ❖ 모든 지역에서 ‘양반다리, 아빠다리, 가부좌, 책상다리’ 등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나타남. ‘가부좌, 양반다리, 책상다리’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며, ‘아빠다리’도 단어 구성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말샘에 등재될 만큼 널리 쓰이는 단어라는 점을 고려하면 표준어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모든 지역에서 표준어형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전라권의 경우 지역어형인 ‘행감’이 10.0%로 사용되고 있어서 지역어형의 사용이 전라권에서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음.
- ❖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2021)에서는 ‘경북/전남’의 50대·70대에서 ‘평등다리, 평등이, 행감’ 등의 지역어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조사에서는 ‘경북/전남’뿐만 아니라 ‘전북’에서도 지역어형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지역어형의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전라권’을 제외하면 1% 미만이어서, 전라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표준어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어휘] 문23 (하품할 때 두 팔을 쭉 펴면서 몸을 뒤로 젖히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

- ❖ 모든 지역에서 (기지개를) ‘퍼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라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지개를) ‘퍼다, 켜다’의 순으로 나타나며, 전라권은 (기지개를) ‘퍼다(69.0%), 하다(17.0%), 켜다(7.9%)’의 순으로 나타남.
- ❖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2021)에서는 강원권 화자들이 (기지개를) ‘퍼다, 켜다’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강원’ 지역에서도 (기지개를) ‘하다’(7.8%)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어휘] 문29 (귀밑에서 턱까지 난 수명을 가리키는 말)

- ❖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2021)에서는 경상권, 전라권 80대 화자들이 지역어형 ‘구리새미, 굴레쉬엄’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조사에서도 ‘구리새미, 굴레쉬엄’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사용 비율은 1.5% 미만으로 지역어형이 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어휘] 문30 (넷물에 살고, 검은 갈색이나 누런 갈색의 나사 모양 딱딱한 껍질에 흰 얼룩무늬가 있는 동물을 가리키는 말)

- ❖ 모든 지역에서 ‘다슬기’의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2021)에서와 동일하게 이번 조사에서도 다양한 지역어형을 확인할 수 있음. 즉, ‘고동(고디), 올갱이, 달팽이, 대사리’ 등의 지역어형이 나타남. 20대로 갈수록 ‘다슬기’의 사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지역어형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줌.

[어휘] 문32 (가는 파같이 생기고 잎은 좀 납작한 채소를 가리키는 말)

- ❖ 수도권/강원권/제주권에서는 표준어형인 ‘부추’의 사용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충청권/전라권/경상권은 각각 73.1%, 61.8%, 58.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충청권과 경상권에서는 지역어형인 ‘정구지’의 사용 비율이 각각 24.8%, 41.1%로 나타났으며, 전라권에서는 지역어형인 ‘솔’의 사용 비율이 33.4%로 나타남. 제주권에서는 지역어형인 ‘세우리’의 사용 비율이 10.6%로 나타남.
- ❖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2021) 결과와 유사하게 모든 지역에서 표준어형과 지역어형이 공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아울러, 20대로 올수록 표준어형인 ‘부추’의 사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통하여 표준어형의 확산을 확인할 수 있음.

[어휘] 문33 (논에다 모를 심어서 키운 식물을 가리키는 말)

- ❖ 수도권/강원권/충청권/제주권에서는 표준어형인 ‘벼’의 사용 비율이 80% 이상 나타남. 다만, 전라권/경상권에서는 지역어형 ‘나락’이 41.0%, 28.0%로 나타남. 20대로 올수록 표준어형인 ‘벼’의 사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통하여 지역어형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어휘] 문35 (제사상에 올려놓는 밥을 가리키는 말)

- ❖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에서는 표준어형인 ‘제삿밥, 젓밥, 메’를 90%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어형인 ‘멧밥’은 강원권, 경상권, 제주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사용되고 있으며 (강원권: 22.5%, 경상권: 15.3%, 제주권: 15.5%), 전라권에서는 8.2%의 비율로 사용되고 있음.
- ❖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2021)에서는 경북/경남/전남/충남/충북의 50대, 80대에서 지역어형인 ‘멧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충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역어형 ‘멧밥’을 확인할 수 있음.

[어휘] 문36 (여닫게 되어 있는 물건을 잠그는 장치를 가리키는 말)

- ❖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2021) 결과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지역에서 표준어형인 ‘자물쇠, 자물통’의 사용 비율이 90% 이상 나타남. 다만, 전라권에서는 지역어형인 ‘열쇠통’ (20.6%)이 높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으며, ‘쇠통, 통쇠’ 등의 지역어형도 확인할 수 있음.



## 2) 문법

### [문법] 문4 (유일함을 강조하는 표현)

- ❖ 나를 도와준 유일한 친구에게 하는 말로 수도권·강원·충청권·부산에서는 ‘너밖에 없다’로 응답한 비율이 높고, 광주와 전남에서는 ‘너뿐이다’로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음.
- ❖ 기존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먼저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2021)의 경우 경상권에서 ‘너뿐이다’가 주요 응답형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지역어 조사 보고서>(2005-2013)의 자료를 보면 전라권과 경상권에서 전반적으로 ‘너뿐이다’와 같은 응답형이 두루 조사된 바 있음. 따라서 ‘너뿐이다’는 현재 경상권과 전라권에서 두루 쓰인다고 하겠음.

### [문법] 문5 (반말 의문형 어미)

- ❖ 전국적으로는 ‘가나?’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임. ‘가나?’가 우세한 경상권에서도 ‘가나?’의 응답 비율은 높으며, 특히 대구에서는 ‘가나?’보다 ‘가니?’의 응답 비율이 높음. ‘가나?’는 경상권에서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임. 따라서 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가나?’는 경상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2021)와의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음. 또한 타 지역에 비해 ‘가나?’는 전북에서, ‘가?’는 충북에서 우세한 편임.

### [문법] 문7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 사용)

- ❖ ‘안 깨끗해요’는 경상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다음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깨끗해요’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권 내에서도 경북이며, 경남의 경우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깨끗하지 않아요’로 응답한 비율은 수도권, 강원, 제주에서 높게 나타남. 장형 부정문의 사용이 중부 방언의 특징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양상이 본 조사에서도 드러났다고 하겠음. ‘안 깨끗해요’로 응답한 비율도 30-40% 정도로 상당한 편임. ‘깨끗 안 해요’의 사용이 두드러진 지역은 전라권임. 특히 광주와 전북에서 ‘깨끗 안 해요’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편임.
- ❖ 기존 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2021)에서는 ‘안 깨끗해요’가 주된 응답형으로 조사되었음. ‘깨끗하지 않아요’는 강원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본 조사의 결과와 유사함. 또한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2021)에서는 ‘깨끗 안 해요’로 응답한 지역이 전라권뿐 아니라 경상·경기·충남·제주 등 전국적으로 확인되었음.

### 3) 음운

#### [음운] 문1, 2, 3 (자음군단순화)

- ❖ ‘읽고’의 경우 대체로 ‘일꼬’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가운데, 전라권에서는 ‘익꼬’로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남(37.8%). 이는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의 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바 해당 조사에서는 ‘읽-’ 대신 ‘맑-’과 ‘굵-’이 조사되었는데 그 결과는 유사함.
- ❖ ‘짹다’의 경우, 전라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짹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전라권에서는 ‘짹따’의 비율이 높고(64.1%), 제주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짹따’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40.7%).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와도 일치하며, 해당 조사에서는 동일하게 ‘래’을 가진 용언 어간 중에서 ‘뵤-’이 조사되었는데 조사 결과는 유사함.
- ❖ ‘읽고’와 ‘짹다’에 대해 전라권에서는 ‘ㄱ’ 및 ‘ㄴ’을 남기는 방향으로 자음군단순화를 겪는 경향이 우세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대체로 ‘ㄹ’을 남기는 방향으로 자음군단순화를 겪음을 알 수 있음. 이는 기존 조사와의 결과도 일치함.
- ❖ ‘값이’의 경우 전국적으로 ‘갑씨’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보다 전라권과 제주에서 ‘가비’로 응답한 비율이 높음(각 21.0%, 21.6%). 이는 체언 ‘값’이 ‘갑’으로 재구조화된 결과로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와도 유사함. 해당 조사에서는 ‘값을’을 조사하였는데, 전라와 제주뿐 아니라 충청권에서도 ‘가블’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음운] 문6 (사잇소리)

- ❖ 전국적으로 ‘장마뻘/장말뻘’로 응답 즉 사잇소리를 실현한 응답형이 높게 나타나는 편임. 이는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와도 그 결과가 유사함. 특히 수도권과 강원에서 그 응답 비율이 높고, 충청권과 경상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잇소리를 실현하지 않은 ‘장마비’로 응답한 비율이 높음. 충청권은 충남과 세종에서 ‘장마비’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60.7%와 86.6%로 충북과 대전에 비하여 매우 높음. 특히 세종의 경우 ‘장마비’로 응답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 경상권에서는 경북과 경남의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는데, 대구와 울산을 포함한 경북 지역에서는 ‘장말뻘/장마뻘’의 응답 비율이 높으나 경남과 부산에서는 ‘장마비’로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음운] 문8 (어간 말음 재구조화)

- ❖ ‘발이’의 경우, 전국적으로 ‘바치’의 비율이 높으나 타 지역에서보다 충청·전라·제주에서 ‘바시’로 응답한 비율이 높음(각 19.6%, 24.4%, 17.1%).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2016)에서는 ‘ㅌ’를 발음으로 갖는 체언으로 ‘솔에’를 조사했는데, ‘소세’로 응답한 비율은 충청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음운] 문10. (모음 재구조화)

- ❖ 전국적으로 ‘베개’로 응답한 비율이 높음. 그중에서도 강원과 제주에서는 ‘베개’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87.3%와 96.9%로 매우 높은 편임. ‘벼개’의 경우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20-25% 내외의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큰 차이는 없으나 수도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24.9%). 특징적인 것은 전라권에서 타 지역에 비해 ‘비개’의 비율이 높다는 점임(33.9%). 경상권에서도 일부 ‘비개’가 확인됨(13.0%). 이러한 결과는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2021)와의 결과와도 일치함.

## 2. 사회적 변인 관련 주요 변이 및 변화

### 1) 어휘

#### [어휘] 문1, 2 (부모에 대한 호칭)

##### ◎ 응답자의 성별 관련 변이 및 변화

- ❖ 본인을 낳아준 여성(여자)에 대한 호칭은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데, 여성은 ‘어머니’(13.1%)보다 ‘엄마’(85.9%)를 6배 이상 많이 사용하는 반면, 남성은 ‘엄마’(65.5%)를 ‘어머니’(32.0%)보다 2배 정도만 더 많이 사용함.
- ❖ 여성이 남성보다 ‘엄마’라는 호칭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는 2015년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데, 해당 조사 결과에서도 여성은 ‘어머니’(14.7%)보다 ‘엄마’(84.7%)를 6배 가까이 많이 사용한 반면, 남성은 ‘엄마’(69.2%)를 ‘어머니’(30.0%)보다 2배 정도만 더 많이 사용함.
- ❖ 본인을 낳아준 남성(남자)에 대한 호칭은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는데, 여성은 ‘아버지’(39.0%)보다 ‘아빠’(52.7%)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남성은 ‘아버지’(56.3%)를 ‘아빠’(34.2%)보다 더 많이 사용함.

#####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본인을 낳아준 여성(여자)에 대한 호칭으로 가장 사용되는 비격식형 ‘엄마’(75.6%)는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이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본인을 낳아준 남성(남자)에 대한 호칭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격식형 ‘아버지’(47.8%)는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이 사용되는 경향을 보임.
- ❖ 비격식형 ‘엄마’와 ‘아빠’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 적게 사용된다는 동일한 경향을 보이지만 연령에 따른 감소의 폭에는 차이가 있는데, ‘엄마’는 연령이 높아져도 세대별 감소의 폭이 10% 내외로 크지 않은 반면, ‘아빠’는 40대 이후부터 세대별 감소의 폭이 앞 세대의 절반 전후가 될 정도로 큼.
- ❖ 연령이 높을수록 ‘엄마’와 ‘아빠’를 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연령에 따른 사용 감소의 폭에는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는 2015년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결과와도 유사함.

##### ◎ 응답자의 학력 관련 변이 및 변화

- ❖ 본인을 낳아준 여성(여자)에 대한 호칭으로 가장 사용되는 비격식형 ‘엄마’는 응답자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재학)(80.7%)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고등학교 졸업(재학) 이상에서 모두 70% 이상의 높은 비율로 사용되는 반면, 중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50% 전후의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사용됨.
- ❖ 본인을 낳아준 남성(남자)에 대한 호칭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격식형 ‘아버지’는 응답자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71.1%)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고등학교 졸업(재학) 이하에서 모두 60% 이상의 높은 비율로 사용되는 반면, 대학교 졸업(재학) 이상에서는 30%대로 감소함.





## [어휘] 문3, 4, 5, 6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호칭)

###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아내가 남편의 아버지를 직접 부르는 말은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남편이 아내의 아버지를 직접 부르는 말은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40대 이하는 ‘아버님’(50% 중반)을 ‘장인어른’(40% 내외)보다 10% 이상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50대 이상은 ‘장인어른’(50% 중후반)을 ‘아버님’(30% 초중반)보다 20%가량 더 많이 사용함.
- ❖ 아내가 남편의 어머니를 직접 부르는 말은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남편이 아내의 어머니를 직접 부르는 말은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님’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50대 이상은 ‘어머님’(30% 초반)보다 ‘장모님’(60% 후반)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40대 이하는 ‘장모님’의 사용이 10~20%가량 줄고 ‘어머님’의 사용이 10~20%가량 늘어남.

### ◎ 응답자의 학력 관련 변이 및 변화

- ❖ 아내가 남편의 아버지를 직접 부르는 말은 응답자의 학력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남편이 아내의 아버지를 직접 부르는 말은 응답자의 학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장인어른’은 응답자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72.7%)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재학)에서 50% 중반의 비율로 사용되는 반면, 대학교 졸업(재학) 이상에서는 모두 40%를 겨우 넘는 비율로 감소함.

## [어휘] 문8 (가게에서 젊어 보이는 여자 직원을 부르는 말)

### ◎ 응답자의 성별 관련 변이 및 변화

- ❖ 남성(45.9%)과 여성(32.3%) 모두 ‘여기요(저기요)’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아가씨’도 남성과 여성 모두 30%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언니’는 남성이 6.7%로 ‘이모’(14.2%)의 절반 정도로 적게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22.7%로 ‘이모’(12.7%)보다 2배 가까이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 ❖ 2015년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여성 응답자에게서 상당히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 남성은 이번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여기요(저기요)’(34.7%)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아가씨’(26.9%)를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며 ‘언니’(10%)를 ‘이모’(11.5%)보다 적게 사용한 반면, 여성은 이번 조사 결과와 달리 ‘언니’(48.8%)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여기요(저기요)’(17.6%)를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며 ‘이모’(12.9%)와 ‘아가씨’(12.4%)를 거의 동일한 정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여기요(저기요)’는 연령이 높을수록 적게 사용하여 20대는 50%가 넘게 많이 사용하지만 60대는 30%를 넘기지 못할 만큼 사용이 감소하는 반면, ‘아가씨’는 정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사용하여 20대는 10% 초반일 정도로 적게 사용하지만 60대는 50%에 가까울 정도로 사용이 증가함.

- ❖ 2015년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확인되는데, ‘여기요(저기요)’는 연령이 높을수록 적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아가씨’는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응답자의 학력 관련 변이 및 변화

- ❖ 응답자의 학력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여기요(저기요)’는 학력이 높을수록 많이 사용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7%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게 사용되지만 대학교 졸업(재학)(42.1%)과 대학원 재학 이상(81.6%)에서는 급격하게 사용이 증가하는 반면, ‘아가씨’는 정반대로 학력이 높을수록 적게 사용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60% 후반일 정도로 많이 사용되지만 대학교 졸업(재학)(27.3%)에서는 급격하게 사용이 감소하고 대학원 재학 이상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음.

[어휘] 문11 (여성 배우자에 대한 지칭)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결혼한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여성 배우자를 소개하며 가리키는 말은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와이프’는 연령이 낮을수록 많이 사용하여 20대와 30대에서는 65%가 넘다가 60대에서는 10% 초반으로 급감하는 반면, ‘집사람’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사용하여 20대와 30대에서는 20% 미만이다가 60대에서는 65%를 넘을 정도로 급증함.
- ❖ 2015년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확인되는데, ‘와이프’는 연령이 낮을수록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집사람’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응답자의 학력 관련 변이 및 변화

- ❖ 응답자의 학력에 따라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는데, ‘와이프’는 학력이 높을수록 많이 사용하여 고등학교 졸업(재학)에서도 20% 중반에 머물다가 대학교 졸업(재학) 이상에서 50% 중후반으로 급증하는 반면, ‘집사람’은 학력이 낮을수록 많이 사용하여 대학교 졸업(재학) 이상에서는 30%를 넘기지 않다가 중학교 졸업에서는 60% 중반으로 급증하고 고등학교 졸업(재학)과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도 각각 50%와 40%를 넘을 정도로 많이 사용됨.

[어휘] 문12 (남성 배우자에 대한 지칭)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자녀를 둔 며느리가 시부모나 친정 부모 앞에서 자신의 남성 배우자를 가리키는 말은 ‘○○아빠’가 모든 연령대에서 50% 후반에서 70% 후반에 이를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아범’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사용하여 20대에서는 5%도 안 되지만 60대에서 30%에 육박하는 반면, ‘오빠’는 연령이 낮을수록 많이 사용하여 50대와 60대에서는 1%대에 불과하지만 20대와 30대에서는 20% 중후반으로 급증함.



◎ 응답자의 학력 관련 변이 및 변화

- ❖ 모든 학력 집단에서 ‘○○아빠’는 50% 중반에서 70% 중반에 이를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아범’은 학력이 낮을수록 많이 사용하여 대학교 졸업(재학) 이상에서는 10%도 안 되지만 고등학교 졸업(재학) 이하에서는 20% 내외로 증가하는 반면, ‘오빠’는 학력이 높을수록 많이 사용하여 중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재학)에서도 5% 미만이지만 대학교 졸업(재학)에서는 15% 이상, 대학원 재학 이상에서는 20% 이상으로 증가함.

[어휘] 문20 (두 다리를 포개어 앉은 자세를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한쪽 다리를 오그리고 다른 쪽 다리를 그 위에 포개어 앉은 자세를 가리키는 말은 모든 연령대에서 ‘양반다리’가 가장 많이 사용됨. 20대는 ‘양반다리’(35.7%)와 ‘아빠다리’(34.1%) 순으로 많이 사용하고 그 차이가 매우 적음 ‘양반다리’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60대에서는 50%에 이르는 반면, ‘아빠다리’는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60대에서는 15% 이하만 사용함.

[어휘] 문24 (특별히 더 좋은 상태를 강조하여 꾸미는 말)

◎ 응답자의 성별 관련 변이 및 변화

- ❖ 오늘 기분이 다른 때에 비해 특별히 더 좋을 때 사용하는 부사로는 ‘너무’를 남성(28.0%)과 여성(27.2%) 모두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아주’는 남성(27.9%)이 여성(20.4%)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정말’은 여성(19.1%)이 남성(15.2%)보다 더 많이 사용함.
- ❖ 2015년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결과에서도 ‘너무’를 남성(28.5%)과 여성(41.8%) 모두 가장 많이 사용했지만, 여성이 10% 이상 더 많이 사용한 반면,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남성이 근소하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어휘] 문25 (세 번의 낮과 밤이 지나가는 동안을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는데, ‘삼일’은 20대(65%)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0대에서는 40% 초반이 되는 반면, ‘사흘’은 60대(57.5%)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대에서는 30% 중반이 됨.

[어휘] 문26 (회초리를 맞는 횟수가 삼 회인 경우를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모든 연령대에서 ‘세 대’가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세 대’는 20대(79.7%)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0대에서는 50% 초반이 되는 반면, ‘석 대’는 60대(48.4%)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대에서는 20% 초반이 됨.

[어휘] 문27 (손가락과 젓가락을 합쳐서 세는 단위)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는데, ‘벌’은 60대(66.5%)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대에서는 40% 미만이 되는 반면, ‘세트’는 20대(59.3%)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0대에서는 30% 초반이 됨.

[어휘] 문32 (가는 파같이 생기고 있는 좀 납작한 채소를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표준어인 ‘부추’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부추’가 20대에서 90%에 육박할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0대에서 60% 초반이 되는 반면, 지역어형인 ‘정구지’는 60대에서 30% 이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대와 30대에서는 10%도 되지 않음.
- ❖ 2015년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결과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정구지’의 사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어휘] 문33 (눈에 모를 심어서 키운 식물을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모든 연령대에서 ‘벼’가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벼’는 20대에서 90%가 넘는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여 60대에서 60% 미만이 되는 반면, ‘나락’은 60대에서 30% 이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감소하여 20대에서는 5%도 되지 않음.

[어휘] 문36 (여닫게 되어 있는 물건을 잠그는 장치를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모든 연령대에서 ‘자물쇠’가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자물쇠’는 20대에서 60% 중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0대에서 50% 미만이 되는 반면, ‘자물통’은 60대에서 40% 이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대에서는 30%도 되지 않음.



[어휘] 문37 (부엌 천장이나 벽이 연기에 까맣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모든 연령대에서 표준어인 ‘그을렸다’가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그을렸다’는 20대와 30대에서 60% 중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0대에서 40% 초반이 되는 반면, 그 지역어형들(끄실었다, 끄슬렀다, 끄실렀다 등)의 합은 60대에서 50% 후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대와 30대에서는 30% 중반이 됨.

[어휘] 문38 (뭉친 흰밥 위에 날생선 살을 얹어 만든 음식을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모든 연령대에서 ‘초밥’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초밥’은 60대에서 80% 이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대와 30대에서 60% 내외가 되는 반면, ‘스시’는 20대와 30대에서 40% 내외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60대에서 10% 후반이 됨.

◎ 응답자의 학력 관련 변이 및 변화

- ❖ 모든 학력 집단에서 ‘초밥’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초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90% 이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대학교 졸업(재학) 이상에서 60% 중후반이 되는 반면, ‘스시’는 대학교 졸업(재학)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학력이 낮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중학교 졸업 이하에서 10% 이하가 됨.

[어휘] 문39 (‘ㄷ’자 모양 철사 침을 사용하여 서류를 철하는 도구를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비표준형인 ‘호치케스’와 ‘스템플러’를 표준형인 ‘호치키스’와 ‘스테이플러’보다 많이 사용하는데, ‘호치케스’와 ‘호치키스’는 높은 연령대가 낮은 연령대보다 많이 사용하고, ‘스템플러’와 ‘스테이플러’는 낮은 연령대가 높은 연령대보다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임.

[어휘] 문40 (드라마, 가요, 뉴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전자제품을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전체 응답에서는 ‘티브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20대와 30대에서는 ‘티브이’(40% 내외)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뒤를 이어 ‘티브이’(20% 후반)와 ‘텔레비전’(20% 중후반) 순으로 많이 사용되며 ‘테레비’(2~7%)는 매우 적게 사용되는 반면, 50대와 60대에서는 ‘티브이’(20% 중후반)와 ‘티브이’(20% 내외)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고 ‘테레비’(10% 중반~20% 후반)의 사용이 급증함.

- ❖ 2015년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양상이 확인되는데, 다만 모든 연령대에서 ‘티브이’의 사용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보다 뚜렷하게 적게 나타남.

◎ 응답자의 학력 관련 변이 및 변화

- ❖ 전체적으로는 응답자의 학력에 따라 일관성 있는 경향이 보이지 않는데, 다만 ‘텔레비’는 응답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연령 변인과 관련된 것일 수 있음.

[어휘] 문41 (문이나 자물쇠를 잠그고 여는 데 사용하는 물건을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전체 응답에서는 ‘열쇠’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는데, ‘열쇠’는 60대에서 60% 중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대에서 40% 미만이 되는 반면, ‘키’는 20대에서 60% 초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0대에서 30% 초반이 됨.

◎ 응답자의 학력 관련 변이 및 변화

- ❖ 전체 응답에서는 ‘열쇠’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응답자의 학력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는데, ‘열쇠’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80% 중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대학교 졸업(재학) 이상에서 40% 초중반이 되는 반면, ‘키’는 대학교 졸업(재학) 이상에서 50% 초중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학력이 낮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15% 미만이 됨.

[어휘] 문42 (물건을 원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모든 연령대에서 ‘세일(세일)’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세일(세일)’은 20대와 30대에서 60% 초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연령이 높을수록 조금씩 감소하여 50대와 60대에서 50% 초반이 되는 반면, ‘할인’은 50대와 60대에서 40% 내외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조금씩 감소하여 20대와 30대에서 30% 초반이 됨.

◎ 응답자의 학력 관련 변이 및 변화

- ❖ 모든 학력 집단에서 ‘세일(세일)’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응답자의 학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세일(세일)’은 대학교 졸업(재학) 이상에서 50% 후반에서 60% 후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학력이 낮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30% 중반이 되는 반면, ‘할인’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60% 중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학력이 높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대학교 졸업(재학) 이상에서 10% 후반에서 30% 초반이 됨.



[어휘] 문43 (보안을 위해 미리 설정하여 쓰는 개인 고유의 숫자와 문자열을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는데, ‘비번’은 20대와 30대에서 70% 초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급격하게 감소하여 60대에서 20% 중반이 되는 반면, ‘비밀번호’는 60대에서 70% 중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급격하게 감소하여 20대와 30대에서 20% 중반이 됨.
- ❖ 2015년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양상이 확인되는데, 다만 50대 이상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던 ‘비번’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50대와 60대에서도 20~30%에 이를 정도로 사용이 많이 증가함.

◎ 응답자의 학력 관련 변이 및 변화

- ❖ 응답자의 학력에 따라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는데, ‘비번’은 대학교 졸업(재학) 이상에서 60~70%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학력이 낮을수록 급격하게 감소하여 중학교 졸업 이하에서 20% 내외가 되는 반면, ‘비밀번호’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70% 초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급격하게 감소하여 대학교 졸업 이상에서 30% 전후가 됨.

[어휘] 문45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먹는 시원한 면 요리를 가리키는 말)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는데, ‘물냉’은 20대와 30대에서 60% 내외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급격하게 감소하여 60대에서 20% 중반이 되는 반면, ‘물냉면’은 60대에서 70% 초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급격하게 감소하여 20대와 30대에서 30% 후반이 됨.
- ❖ 2015년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양상이 확인되는데, 다만 연령이 낮을수록 사용이 증가하는 ‘물냉’과 달리 ‘물냉면’의 사용에서는 연령에 따른 일관성 있는 감소 또는 증가 경향이 나타나지 않음.

◎ 응답자의 학력 관련 변이 및 변화

- ❖ 응답자의 학력에 따라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는데, ‘물냉’은 대학교 졸업(재학) 이상에서 50% 내외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학력이 낮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중학교 졸업 이하에서 20% 중반이 되는 반면, ‘물냉면’은 중학교 졸업에서 70% 초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대학교 졸업 이상에서 40% 후반이 됨.



## 2) 문법

### [문법] 문1 (경어법 - 격식체와 비격식체 사용)

#### ◎ 응답자의 성별 관련 변이 및 변화

- ❖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인사할 때 하는 말은 남성과 여성 모두 ‘안녕하세요’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안녕하세요’는 여성(78.9%)이 남성(64.3%)보다 10% 이상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안녕하십니까’는 남성(33.1%)이 여성(17.3%)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이 사용함.
- ❖ 2015년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결과에서도 거의 유사한 양상이 확인됨.

####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안녕하세요’는 20대에서 70% 후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조금씩 감소하여 60대에서 60% 중반이 되는 반면, ‘안녕하십니까’는 60대에서 30% 초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조금씩 감소하여 20대에서 20% 미만이 됨.

### [문법] 문8 (다 먹어서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을 표현하는 보조동사)

####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모든 연령대에서 ‘먹어버리다’가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표준형 ‘먹어버리다’는 20대에서 거의 80%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조금씩 감소하여 60대에서 60% 중반이 되는 반면, ‘먹어버리다’의 비표준형들(먹어빠리다, 먹어빠다, 먹어부리다 등)은 60대에서 30% 중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조금씩 감소하여 20대에서 10% 초반이 됨.





### 3) 담화

#### [담화] 문1 (친구를 만났을 때 처음 인사로 하는 말)

##### ◎ 응답자의 성별 관련 변이 및 변화

- ❖ 친구를 만났을 때 처음 인사로 하는 말은 남성과 여성 모두 ‘안녕’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안녕’은 여성(67.9%)이 남성(56.6%)보다 10% 이상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아/야’는 남성(29.3%)이 여성(20.9%) 10% 가까이 더 많이 사용함.

#####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모든 연령대에서 ‘안녕’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하이’는 20대에서 20% 중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급격하게 감소하여 60대에서 5% 미만이 되는 반면, ‘○○아/야’는 60대에서 30% 중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감소하여 20대에서 10% 초반이 됨.

##### ◎ 응답자의 학력 관련 변이 및 변화

- ❖ 모든 학력 집단에서 ‘안녕’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하이’는 대학교 졸업(재학) 이상에서 10~20%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학력이 낮을수록 감소하여 중학교 졸업 이하에서 5% 미만이 되고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반면, ‘○○아/야’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20% 후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감소하여 대학교 졸업(재학)에서 20% 초반이 되고 대학원 재학 이상에서 4% 미만이 됨.

#### [담화] 문5 (주말 이사를 위해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식)

##### ◎ 응답자의 성별 관련 변이 및 변화

- ❖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약간의 경향적 차이가 보이는데, 남성은 ‘상대방 의사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수락 가능성에 대한 준비 질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직접 요청’은 남성(23.0%)이 여성(18.7%)보다 많이 사용하는 편임.
- ❖ 2015년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결과에서는 ‘직접 요청’은 남성(25.4%)이 여성(12.4%)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사용하고 ‘상대방 의사에 대한 질문’은 여성(37.6%)이 남성(23.8%)보다 뚜렷하게 많이 사용함.

#####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일관성 있는 경향이 보이지 않는데, 2015년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결과에서는 낮은 연령대(45세 이하)에서 ‘수락 가능성에 대한 준비 질문’이 50% 내외로 많이 사용되고 ‘상대방 의사에 대한 질문’은 30% 이하로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었으나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보이지 않고 두 가지 모두 30% 정도로 사용됨.

[답화] 문8 (칭찬에 대한 응답 표현)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서로 알고는 지내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이 칭찬할 때 응답하는 말은 모든 연령대에서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와 같은 ‘감사 유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는 20대에서 60% 중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조금씩 감소하여 50대와 60대에서 50% 초중반이 되는 반면, ‘별말씀을요’, ‘아니에요’, ‘뭘요’와 같은 ‘부정 유형’은 50대와 60대에서 40% 내외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조금씩 감소하여 20대에서 30% 미만이 됨.
- ❖ 2015년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양상이 확인되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감사 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 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답화] 문9 (감사에 대한 응답 표현)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나의 작은 배려에 대해 상대방이 감사하다고 말할 때 하는 말은 전체 응답에서는 ‘아니에요’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아니에요’는 20대에서 40% 후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0대와 60대에서 30% 내외가 되는 반면, ‘별말씀을요’는 50대와 60대에서 30% 초중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20대에서 20% 초반이 됨.
- ❖ 2015년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양상이 확인되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아니에요’를 더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별말씀(을요)’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4) 음운

##### [음운] 문4 ('못 잇는다'에서의 'ㄴ' 첨가)

######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못 잇는다'의 발음은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 2015년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결과에서는 40대 이상에서 'ㄴ' 첨가 현상이 매우 활발한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그 실현율이 점차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음운] 문5 ('인사말'에서의 사잇소리)

###### ◎ 응답자의 성별 관련 변이 및 변화

- ❖ '인사말'의 발음은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 2016년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결과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사잇소리가 첨가되는 비표준 발음이 80% 이상 압도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사잇소리가 첨가되지 않는 표준 발음은 10% 중반에 불과했으나,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정반대로 남성과 여성 모두 사잇소리가 첨가되지 않는 표준 발음이 50% 중후반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사잇소리가 첨가되는 비표준 발음은 40% 초중반이 됨.

######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약간의 경향적 차이가 보이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사잇소리가 첨가되지 않는 표준 발음이 조금씩 증가하는 편임.
- ❖ 2016년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결과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와 정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사잇소리가 첨가되지 않는 표준 발음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 응답자의 학력 관련 변이 및 변화

- ❖ 응답자의 학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사잇소리가 첨가되지 않는 표준 발음은 대학교 졸업(재학) 이상에서 60% 내외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학력이 낮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중학교 졸업 이하에서 40%대가 되는 반면, 사잇소리가 첨가되는 비표준 발음은 중학교 졸업 이하에서 50~60%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대학교 졸업(재학) 이상에서는 40% 내외가 됨.
- ❖ 2016년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결과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와 정반대로 학력이 높을수록 사잇소리가 첨가되는 비표준 발음을 더 많이 사용하고 학력이 낮을수록 사잇소리가 첨가되지 않는 표준 발음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음운] 문6 (‘장맛비’에서의 사잇소리)

### ◎ 응답자의 성별 관련 변이 및 변화

- ❖ ‘장맛비’의 발음은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 2016년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결과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 사잇소리가 첨가되는 표준 발음을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해당 조사 결과에서는 사잇소리가 첨가되는 표준 발음의 비율이 75~85%로 매우 압도적이었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60% 초반으로 감소함.

###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모든 연령대에서 사잇소리가 첨가되는 표준 발음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표준 발음은 60대에서 60% 후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조금씩 감소하여 20대에서 50% 후반이 되는 반면, 사잇소리가 첨가되지 않는 비표준 발음은 20대에서 40% 초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여 60대에서 겨우 30%가 됨.
- ❖ 2016년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결과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와 정반대로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사잇소리가 첨가되는 표준 발음을 더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사잇소리가 첨가되지 않는 비표준 발음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응답자의 학력 관련 변이 및 변화

- ❖ 응답자의 학력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사잇소리가 첨가되는 표준 발음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80% 중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대학원 재학 이상에서 30% 초반이 되는 반면, 사잇소리가 첨가되지 않는 비표준 발음은 대학원 재학 이상에서 60% 후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학력이 낮을수록 감소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15% 미만이 됨.
- ❖ 2016년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결과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와 정반대로 응답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잇소리가 첨가되는 표준 발음을 더 많이 사용하고 학력이 낮을수록 사잇소리가 첨가되지 않는 비표준 발음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음운] 문9 (‘부엌에’에서의 어간 말음 재구조화)

### ◎ 응답자의 성별 관련 변이 및 변화

- ❖ ‘부어께’의 발음은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 2016년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결과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비표준 발음 [부어께]를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표준 발음 [부어께]는 남성과 여성 모두 10% 미만이었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정반대로 남성과 여성 모두 표준 발음 [부어께]를 60% 초반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비표준 발음 [부어께]는 30% 중반으로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음운] 문10 ('베개'에서의 모음 재구조화)

###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베개'의 발음은 모든 연령대에서 표준 발음 [베개]가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베개]는 20대에서 70% 후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0대에서 50% 초반이 되는 반면, [벼개], [비개] 등의 비표준 발음은 60대에서 40% 후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대에서 20% 후반이 됨.
- ❖ 2016년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표준 발음을 더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비표준 발음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응답자의 학력 관련 변이 및 변화

- ❖ 모든 학력 집단에서 표준 발음 [베개]가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응답자의 학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베개]는 대학교 졸업(재학) 이상에서 70% 내외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학력이 낮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겨우 30%가 되는 반면, [벼개], [비개] 등의 비표준 발음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70% 가까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대학교 졸업(재학) 이상에서 30% 내외가 됨.

## [음운] 문14 ('원룸'에서의 자음동화)

### ◎ 응답자의 연령 관련 변이 및 변화

- ❖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비음화되는 [원눔]은 60대에서 80% 중반으로 가장 많이 실현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대에서 30% 중반이 되는 반면, 유음화되는 [월룸]은 20대에서 40% 중반으로 가장 많이 실현되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0대에서 10% 미만이 되며, 비음화나 유음화 등의 자음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원룸]도 20대에서 10% 후반으로 가장 많이 실현되고 연령이 높을수록 조금씩 감소하여 60대에서 7% 미만이 됨.
- ❖ 2016년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원눔]이 더 많이 실현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유음화되는 [월룸]이나 [원룸]이 더 많이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남.

### ◎ 응답자의 학력 관련 변이 및 변화

- ❖ 응답자의 학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원눔]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100%, 중학교 졸업에서 80% 중반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실현되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대학교 졸업(재학) 이상에서 60% 내외가 되는 반면, [월룸]과 [원룸]은 대학교 졸업(재학) 이상에서 각각 20%대와 10%대로 실현되다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모두 전혀 실현되지 않음.

## Ⅱ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1. 시사점

#### 1) 표준형의 확산

- ❖ 기존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표준어화가 상당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응답자의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지역어형의 사용이 감소하고 표준어의 사용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예) ‘쌀을 사다’, ‘흰자’, ‘귀지’, ‘부추’, 자음군단순화 등

- ❖ 이번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표준형의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결과에서 평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표준어라는 응답 비율이 절반을 넘고 표준어를 잘 사용하거나 어느 정도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하면, 표준어의 확산은 향후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2) 사회적 변인의 영향력 증가

- ❖ 지역적 변인에 의한 언어 변이(지역 방언)는 표준형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사회적 변인에 의한 언어 변이(사회 방언)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임.
- ❖ 사회적 변인 중 응답자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차이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대학 진학률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은 경향을 반영하여 낮은 연령 응답자와 고학력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응답 경향을 보임.

예) 부모에 대한 호칭, 배우자에 대한 지칭, 외래어, 줄임말, 인사 표현, 사잇소리, 자음동화 등

#### 3) 익숙해진 외래어의 정착

- ❖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어 익숙해진 외래어는 기존의 고유어나 한자어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결과에서도 어려운 외래어/외국어는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였지만, 일상생활에서 외래어/외국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익숙해진 외래어/외국어는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는 응답 비율도 50% 내외로 높았음.

예) ‘와이프’ > ‘집사람’ > ‘아내’, ‘세일(세일)’ > ‘할인’ 등



- ❖ 일부 외래어는 전체 응답에서는 고유어나 한자어보다 적게 사용되지만, 20~30대 젊은 층에서는 고유어나 한자어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향후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예) ‘초밥’ > ‘스시’, ‘벨’ > ‘세트’ 등
- ❖ 일부 외래어는 완전히 정착되었다 하더라도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두음자 약어의 사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일본식 외래어의 사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예) ‘텔레비전’/‘티비’/‘티브이’/‘테레비’

#### 4) 줄임말의 사용 양상

- ❖ 줄임말은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결과에서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했으나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지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예) ‘비번(비밀번호)’, ‘물냉(물냉면)’ 등

#### 5) 새로운 방식의 경어법 등장과 저항

- ❖ 최근 사람이 아닌 사물에 주체높임 선어말어미(‘-시-’)를 붙이는 방식(‘-(이)세요’)과 상대를 높이면서 명령문을 사용해야 할 상황에서 상대의 행동임에도 ‘-르게’를 붙이는 방식(‘-(으)실게요’)의 경어법이 등장하였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서 ‘-(이)세요’형의 사용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 ‘-(으)실게요’형은 ‘-(으)십시오’형과 비슷할 정도로 적지 않게 사용됨.  
예) ‘삼십만 원이세요’, ‘들어가실게요’
- ❖ ‘-(이)세요’형에 대해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15.8%가 자연스럽다고, 19.4%가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18.4%가 적절하다고, 18.7%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세요’형의 사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 새로운 방식의 경어법은 언론과 학교 등에서 문법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지적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정적 인식과 저항감이 이번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 6) 응답 표현의 세대 차이

- ❖ 타인의 칭찬에 대한 응답 표현으로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감사 유형’(‘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 유형’(‘별말씀을요’, ‘아니예요’ 등)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감사 유형’의 응답 표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7) ‘ㄴ-ㄹ’ 연쇄에서의 자음동화 양상의 변화

- ❖ ‘ㄴ-ㄹ’ 연쇄에서의 자음동화에서 새로운 양상이 확인되는데, 비음화로의 자음동화가 지배적이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비음화로의 자음동화(‘원늬’)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유음화로의 자음동화(‘월름’)와 자음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발음(‘원름’)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특히 자음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발음은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발음에서 벗어나는 것임.
- ❖ 2016년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비음화로의 자음동화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유음화로의 자음동화와 자음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발음이 상대적으로 많음.





## 2. 제언

### 1) 조사 목적의 단계적 설정

- ❖ 이번 조사는 크게 두 가지 목적 하에 수행되었는데, 그 하나는 세대, 성별, 지역, 계층 등 사회적 변인에 따른 국어 사용 양상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집단 간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어의 변화 방향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적절한 국어 정책을 수립하는 것임.
- ❖ 첫 번째 목적은 이번 조사의 결과를 통해서도 상당 부분 달성이 가능하지만, 두 번째 목적은 장기간에 걸친 주기적 조사의 결과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축적되어야 달성 가능함.
- ❖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유사 조사 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조사의 규모와 방식에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한계가 많음.
  - 2015년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는 응답자 표본 수가 300명으로 적어서 통계적 신뢰도가 다소 부족하고 조사 지역도 특정 대도시(서울)로 한정되어 있음
  - 2016년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는 응답자가 조사 대상 표현이 글자로 적힌 것을 읽는 발음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응답자가 특정 표현을 말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에 직접 응답하는 자연스러운 발음을 조사한 이번 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 <2021년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를 비롯한 기존의 지역어 조사들도 전형적인 지역어 화자에 대한 질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이번 조사와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매우 제한됨.
- ❖ 향후 5년간의 1단계 실태 조사에서는 첫 번째 목적의 달성에 초점을 두고, 그 이후부터의 2단계 실태 조사에서는 약 5년 주기로 첫 번째 목적과 함께 두 번째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목적 설정이 필요함.

### 2) 응답자 표본 설계의 재검토

- ❖ 이번 조사의 표본 배분은 기본적으로 각 시도별 인구수 기준에 따라 비례 배분하였는데, 2,000명이라는 제한된 응답자 표본 수에서 지역적 변인과 사회적 변인을 모두 고려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임.
- ❖ 다만 이러한 응답자 표본의 규모와 배분에 의하면, 수도권과 경상권을 제외한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제주 등 지역의 응답자 표본 수가 상당히 적은데, 강원권과 제주의 표본 수로는 타 권역과의 통계적 차이를 거론하기 어려우며, 충청권과 전라권의 표본 수도 해당 권역 내 사회적 변인에 의한 통계적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임.
- ❖ 향후 5년간의 1단계 실태 조사에서 현재 표본 수가 적은 권역 내 모든 지역을 돌아가며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여 해당 권역의 응답자 표본 수를 축적하거나 다음 조사부터 전체 응답자 표본 수를 5,000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3) 조사 항목 선정 기준의 보완 및 재고

- ❖ 어휘 항목과 관련하여 이번 조사와 <2021년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 결과에서 지역마다 어휘들의 표준어화 속도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흰자위/흰자/흰창’의 경우 전라권/경상권에서만 지역어형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추’의 경우 충청권/경상권/전라권/제주권에서 지역어형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 따라서 이미 표준어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역은 다른 어휘들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역에 따라 어휘 조사 항목을 일부 다르게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 음운 항목은 조사 및 분석 과정에 전문적인 식별 능력이 요구되거나 녹취를 통한 확인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 항목의 선정에 많은 제약이 있음.
- ❖ 언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 조사자가 수행하고 대규모 양적 접근을 취하는 실태 조사에서는 음운 항목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함.

### 4) 조사 항목별 질문 상황의 구체화

- ❖ 이번 조사 항목 중에는 질문 상황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나 선택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항들이 존재함. 예를 들어, 어휘 항목의 [문7](물건을 사러 상점에 갔는데 상점 주인이 당신을 높여 어떻게 부르니까?)의 경우, 응답자가 생각한 상점의 유형과 주인의 연령대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문12](자녀를 둔 며느리가 시부모나 친정 부모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의 경우도 응답자가 선택한 상황이 시부모 앞인지, 친정 부모 앞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응답이 나올 수 있음.
- ❖ 질문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응답자의 이해나 선택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함.

### 5) 조사 항목별 질문 내용의 명료화

- ❖ 이번 조사 항목 중에는 응답자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질문과 타인이 하는 말에 대한 질문이 혼재되어 있음. 예를 들어, 문법 항목의 [문1](처음 만난 사람에게 인사할 때 하는 말)은 응답자 자신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묻는 것인 반면, [문2](백화점에서 손님이 삼십만 원짜리 물건값을 물어봤을 때 점원이 하는 말)은 응답자 자신이 아닌 백화점 점원이 보통 어떻게 말하는지를 묻는 것임. 응답자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질문과 타인이 하는 말에 대한 질문을 혼동할 경우에 응답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 응답자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질문과 타인이 하는 말에 대한 질문을 혼동하지 않도록 질문 내용을 명료화하거나 <2021년 세대별·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에서처럼 조사 항목마다 사용도와 인지도를 구분하여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6) 조사 결과 분석의 입체화

- ❖ 이번 조사 결과의 분석은 항목별 조사 결과 분석과 변인별 주요 변이 및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심층 분석이 지역적 변인 관련 주요 변이 및 변화와 사회적 변인 관련 주요 변이 및 변화로 분리되어 있어서 특정 지역 내 사회적 변인 관련 분석이나 동일한 사회적 변인 하에서의 지역적 변이 및 변화 분석이 어려움.
- ❖ 지역 변인을 기존의 지역어 조사에서처럼 군(구) 단위로 세분하고 지역별 응답자 표본 수를 통계적 의미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하여 지역 내 사회적 변인 관련 분석이 가능하게 하고 기존의 지역어 조사 결과와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사회적 변인 하에서 지역적 변이 및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7) 조사자 교육의 강화

- ❖ 본 조사는 조사자의 질문 방식이나 태도, 관련 지식에 대한 정보와 이해 등이 응답자의 응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응답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이번 조사에서도 특히 녹취가 이루어진 음운 항목은 조사자의 응답 기록을 전문가가 전수 검토한 결과, 상당수의 오류가 확인됨.
- ❖ 조사에 앞서 조사자에 대한 강화된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도 요구되는데, 특히 음운 항목 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응답 후보로 예상되는 발음에 대한 별도의 식별 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부록

# 설문지





## <조사원용 설문지>

ID				
----	--	--	--	--

# 2022년 국어 사용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 사용의 다양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국어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국어 사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수집된 자료는 시대 흐름에 적절한 국어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조사의 질문에는 어떠한 정답도 없으며, 귀하께서 또는 주변에서 평소 사용하시는 말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본 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사항은 오직 통계분석만을 위해 활용되며,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주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수행 기관	 케이스탯	담당 연구원: 이은빈 부장 실사 연구원: 김나연 차장 (E-mail nayeon.kim@kstat.co.kr) (☎ 02-6188-6054, fax 02-6188-6007)
----------	--	----------	--	---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나이	만 (       ) 세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 ◆ 면접원 현황 ◆

성명	
면접 일시 및 시간	2022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 검증원 현황 ◆

성명		검증 결과	
----	--	-------	--

## I. 어휘

◎ 어휘 조사에서는 **귀하께서 또는 주변에서 평소 사용하시는 단어**들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정답이 없으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익숙한 단어를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 귀하가 귀하를 낳아 준 여성(여자)을 어떻게 부릅니까?

- |      |       |                               |
|------|-------|-------------------------------|
| ① 엄마 | ② 어머니 | ③ 어매                          |
| ④ 엄니 | ⑤ 어멍  | ⑥ 기타 (                      ) |

문2. 귀하가 귀하를 낳아 준 남성(남자)을 어떻게 부릅니까?

- |       |       |                               |
|-------|-------|-------------------------------|
| ① 아빠  | ② 아버지 | ③ 아부지                         |
| ④ 아버님 | ⑤ 아방  | ⑥ 기타 (                      ) |

문3. 아내가 남편의 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 |       |                               |        |
|-------|-------------------------------|--------|
| ① 아버님 | ② 아버지                         | ③ 시아버지 |
| ④ 시아방 | ⑤ 기타 (                      ) |        |

문4. 남편이 아내의 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 |        |        |                               |
|--------|--------|-------------------------------|
| ① 아버님  | ② 장인어른 | ③ 장인어르신                       |
| ④ 재인어른 | ⑤ 가시아방 | ⑥ 기타 (                      ) |

문5. 아내가 남편의 어머니를 **직접**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 |       |                               |        |
|-------|-------------------------------|--------|
| ① 어머님 | ② 어머니                         | ③ 시어머니 |
| ④ 시어멍 | ⑤ 기타 (                      ) |        |

문6. 남편이 아내의 어머니를 **직접**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 |                               |       |        |
|-------------------------------|-------|--------|
| ① 어머님                         | ② 장모님 | ③ 가시어멍 |
| ④ 기타 (                      ) |       |        |

문7. 물건을 사러 상점에 갔는데 상점 주인이 당신을 높여 어떻게 부릅니까?

- |       |                               |       |
|-------|-------------------------------|-------|
| ① 사장님 | ② 선생님                         | ③ 고객님 |
| ④ 손님  | ⑤ 기타 (                      ) |       |

문8. 가게에서 젊어 보이는 여자 직원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 |            |                               |      |
|------------|-------------------------------|------|
| ① 언니       | ② 아가씨                         | ③ 이모 |
| ④ 여기요(저기요) | ⑤ 기타 (                      ) |      |



문9. 주차 시비가 생겨 잘못을 한 상대방이 동년배 남자인 경우, 그 사람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 보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부르면서 말을 건넵니까?

- |       |       |                               |
|-------|-------|-------------------------------|
| ① 여보  | ② 이봐요 | ③ 사장님                         |
| ④ 선생님 | ⑤ 당신  | ⑥ 기타 (                      ) |

문10. 내가 잘못해서 차량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동년배 남자인 상대 피해자를 뭐라고 부르면서 말을 건넵니까?

- |       |                               |       |
|-------|-------------------------------|-------|
| ① 사장님 | ② 선생님                         | ③ 아저씨 |
| ④ 저기요 | ⑤ 기타 (                      ) |       |

문11. 결혼한 남자가 자신의 부인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자신의 부인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 우리 [        ] 입니다.)

- |        |                               |      |
|--------|-------------------------------|------|
| ① 집사람  | ② 와이프                         | ③ 아내 |
| ④ ○○엄마 | ⑤ 기타 (                      ) |      |

문12. 아이가 있는(자녀를 둔) 며느리가 시부모나 친정 부모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가리켜 말할 때는 누구라고 합니까?

- |        |       |                               |
|--------|-------|-------------------------------|
| ① ○○아빠 | ② 아버지 | ③ 아범                          |
| ④ 오빠   | ⑤ ○○씨 | ⑥ 기타 (                      ) |

문13. 화장실이나 변소에서 똥이나 오줌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 |      |      |                               |
|------|------|-------------------------------|
| ① 눈다 | ② 싼다 | ③ 기타 (                      ) |
|------|------|-------------------------------|

문14. 쌀이 떨어지면 장에 가서 쌀을 어떻게 합니까?

- |      |                               |       |
|------|-------------------------------|-------|
| ① 팔다 | ② 사다                          | ③ 사오다 |
| ④ 꼬다 | ⑤ 기타 (                      ) |       |

문15. 나의 어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 |                               |              |             |
|-------------------------------|--------------|-------------|
| ① 내 어머니(엄마)                   | ② 우리 어머니(엄마) | ③ 제 어머니(엄마) |
| ④ 기타 (                      ) |              |             |

문16. 상대방의 어머니를 지칭할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충> 상대방의 어머니의 안부를 물어볼 때, '[        ] 건강은 괜찮으시지?'라고 합니까?

- |          |          |                               |
|----------|----------|-------------------------------|
| ① 네 어머니  | ② 너희 어머니 | ③ 네 어머님                       |
| ④ 너희 어머님 | ⑤ 어머님    | ⑥ 기타 (                      ) |

문17. 익히지 않은 고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름철에는 [        ]를 잘 익혀 먹어야 한다.'

- |       |       |                               |
|-------|-------|-------------------------------|
| ① 생고기 | ② 날고기 | ③ 기타 (                      ) |
|-------|-------|-------------------------------|

문18. [보기카드 활용] 눈 속에 있는 흰 부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       |       |                               |
|-------|-------|-------------------------------|
| ① 흰자  | ② 흰자위 | ③ 흰창                          |
| ④ 흰챙이 | ⑤ 흰알  | ⑥ 기타 (                      ) |

문19. 귓구멍 속에 낀 누런 색깔의 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 |      |      |                               |
|------|------|-------------------------------|
| ① 귀지 | ② 귓밥 | ③ 귀창                          |
| ④ 귀청 | ⑤ 귀뚨 | ⑥ 기타 (                      ) |

문20. [보기카드 활용] 이와 같이 앉은 자세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충> 한쪽 다리를 오그리고 다른 쪽 다리는 그 위에 포개어 엮고 앉은 자세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 |        |        |                               |
|--------|--------|-------------------------------|
| ① 가부좌  | ② 아빠다리 | ③ 책상다리                        |
| ④ 양반다리 | ⑤ 행감   | ⑥ 기타 (                      ) |

문21. 일정한 주대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거나 아무 일이나 끼어들어 실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 |        |          |                               |
|--------|----------|-------------------------------|
| ① 주책이다 | ② 주책없다   | ③ 주책맞다                        |
| ④ 주책떨다 | ⑤ 주책바가지다 | ⑥ 기타 (                      ) |

문22. 음식을 잘못 삼키어 숨구멍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갑자기 재채기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 |          |                               |          |
|----------|-------------------------------|----------|
| ① 사례 들다  | ② 사례 들리다                      | ③ 사례 걸리다 |
| ④ 사례 만나다 | ⑤ 기타 (                      ) |          |

문23. 하품할 때 두 팔을 쭉 펴면서 몸을 뒤로 젖히면서 기지개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 |      |                               |      |
|------|-------------------------------|------|
| ① 펴다 | ② 하다                          | ③ 쓰다 |
| ④ 켜다 | ⑤ 기타 (                      ) |      |

문24. 오늘 기분이 다른 때에 비해 특별히 더 좋을 때, 어떻게 좋다고 말합니까?

- |      |      |                               |
|------|------|-------------------------------|
| ① 너무 | ② 아주 | ③ 매우                          |
| ④ 정말 | ⑤ 엄청 | ⑥ 기타 (                      ) |

문25. 그제, 어제, 오늘까지 휴일이면 얼마 동안 휴일인 겁니까?

- |      |       |                               |
|------|-------|-------------------------------|
| ① 사흘 | ② 삼 일 | ③ 기타 (                      ) |
|------|-------|-------------------------------|

문26. 회초리 맞는 횟수가 삼 회라면 몇 대 맞았다고 합니까?

- |       |       |                               |
|-------|-------|-------------------------------|
| ① 석 대 | ② 세 대 | ③ 기타 (                      ) |
|-------|-------|-------------------------------|

문27. 손가락과 젓가락을 합쳐서 셀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 수저 한 [              ].

- |     |      |                               |
|-----|------|-------------------------------|
| ① 벌 | ② 세트 | ③ 기타 (                      ) |
|-----|------|-------------------------------|



문36. [보기카드 활용]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충〉 여닫게 되어 있는 물건을 잠그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 ① 자물쇠                      ② 자물통                      ③ 쇠통  
④ 통쇠                        ⑤ 열쇠통                      ⑥ 기타 (                      )

문37. 부엌 천장이나 벽이 연기에 까맣게 된 것을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 ① 그을렸다                      ② 꼬실었다                      ③ 꼬슬렸다  
④ 꼬실렸다                      ⑤ 기타 (                      )

문38. **[보기카드 활용]**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충> 일본 음식의 하나로 흰밥을 뭉친 뒤에 그 위에 낱생선의 살을 얹어 만든 음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① 스시                      ② 초밥                      ③ 기타 (                      )

문39. [보기카드 활용]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충> ‘ㄷ’자 모양으로 생긴 철사 침(針)을 사용하여 서류를 철하는 도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 ① 호치키스                      ② 호치케스                      ③ 호찌게  
④ 스테이플러                ⑤ 스템플러                    ⑥ 기타 (                      )

문40. [보기카드 활용]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드라마, 가요, 뉴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전자제품)

- ① 텔레비전                      ② 티브이                      ③ 티비  
④ 테레비                      ⑤ 기타 (                      )

문41. [보기카드 활용]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문이나 자물쇠를 잠그고 여는 데 사용하는 물건)

- ① 키                      ② 열쇠                      ③ 기타 (                      )

문42. 물건을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① 세일(세일)                      ② 할인                                  ③ 디스카운트  
④ 디씨                                ⑤ 기타 (    )

문43. 은행이나 컴퓨터 시스템 따위에 접속할 때, 보안을 위하여 미리 설정하여 쓰는 개인 고유의 숫자와 문자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패스워드’ 말고 뭐라고 합니까?

- ① 비번                      ② 비밀번호                      ③ 기타 (                      )

문44. 식료품, 일용 잡화, 의료품 따위의 가정용품을 갖추어 놓고 물건을 사들여서 싼값으로 팔며, 물건을 살 사람이 직접 물건을 고르고 물건값은 계산대에서 치르게 하는 대형 마트보다 작은 규모의 소매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슈’자가 들어가는 말로 뭐라고 합니까?

- ① 슈퍼                      ② 슈퍼마켓                      ③ 기타 (                      )

문45. ([보기카드]를 보여주며)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이걸 먹고 싶을 때 '뭐 주세요'라고 합니까?

- ① 물냉면                      ② 물냉                      ③ 기타 (                      )

## II. 문법

◎ 문법 조사에서는 귀하께서 또는 주변에서 평소 사용하시는 문법적 표현들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역시 정답이 없으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익숙한 표현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인사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 ① 안녕하세요                      ② 안녕하십니까                      ③ 안녕하셔요  
④ 기타 ( )

문2. 백화점에서 손님이 점원에게 물건값을 물어봤을 때 값이 삼십만 원이면 점원은 보통 어떻게 대답합니까?

- ① 삼십만 원입니다.                  ② 삼십만 원이요                  ③ 삼십만 원이에요  
④ 삼십만 원이세요                  ⑤ 기타 ( )

문3. 병원 대기실에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진료실로 들어가라고 할 때 보통 어떻게 말하니까?

**‘진료실로 들어’** 다음에 뭐라고 하죠?

- ① 들어가세요                  ② 들어가십시오                  ③ 들어가실게요  
④ 기타 (                                  )

문4.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를 한 친구만이 도와주었을 때, 그 친구에게 하는 말로

'그래도 날 생각해주는 사람은 너'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 ① 너밖에 없다                  ② 너백에 없다                  ③ 너백이 없다  
④ 너뻘에 없다                  ⑤ 너뿐이 없다                  ⑥ 너뿐이다  
⑦ 기타 (                                  )

문5. 길을 가다가 잘 아는 초등학생을 만났을 때, 그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인지 궁금하면 어떻게 묻습니까?

- ① 학교 가니?                      ② 학교 가냐?                      ③ 학교 가냐?  
④ 학교 가?                      ⑤ 기타 (                      )

문6. 아주 바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자고 할 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하려면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은’ 다음에 뭐라고 하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합니까?

- ① 바쁘니                      ② 바쁘니까                      ③ 기타 (                      )

문7. 방이 깨끗한지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려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요. 방이 별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 ① 안 깨끗해요                      ② 깨끗하지 않아요                      ③ 깨끗 안 해요  
④ 기타 ( )

문8. 나중에 먹으려고 남겨 놓은 간식을 다른 가족들이 다 먹어서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때,

'가족들이 간식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어'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 ① 먹어버리다                      ② 먹어빠리다                      ③ 먹어빼다  
④ 먹어부리다                      ⑤ 먹어뿌리다                      ⑥ 기타 (                      )



문7. 친한 동료나 친구가 "내일 우리 일 좀 도와줘."하고 부탁하면 도와주겠다고 승낙할 때 '알다'라는 말을 사용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어. 그래.'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 ① 알았어                      ② 알겠어                      ③ 기타 (                      )

문8. 서로 알고는 지내지만 친하지는 않은 사람이 “성격이 참 좋으시네요.”라고 칭찬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 이 문항은 표현내용에만 유의하고 ‘해요체’/‘하십시오체’와 같은 경어법 차이는 상관하지 않는다.)

- ①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② 아니에요      ③ 별말씀을요  
④ 그래요?      ⑤ 뭘요      ⑥ 기타 (                  )

문9. 나의 작은 배려에 대해 상대방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 이 문항은 표현내용에만 유의하고 '해요체'/'하십시오체'와 같은 경어법 차이는 상관하지 않는다.)

- ① 아니에요                      ② 천만이에요                      ③ 뭘요  
④ 별말씀을요                      ⑤ 제 기쁨입니다  
⑥ 기타 (                                  )

문10.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약속 시간에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한 태도를 보이며

**“늦게 와서 미안해요.”**라고 말하면 괜찮다는 태도로 어떻게 말합니까?

(\* 이 문항은 표현내용에만 유의하고 '해요체'/'하십시오체'와 같은 경어법 차이는 상관하지 않는다.)

- ① 아니예요                      ② 뭘요                      ③ 별말씀을요  
④ 괜찮아요                      ⑤ 알겠어요                      ⑥ 기타 (                      )

문11. 아버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한 말을 할아버지한테 전하려면 할아버지께 어떻게 말합니까?

(\* 이 문항은 아버지를 높이는 '께서'와 '-시-'를 사용하는지에 주목한다.)

- ① 높임 표현 사용 안 함  
(예: 아버지가 귀국한다고 했어요.)

② 높임 표현 1군데 사용  
(예: 아버지가 귀국한다고 하셨습니다.)

③ 높임 표현 2군데 사용  
(예: 아버지께서 귀국한다고 하셨습니다.)

④ 높임 표현 3군데 사용  
(예: 아버지께서 귀국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문12. 가게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보이지 않아 주인을 부를 때, '저기요'와 '여기요'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 ① 저기요                      ② 여기요                      ③ 기타 (                      )

문13. 친하지 않고 좀 대하기 어려운 선배(또는 나이 많은 이)가 금요일에 시간이 있냐고 묻는데,

그날 시간이 없으면 뭐라고 대답하니까?

(\* 어렵다/안 된다/없다 등 다양한 내용의 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어려워요/안 돼요/없어요 등과 같이 확정적으로 응답하는지, 어려울 것 같아요/안 될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등과 같이 비확정적으로 응답하는지에만 주목하여 기록한다.)

- ① 확정적 표현  
(예: 그날 시간이 어려워요/안 돼요/없어요)
- ② 비확정적 표현  
(예: 그날 시간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없을 것 같아요)
- ③ 기타 ( )





문9. [보기카드 활용] 고양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문장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부엌’에 ‘에’를 붙여서 어떻게 발음하는지에 주목한다. 단답형으로 말할 경우, 문장으로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한다.)

- ① 부어케                      ② 부어게                      ③ 기타 (                      )

문10. [보기카드 활용]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충〉 잠잘 때 머리를 받치는 물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① 베개    ② 버개
- ③ 비개    ④ 기타 ( )

문11. (행동을 보이며) 주먹을 쥐었다가 뭐 한다고 합니까?

- ① 편다    ② 핀다  
③ 펜다    ④ 기타 (    )

문12. 친구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늘 건강하기를 뭘뭘.”라고 말할 때, ‘뭘뭘’은 두 글자로 어떻게 말합니까? .

- ① 바라                      ② 바래                      ③ 기타 (                      )

문13. 아이를 데리고 사람 많은 곳에 갈 때, “내 손을 꼭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 ① 자바라                      ② 자버라                      ③ 기타 (                      )

◎ 아래의 질문에 대해서는 귀하의 발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녹음하고자 합니다.

녹음에 대해 허락을 부탁드리고, 녹음된 발음은 절대로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역시 발음의 정확성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며,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발음과 속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4. [보기카드 활용] 방 하나에 침실, 거실, 부엌 등이 다 있는 집을 뭐라고 합니까?

(\* 이 문항은 녹취를 위한 것이지만, '월룸', '원눔', '원룸' 등 중에 조사원이 들리는 대로 기록할 수 있다.)

$$\left( \begin{array}{c} \text{ } \end{array} \right)$$

## V. 응답자 특성

◎ 마지막으로 통계 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DQ1. 귀댁의 가구원은 총 몇 명입니까? ( )명

DQ2. 귀댁의 가구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① 1세대 가구(부부, 부부+형제자매, 가구주+형제자매 등)
- ② 2세대 가구(부부+자녀, 부부+부모 등)
- ③ 3세대 가구(부부+자녀+부모, 부부+자녀+손자녀 등)
- ④ 4세대 이상 가구(부부+자녀+손자녀+부모, 부부+자녀+부모+조부모 등)
- ⑤ 1인 가구
- ⑥ 비친족 가구(혈연이 아닌 직장 동료, 룸 셰어 등을 통해 구성된 가구)
- ⑦ 기타( )

DQ3. 실례지만,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중퇴한 경우에는 최종 졸업한 학력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재학)
- ④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재학)    ⑤ 대학원 재학 이상

DQ4. 실례지만,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 노무 종사자
- ⑩ 기타( )

◆ 응답자 인적 사항 ◆			
성명		전화번호	( ) - ( ) - ( )

※ 응답자 인적 사항은 본 조사에 실제 참여해 주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는 조사 완료 후 폐기되며,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 바쁘신 중에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2022년 국어 사용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 사용의 다양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국어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국어 사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수집된 자료는 시대 흐름에 적절한 국어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조사의 질문에는 어떠한 정답도 없으며, 귀하께서 또는 주변에서 평소 사용하시는 말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본 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사항은 오직 통계분석만을 위해 활용되며,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주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수행 기관	 케이스탯	담당 연구원: 이은빈 부장 실사 연구원: 김나연 차장 (E-mail nayeon.kim@kstat.co.kr) (☎ 02-6188-6054, fax 02-6188-6007)
----------	---	----------	---	---

### I. 어휘

◎ 어휘 조사에서는 귀하께서 또는 주변에서 평소 사용하시는 단어들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정답이 없으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익숙한 단어를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 귀하가 귀하를 낳아 준 여성(여자)을 어떻게 부릅니까?

문2. 귀하가 귀하를 낳아 준 남성(남자)을 어떻게 부릅니까?

문3. 아내가 남편의 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문4. 남편이 아내의 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문5. 아내가 남편의 어머니를 직접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문6. 남편이 아내의 어머니를 직접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문7. 물건을 사러 상점에 갔는데 상점 주인이 당신을 높여 어떻게 부릅니까?

문8. 가게에서 젊어 보이는 여자 직원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문9. 주차 시비가 생겨 잘못을 한 상대방이 동년배 남자인 경우, 그 사람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 보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부르면서 말을 건넵니까?

문10. 내가 잘못해서 차량 접촉 사고를 났습니다. 동년배 남자인 상대 피해자를 뭐라고 부르면서 말을 건넵니까?

문11. 결혼한 남자가 자신의 부인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자신의 부인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 우리 [     ] 입니다.)

문12. 아이가 있는(자녀를 둔) 며느리가 시부모나 친정 부모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가리켜 말할 때는 누구라고 합니까?

문13. 화장실이나 변소에서 똥이나 오줌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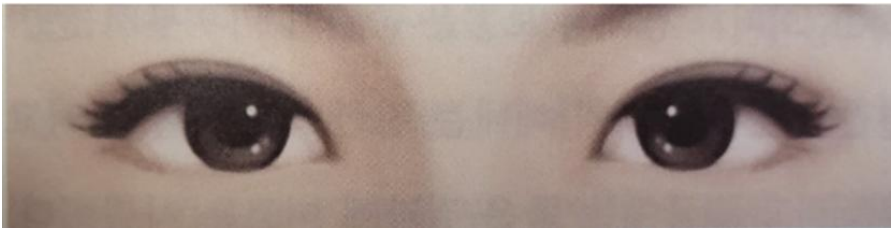
문14. 쌀이 떨어지면 장에 가서 쌀을 어떻게 합니까?

문15. 나의 어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문16. 상대방의 어머니를 지칭할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충] 상대방의 어머니의 안부를 물어볼 때, [     ] 건강은 괜찮으시지?라고 합니까?

문17. 익히지 않은 고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름철에는 [     ]를 잘 익혀 먹어야 한다.’

문18. [아래 그림 활용] 눈 속에 있는 흰 부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19. 귓구멍 속에 낀 누런 색깔의 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20. [아래 그림 활용] 이와 같이 앉은 자세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충> 한쪽 다리를 오그리고 다른 쪽 다리는 그 위에 포개어 엮고 앉은 자세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21. 일정한 잤대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거나 아무 일이나 끼어들어 실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22. 음식을 잘못 삼키어 숨구멍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갑자기 재채기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문23. 하품할 때 두 팔을 쭉 펴면서 몸을 뒤로 젖히면서 기지개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문24. 오늘 기분이 다른 때에 비해 특별히 더 좋을 때, 어떻게 좋다고 말합니까?

문25. 그제, 어제, 오늘까지 휴일이면 얼마 동안 휴일인 겁니까?

문26. 회초리 맞는 횟수가 삼 회라면 몇 대 맞았다고 합니까?

문27. 손가락과 젓가락을 합쳐서 셀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 수저 한 [        ].

문28. 볼펜을 셀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 볼펜 한 [        ].

문29. 여기(귀밑)에서 턱까지 난 수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30. [아래 그림 활용] 이 동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충> 냇물에 살고, 나사 모양의 딱딱한 껍질은 검은 갈색이나 누런 갈색인데 흰 얼룩무늬가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31. [아래 그림 활용]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충> 닭이나 꿩 따위의 머리에 세로로 붙은 톱니 모양의 붉은 살 조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32. [아래 그림 활용] 이 채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충> 가는 파같이 생기고 앞은 좀 납작하며, 파나 마늘 대신 양념으로 쓰거나  
오이소박이에 넣기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33. [아래 그림 활용] 이 작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충> 논에다 모를 심어서 키운 식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34. [아래 그림 활용]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청을 엮어 말린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35. 제사상에 올려놓는 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36. [아래 그림 활용]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충> 여닫게 되어 있는 물건을 잠그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37. 부엌 천장이나 벽이 연기에 까맣게 된 것을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문38. [아래 그림 활용]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충> 일본 음식의 하나로 흰밥을 뭉친 뒤에 그 위에 날생선의 살을 얹어 만든 음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39. [아래 그림 활용]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충> ‘ㄷ’자 모양으로 생긴 철사 침(針)을 사용하여 서류를 철하는 도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40. [아래 그림 활용]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드라마, 가요, 뉴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전자제품)



문41. [아래 그림 활용]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문이나 자물쇠를 잠그고 여는 데 사용하는 물건)



문42. 물건을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43. 은행이나 컴퓨터 시스템 따위에 접속할 때, 보안을 위하여 미리 설정하여 쓰는 개인 고유의 숫자와 문자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패스워드’ 말고 뭐라고 합니까?

문44. 식료품, 일용 잡화, 의약품 따위의 가정용품을 갖추어 놓고 물건을 사들여서 싼값으로 팔며, 물건을 살 사람이 직접 물건을 고르고 물건값은 계산대에서 치르게 하는 대형 마트보다 작은 규모의 소매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슈’자가 들어가는 말로 뭐라고 합니까?



문45. [아래 그림 활용]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이걸 먹고 싶을 때 '뭐 주세요'라고 합니까?



## II. 문법

- ◎ 문법 조사에서는 귀하께서 또는 주변에서 평소 사용하시는 문법적 표현들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역시 정답이 없으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익숙한 표현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1.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인사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 문2. 백화점에서 손님이 점원에게 물건값을 물어봤을 때 값이 삼십만 원이면 점원은 보통 어떻게 대답합니까?
- 문3. 병원 대기실에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진료실로 들어가라고 할 때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진료실로 들어' 다음에 뭐라고 하죠?
- 문4.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를 한 친구만이 도와주었을 때, 그 친구에게 하는 말로 '그래도 날 생각해주는 사람은 너'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 문5. 길을 가다가 잘 아는 초등학생을 만났을 때, 그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인지 궁금하면 어떻게 묻습니까?
- 문6. 아주 바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자고 할 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하려면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은' 다음에 뭐라고 하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합니까?
- 문7. 방이 깨끗한지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려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요. 방이 별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 문8. 나중에 먹으려고 남겨 놓은 간식을 다른 가족들이 다 먹어서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때, '가족들이 간식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어'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 Ⅲ. 담화

- ◎ 담화 조사에서는 귀하께서 또는 주변에서 평소 사용하시는 말하기 방식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역시 정답이 없으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익숙한 말하기 방식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1. 친구를 만났을 때 처음 인사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 문2. 일을 마친 뒤 먼저 가면서 회사 동료에게 인사말을 어떻게 합니까?
- 문3.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무게가 좀 나가는 물건을 배달해주었을 때, 물건을 받으면서 어떻게 인사합니까?
- 문4. 손윗사람과 전화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을 때 보통 인사말을 어떻게 합니까?
- 문5. 이번 주말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려면 어떻게 말합니까?
- 문6. 친구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다른 일이 있어서 거절하려면 어떻게 말합니까?
- 문7. 친한 동료나 친구가 "내일 우리 일 좀 도와줘."하고 부탁하면 도와주겠다고 승낙할 때 '알다'라는 말을 사용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어. 그래.'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 문8. 서로 알고는 지내지만 친하지는 않은 사람이 "성격이 참 좋으시네요."라고 칭찬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 문9. 나의 작은 배려에 대해 상대방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 문10.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약속 시간에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한 태도를 보이며 "늦게 와서 미안해요."라고 말하면 괜찮다는 태도로 어떻게 말합니까?
- 문11. 아버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한 말을 할아버지한테 전하려면 할아버지께 어떻게 말합니까?
- 문12. 가게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보이지 않아 주인을 부를 때, '저기요'와 '여기요'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 문13. 친하지 않고 좀 대하기 어려운 선배(또는 나이 많은 이)가 금요일에 시간이 있냐고 묻는데, 그날 시간이 없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 IV. 음운

- ◎ 음운 조사에서는 **귀하의 평소 발음**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발음의 정확성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발음과 속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1. 책을 '보고 있다'와 같은 뜻으로 "**책을 소리내어 어찌고 있다**"고 합니까?
- 문2. 길이가 다른 끈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길고 **다른 하나는 어떻다**고 합니까?
- 문3. 물가가 많이 올랐을 경우 물건의 뭐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까? '**가격**' 말고 한 글자 단어를 사용해 문장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문4. 첫사랑을(혹은 원수를) **영원히 못 어쩐다**고 합니까?
- 문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처럼 상대방에게 인사로 건네는 말을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 문6. '**장마철에 오는 비**'를 무슨 비라고 합니까?
- 문7. 혼자 신발을 신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신발을 신도록 할 때, 신발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 문8. 들에는 벼를 키우는 논이 많고, **산에는 콩이나 감자를 키우는 무엇이 많다**고 합니까?  
문장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문9. [아래 그림 활용] 고양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문장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문10. [아래 그림 활용]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충> 잠잘 때 머리를 받치는 물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문11. 주먹을 쥐었다가 뭐 한다고 합니까?
- 문12. 친구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늘 건강하기를 뭐뎌.”라고 말할 때, ‘뭐뎌’는 두 글자로 어떻게 말합니까?
- 문13. 아이를 데리고 사람 많은 곳에 갈 때, “내 손을 짹 어떻게 해라.” 그룹니까?.

◎ 아래의 질문에 대해서는 귀하의 발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녹음하고자 합니다.  
녹음에 대해 허락을 부탁드립니다, 녹음된 발음은 절대로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역시 발음의 정확성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며,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발음과 속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14. [아래 그림 활용] 방 하나에 침실, 거실, 부엌 등이 다 있는 집을 뭐라고 합니까?



## V. 응답자 특성

◎ 마지막으로 통계 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DQ1. 귀댁의 가구원은 총 몇 명입니까? ( )명

DQ2. 귀댁의 가구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① 1세대 가구(부부, 부부+형제자매, 가구주+형제자매 등)
- ② 2세대 가구(부부+자녀, 부부+부모 등)
- ③ 3세대 가구(부부+자녀+부모, 부부+자녀+손자녀 등)
- ④ 4세대 이상 가구(부부+자녀+손자녀+부모, 부부+자녀+부모+조부모 등)
- ⑤ 1인 가구
- ⑥ 비친족 가구(혈연이 아닌 직장 동료, 룸 셰어 등을 통해 구성된 가구)
- ⑦ 기타( )

DQ3. 실례지만,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중퇴한 경우에는 최종 졸업한 학력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재학)
- ④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재학)    ⑤ 대학원 재학 이상

DQ4. 실례지만,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 노무 종사자
- ⑩ 기타( )

◆ 응답자 인적 사항 ◆			
성명		전화번호	(       ) - (       ) - (       )

※ 응답자 인적 사항은 본 조사에 실제 참여해 주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는 조사 완료 후 폐기되며,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 바쁘신 중에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기획·연구>

담당: 김선철(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장)

이현주(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사업 참여자>

연구 책임자: 김창영((주)케이스탯리서치 전무)

공동 연구원: 조태린(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우봉(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성건(성신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김수영(한신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신유리(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보조 연구원: 주영환(연세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과정)

2022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발 행 인	국립국어원장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 쇄 일	2023년 3월 28일
발 행 일	2023년 3월 28일
인 쇄	네오블루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2022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